



# 용인의 도요지

지표조사 보고서

1999

용인시 · 용인문화원  
용인시사편찬위원회  
한신대학교박물관



# 용인의 도요지

지표조사 보고서

김재열, 이종구, 마순관  
이남규, 전승창, 현문필  
양정석, 노대석

1999

용인시 · 용인문화원  
용인시사편찬위원회  
한신대학교박물관

여

백

# 目 次

I. 序 言 .....	13
II. 龍仁市の 歴史的 背景 .....	16
III. 地域別 窯址의 調査 結果 .....	19
1. 龍仁 .....	19
2. 器興邑 .....	45
3. 水枝邑 .....	56
4. 駒城面 .....	65
5. 陽智面 .....	72
6. 二東面 .....	93
7. 遠三面 .....	161
8. 白岩面 .....	187
9. 南四面 .....	211
IV. 綜合考察 .....	223
V. 結 言 .....	231
■ 地 圖 .....	233
■ 附 錄 : 冶鐵址와 周邊의 陶窯址 .....	267

## 寫眞 目次

사진 1. 호동 1호 요지 .....	23
사진 2. 호동 2호 요지 .....	28
사진 3. 호동 3호 요지 .....	33
사진 4. 운학동 1호 요지 .....	36
사진 5. 운학동 2호 요지 .....	39
사진 6. 해곡동 1호 요지 .....	44
사진 7. 기흥읍 지곡리 1호 요지 .....	49
사진 8. 기흥읍 지곡리 2호 요지 .....	52
사진 9. 기흥읍 지곡리 3호 요지 .....	55
사진 10. 수지읍 죽전리 1호 요지 .....	59
사진 11. 수지읍 신봉리 1호 요지 .....	64
사진 12. 구성면 보정리 1호 요지 .....	70
사진 13. 양지면 남곡리 1호 요지 .....	75
사진 14. 양지면 대대리 1호 요지 .....	81
사진 15. 양지면 대대리 2호 요지 .....	87
사진 16. 양지면 대대리 3호 요지 .....	92
사진 17. 이동면 서리 1호 요지 .....	95
사진 18. 이동면 서리 2호 요지 .....	103
사진 19. 이동면 서리 3호 요지 .....	108
사진 20. 이동면 서리 4호 요지 .....	117
사진 21. 이동면 서리 5호 요지 .....	123
사진 22. 이동면 서리 6호 요지 .....	130

사진 23. 이동면 천리 1호 요지 .....	136
사진 24. 이동면 천리 2호 요지 .....	142
사진 25. 이동면 묵리 1호 요지 .....	145
사진 26. 이동면 묵리 2호 요지 .....	148
사진 27. 이동면 화산리 1호 요지 .....	154
사진 28. 이동면 화산리 2호 요지 .....	160
사진 29. 원삼면 문촌리 1호 요지 .....	165
사진 30. 원삼면 문촌리 2호 요지 .....	166
사진 31. 원삼면 학일리 1호 요지 .....	170
사진 32. 원삼면 학일리 2호 요지 .....	175
사진 33. 원삼면 학일리 3호 요지 .....	180
사진 34. 원삼면 학일리 4호 요지 .....	185
사진 35. 백암면 용천리 1호 요지 .....	189
사진 36. 백암면 용천리 2호 요지 .....	193
사진 37. 백암면 용천리 3호 요지 .....	191
사진 38. 백암면 석천리 1호 요지 .....	203
사진 39. 백암면 고안리 1호 요지 .....	210
사진 40. 남사면 원암리 1호 요지 .....	215
사진 41. 남사면 원암리 2호 요지 .....	221

## 圖面 目次

도면 1. 호동 1호 요지 .....	23
도면 2. 호동 2호 요지 .....	29
도면 3. 호동 3호 요지 .....	34
도면 4. 운학동 1호 요지 .....	37
도면 5. 운학동 2호 요지 .....	39
도면 6. 해곡동 1호 요지 .....	45
도면 7. 기흥읍 지곡리 1호 요지 .....	50
도면 8. 기흥읍 지곡리 2호 요지 .....	52
도면 9. 기흥읍 지곡리 3호 요지 .....	56
도면 10. 수지읍 죽전리 1호 요지 .....	60
도면 11. 수지읍 신봉리 1호 요지 .....	64
도면 12. 구성면 보정리 1호 요지 .....	71
도면 13. 양지면 남곡리 1호 요지 .....	76
도면 14. 양지면 대대리 1호 요지 .....	82
도면 15. 양지면 대대리 2호 요지 .....	88
도면 16. 양지면 대대리 3호 요지 .....	93
도면 17. 이동면 서리 1호 요지 .....	95
도면 18. 이동면 서리 2호 요지 .....	104
도면 19. 이동면 서리 3호 요지 .....	109
도면 20. 이동면 서리 4호 요지 .....	118
도면 21. 이동면 서리 5호 요지 .....	124
도면 22. 이동면 서리 6호 요지 .....	131

도면 23. 이동면 서리 6호 요지 .....	132
도면 24. 이동면 천리 1호 요지 .....	137
도면 25. 이동면 천리 2호 요지 .....	143
도면 26. 이동면 목리 1호 요지 .....	145
도면 27. 이동면 목리 2호 요지 .....	149
도면 28. 이동면 화산리 1호 요지 .....	155
도면 29. 이동면 화산리 2호 요지 .....	161
도면 30. 원삼면 문촌리 1호 요지 .....	166
도면 31. 원삼면 학일리 1호 요지 .....	171
도면 32. 원삼면 학일리 2호 요지 .....	176
도면 33. 원삼면 학일리 3호 요지 .....	180
도면 34. 원삼면 학일리 4호 요지 .....	186
도면 35. 백암면 용천리 1호 요지 .....	190
도면 36. 백암면 용천리 2호 요지 .....	193
도면 37. 백암면 용천리 3호 요지 .....	198
도면 38. 백암면 석천리 1호 요지 .....	204
도면 39. 백암면 고안리 1호 요지 .....	211
도면 40. 남사면 원암리 1호 요지 .....	216
도면 41. 남사면 원암리 2호 요지 .....	222



## 地圖 目次

지도 1. 용인시 도요지 위치도 .....	235
지도 2. 용인시古지도(大東輿地圖 1861刊) .....	237
지도 3. 호동 1호 요지 .....	238
지도 4. 호동 2·3호 요지 .....	239
지도 5. 운학동 1·2호 요지 .....	240
지도 6. 해곡동 1호 요지 .....	241
지도 7. 기흥읍 지곡리 1호 요지 .....	242
지도 8. 기흥읍 지곡리 2·3호 요지 .....	243
지도 9. 수지읍 죽전리 1호 요지 .....	244
지도 10. 수지읍 신봉리 1호 요지 .....	245
지도 11. 구성면 보정리 1호 요지 .....	246
지도 12. 양지면 남곡리 1호 요지 .....	247
지도 13. 양지면 대대리 1·2·3호 요지 .....	248
지도 14. 이동면 서리 1호 요지 .....	249
지도 15. 이동면 서리 2호 요지 .....	250
지도 16. 이동면 서리 3호 요지 .....	251
지도 17. 이동면 서리 4·5·6호 요지 .....	252
지도 18. 이동면 천리 1호 요지 .....	253
지도 19. 이동면 천리 2호 요지 .....	254
지도 20. 이동면 묵리 1호 요지 .....	255
지도 21. 이동면 묵리 2호 요지 .....	256
지도 22. 이동면 화산리 1호 요지 .....	257

지도 23. 이동면 화산리 2호 요지 .....	258
지도 24. 원삼면 문촌리 1·2호 요지 .....	259
지도 25. 원삼면 학일리 1호 요지 .....	260
지도 26. 원삼면 학일리 2·3·4호 요지 .....	261
지도 27. 백암면 용천리 1·2호 요지 .....	262
지도 28. 백암면 용천리 3호 요지 .....	263
지도 29. 백암면 석천리 1호 요지 .....	264
지도 30. 백암면 고안리 1호 요지 .....	265
지도 31. 남사면 원암리 1·2호 요지 .....	266

이

박

## I. 序 言

도자기는 과거 인간들의 실제 생활과 직접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예술사적 대상이 되는 문화재라는 점에서 그것들을 생산했던 도요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특히 경기도에서도 광주지역 다음으로 분포도가 높은 용인시의 도요지들은 나름대로의 지역적 특성을 갖는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즉 조선백자의 경우 광주지역에는 왕실과 중앙에 공급하였던 官窯址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비해 그 인근에 위치한 용인지역에는 在地의 수요를 충족시키거나 주변지역에 공급하였던 地方窯址들이 산재해 있고, 마찬가지로 지방요인 靑磁窯址도 수 개소 분포하고 있으며, 그 밖에 생활용 도기의 요지도 일부 확인되고 있다.

이처럼 도자기나 도기의 생산관계 유적이 다수 분포한 용인시에 있어 최대의 당면과제는 그러한 유적들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방안의 조속한 수립이라 하겠다. 특히 주변의 다른 시군에 비해 보다 많은 개발이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각종 유적들이 인멸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그러한 대책의 마련은 제반 市政 가운데에서도 보다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한 대책의 수립에 있어 우선 종합적인 정밀 지표조사가 선행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는데, 용인시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늦게나마 이번 조사 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에 시의 관계자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용인시의 도요지에 대한 조사는 일찌기 일제시대부터 있어 왔고, 1984년 호암미술관에 의해 서리의 고려시대 백자가마터가 발굴되면서 이 일대 도요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것은 사실이나, 용인시 전체에 대한 종합적 지표조사는 그 중요성에 비해 상당히 지체되어 왔음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지체의 주요 원인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각 지역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가 지극히 미흡한 때문이지만, 기존의 조사에서도 그러한 작업을 주도한 고고학 전공자들이 도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적게 보인 때문이기도 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이번 조사에서도 절감한 바이지만, 산사면의 수풀에 가리워진 도요지를 일반적 인 고고학 지표조사에서 찾아낸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그 발견 과정에서 在地人の 협력을 받아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 조사단은 도자사 전공자, 도자사와 관련된 용인시의 향토사학자 및 생산관계 고고학 전공자들로 구

성하여 상호 협력하에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가운데 특히 탐문 조사로 새로운 유적을 발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준 이종구선생과 마순관선생이 동참하여주지 않았다면 이번 조사의 성과와 의미는 반감되고 말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 두 분께 특별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조사방법은 일단 기존에 알려진 도요지에 대해 재점검하면서 보다 철저한 탐문조사를 통해 새로운 도요지를 찾는 데 주력하고, 각 유적에서는 가마벽편, 도지미, 공기돌 등의 생산과 관련된 유물들, 대표적 기종과 형태의 자기편 등을 체계적으로 채집하여 생산기술과 생산품의 성격을 상세히 규명하고자 노력하였다.

한편, 계절이 동절기이고, 많은 경우가 사면의 흘러내린 토양이나 낙엽으로 두텁게 덮혀 있었으며, 일부는 상당히 파괴된 상태여서 유구의 평면적 범위나 깊이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정도로 조사를 마칠 수 밖에 없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정밀한 시굴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여튼 이번의 도요지 지표조사에서는 예상보다 많은 총 42개소의 유적(도자기가마터 40, 옹기가마터 2)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성시의 한 유적을 파악하였고, 용인시에서는 최초로 2개소의 야철지를 발견하는 개가를 올리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성과가 대단히 컸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매주 주말을 이용한 총 12회의 현지조사가 조사원 이상의 조사단이 거의 대부분 함께 동행하면서 항상 진지하고 화기에애한 대화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참가자 모두가 용인시 도요지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조사에 열의를 보여준 결과라고 생각되며, 또한 보고서를 간행하는 힘든 작업과정에서도 각자 분담한 부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조사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책임조사원 : 김 재 열(호암미술관 부관장)

조사 위원 : 이 종 구(성남정보산업고등학교 교사, 향토사학자)

마 순 관(용인시 예총회장, 도예가)

이 남 규(한신대학교 국사학과 부교수)

조 사 원 : 전 승 창(호암미술관 선임연구원)

현 문 필(호암미술관 전임연구원)

양 정 석(용인시 시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

노 대 석(한신대학교박물관 연구원)

조사보조원 : 김 두 권(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최 철 희(한신대학교 국사학과 졸업생)

보 조 원 : 이 화 정(한신대학교 국사학과 졸업생)

허 정 욱(한신대학교 국사학과생)

김 혜 영(상동)

신 시 내(상동)

정 경 아(상동)

보고서의 작성에 있어 유구에 대하여는 이남규·전승창·노대석, 유물에 대하여는 전승창, 종합고찰은 김재열이 각각 담당하였으며, 도면과 사진의 편집은 전승창·현문필·노대석이 협력하면서 작업에 임하였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양의 채집 자료들을 겨울방학부터 근 5개월간에 걸쳐 김혜영, 신시내, 정경아 등 한신대학교 국사학과 학생들이 묵묵히 정리하여 주었으며, 유물 촬영은 이화정이 담당하였다.

이처럼 이 보고서가 완성되기까지 조사단 전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작업에 임해준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 II. 龍仁市の 歴史的 背景

삼국시대에 용인은 백제에 속하였다가 고구려의 남진정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고구려에 귀속되기도 하였다. 신라가 한강유역으로 영토확장을 하면서 용인지역은 眞興王 14年(553) 新州에 편입되었다. 이 당시에 용인은 滅烏·駒城이라고 불리었다.

통일신라시대가 되면서 신문왕 5년(685)에 새로이 지방행정조직을 정비하여 9주 5소경을 두게 되는데, 경기도 지역은 한산주에 편입되었으며, 한산주는 뒤에 한주로 개칭된다. 이때 용인은 한산주 내의 巨黍縣이라고 불리게 된다. 통일신라시대 용인은 불교가 융성하였던 지역으로 추정되는데, 이 시기와 관련된 불교유적들과 유물들이 여러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다.<sup>1)</sup>

나말여초가 되면서 신라는 혼란에 빠지게 되고 중앙의 통제력이 미약하게 되어 각지의 호족들이 독자적 세력을 형성하면서 할거하게 된다. 용인에서는 용인이씨의 시조 李吉卷(904~1008)이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가까운 竹山에서는 箕萱과 朴赤烏, 水原에서는 金乚와 최승규, 廣州에서는 王規가 각각 세력을 잡고 있었다. 이길권은 태조(877~943)의 고려 건국에 적극 협조하여 駒城伯三韓壁上功臣三重大匡崇祿大夫太師에 봉해지고 태조의 누이를 부인으로 맞이하였다. 이길권은 용인이씨의 시조이기는 하지만 다른 경기지역 출신 가문들처럼 문벌을 형성하여 지배세력의 중추로 성장하지는 못하였다.

고려 건국과정에서 협력한 호족들의 논공행상을 위해 지방제도가 정비되었다. 군현제로 정비되는 과정에서 지역에 대한 명칭의 변화도 보이는데, 이 당시의 용인은 용구현으로 명칭이 변화되어 불리기 시작한다.

고려는 13세기초에 몽고족의 침입을 받게 된다. 몽고에게 6차에 걸쳐 침입을 당하면서 전국은 격렬한 전쟁터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몽고군 침입로에 위치한 경기도 일대는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으면서도 몽고군에 대해 격렬한 항쟁을 펼쳐나간다. 용인지역도 몽고군에게 항전을 하였는데 몽고군의 2차 침입때는 廣州 日長山城(현재 南漢山城)에 이어 처인성(남사면 아곡리)에서 전투를 벌였다. 이 전투에서 몽고군의 최고 지휘관

1) 사찰로는 이동면 목리의 龍德寺, 외사면 박곡리 朴谷寺, 포곡면 가실리 白蓮庵이 있고 불상으로는 원삼면 목신리 신촌부락의 석조여래입상, 박곡사 석불입상, 이동면 천리 적동 저수지 입구의 석조여래입상, 기흥면 공세리 탑안부락 석조여래입상, 백련암 석조여래좌상, 원삼면 학일리 금동여래입상이 있다.

인 살레탑을 전사케 하여 이들을 철수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14세기 중엽 이후 고려는 내부적으로 정치질서가 문란해지고 사회경제적 모순이 심화되면서 여러 가지 말폐가 드러난다. 내부적인 어려움 속에서 왜구의 침략은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게 되었는데, 우왕 3년(1377)에는 철원으로 천도할 것이 논의될 정도였다. 왜구의 침입은 내륙지방에까지 피해를 주었는데, 그 중 서해 연안에 위치한 성읍들이 가장 막심하였다. 용인지역도 피해를 입었지만 우왕 4년에는 戶長 李富의 지휘아래 현민들이 합심하여 왜구를 격퇴시키기도 하였다.

조선 건국후 太祖 3年(1394)에 도역을 조정함에 따라 龍駒는 경기도에 귀속되었고, 處仁은 태조 6年(1397)에 현으로 승격되었다. 太宗 13年(1413)에 군현제가 정비되면서 두 현이 합쳐져 용인현으로 되었다. 용인은 초기에 縣監과 訓道가 파견되었으나 현으로 승격되면서 縣令이 파견되었다.

宣祖 25年(1592)부터 7년간에 걸쳐 일어난 임진왜란은 전국토를 전장터로 만들었고, 전쟁 직후에 일어난 용인 전투는 큰 변화를 가져왔다. 전라도 관찰사 李洸(1541~1607)과 충청도 관찰사 尹先覺(1543~1611), 경상도 관찰사 金暉(1537~1615)는 왜란의 소식을 접한 후 6만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북상도중 한양이 점령되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이에 내부적으로 혼란상황이 있었으나 전열을 재정비하고 북상하여 용인현 남쪽 10리 지점에 도달한다. 음력 5월 4일 백광언의 부대와 왜군 와끼자끼의 부대 사이에 벌어진 전투는 5월 6일까지 3일간이나 지속되었다. 이 전투에서 아군은 수적으로 월등히 우세하였으나 조련이 안된 병사와 지휘자들의 전술, 전략의 부재로 왜군들에게 무참하게 패배하고 만다. 평양의 행재소는 이 전투가 있는지 5일만인 5월11일에 평양을 버리고 의주로 떠나게 된다<sup>2)</sup>.

仁祖 14年(1636)에 일어난 병자호란 때는 강화도가 함락되고 삼전도에서 왕이 항복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이 전쟁에서 왜란 때처럼 크게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용인지역에서는 두 차례의 전투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호란이 일어나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포위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충청도 관찰사 鄭世規와 공주의 영장 崔震立(1568~1636)은 군대를 이끌고 북상하던 도중에 용인 험천에서 적을 만나 전투를 벌였으나, 최진립이 죽는 처참한 패배를 당하게 된다. 한편 광교산 근처에 있던 전라병사 金俊龍(?~1641)은 남한산성에 있던 청군을 교란시키고 여러 소규모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면서 적장 白羊高羅를 사살하기도 하였다.

학문으로 전래된 서학이 18세기 말이 되면서 신앙으로 바뀌어 나간다. 종교로서 성장

2) 한신大學校博物館, 1998, 『龍仁 水枝 百濟 住居址』, p.20.



한 천주교는 전파와 선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중 큰 영향을 미친이가 19세기 초엽에 활동한 金大建 신부(1822~1846)이다. 그는 페레올 주교에 의해 용인에 파견되었으며, 이곳을 중심으로 전교활동을 펴서 많은 영향을 미쳤다.

조선이 쇠락해지면서 외세의 침략을 받게 되는 과정에 있어 일제는 침략 야욕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한다. 일제의 침략과정에서 받게 된 수탈과 피해는 전국에서 의병운동을 일어나게 하였는데, 용인도 마찬가지였다. 1896년에 일어난 제1차 의병운동에서 용인은 경기도 의병의 연합부대인 利川首倡義所에 참여하였으며, 1907년에 일어난 제2차 의병운동 때는 林玉汝, 鄭周源, 李益三 등이 의병부대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일제는 조선을 합병한 후 식민지 수탈을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였다. 그 중의 하나가 1914년 3월에 실시한 지방 행정 단위 통폐합이다. 이 조치로 인해 전국은 97개 군으로 개편되었는데, 이때 용인도 이전의 용인현과 양지현, 죽산현의 일부를 병합하여 용인군으로 재편된다. 이 당시 용인군은 12개 면으로 구성되게 된다.

현대에 들어와서 용인은 수도권 일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수도권 인구의 증가로 인해 경기도 일대는 지역적·행정적 변화를 많이 겪게 되는데, 용인은 1985년 기흥면이 읍으로 승격되어 2개 읍, 9개 면을 가지고 있었고 1996년 3월 1일에는 시로 승격되었다. 이 때 수지면이 읍이 되면서 용인시는 2개 읍, 8개 면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주변의 용인 일대에서는 인구증가로 인한 지형적 변화가 심하게 진행되고 있다.

### Ⅲ. 地域別 窯址의 調査 結果

#### 1. 龍 仁

##### 1) 虎洞 1호 요지

- (1) 성 격 : 高麗初期 陶器窯址
- (2) 위 치 : 57번 지방도로 우측편 호동 길업마을 남동쪽에 큰길업골이라 불리는 계곡이 있다. 이곳에 연안 김씨의 묘표가 서있는데, 여기에서 계곡에 접해있는 소로를 따라 임야쪽으로 약 300 미터 정도 올라간 곳에 위치하며 이번으로는 산 95-1임일대에 해당한다.(사진1-1, 지도1·3)
- (3) 현 상 : 산 정상부로 올라가는 소로와 접한 구릉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마가 위치한 곳 뿐만 아니라 주변도 삼림이 울창하여 형질변경이 없어 보존상태는 양호하다. 유적의 범위는 폭이 30여 미터, 상하의 길이가 40여 미터에 달하며, 이 범위 안에 도기편들과 가마벽편들이 넓게 퍼져 있다. 도편은 산 아래면에서는 거의 확인되지 않으며, 산으로 올라가는 중간지점의 소로에 약간 노출되면서 이와 접한 구릉편에 넓게 산포되어 있다.(사진 1-2)
- (4) 유 물 : 다수의 陶器파편과 가마벽편이 수습되었다.
  - 가. 陶 器 : 廣口瓶과 항아리류가 주류를 이루며, 항아리의 안쪽에는 제작시 다양한 무늬가 있는 두들개로 두드린 흔적이 남아 있다.
    - 瓶 : 수습된 유물의 대부분이 구연부의 파편으로 몸체와 저부의 형태는 확인할 수 없다.
      - ①(사진1-3-⑦~⑧, 도면1-7~8) : 구연은 나팔모양으로 밖으로 벌어졌으며 가장자리가 도톰하다. 크기가 큰 것과 작은 것으로 구분되며, 모두 표면에는 장식은 없다.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을 사용하였으며, 적회색을 띤다. 표면에는 광택이 없으며, 받침은 알 수 없다.
      - ②(사진1-3-⑥, 도면1-6) : 구연이 몸체에 거의 직각으로 외반한 형태로, 한 점이 수습되었다. ①번과 마찬가지로 구연의 중앙보다는 가장자리가 더욱 도톰하게 만들어졌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적회색을 띤

고 있다. 표면에는 광택이 없다.

③(사진1-3-①~⑤, 도면1-1~5) : 구연이 직립하며 구연부의 아래쪽에 계단모양의 턱이 있는 전형적인 형태의 광구병이다. 수습된 파편은 구연부의 크기와 세부의 형태, 모서리에서 각이 쳐 꺾이는 정도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회흑색이다. 내외면 모두에 黑釉를 얇게 입혀놓은 듯 광택이 있다.

④(사진1-4) : 몸체의 형태를 구분할 수 없이 잘게 부서어진 瓶의 파편중에는 외면에 흑유를 얇게 입혀 놓은 듯한 파편이 다수 있다.

- 壺 : 다수의 파편이 수습되었지만, 구연과 몸체의 형태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예는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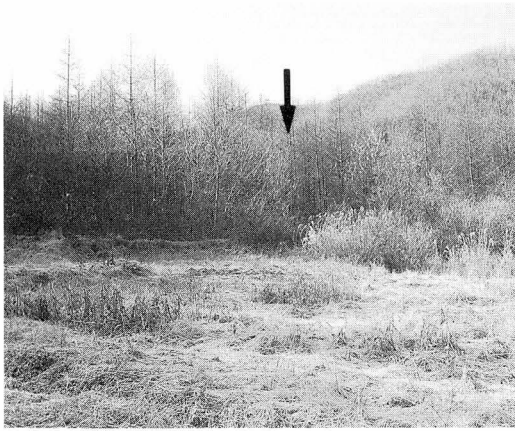
①(사진1-5-①~②·6-①~⑤, 도면1-9~15) : 구연은 모두가 외반하지만, 외반의 정도와 가장자리의 처리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몸체는 중앙에서 팽만하였다가 저부로 가면서 점차 폭이 좁아져 바닥에 이어지는 형태이고, 외면에는 장식이 있는 것도 있으며, 내면에는 대부분 물레자국이 남아 있다. 굽은 평저로, 바닥을 편평하게 다듬어 굽을 대신하였으며,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②(사진1-7) : 몸체의 전체적인 형태를 알 수 없는 호의 파편중에는 格子文, 斜格子文, 波狀線文, 도식화된 草文 등의 다양한 문양장식이 나타난다.

#### 나. 其他

- 가마벽 : 窯址의 주변에는 검게 그을린 가마벽편이 다수 흩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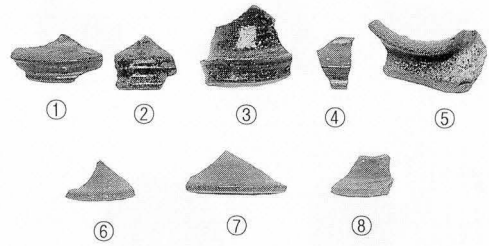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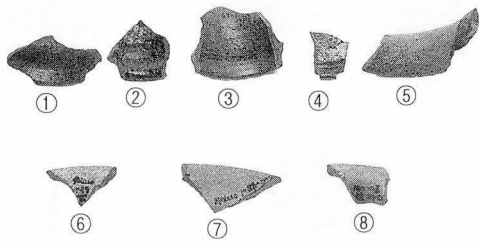
①(사진1-8) : 가마의 벽편으로 馬沙土質의 耐火材料로 만들어졌으며, 가마의 안쪽과 바깥쪽에 관계없이 대부분 회흑색이거나 고동색으로, 磁器가마의 벽편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색의 변화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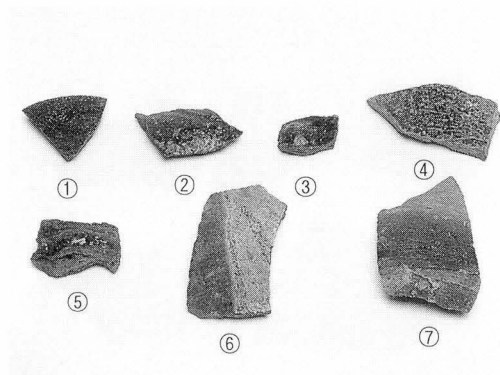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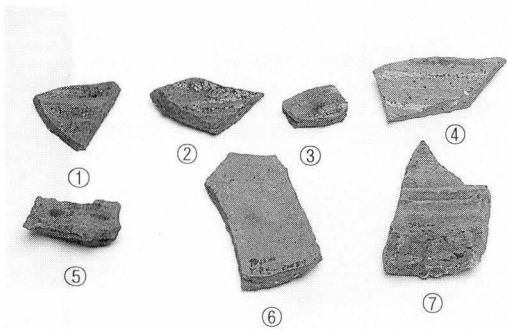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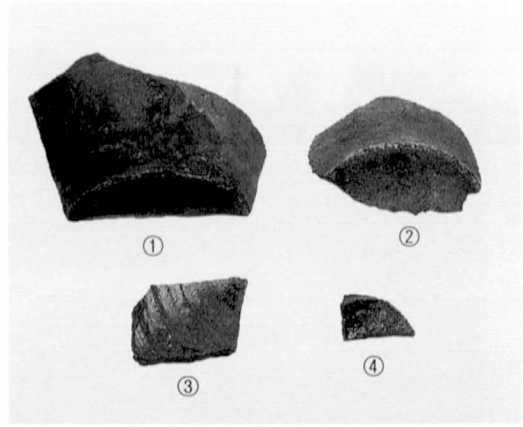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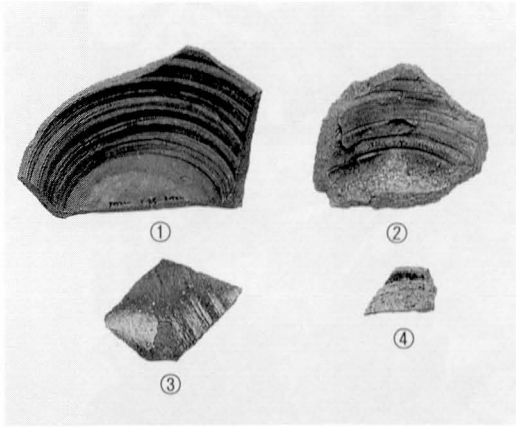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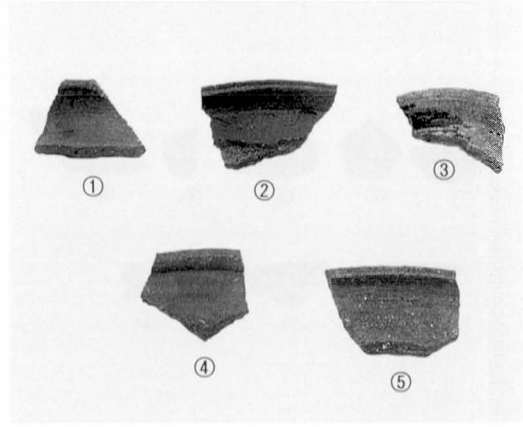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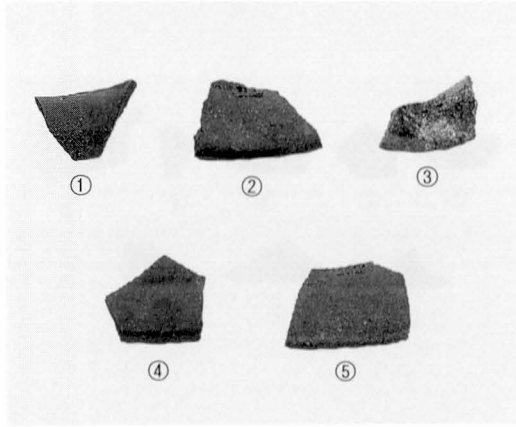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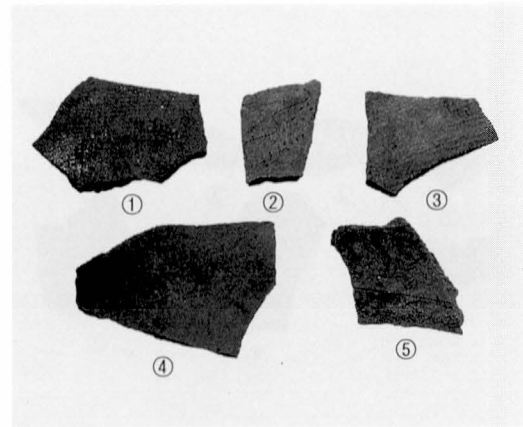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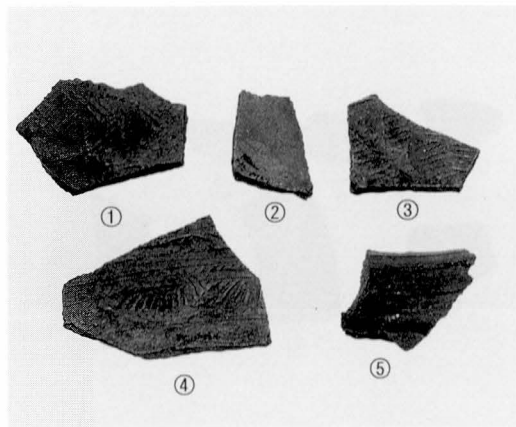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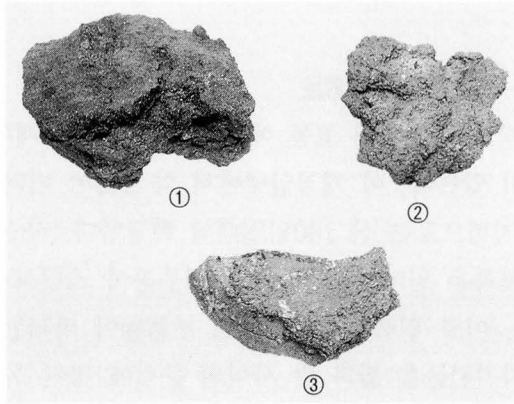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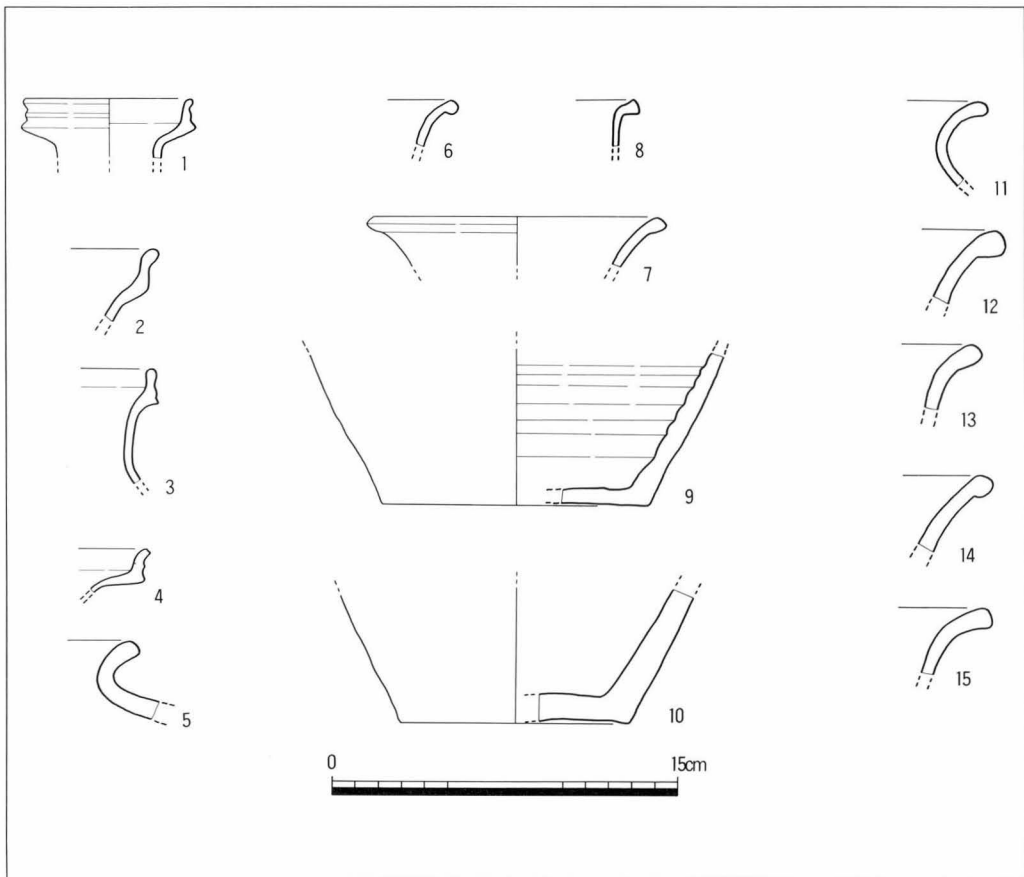


7



8

사진 1. 호동 1호 요지



도면 1. 호동 1호 요지

## 2) 虎洞 2호 요지

(1) 성 격 : 朝鮮 15~16世紀 白磁窯址

(2) 위 치 : 57번 지방도로 우측편 호동 예직마을 입구에서 서쪽으로 300m떨어진 곳에 계곡이 있는데, 이 계곡입구에서 약 200여 미터 정도 들어간 발에 위치한다. 지번으로는 산 100임일대에 해당한다.(사진2-1, 지도1·4)

(3) 현 상 : 유적의 윗쪽은 임야와 접해 있고 대부분이 계단식 밭으로 개간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로 인해 유적의 많은 부분들이 파괴된 것으로 보이며, 가마 벽편과 자기편들은 밭과 밭 사이의 둔덕에 많이 산포되어 있고 지표상에는 자기편들만이 약간 흩어진 상태로 발견되고 있다. 가마의 범위는 종으로 약 20 미터, 횡으로 약 20 미터 정도로 보인다.(사진2-2)

(4) 유 물 : 白磁와 窯道具가 수습되었다.

가. 白磁 : 대접과 접시, 잔이 주류를 이루며, 이외에도 전접시와 병 등이 수습되었다.

● 大 椀 : 다수의 파편이 수습되었으며, 형태와 크기에 따라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다.

①(사진2-3-③, 도면2-3) : 구연의 형태는 알 수 없으며, 몸체의 器壁이 사선을 그리다가 저부에서 곡면으로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에는 매우 넓은 원각이 있고 편평하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을 사용하였다. 굽은 대마디 모양으로 직립하며, 접지면의 폭이 고르지 못하다. 굽안바닥을 비교적 깊게 깎아내었으며, 굽과 굽주변에는 시유하지 않고 네 곳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담회백색의 유약을 씌웠다.

②(사진2-3-①·④, 도면2-1·5) : 구연의 형태는 알 수 없으며, 몸체의 기벽이 완만한 호를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에는 굽의 직경보다 조금 큰 원각이 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의 백토이다. 굽은 대마디 모양으로 다소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고르지 못하고 둔중하다. 굽안바닥을 비교적 얇고 오목하게 깎아내었으며, 굽과 굽주변에는 시유하지 않고 네 곳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담청백색이나 회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남아 있다.

③(사진2-3-②, 도면2-2) : 구연이 외반하고, 몸체의 기벽이 완만한 호를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②번의 대접과 유사하지만, 내저원각은 물론 전체적인 크기가 작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의 백토이다. 굽은 대마디 모양으로 높이가 비교적 낮고 깎음새가 거칠다. 굽안바닥을 얇고 오목하게 깎아내었으며, 굽과 굽주변에는 시유하지 않고 세 곳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담회백색의 유약을 씌웠다.

④(사진2-3-⑤, 도면2-4) : 구연이 살짝 외반하고, 몸체의 기벽이 완만한 호를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에는 원각이 없으며 부드러운 곡면을 이루고 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의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대마디 모양으로 접지면의 폭이 매우 넓으며,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오목하게 깎아내었으며, 굽과 굽주변에는 시유하지 않고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고 투명한 회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남아 있다.

● 楛匙 : 다량의 파편이 확인되었으며, 형태와 크기에 따라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①(사진2-4-③, 도면2-7) : 구연이 외반하고 몸체의 기벽이 완만한 곡면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에는 커다란 원각이 있다. 표면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이다. 굽은 대마디 모양으로 직립하며, 깎음새가 고르지 못하다. 굽안바닥을 얇게 깎아내었으며, 굽과 굽주변에는 시유하지 않고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회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②(사진2-4-②, 도면2-6) : ①번의 접시와 유사한 형태이지만, 내저원각이나 전체의 크기가 보다 작다. 표면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의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대마디 모양으로 내경하며, 깎음새가 고르지 못하다. 굽안바닥을 얇고 오목하게 깎아내었으며, 굽과 굽주변에는 시유하지 않고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백유를 씌웠으며,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③(사진2-4-①) : 구연에는 금속기와 같이 몸체에 직각으로 외반된 폭이 좁은 전이 있고, 기벽은 완만한 사선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매우 넓고 높이가 낮은 전접시이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고,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이다. 포개구이가 불량하여, 바닥에는 외반접시의 저부가 드러나 보인다. 광택이 있고 투명한 황갈색의 유를 얇게 씌웠



며, 윗면에는 잡티가 붙어 있다.

- 蓋 : 몇 점의 파편이 확인되었으며, 크기에서 약간씩의 차이가 있을 뿐 형태는 모두 동일하다.

①(사진2-5-①·③, 도면2-8~9) : 구연이 외반하고 몸체의 기벽이 사선을 그리다가 저부에서 부드러운 곡면으로 꺾이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편평한 안바닥 가장자리에는 원각이 있다. 표면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의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대마디 모양으로 내경하며, 깎음새가 거칠다. 굽안바닥을 얇게 깎아내었으며, 굽과 굽주변에는 시유하지 않고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회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윗면에는 번조시 생긴 잡물이 붙어 있다.

- 瓶 : 한 점의 파편이 수습되었다.

①(사진2-5-②, 도면2-10) : 구연과 몸체는 파손되어 알 수 없으며, 저부가 완만한 사선으로 굽에 이어지는 형태이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내면에는 물레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의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직경이 크며, 접지면의 폭이 고르고 비교적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얇고 오목하게 깎아내었으며, 안바닥까지 시유한 후,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담청백색의 유가 씌워졌다.

#### 나. 窯道具

- 개 떡 : 다수의 유물이 확인되었으며, 크기와 형태가 조금씩 다르다.

①(사진2-6-②~④) : 원반형으로 마사토질의 내화재료로 제작되었으며, 두께와 직경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윗면은 그릇을 놓을 수 있게 편평하게 다듬었으며, 태토비짐을 받쳤던 흔적이나 모래받침의 자국이 남아 있다.

#### 다. 其他

- 가마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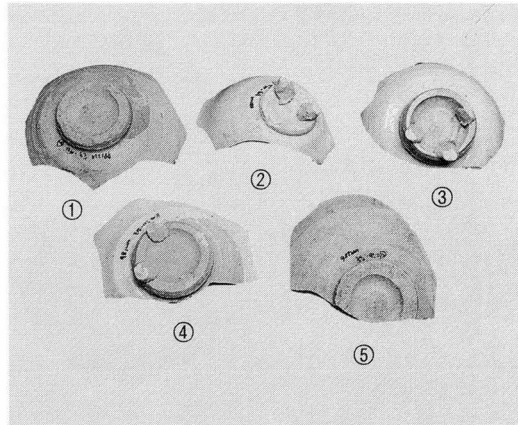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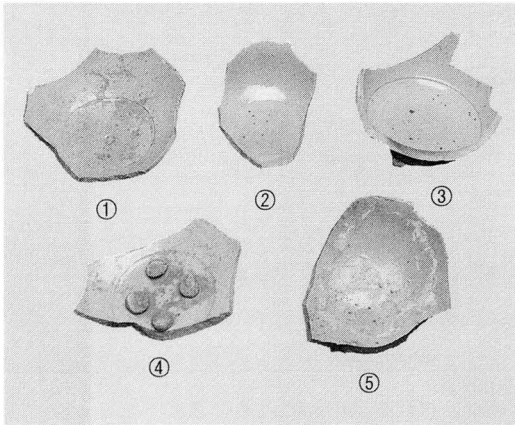
①(사진2-6-①) : 가마의 벽편으로 마사토질의 내화재료로 만들어졌으며, 가마의 안쪽에 해당하는 면에는 白土가 얇게 발려 있다. 벽의 외면으로 갈수록 적색으로 색이 변화되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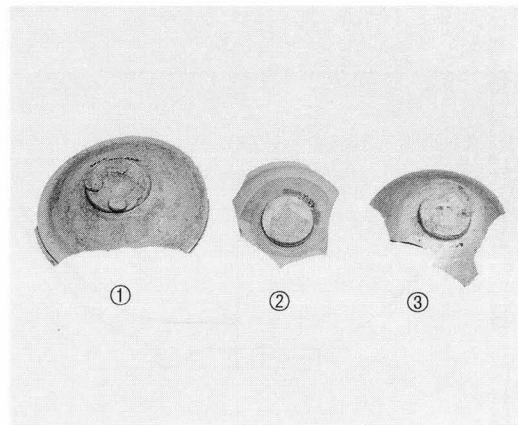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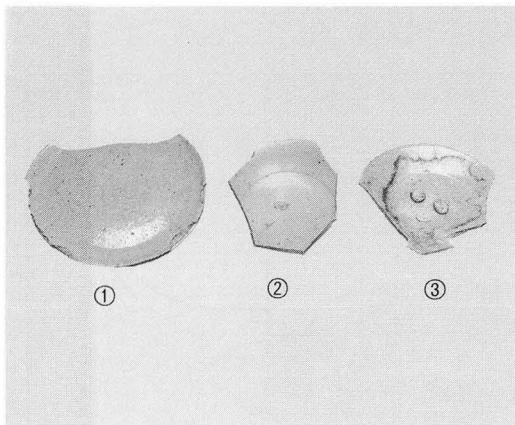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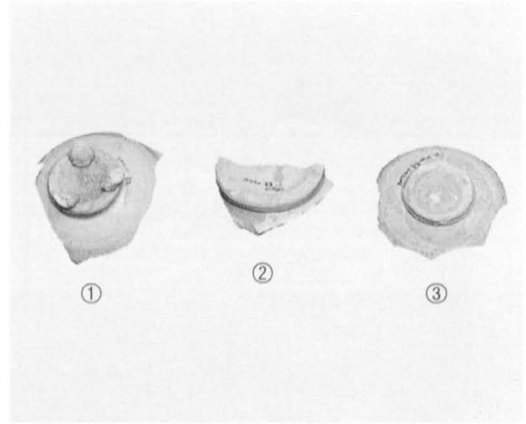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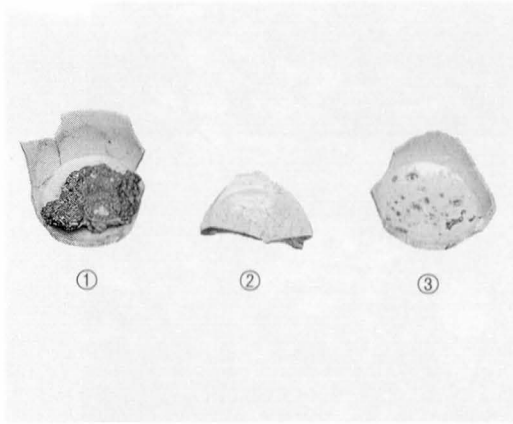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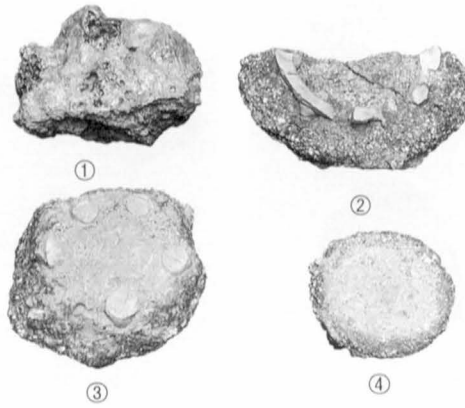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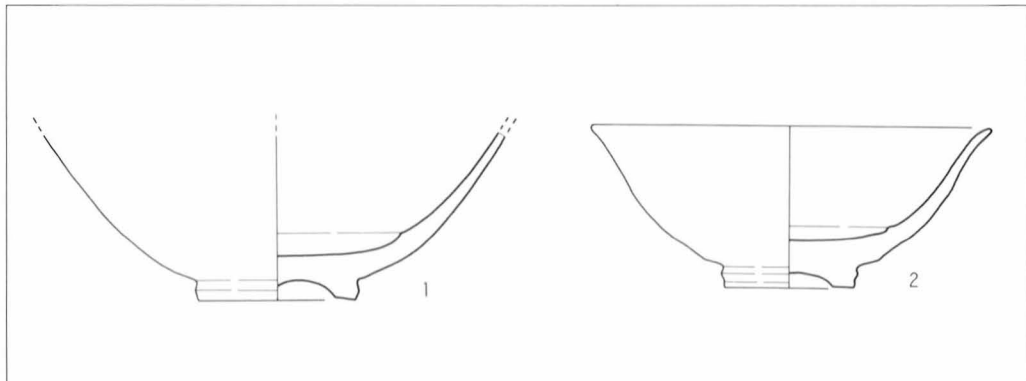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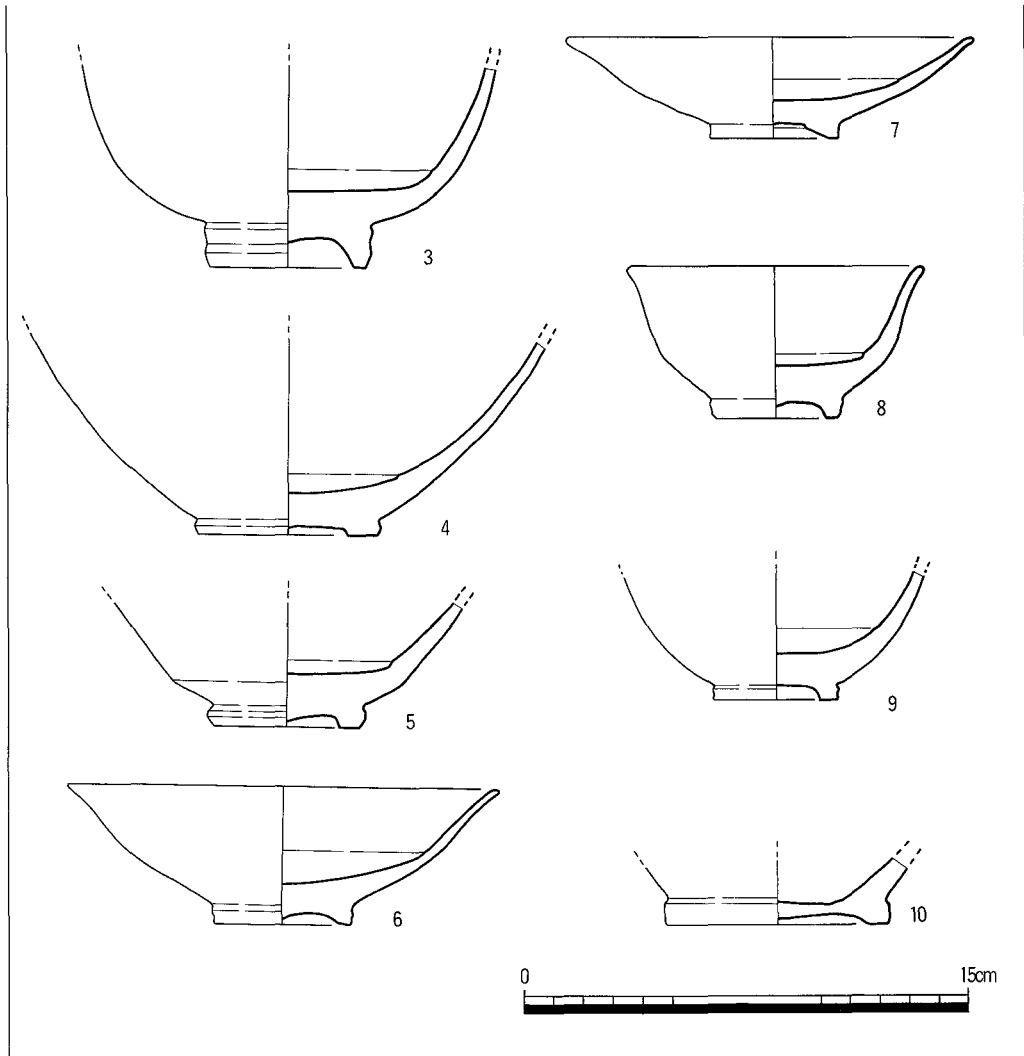
5



6

사진 2. 호동 2호 요지





도면 2. 호동 2호 요지

### 3) 虎洞 3호 요지

- (1) 성 격 : 朝鮮 15~16世紀 窯址作業場 및 建物址
- (2) 위 치 : 예직 1번 요지에서 산쪽인 서쪽방향으로 약 150여 미터 진입하면 골짜기에 개사육장과 무덤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주변에 유적이 위치하고 있다. 지번으로는 산 101-1임일대에 해당한다.(사진3-1, 지도1·4)
- (3) 현 상 : 유적의 위쪽은 임야와 접해 있지만, 주변일대가 밭으로 개간되어 있으며, 지표에 백자파편이 흩어져 있다. 자기파편들은 주로 밭주변에 많이 흩어

져 있고 무덤과 개사육장에는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사진3-2).

(4) 유 물 : 白磁와 陶器破片이 수습되었다.

가. 白磁 : 구연이 외반된 대접과 접시가 주류를 이룬다. 백자는 굽의 모양에 따라 대마디 모양과 倒立三角形의 두 종류로 나뉘어진다. 대마디 모양의 굽을 가진 백자의 釉色은 담청백색이 주류를 이루며 받침은 胎土비짐을 사용하였다. 도립삼각형의 굽을 가진 백자는 대부분 순백색이며, 입자가 고운 모래를 받쳐 燒造하였다.

● 大 椀 : 다수의 파편이 수습되었으며, 형태와 크기, 세부의 특징에 따라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①(사진3-3-①, 도면3-1) : 구연의 형태는 알 수 없으며, 몸체의 器壁이 斜線을 그리다가 저부에서 곡면으로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편평한 안바닥의 가장자리에는 圓角이 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을 사용하였다. 굽은 내경하는 도립삼각형으로, 접지면의 폭이 고르고 깎음새가 매우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편평하게 깎아내고,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낸 후, 가는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회청백색의 유약을 씌웠다.

②(사진3-3-②, 도면 3-2) : 구연의 형태는 알 수 없으며, 몸체의 기벽이 완만한 호를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에는 굽의 직경보다 훨씬 큰 원각이 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의 白土이다. 굽은 대마디 모양으로 다소 內傾하며, 접지면의 폭이 고르지 못하고 둔중하다. 굽안바닥을 비교적 얇고 오목하게 깎아내었으며, 굽과 굽주변에는 시유하지 않고 네 곳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담청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남아 있다.

③(사진3-3-③, 도면3-3) : ②번의 대접과 유사한 형태이지만, 내저원각과 크기가 작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의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직립하며, 접지면의 폭이 고르고 깎음새가 비교적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편평하게 깎아내었으며, 굽과 굽주변에는 시유하지 않고 번조하였으나, 받침흔적은 분명하지 않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담회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윗면에는 태토비짐을 사용하여 포개구이를 한 흔적이 있다.

● 椀 匙 : 다량의 파편이 확인되었으며, 형태와 크기에 따라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①(사진3-4-③, 도면3-5) : 구연의 형태는 알 수 없으며, 몸체의 기벽이 완만한 사선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넓고 편평한 안바닥의 가장자리에는 커다란 원각이 있다. 표면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의 백토이다. 굽은 내경하는 도립삼각형으로 접지면의 폭이 고르고, 깎음새가 매우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편평하게 깎아내고,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낸 후, 가는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고 투명한 순백의 유약을 씌웠으며, 빙렬은 없다. 윗면에는 번조시 생긴 잡티가 붙어 있다.

②(사진3-4-①~②·⑤, 도면3-6~7·9) : ①번과 유사한 형태의 접시이지만, 세부의 형태가 다르며, 크기도 大中小形으로 다양하다. 표면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으나, 외면의 기벽에는 물레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이다. 굽은 대마디 모양으로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고르지 못하고, 깎음새가 거칠다. 굽안바닥을 얇고 오목하게 깎아내었으며, 굽과 굽주변에는 시유하지 않고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고 투명한 담회청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빙렬은 없다. 윗면에 포개구이의 흔적이 남아 있는 예도 있다.

③(사진3-4-④, 도면3-8) : 구연과 몸체의 형태는 알 수 없으며, 몸체의 기벽이 사선형으로 굽에 이어지는 형태의 전접시이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의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높이가 매우 낮고 내경하는 도립삼각형으로, 깎음새가 매우 단정하다. 굽안바닥까지 시유하였으며, 접지면의 유약을 대충 닦아내고 가는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백유가 씌워져 있다.

● 瓶 : 몇 점의 파편이 수습되었다.

①(사진3-3-④~⑥, 도면3-4) : 수습된 파편은 모두가 잔편이어서, 전체의 형태를 알 수 없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모두 양질의 白土를 사용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백유를 씌웠으며, 빙렬은 없다.

나. 陶器 : 다수의 파편이 확인되었으나, 대부분이 호의 파편이었다.

● 壺 : 대부분 구연이나 몸체의 잔편들로, 구연의 형태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①(사진3-5-①~②, 도면3-10~11) : 구연은 모두 외반되었으며, 폭이 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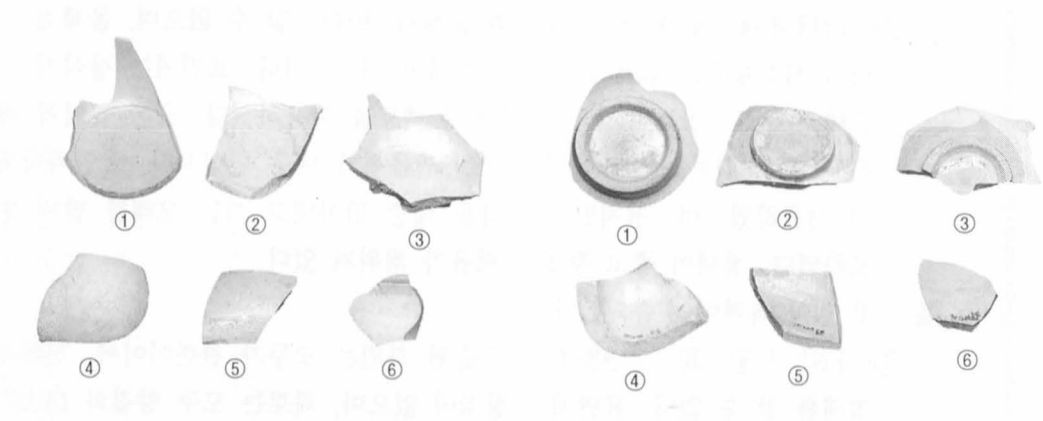
은 것과 넓은 것이 있다. 표면에는 타날자국이 있는 것과 음각의 橫線을 두른 것이 있지만, 장식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기벽은 얇고 태토에 미세한 모래알갱이가 섞여 있는 예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양질이다. 굽은 따로 만들지 않고, 바닥을 편평하게 다듬은 후,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회색, 암회색, 흑색 등으로 표면의 색은 다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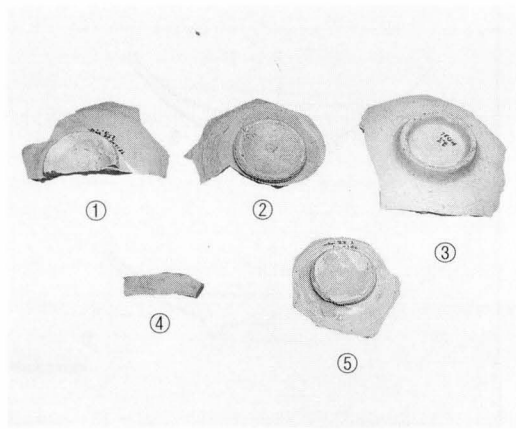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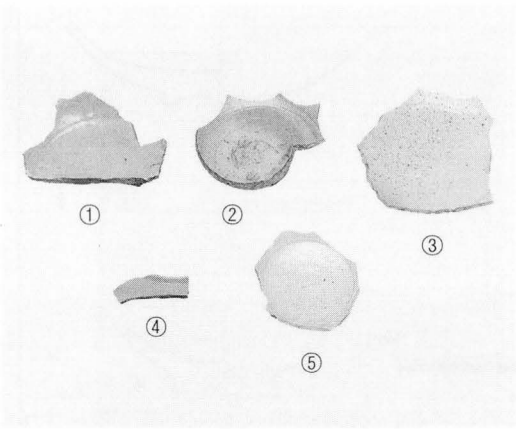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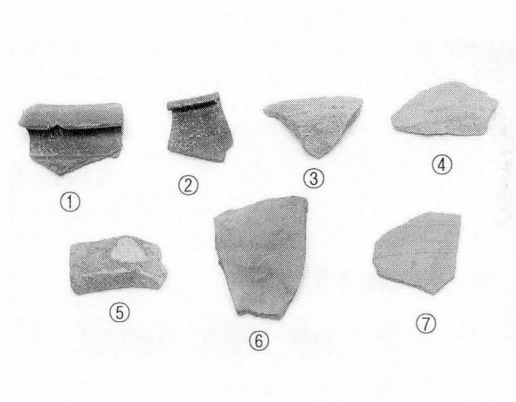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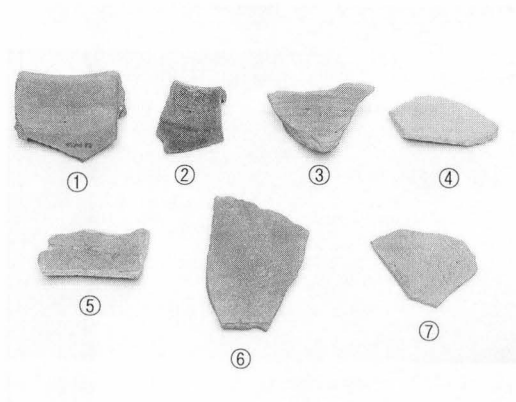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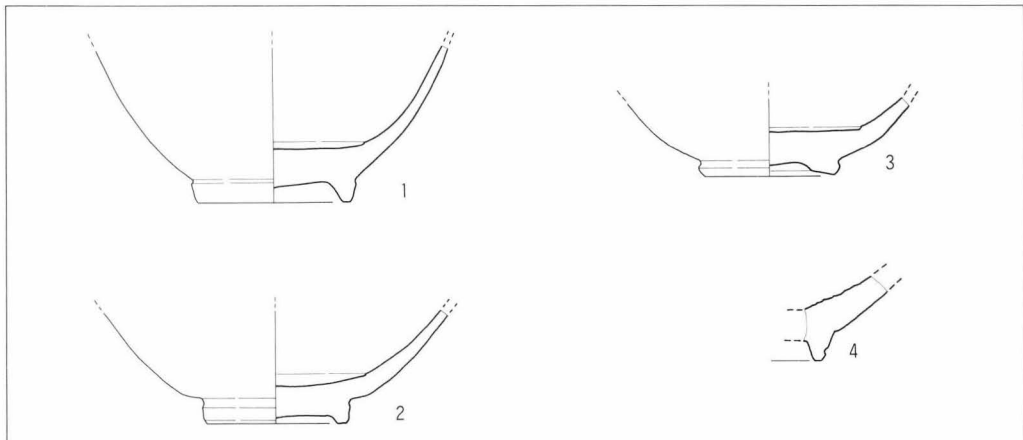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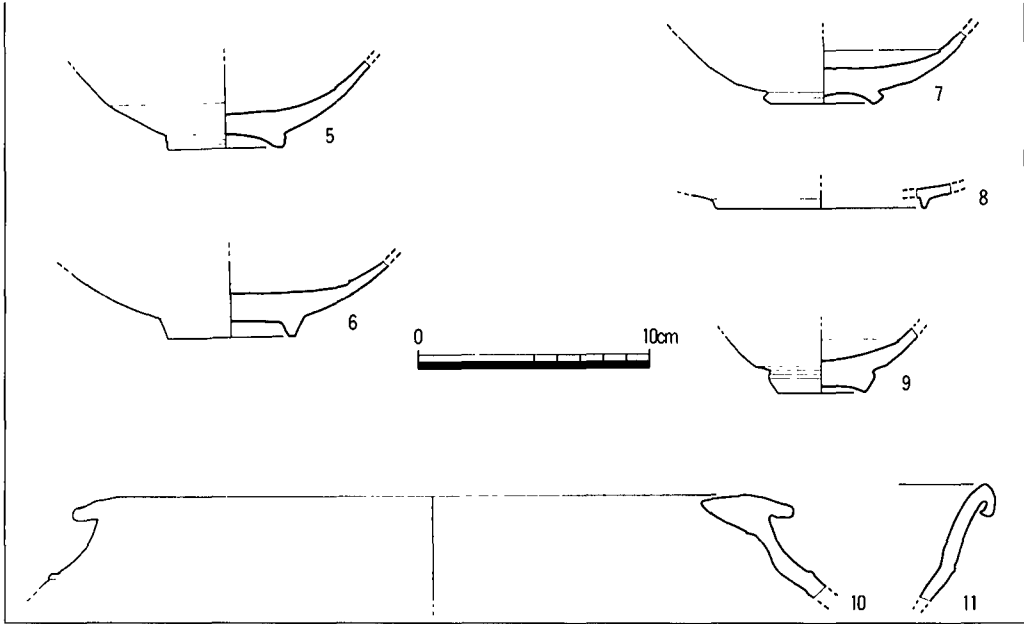


5

사진 3. 호동 3호 요지







도면 3. 호동 3호 요지

#### 4) 雲鶴洞 1호 요지

(1) 성격 : 朝鮮 19世紀 白磁窯址

(2) 위치 : 운학초등학교에서 내어둔으로 들어가는 포장길을 따라 약 1000 미터 정도 가면 국사봉에서 서북방향으로 내려가는 구릉 밑 지역을 범어들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새로 지은 집이 있다. 이 집뒷편의 밭과 임야가 접한 지역에 유적은 위치한다. 지번은 168전, 산 15-1임일대에 해당한다.(사진4-1, 지도1·5)

(3) 현상 : 유적은 임야와 밭의 일부에 걸쳐져 있고, 밭의 개간으로 대부분의 표면은 파손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유적의 범위는 파악하기가 곤란한 실정이다. 지표에는 다수의 파편이 흩어져 있으며, 밭과 밭 사이의 둔덕에는 경작시 출토된 파편이 집중되어 있다. (사진4-2)

(4) 유물 : 다수의 白磁파편이 산재해 있으나, 그릇의 종류는 적다.

가. 白磁 : 대접과 접시가 주류를 이루며, 이외에도 병의 파편 한 점이 수습되었다. 모두 양질의 백토로 제작되었으며, 유색은 담청백색이 대부분이다.

● 大樑 : 몇 점의 파편이 수습되었으나, 형태와 크기가 모두 유사하다.

①(사진4-3-①, 도면4-1) : 구연의 형태는 알 수 없으며, 몸체가 사선을 그

리며 저부에서 점차 좁아지다가 굽언저리에서 부드러운 곡면을 이루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넓고 편평하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을 사용하였다. 굽은 내경하며 깎음새가 다소 거칠고, 접지면의 폭이 좁고 일정치 못하다. 굽안바닥을 편평하게 깎아내고,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고 투명한 회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 櫛 匙 : 형태와 크기에 따라서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①(사진4-4-②~③, 도면4-4~5) : 구연이 직립하며, 몸체의 기벽이 완만한 사선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접시의 전체 높이가 매우 낮으며 안바닥은 넓고 편평하다. 이 접시는 안바닥 가장자리가 곡면으로 된 것과 원각이 있는 것으로 나눌 수 있으나, 외면과 전체적인 형태에는 뚜렷한 차이가 없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을 사용하였다. 굽은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좁다. 안바닥을 오목하게 깎아내고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고 반투명한 담청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②(사진4-4-①, 도면4-3) : ①번의 접시와 유사한 형태이지만, 구연의 가장자리가 외반되어 있으며, 몸체의 꺾임이 보다 예리한 것이 다르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을 사용하였다. 굽은 높이가 낮고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좁다. 안바닥을 깊고 오목하게 깎아내고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고 반투명한 담청백색의 유약을 두껍게 씌웠으며,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 瓶 : 한 점의 유물이 수습되었다.

①(사진4-3-②, 도면4-2) : 구연부의 모양은 확인할 수 없으며, 목이 잘록하고 저부에서 평퍼짐하게 팽만하다가 굽에 이어지는 형태이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내면에는 물레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다.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을 사용하였다. 굽이 파손되어 형태와 받침을 알 수 없다. 광택이 있고 반투명한 담청백색의 유약을 씌웠다.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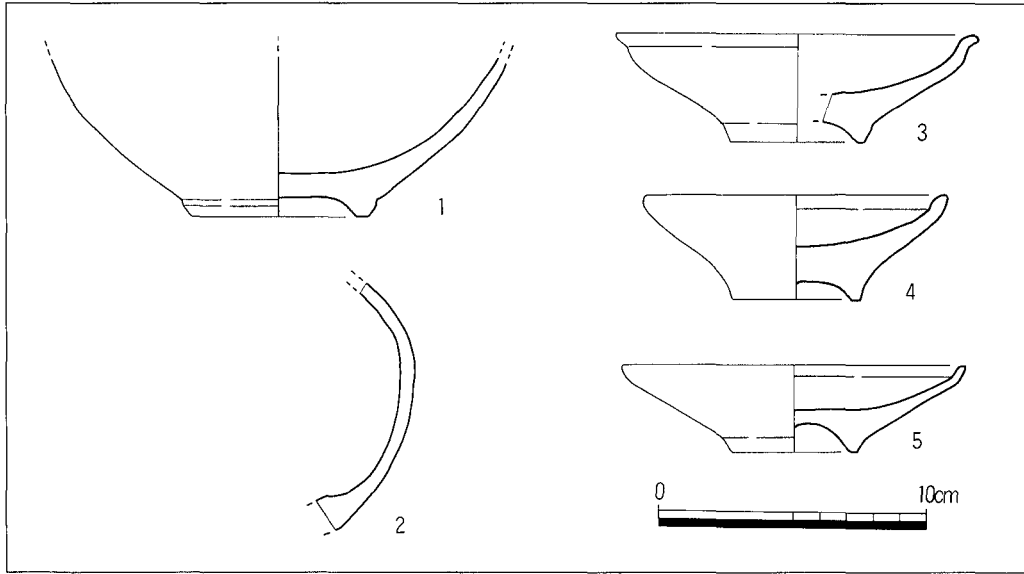


3



사진 4. 운학동 1호 요지

4



도면 4. 운학동 1호 요지

#### 5) 雲鶴洞 2호 요지

(1) 성격 : 朝鮮 15~16世紀 白磁窯址

(2) 위치 : 내어둔 마을에서 북쪽으로 포장길을 따라 올라가면 문화 유씨 묘역이 있다. 바로 이 묘역의 첫 번째로 보이는 묘소 근처에 위치한다. 지면은 49전, 산 21-1임일대에 해당한다.(사진5-1. 지도1·5)

(3) 현상 : 유적의 일부는 문화유씨 묘지와 이곳에 진입하기 위한 포장길이 조성되어 있고, 다른 한쪽은 논으로 개간되어 사용되어 파괴가 심한 상태이다. 현재 묘지의 주변과 포장길, 논 사이의 단애면에 파편퇴적이 훼손된 채 노출되어 있으며, 논둑 일부에도 다수의 파편이 흩어져 있다. 지표에서 확인되는 유적의 범위는 폭이 30여 미터에 상하의 길이가 20여 미터에 달한다.(사진5-2)

(4) 유물 : 다수의 파편이 산재해 있지만 대부분 잘게 부서져 있으며, 그릇의 종류는 많지 않다.

가. 白磁 : 대접과 접시가 주류를 이루며, 양질의 백토로 제작되었다. 유색은 담회 청색이 많다.

● 大樑 : 다수의 파편이 수습되었으며, 형태와 크기에 따라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①(사진5-3-①, 도면5-1) : 구연이 외반하고 몸체의 기벽이 사선을 그리며

저부에서 점차 좁아지다가 부드러운 곡면으로 굽에 이어지는 형태이다. 안바닥은 비교적 넓고 편평하며, 가장자리에 굽의 직경보다 넓은 원각이 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을 사용하였다. 굽은 대마디 모양으로, 직립하며 깎음새가 거칠다. 굽안바닥과 언저리에는 시유하지 않고, 바닥 네 곳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고 투명한 담회청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빙렬이 있다.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②(사진5-3-②, 도면5-2) : ①번의 대접과 유사한 형태이지만, 구연이 직립하는 것이 다르다. 안바닥은 넓고 편평하며, 가장자리에 굽의 직경보다 커다란 원각이 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의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대마디 모양으로, 직립하며 접지면의 폭이 일정하지 않다. 굽안바닥을 얇게 깎았으며, 굽에는 시유하지 않고, 바닥 네 곳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고 투명한 담회청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빙렬은 없다.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 접 시 : 여러 점의 파편이 수습되었으나, 모두 크기와 형태가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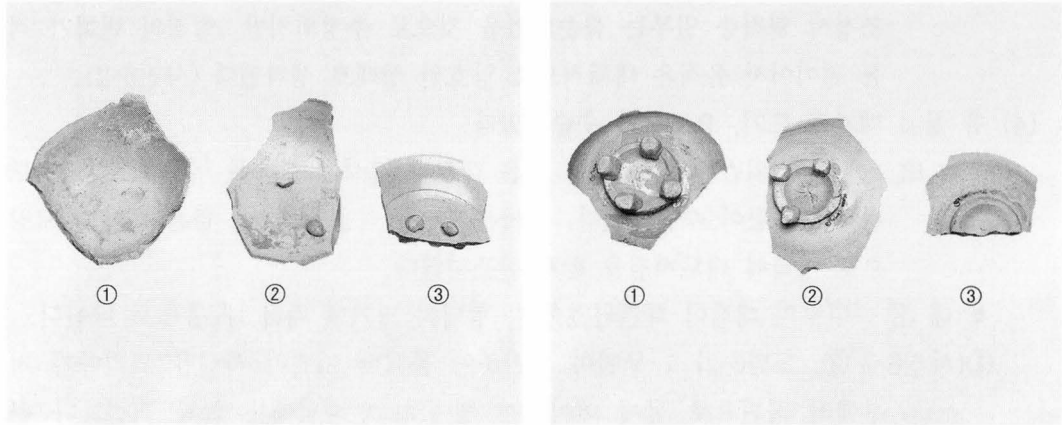
①(사진5-3-③, 도면5-3) : 구연이 외반하고 몸체의 기벽이 완만한 곡면을 이루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편평한 안바닥의 가장자리에는 한 줄의 원각이 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에는 미세한 잡티가 소량 섞여 있으나 양질이다. 굽은 대마디 모양으로, 직립하며 접지면의 폭이 고르고 깎음새가 비교적 단정하다. 굽안바닥과 언저리에는 시유하지 않고,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고 투명한 회백색의 유약을 얇게 씌웠으며, 빙렬은 없다.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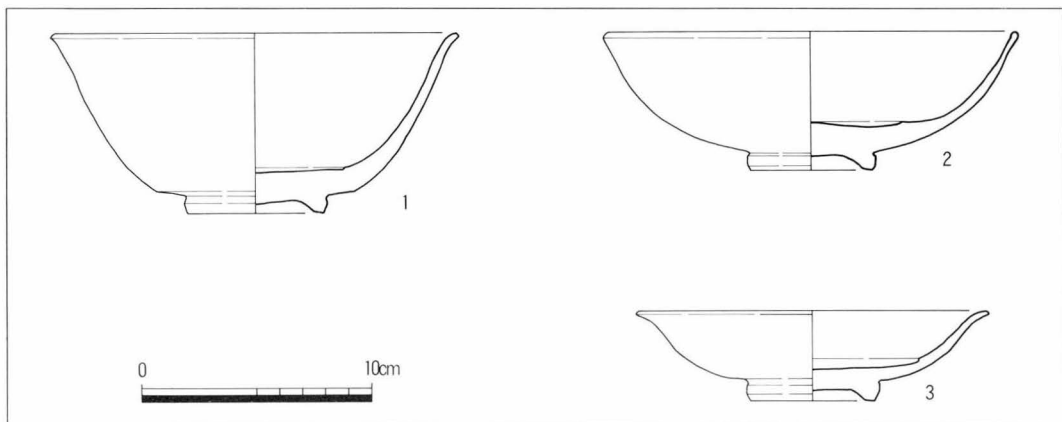


2



3

사진 5. 운학동 2호 요지



도면 5. 운학동 2호 요지

### 6) 海谷洞 1호 요지

- (1) 성 격 : 朝鮮 15~16世紀 白磁窯址
- (2) 위 치 : 해곡동 별미마을 서북쪽에 은석골이라는 계곡이 있다. 이 계곡을 다시 두 계곡으로 나누는 구릉이 있는데 유적은 이 끝자락에 위치한다. 지번은 산 18-3임일대에 해당한다.(사진6-1, 지도1·6)
- (3) 현 상 : 나즈막한 구릉의 일부는 밭으로 개간되었고, 그 위쪽에 묘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이곳에 다량의 백자파편이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다. 유적의 범위는 가로 40여 미터, 세로 30여 미터에 달하는 대규모이다. 개간과 묘지

조성시 퇴적층 일부는 훼손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형질의 변화가 적은 편이어서 유적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상태로 생각된다.(사진6-2)

(4) 유 물 : 백자와 도기, 요도구가 수습되었다.

가. 白磁 : 구연이 외반한 매우 질이 좋은 대접과 접시가 주류를 이루며, 이외에도 잔, 제기 등이 수습되었다. 유색은 담청백색을 보이며, 굽은 대마디 모양으로 바닥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 대 접 : 다수의 대접이 확인되었으며, 형태와 크기에 따라 네 종류로 나뉜다.

①(사진6-3-②, 도면6-2) : 구연이 외반하며 몸체의 기벽이 사선을 그리다가 저부에서 곡면으로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에는 굽의 직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을 사용하였다. 굽은 대마디 모양으로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고르고, 비교적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편평하게 깎아내었으며, 굽과 굽주변에는 시유하지 않고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회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②(사진6-3-①, 도면6-1) : 구연이 직립하고 몸체의 기벽이 완만한 곡면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에는 굽의 직경보다 큰 원각이 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치밀질의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대마디 모양으로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고르고,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오목하게 깎아내었으며, 굽에는 시유하지 않고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담청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③(사진6-3-④, 도면6-4) : 구연이 직립하고 몸체의 기벽이 매우 완만한 호를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보통 내만대접으로 불리는 예이다. 안바닥에는 굽의 직경보다 조금 큰 원각이 있으며, 다른 대접에 비하여 구경이 매우 크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이다. 굽은 대마디 모양으로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고르지 못하고, 깎음새가 거칠다. 굽안바닥을 얇게 깎아내었으며, 굽과 굽언저리는 시유하지 않고 네 곳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회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④(사진6-3-③, 도면6-3) : 구연의 형태는 알 수 없으며, 몸체의 기벽이 사선을 그리다가 저부에서 부드럽게 꺾여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은 원각

이 없는 곡면을 이루고 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치밀질의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대마디 모양으로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은 고르지만, 깎음새가 거칠다. 굽안바닥을 얇고 오목하게 깎아내었으며, 굽에는 시유하지 않고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회청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 櫛 匙 : 형태와 크기에 따라 세 종류로 나뉜다.

①(사진6-4-①, 도면6-5) : 구연이 외반하며 몸체의 기벽이 사선을 그리다가 저부에서 꺾여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넓고 편평한 안바닥의 가장자리에는 커다란 원각이 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을 사용하였다. 굽은 대마디 모양으로 내경하며, 깎음새가 거칠다. 굽안바닥을 편평하게 깎아내었으며, 굽과 굽주변에는 시유하지 않고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담청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②(사진6-4-②, 도면6-6) : ①번의 접시와 유사한 형태이지만, 크기가 매우 작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에는 미세한 잡티가 소량 섞여 있지만 양질이다. 굽은 대마디 모양으로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고르지 못하고 깎음새가 거칠다. 굽안바닥을 오목하게 깎아내었으며, 굽과 굽주변에는 시유하지 않고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담청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윗면에는 번조시 생긴 잡물이 붙어 있다.

③(사진6-4-③, 도면6-7) : 구연이 외반하고 몸체의 기벽이 완만한 사선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에는 원각이 없으며 바닥과 기벽이 만나는 곳은 곡면으로 처리되어 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이다. 굽은 대마디 모양으로, 접지면의 폭이 고르지 못하며 깎음새가 조잡하다. 굽안바닥을 오목하게 깎아내었으며, 굽에는 시유하지 않고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담청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 盞 : 모두 동일한 종류의 파편이 수습되었다.

①(사진6-4-④, 도면6-8) : 구연의 형태는 알 수 없으며, 몸체의 저부에서 각이 져 꺾여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편평한 안바닥의 가장자리에는 원각이 있다. 장식은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을 사용하였다. 굽은 대마디 모양으로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고르지 못하고, 깎음새가 거칠다. 굽안바닥을 오목하게 깎아내었으며, 굽과 굽주변에는 시유하지



얇고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담청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윗면에는 번조시 생긴 잡물이 붙어 있다.

- 祭器 : 한 점의 파편이 수습되었다.

①(사진6-5-①) : 몸체상부의 형태는 알 수 없으며, 몸체중심과 저부가 원통형을 이룬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을 사용하였다. 굽은 따로 만들지 않고 몸체의 바닥을 툽니모양으로 깎아내었으며, 받침흔적은 분명하지 않다. 광택이 있는 회백색의 유약을 얇게 씌웠으며, 표면에 미세한 잡티가 많이 붙어 있다.

나. 陶器 : 호의 저부 파편이 확인되었다.

- 壺 : 한 점의 파편이 수습되었다.

①(사진6-5-②, 도면6) : 구연부와 몸체의 형태는 알 수 없으며, 저부에서 점차 폭이 좁아져 바닥에 이어지는 형태로, 장식은 없다. 기벽의 두께는 비교적 얇으며, 태토에는 미세한 모래알갱이가 소량 섞여 있다. 표면은 대체로 회흑색을 띠고 있지만, 발색은 고르지 못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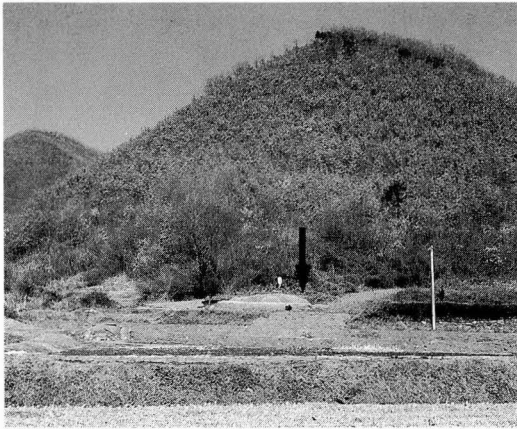
다. 窯道具 : 다수의 도침과 개떡이 수습되었다.

- 陶枕 : 변형된 아령모양의 도침이 다수 확인되었다.

①(사진6-6-①~②) : 몸체의 윗부분은 아령모양이지만, 아래부분은 위쪽보다 직경이 넓은 원반형으로, 마사토질의 내화재료로 제작되었다. 아령모양의 윗면은 그릇을 놓기 좋게 하기 위하여 편평하게 다듬었으며, 그릇을 놓았던 자국과 모래받침의 흔적이 남아 있다. 아래면은 안정감을 주기 위하여 직경을 넓게 하고 가마의 경사도만큼 기울여 윗면의 그릇이 수평이 되게 만들었다.

- 개떡 : 다수의 유물이 확인되었으며, 크기와 형태가 조금씩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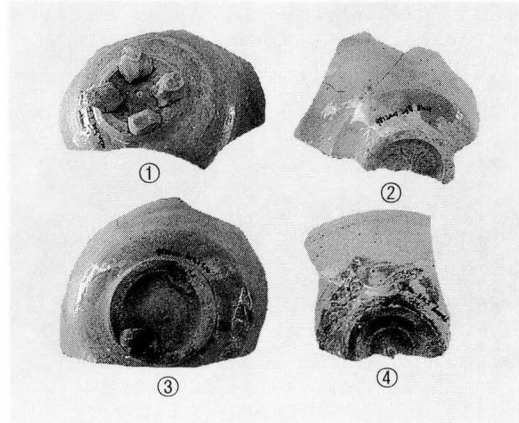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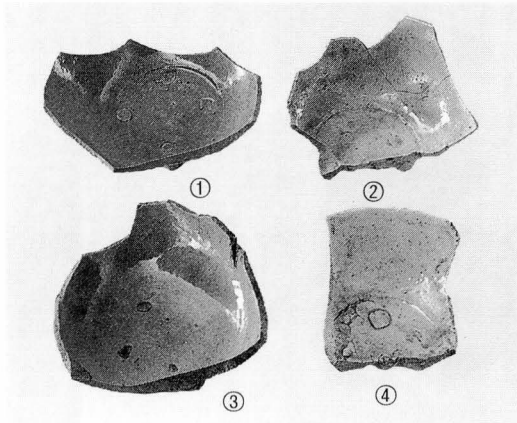
①(사진6-6-③~④) : 원반형으로 점토 혹은 마사토질의 내화재료로 제작되었으며, 두께와 직경은 다양하다. 윗면은 그릇을 놓을 수 있게 편평하게 다듬었으며, 모래받침의 자국이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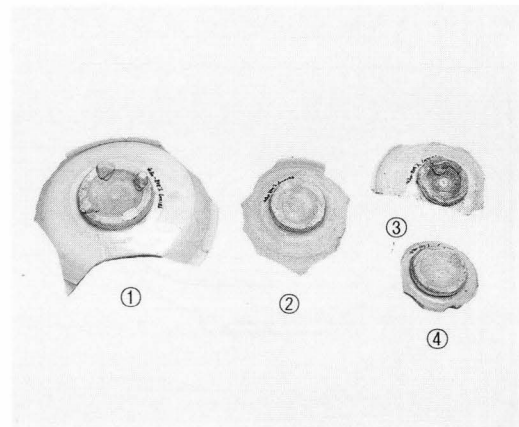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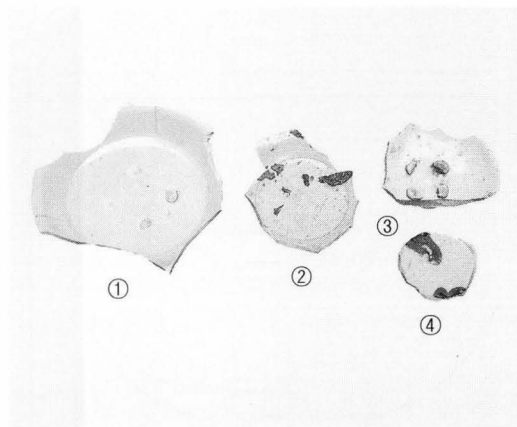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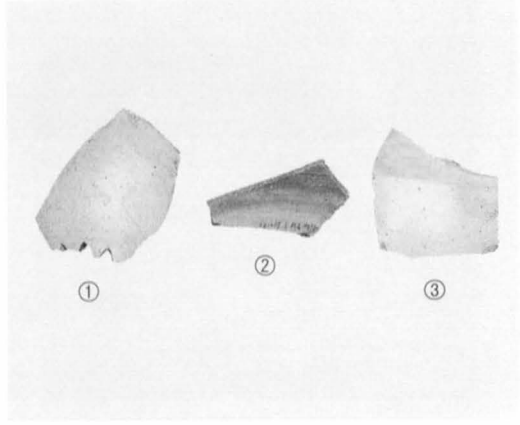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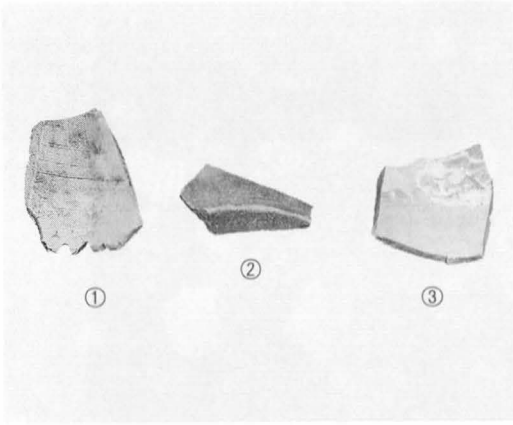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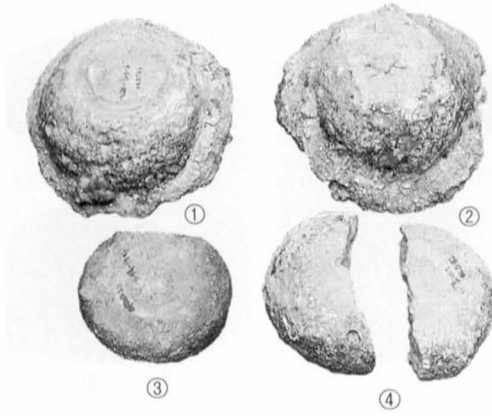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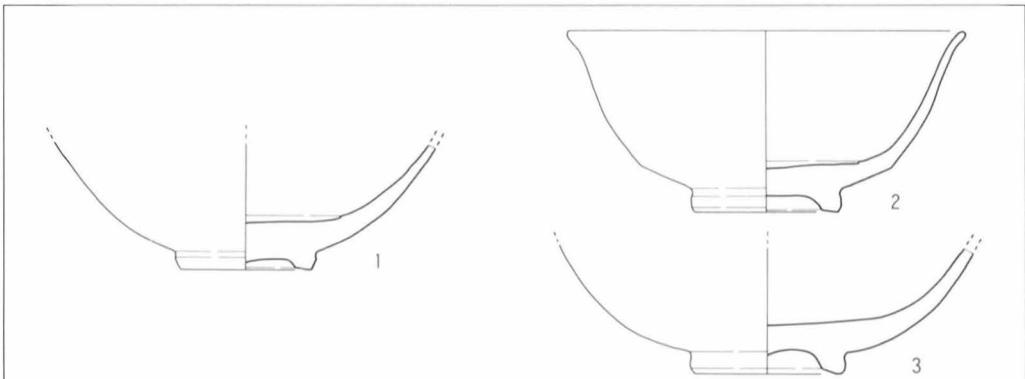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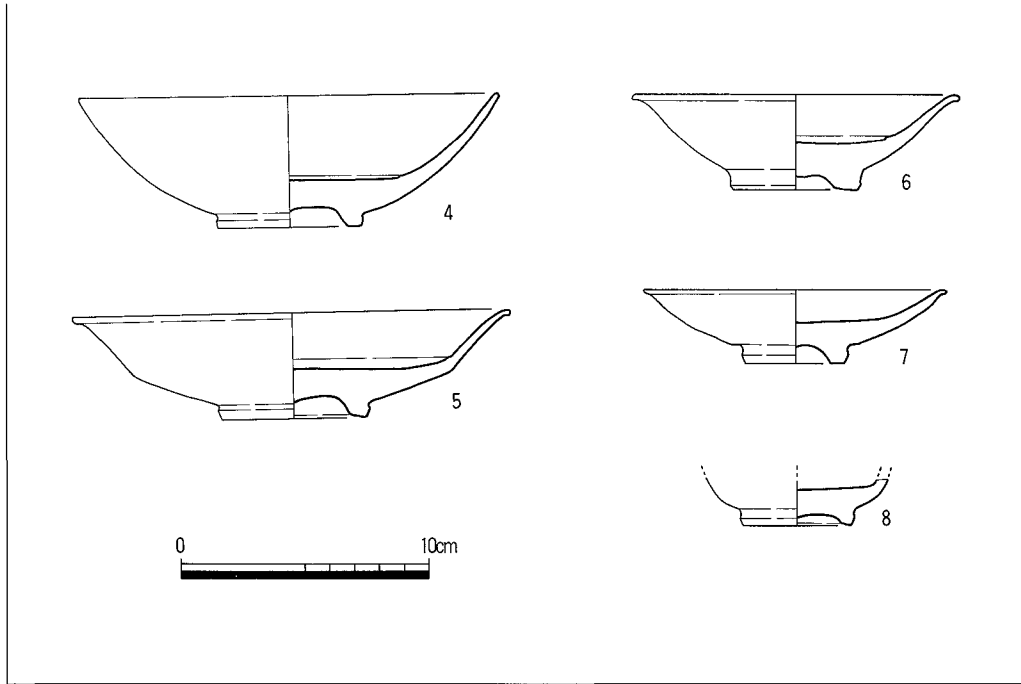
5



6

사진 6. 해곡동 1호 요지





도면 6. 해곡동 1호 요지

## 2. 器興邑

### 1) 芝谷里 1호 요지

- (1) 성격 : 朝鮮 19世紀 末 黑磁 · 甕器窯址
- (2) 위치 : 지곡리 경로당에서 포장도로를 따라 약 600 여 미터 정도 가면 도로변에 접한 낮은 구릉이 있는데 유적은 이 가장자리에 위치한다. 지번은 236 대, 236-1대, 산 31임일대에 해당한다.(사진7-1, 지도1·7)
- (3) 현 상 : 가마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는 집터와 밭이 조성되어 있어 가마 유적은 많이 훼손된 상태로 보인다. 다만 집터 뒤 구릉 단애면 퇴적은 비교적 양호하게 남아 있는 상태이나, 집과 도로공사로 인하여 많이 파괴되었으며, 단애면과 지표에 다량의 파편이 흩어져 있는 것이 확인될 뿐이다. 잔존한 유적의 범위는 대략 가로 15, 세로 10 미터 정도이다.(사진7-2)
- (4) 유 물 : 黑磁와 甕器, 그리고 窯道具가 수습되었다.  
가. 黑磁 : 호가 주류를 이루며, 이외에도 병과 호를 변형한 주자가 수습되었다.

- 瓶 : 몇 점의 파편이 수습되었으나, 모두 동일한 형태이다.

①(사진7-3-①~②, 도면7-10~11) : 입이 넓고 목이 細長하며, 몸통이 원통형을 이루는 형태로, 보통 廣口瓶으로 불리우는 예이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나, 사선형의 어깨와 원통형의 몸체가 만나는 각이진 부분에 폭이 넓은 음각형선과 같은 홈을 파두었다. 태토는 흑회색으로 잡물이 없다. 굽은 편평한 바닥을 얇고 오목하게 깎은 오목굽으로, 바닥에는 시유하지 않고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없고 불투명한 黑釉를 내외면에 모두 씌웠으나, 외면의 용융상태가 고르지 못하다.

- 壺 : 다수의 파편이 확인되었으며,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①(사진7-4-②, 도면7-2) : 구연은 도톰하며 직립 외반하고 어깨가 사선을 그리는 형태로, 몸체중앙과 저부는 파손되어 확인 할 수 없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연회색으로 잡물이 없다. 내외면에 광택이 있고 불투명한 흑유를 시유하였으나, 시유상태가 고르지 못하다.

②(사진7-4-③, 도면7-3) : 구연이 직립 내경하며 어깨와 몸체의 상부가 곡면을 그리며 저부로 이어지는 형태로, 저부는 파손되어 알 수 없다. 표면에 장식은 없으며, 태토는 연회색으로 잡물이 없다. 광택이 저고 불투명한 흑유를 씌웠으며, 시유상태가 고르지 않아 태토의 색깔이 비취보이기도 한다.

- 注子 : 한 점의 파편이 수습되었다.

①(사진7-4-①, 도면7-1) : 구연이 직립외반하고 몸체의 상부가 호를 그리는 형태로, 몸체 중앙에 짧막한 사선형의 주구를 달아 주자로 만든 것이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연회색으로 잡물이 없다. 내외면에 광택이 있고 불투명한 흑유를 시유하였으며, 시유상태가 고르지 못하다.

나. 甕器 : 호가 주류를 이루며, 이외에 커다란 뚜껑도 수습되었다.

- 壺 : 다수의 파편이 수습되었으며, 형태에 따라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①(사진7-4-④~⑤·5-①·③, 도면7-4~6·8) : 구연은 도톰하며 외반하고 몸체의 기벽이 완만한 곡면을 그리며 저부에서 급격하게 폭이 좁아지는 형태로, 입이 매우 넓고 안바닥이 좁은 것이 특징이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흑회색으로 잡물이 없다. 굽은 안굽으로 직경이 매우 크다. 굽안바닥을 얇고 편평하게 깎아낸 후,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없는 밤갈색의 유가 얇게 씌워졌다. 윗면 안바닥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②(사진7-5-②·④, 도면7-7·9) : 구연이 내만하며 몸체의 기벽이 완만한 곡면을 그리며 저부에서 급격히 폭이 좁아지는 형태이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흑회색으로 잡물이 없다. 굽은 안굽으로 직경이 매우 크다. 굽안바닥을 얇고 편평하게 깎아낸 후,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적은 밤갈색의 유를 얇게 씌웠으며, 윗면 안바닥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 뚜껑 : 여러점의 뚜껑이 확인되었으나, 형태는 모두 동일하다.

①(사진7-6-①~②, 도면7-12·13) : 반구를 얹어놓은 듯한 형태로, 윗면 중앙에는 원반형의 꼭지가 달려 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적갈색이며 잡물이 없다. 뚜껑 윗면에는 모두 포개구이의 흔적이 남아 있으며, 안바닥에도 모두 모래받침의 흔적이 넓게 퍼져 있어, 번조시 요 도구로도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 窯道具 : 다수의 파편이 수습되었다.

● 陶枕 : 모두 원통형으로 크기만 조금을 다르다.

①(사진7-7-①~③·⑤) : 대체적으로 속이 빈 원통형이지만, 위쪽보다 아래쪽의 직경을 크게 하여, 번조시 안정감이 생기게 하였다. 점토질의 재료로 제작되었으며, 윗면과 아래면에는 굵은 모래가 붙어 있다.

라. 其他

● 가마벽

①(사진7-7-④) : 가마의 벽편으로 마사토질과 점토질의 내화재료로 만들어졌으며, 흙을 몇 겹으로 덧붙여 사용했던 흔적이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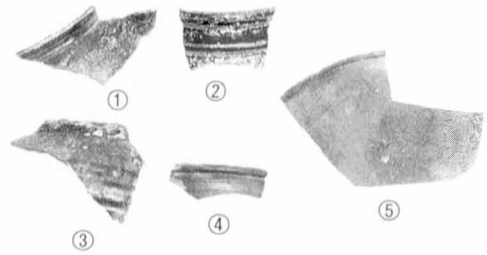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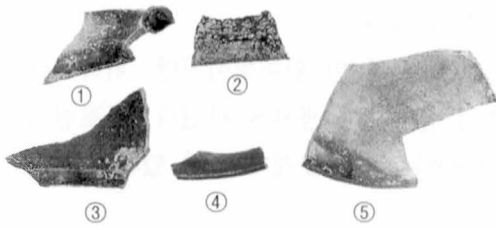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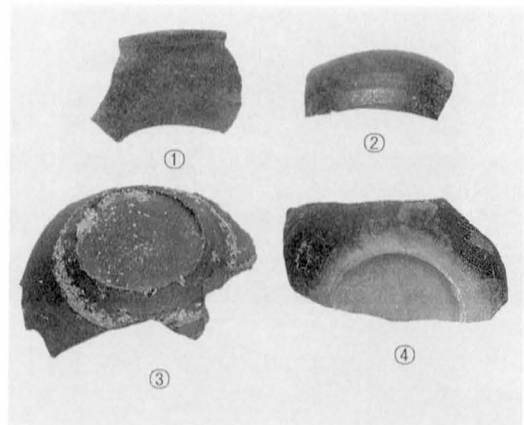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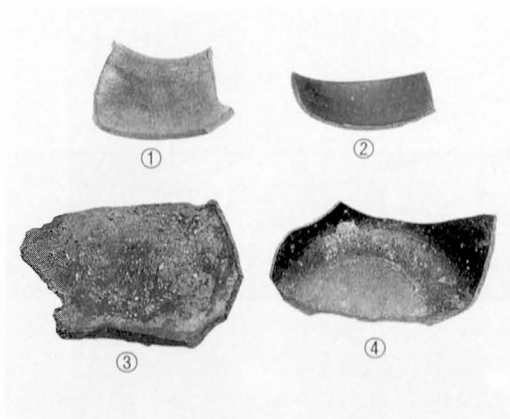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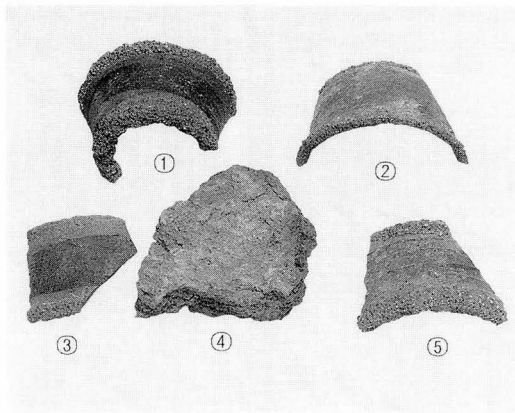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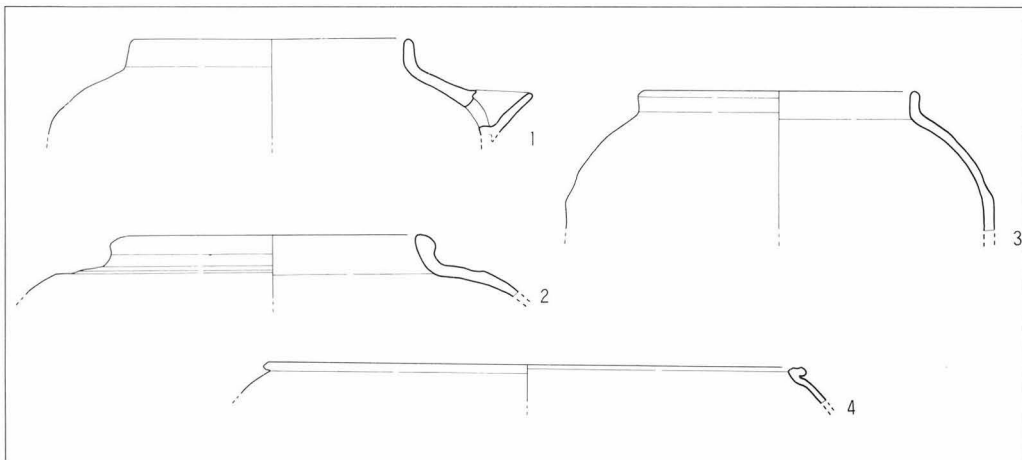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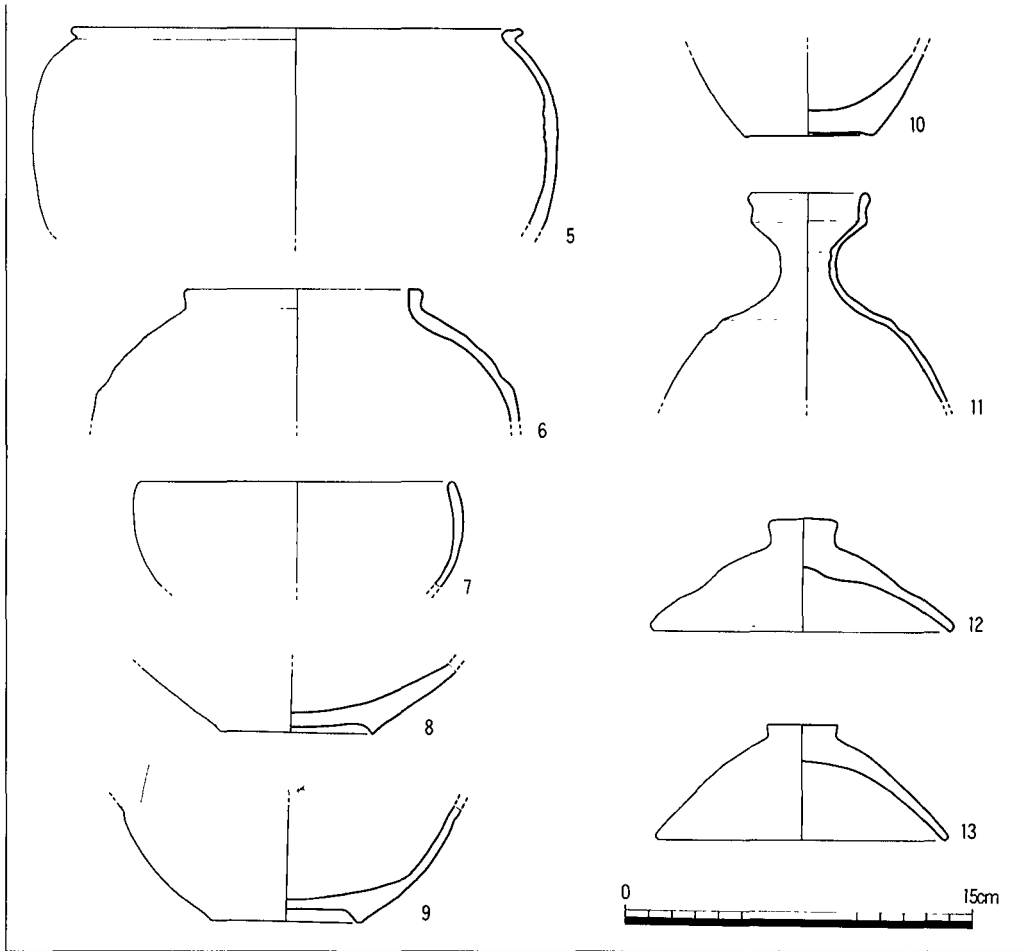


7

사진 7. 기흥읍 지곡리 1호 요지







도면 7. 기흥읍 지곡리 1호 요지

## 2) 芝谷里 2호 요지

- (1) 성격 : 朝鮮 19世紀 末 甕器窯址
- (2) 위치 : 지곡리 경로당에서 포장도로를 따라 약 1000 미터 올라오면 지곡저수지와 사기막골로 갈라지는 두갈래 길이 나온다. 여기서 사기막골 쪽으로 약 800여 미터 도로를 따라가면 우측 개울 건너편에 집 한채와 비닐하우스 2동이 있는 곳에 위치한다. 지번은 산 160-5전, 160-6전일대에 해당한다.(사진8-1, 지도1·8)
- (3) 현상 : 고추를 심었던 커다란 밭의 가장자리에 파편이 집중되어 있으나, 수량은 많지 않은 편이며, 정확한 퇴적도 확인하기 어렵다. 유적의 범위는 가로

10, 세로 10여 미터로 추정되며, 수로공사와 받개간으로 인하여 많이 파손되어 있다.(사진8-2)

(4) 유 물 : 甕器와 窯道具가 수습되었다.

가. 甕器 : 작은 호가 주류를 이룬다.

● 壺 : 다수의 파편이 산재해 있으며, 형태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뉜다.

①(사진8-3-①~②, 도면8-1) : 구연이 도톰하며 외반하고 몸체의 기벽이 완만한 곡면을 그리며 저부에서 급격하게 폭이 좁아지는 형태로, 입이 매우 넓고 안바닥이 좁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흑회색으로 잡물이 없다. 굽은 안굽으로 깎음새가 매우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비교적 깊고 편평하게 깎아낸 후,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적은 밤갈색의 유가 얇게 씌워졌다. 윗면 안바닥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전체적으로 예리하고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다.

②(사진8-3-③~⑤, 도면8-3~5) : 구연이 내만하며 몸체의 기벽이 완만한 곡면을 그리며 저부에서 폭이 좁아지는 형태이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흑회색으로 잡물이 없다. 굽은 안굽으로 깎음새가 비교적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편평하게 깎아낸 후,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적은 밤갈색의 유를 얇게 씌웠으며, 윗면 안바닥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나. 窯道具 : 다수의 파편이 수습되었다.

● 陶枕 : 모두 원통형이며 크기가 조금씩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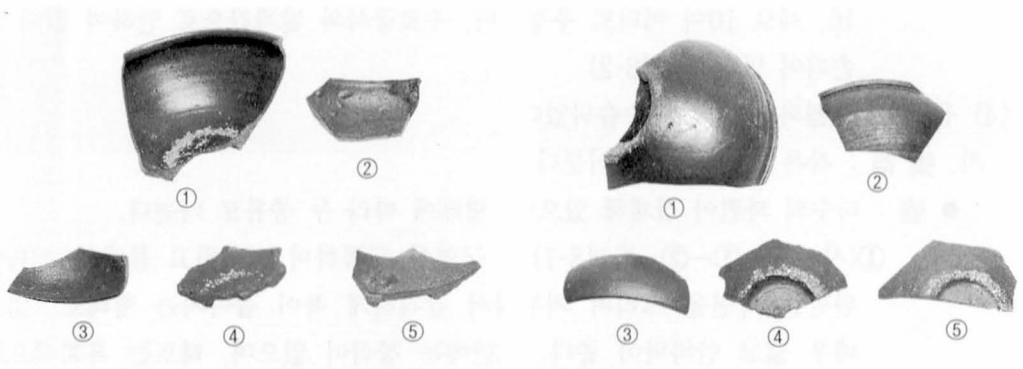
①(사진8-4-①~④) : 대체적으로 속이 빈 원통형이지만, 위쪽보다 아래쪽의 직경을 크게 하여 번조시 안정감이 생기게 하였다. 점토질의 재료로 제작되었으며, 윗면과 아래면에는 굵은 모래가 붙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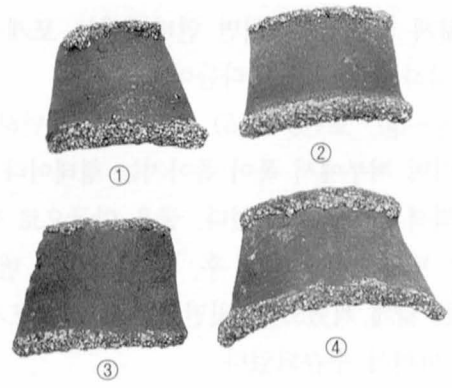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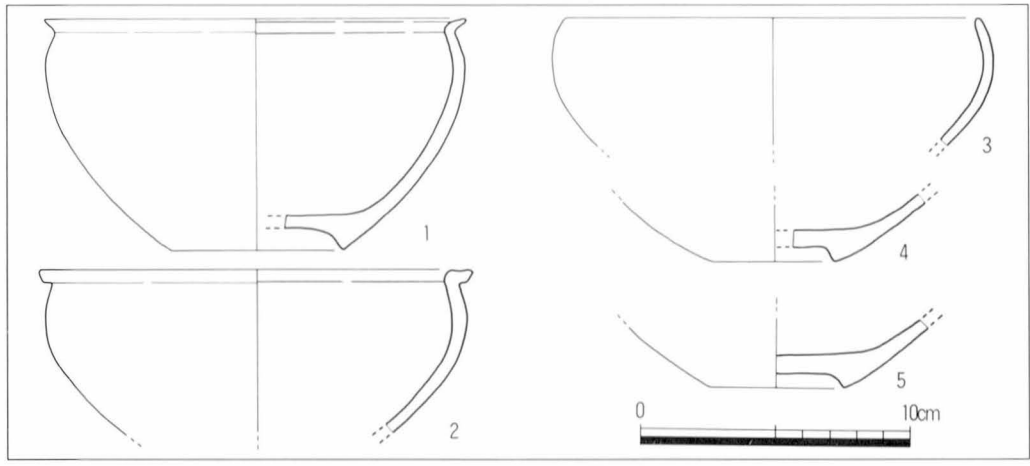


3



4

사진 8. 기흥읍 지곡리 2호 요지



도면 8. 기흥읍 지곡리 2호 요지

### 3) 芝谷里 3호 요지

(1) 성 격 : 朝鮮 17世紀 白磁窯址

(2) 위 치 : 지곡리 사기막골에 위치한 지곡리 2호 요지에서 200 미터 떨어진 남측 구릉쪽에 휴양소를 건설하고 있다. 공사현장으로 올라가는 길을 따라 약 150미터 정도 가면 개울이 있는데, 이 건너편에 있는 밭과 구릉의 접경지에 위치하고 있다. 지번은 산 28-10임일대에 해당한다.(사진9-1, 지도 1·8)

(3) 현 상 : 휴양소를 건설하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두갈래로 갈라지는 개울이 나온다. 이 사이에 밭이 조성되어 있는데 자기파편들이 여기저기 산포되어 있다. 밭 서쪽에 접한 개울과 구릉사이에 가마벽편과 백자파편들이 집중되되어 있다. 유적의 범위는 가로10, 세로 10여 미터로 추정된다.(사진9-2)

(4) 유 물 : 다수의 白磁파편과 窯道具, 가마벽편이 수습되었다.

가. 白磁 : 대접과 접시, 잔이 주류를 이루며, 양질의 백토로 제작되었다. 유색은 대부분 회백색을 띄며 바닥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 大 椀 : 여러 점의 파편이 수습되었으나, 형태가 모두 동일하다.

①(사진9-3-①~②, 도면9-1·2) : 구연의 파손되었고, 기벽이 완만한 곡면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에는 굽의 직경보다 큰 원각이 있으며, 그 크기는 조금씩 다르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의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높이가 낮고 접지면의 폭이 좁으며,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오목하게 깎아내고, 바닥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모두 광택이 좋고 투명한 회백색의 유가 씌워졌으며,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 椀 匙 : 형태와 세부의 특징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뉜다.

①(사진9-3-③·⑤, 도면9-4) : 구연은 파손되어 알 수 없고, 몸체의 기벽이 거의 수평에 가까우며 안바닥에는 원각이 없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고, 태토에는 미세한 모래알갱이가 소량 섞여 있다. 굽은 높이가 비교적 높고 내경하며,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오목하게 깎아낸 후, 바닥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표면에는 회백색의 유약이 씌워졌으나, 일부 용융상태가 고르지 못하다.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남아 있다.

● 盞 : 한 점의 파편이 수습되었다.

①(사진9-3-④, 도면9-5) : 구연은 파손되었으며, 몸체의 기벽이 곡면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넓고 오목하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을 사용하였다. 굵은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좁고,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오목하게 깎아내고, 바닥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암회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빙렬은 없다.

나. 窯道具 : 두 종류가 수습되었다.

- 陶 枕 : 한 점이 수습되었다.

①(사진9-4-③) : 나팔모양으로 윗면의 직경이 아래면보다 크며, 안바닥을 깊고 오목하게 깎아내었다. 물래로 제작한 후 표면과 바닥을 다듬지 않아 거칠고 지저분하다. 미세한 잡물이 섞인 태토를 사용하여 제작하였으며, 바닥에는 모래받침의 흔적이 남아 있다.

- 개 떡 : 크기가 조금씩 다를 뿐 모두 동일한 형태이다.

①(사진9-4-①) : 원반형으로, 경사진 가마의 바닥에 그릇을 수평으로 올려놓기 좋게 하기 위하여 한 쪽은 얇고 다른 한쪽은 두껍게 만들었다. 마사토질의 내화재료로 제작되었으며, 윗면에는 그릇을 놓았던 흔적이 남아 있다.

다. 其 他

- 가마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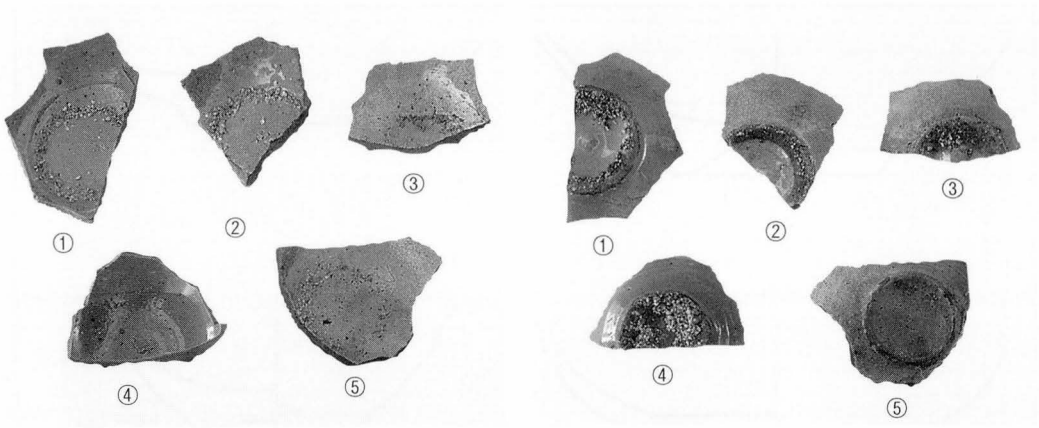
①(사진9-4-②) : 가마의 벽편으로 마사토질의 재료로 만들어졌으며, 곳곳에 석영 알갱이가 섞여 있다. 가마의 안쪽에 해당하는 벽의 표면에는 백토를 얇게 발랐으며, 외벽으로 향할수록 진홍색에서 적색으로 색이 변화되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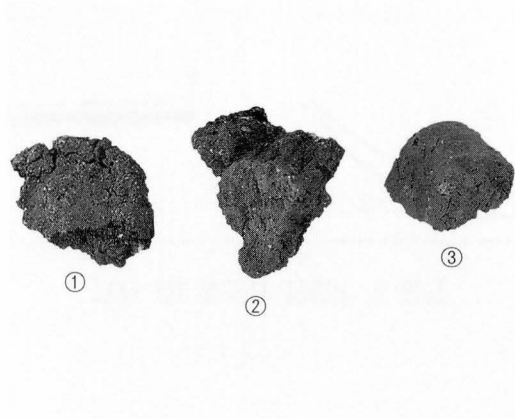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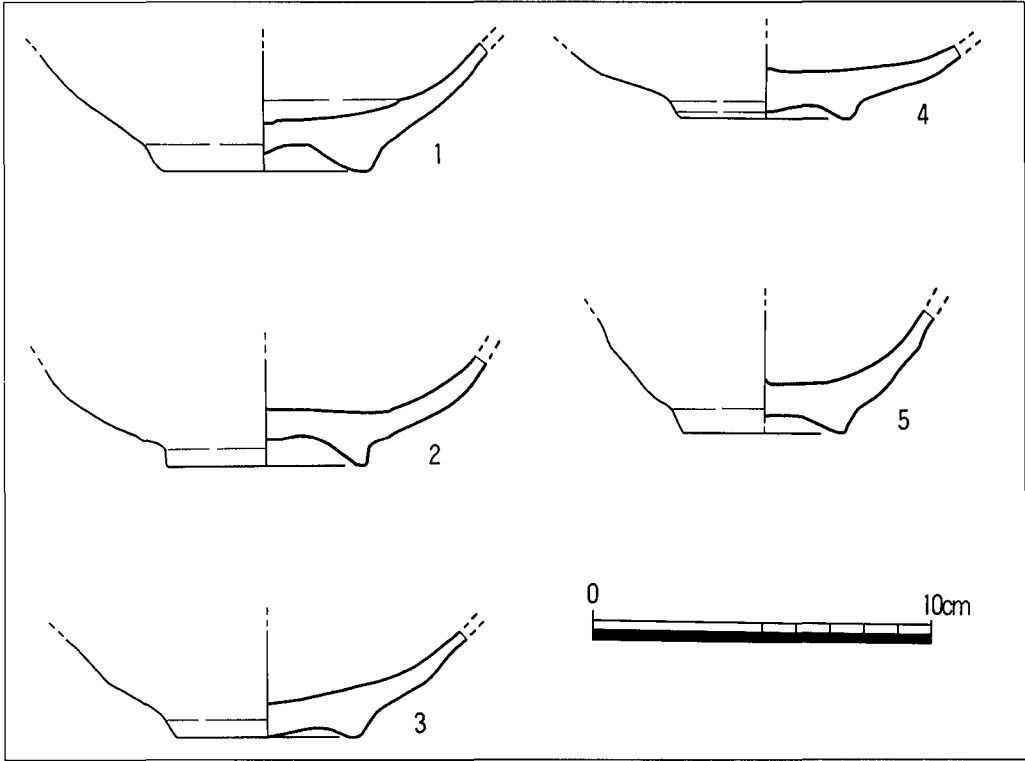


3



4

사진 9. 기흥읍 지곡리 3호 요지



도면 9. 기흥읍 지곡리 3호 요지

### 3. 水枝邑

#### 1) 竹田里 1호 요지

- (1) 성 격 : 高麗 11世紀 陶器窯址
- (2) 위 치 : 중명아파트 남쪽에 조성된 단대 진입로 길을 따라 동쪽으로 약 500여 미터 간 둔덕에 위치하고 있다. 지번은 산 48-5임, 산 48-6임 산 50-3임, 산 50-4임, 326대일대에 해당한다.(사진10-1, 지도1·9)
- (3) 현 상 : 유적이 위치한 구릉의 일부는 단대 진입로 공사로 인해 잘려져 있는 상태이고, 식수를 위해 계단식으로 단을 조성하였다. 도기편들이 단을 조성한 곳에 나무들과 함께 흩어져 노출되고 있다. 유적은 단 조성으로 인해 일부는 훼손된 상태로 추정된다. 유적의 범위는 대략 가로 10, 세로 10 미터 정도로 보인다.(사진10-2)
- (4) 유 물 : 다량의 陶器파편이 확인되었다.

가. 陶器 : 조금씩 세부의 형태를 달리하는 호의 파편이 대부분이지만, 병의 파편도 한 점 확인되었다.

● 壺 :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파편이 수습되었다.

①(사진10-3-②, 도면10-5) : 구연이 살짝 외반하고 몸체의 기벽이 사선을 그리는 형태이지만, 구연의 두께와 외반의 정도는 약간씩 차이가 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적갈색 혹은 회흑색으로 잡물이 섞여 있지 않다. 몸체의 중앙과 저부는 파손되어 알 수 없다.

②(사진10-3-①·③~④, 도면10-1~3) : 구연이 외반하고 목이 잘록하며 몸체의 기벽이 곡면을 그리며 크게 벌어지는 형태로, 몸체의 중앙과 저부는 파손되어 알 수 없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회흑색이며 잡물이 섞여 있지 않다.

③(사진10-4·5, 도면10-6~7) : 구연에는 외반된 전이 있으며, 목이 잘록하고 몸체의 기벽이 사선을 그리며 점차 커지는 형태의 대형 항아리이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적갈색으로 잡물이 없다. 몸체의 중앙과 저부는 파손되어 알 수 없지만, 수습된 유물중에 기벽이 얇고 바닥이 편평하게 다듬어진 대형의 항아리 저부가 있다. 수습유물 중에서 가장 커다란 항아리이다.

● 瓶 : 한 점이 수습되었다.

①(사진10-3-⑤, 도면10-4) : 구연부와 몸체의 상부는 파손되었고, 몸체의 저부는 원통형이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나, 안쪽면에는 물레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태토는 회흑색으로 잡물이 섞여 있지 않다. 굽은 따로 만들지 않고 바닥을 편평하게 다듬은 후,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 시루 : 한 점이 수습되었다.

①(사진10-6-②) : 몸체는 모두 파손되었으며, 편평한 바닥의 일부만이 수습되었다. 현재 바닥에는 세 곳에 커다란 圓孔이 뚫려 있다. 태토는 적갈색으로 잡물이 없는 점토질이다. 받침흔적은 남아 있지 않다.

● 其他 : 기종을 확실하게 알 수 없는 파편이 한 점 수습되었다.

①(사진10-6-①) : 몸체의 일부만이 수습되어 전체적인 형태는 알 수 없으며, 현재 남아 있는 파편은 반구형을 이루고 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안쪽면에는 물레자국이 남아 있다. 태토는 흑회색으로 잡물이 섞여 있지 않다. 표면에는 흑유를 얇게 씌운 것으로도 생각되지만, 단언할 수 없다. 장군의 측면부분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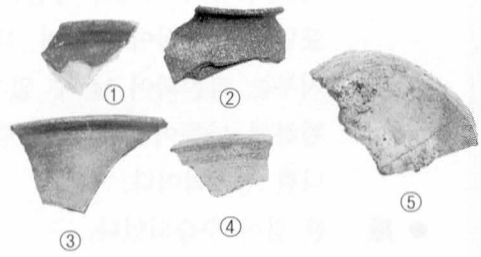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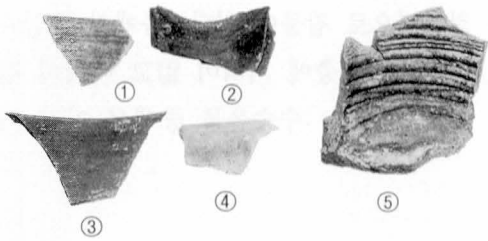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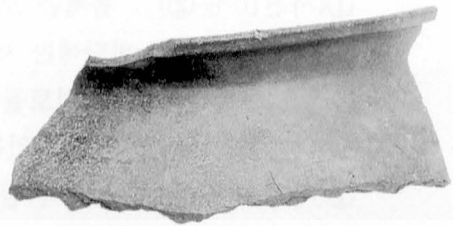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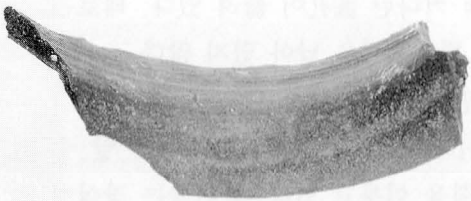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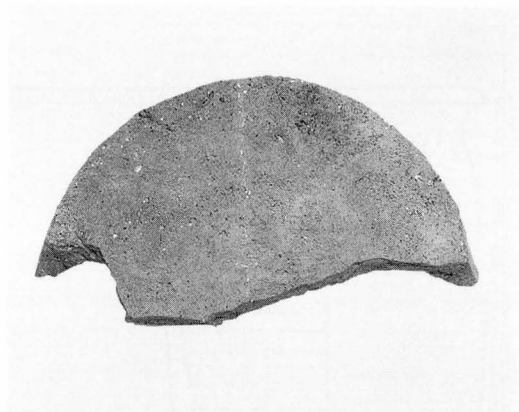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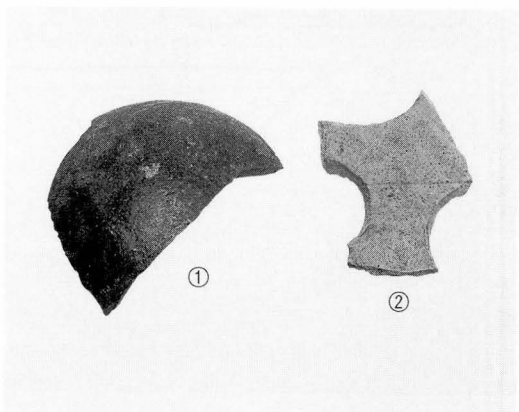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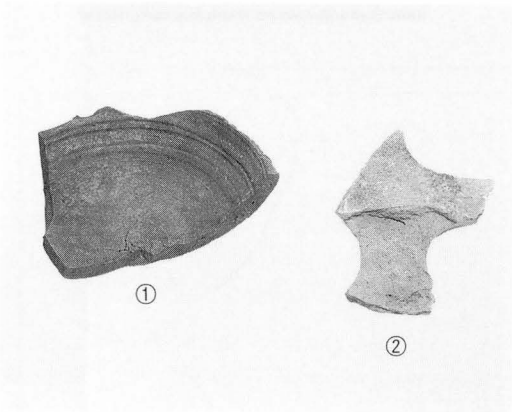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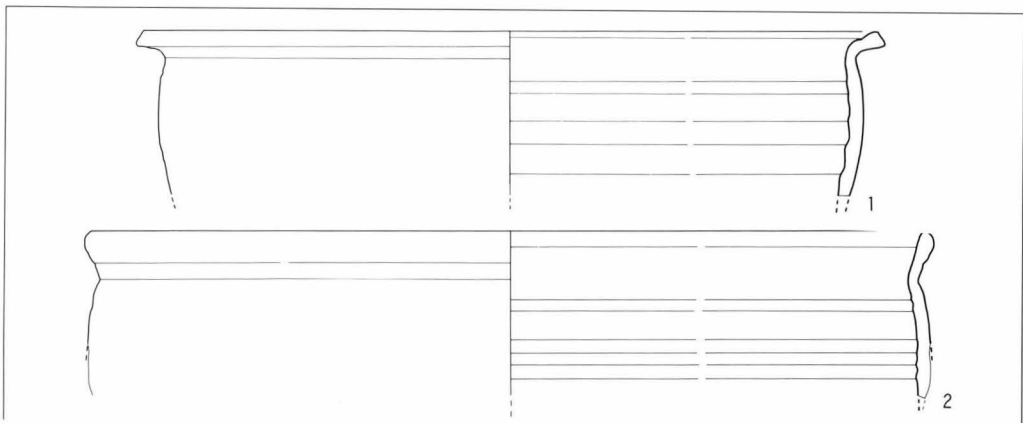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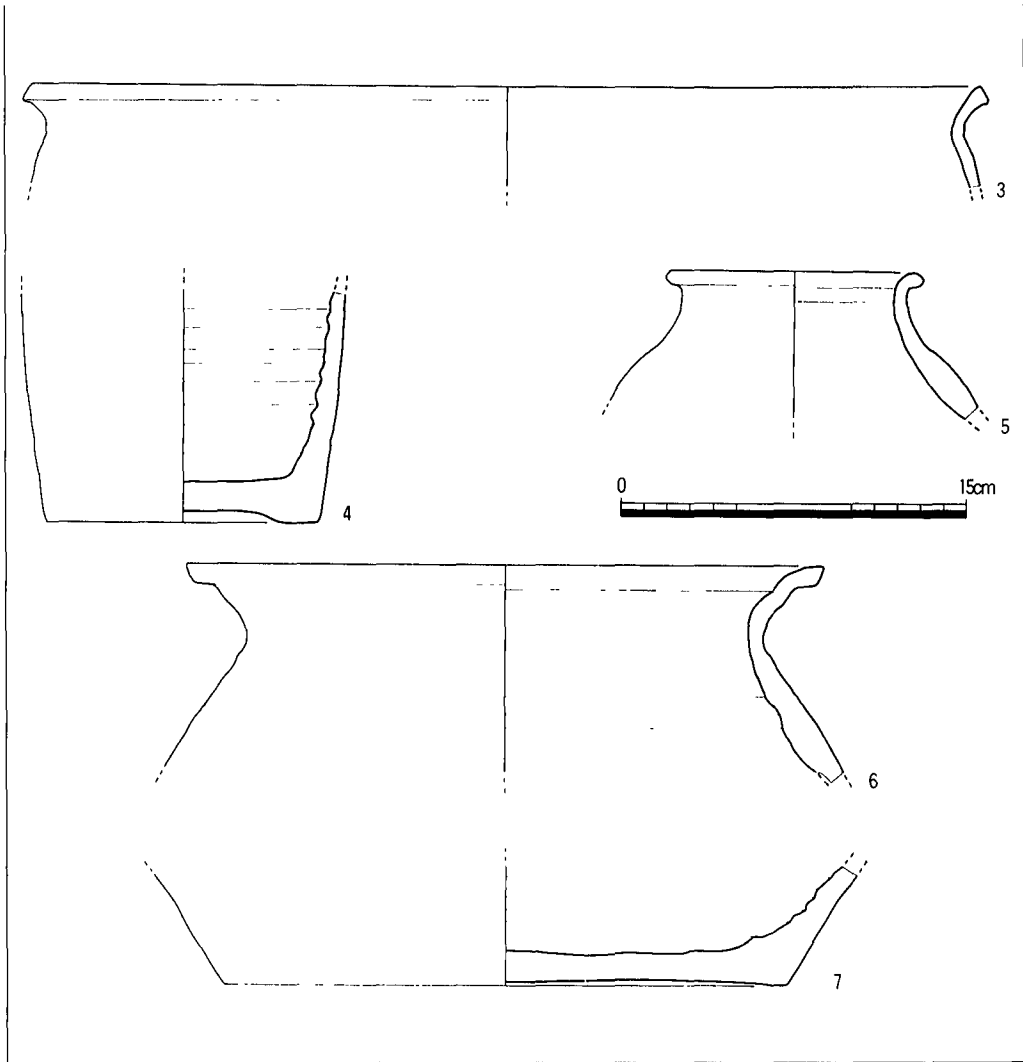
5



6

사진 10. 수지읍 죽전리 1호 요지





도면 10. 수지읍 죽전리 1호 요지

## 2) 新鳳里 1호 요지

- (1) 성격 : 朝鮮 19世紀 白磁窯址
- (2) 위치 : 신봉리 서봉마을 뒤쪽 계곡에 있는 영험사(690번지)아래쪽 시냇가에 위치하고 있다. 그 맞은편으로 광교한중막이 있다. 지번은 산 98-1임일대에 해당한다.(사진11-1, 지도1·10)
- (3) 현상 : 영험사로 올라가는 소로와 냇가 사이에 있다. 주변에 나무들이 많이 심어

져 있는 상태로 보아 유적은 크게 훼손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잡풀과 나무들이 많아 지표에 서 바로 확인할 수는 없었으며 낙엽들을 걷자 자기편들이 노출되었다. 소로와 인접한 곳에는 불을 먹은 돌들이 있는데, 이 돌 바로 밑에 가마벽편과 자기편들이 같이 있다. 재가 섞여 있는 흙들과 함께 주변에서 요도구 편들이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보아 가마의 범위는 대략 가로 20, 세로 20 미터로 추정된다.(사진11-2)

(4) 유 물 : 白磁와 黑磁, 요도구와 가마벽편이 수습되었다.

가. 白磁 : 다수의 대접과 접시모양의 제기가 수습되었지만, 형태와 크기도 유사한 것들이 많다.

● 大 椀 : 여러 점의 유물이 확인되었으며, 형태와 크기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뉜다.

①(사진11-3-①~②·④, 도면11-1) : 구연과 몸체가 호를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전체의 크기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모두 안바닥이 매우 넓고 편평하다. 모두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에는 미세한 잡티가 소량 섞여 있다. 굽은 높고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좁고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굽언저리보다 깊게 깎아낸 후, 바닥에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대부분 광택이 있는 회백색의 유약이 비교적 두껍게 씌워졌으며, 빙렬이 있는 것도 있다. 윗면 안바닥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남아 있다.

②(사진11-3-③·⑤, 도면11-2) : 구연과 몸체의 기벽이 직립하다가 저부에서 부드러운 곡면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은 넓고 완만한 곡면을 이루고 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의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높이가 낮고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좁고 대체적으로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굽언저리보다 깊게 깎아낸 후, 바닥에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는 밝은 회백색이나 암회색의 유약이 비교적 두껍게 씌워졌으며, 빙렬이 있다. 윗면 안바닥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는 예도 있다.

● 祭 器 : 소수 수습되었으며, 모두가 동일한 형태와 크기이다.

①(사진11-4, 도면11-3) : 구연은 외반하며 몸체의 기벽이 사선에 가까운 곡면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넓고 편평한 접시모양의 제기이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의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직경이 넓고 높이가 매우 높은 원통형이지만, 아래쪽으로 갈수록 나팔모양으로 조금씩 벌어져 있다. 대부분 굽안바닥을 깊고 편평하게 깎았으며, 바닥에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고 투명한 회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몸체와 굽이 만나는 곳에 하나의 작은 구멍을 뚫은 예가 있지만, 수습된 유물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나. 黑磁 : 항아리와 형태를 확인할 수 없는 잔파편이 수습되었다.

- 壺 : 분명한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파편은 한 점이 수습되었다.

①(사진11-5-①, 도면11-4) : 구연이 도톰하게 밖으로 말려 있고, 목이 직립하는 형태로, 몸체와 굽은 알 수 없다. 표면에 장식은 없으며, 태토는 흑갈색으로 잡물이 없다. 표면에는 암흑색의 유가 두껍게 씌워져 있으며, 빙렬은 없다. 안쪽면에는 물래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 其他 : 기종을 확인할 수 없는 잔파편이 소수 수습되었다.

①(사진11-5-②~⑤) : 병의 몸체와 작은 호의 저부, 종지의 구연 등으로 추정되는 잔편이 수습되었으나, 파편의 크기가 작아 기종과 특징을 파악하기 어렵다.

다. 窯道具 : 한 종류가 수습되었다.

- 개 떡 : 크기가 조금씩 다를 뿐 모두 동일한 형태이다.

①(사진11-6-①~②) : 원반형으로 경사진 가마의 바닥에 그릇을 수평으로 올려놓기 좋게 하기 위하여 한 쪽은 얇고 다른 한쪽은 두껍게 만들었다. 마사토질의 내화재료로 제작되었으며, 윗면에는 그릇을 놓았던 흔적이 남아 있다.

라. 其他

- 가마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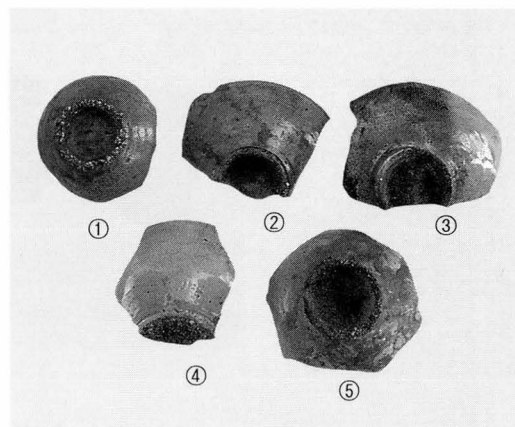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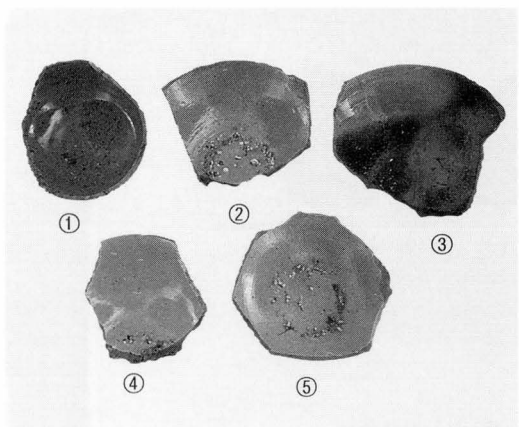
①(사진11-6-③) : 가마의 벽편으로 마사토질의 재료로 만들어졌으며, 곳곳에 석영 알갱이가 섞여 있다. 가마벽의 안쪽에서 외벽으로 향할수록 진홍색에서 적색으로 색이 변화되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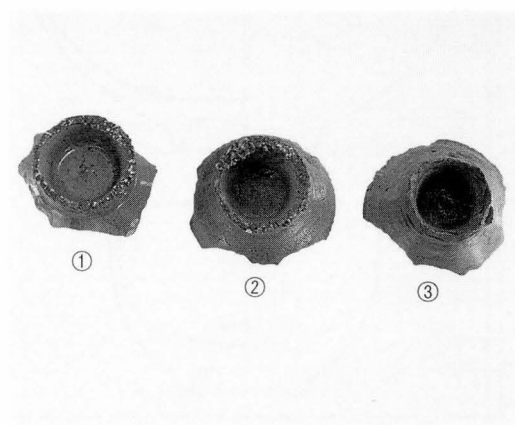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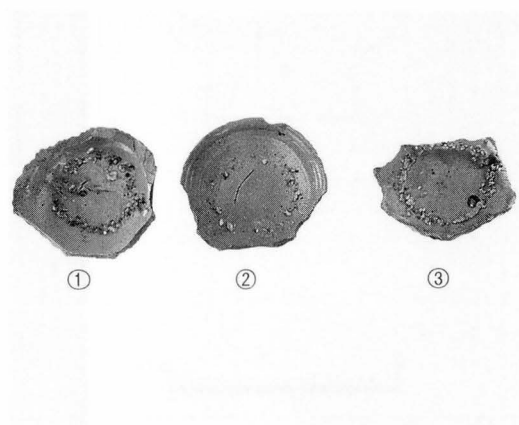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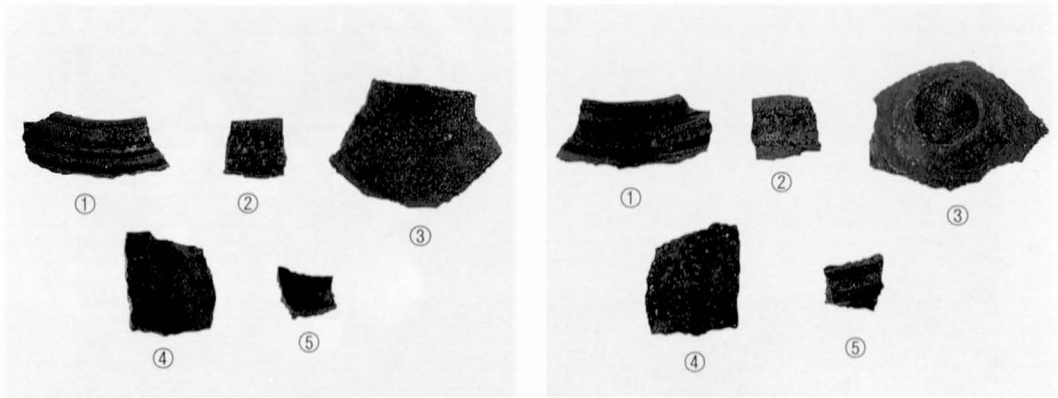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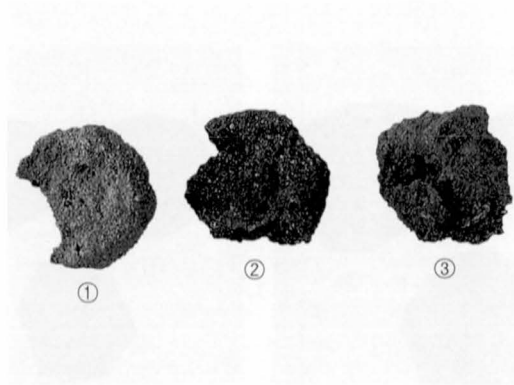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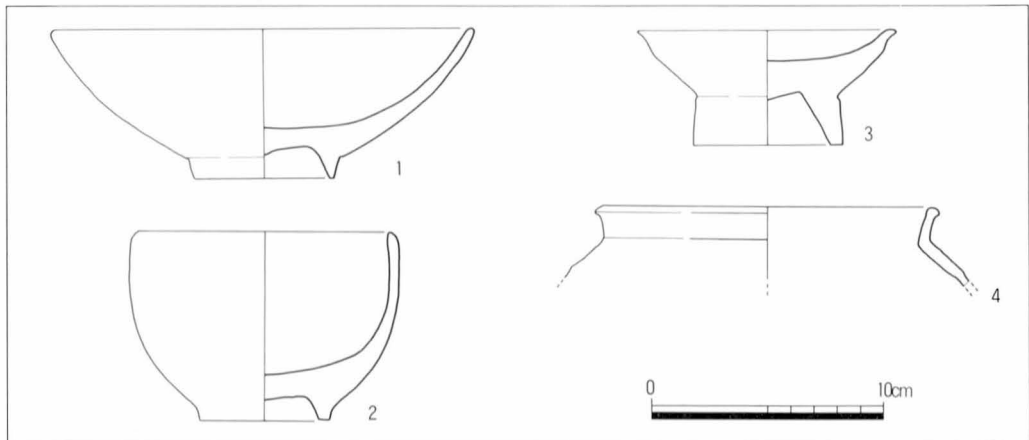


5



6

사진 11. 수지읍 신봉리 1호 요지



도면 11. 수지읍 신봉리 1호 요지

## 4. 駒城面

### 1) 寶亭里 1호 요지

- (1) 성 격 : 高麗 11世紀 靑磁 · 白磁窯址
- (2) 위 치 : 보정리 독정마을 끝나는 지점에서 비포장을 따라 단국대 신축건물 향하여 800 미터 정도 가면 묘목을 심은 밭이 나온다. 이 밭 북측에 바로 붙어 있는 나즈막한 구릉상에 위치한다. 지번은 산3-1임, 681-임일대에 해당한다.(사진12-1, 지도1·11)
- (3) 현 상 : 마을 뒷편부터 단대 뒷편까지 비포장의 소로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 소로가 끝나는 지점의 좌측편 구릉에 파편퇴적이 형성되어 있다. 파편은 주변의 소로까지 흩어져 있으며, 소로공사와 아카시아나무 식재로 인하여 유적의 일부가 파손된 듯 하나 대체적으로는 비교적 양호하게 남아 있는 상태이다. 유적의 범위는 가로 20, 세로 30여 미터에 달한다.(사진 12-2)
- (4) 유 물 : 白磁와 靑磁, 그리고 가마벽편이 수습되었다.

가. 白磁 : 대접과 접시가 주류를 이루며, 태토는 백토이지만 연록색의 유색을 보이는 것이 많다.

- 大 楨 : 다수의 파편이 확인되었지만, 모두가 동일한 형태이다.

①(사진 12-3-①, 도면12-1) : 구연과 몸체의 기벽이 완만한 호를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은 넓은 곡면을 이룬다. 안쪽면에는 구연부와 안바닥에 각각 한 줄의 음각횡선이 돌려져 있으며, 바깥면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다. 태토는 미세한 사립이 소량 섞여 있는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높이가 낮고 접지면의 폭이 고르지 못하며 깎음새가 거칠다. 굽 안바닥을 얇게 대충 깎은 후, 바닥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고 투명한 담갈록색의 유약이 얇게 씌워졌으며, 빙렬이 없다.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 甞 : 여러 점의 파편이 수습되었지만, 동일한 종류이다.

①(사진12-3-②~③, 도면12-2~3) : 구연이 모두 파손되어 모양은 알 수 없으며, 몸체의 기벽이 사선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 중앙에는 지름이 작은 원각이 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에는 미세한 모래알갱이가 섞여 있다. 굽은 높이가 낮고 접지면의 폭이 넓으며 깎음새가 거칠어, 몸체와 경계가 분명하지 못하다. 굽안바닥을 매우 얇게



대충 깎은 후, 바닥 네 곳에 내화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고 투명한 담록색의 유약을 씌웠으나, 갈록색으로 나타나는 예도 있으며, 빙렬이 있다.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남아 있기도 하다.

● 櫛 匙 : 백자중에서 가장 종류가 다양하며, 장식문양이 있는 예도 있다.

①(사진12-4) : 구연이 외반하며 몸체의 기벽이 사선을 이루다가 저부에서 각이 져 꺾여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매우 넓고 편평하다. 안쪽 면에는 기벽과 바닥전면에 걸쳐 모란당초문을 뺨뺨하게 壓印陽刻하였으며, 바깥면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다. 태토는 잡물이 없는 백토를 사용하였다. 이 접시는 포개구이를 하는 과정에서 밑의 대접과 달라붙어 굽의 형태를 확인할 수 없다. 표면에는 광택이 좋고 투명한 담록색의 유약이 씌워졌으며, 빙렬이 있다. 윗면에는 번조시 생긴 잡물이 다량 붙어 있다.

②(사진12-5-①, 도면12-4) : 구연과 몸체의 기벽이 사선을 이루다가 저부에서 부드럽게 각이 져 꺾여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은 넓은 곡면이다. 안쪽면에는 안바닥 가장자리에 음각형선을 한 줄 돌려지며, 바깥쪽에는 장식이 없다. 태토에는 미세한 모래알갱이가 섞여 있다. 굽은 내경하며, 깎음새가 거칠어 접지면과 굽안바닥의 구분이 분명하지 못하다. 굽안바닥을 알게 대충 깎은 후, 바닥에 내화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고 투명한 담록색의 유약을 얇게 씌웠으나, 시유상태가 고르지 못하다.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③(사진12-5-⑤, 도면12-8) : 구연과 몸체의 기벽이 사선을 이루다가 저부에서 곡면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기벽과 만나는 편평한 안바닥의 가장자리가 다소 예리하게 각이 져 있는 작은 접시이다. 안쪽면에는 구연부에 두 줄의 음각형선이 돌려져 있으며, 바깥쪽에는 장식이 없다. 태토는 잡물이 없으며, 굽은 파손되어 알 수 없다. 광택이 있고 투명한 암갈색의 유약이 얇게 시유되었으며, 빙렬이 있다.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④(사진12-5-④, 도면12-7) : 구연이 외반하고 몸체의 기벽이 수직하다가 저부에서 각이 져 꺾이며 완만한 사선으로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기벽과 만나는 안바닥 가장자리가 예리하게 각이 져 있는 접시이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에는 미세한 잡티가 소량 섞여 있다. 굽은 안굽으로, 편평한 바닥을 얇고 오목하게 파내었다. 굽에는 시유하지 않고, 바닥

에 내화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고 투명한 담록색의 유약을 얇게 씌웠으며, 빙렬이 있다.

⑤(사진12-5-②, 도면12-5) : 구연은 파손되었으며, 몸체의 기벽이 사선에 가까운 곡면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넓고 편평한 작은 접시이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에는 잡물이 없다. 굽은 높이가 낮고 접지면의 폭이 고르며, 비교적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까지 시유하였으나, 접지면의 유약을 깨끗히 닦아내고 네 곳에 내화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고 투명한 담록색의 유약을 얇게 씌웠으며,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⑥(사진12-5-③, 도면12-6) : 구연이 몸체에 직각으로 외반하고, 기벽이 완만한 곡면을 이루며 바닥에 이어지는 형태로, 편평한 안바닥 가장자리에 원형의 음각선문이 돌려져 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에는 미세한 잡티가 소량 섞여 있다. 굽은 오목굽으로 안바닥을 얇고 오목하게 깎아내었다. 안바닥까지 시유하였으며, 접지면의 유약을 대충 닦고 내화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고 투명한 담록색의 유약을 얇게 씌웠으며,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 其他 : 기종을 알 수 없는 커다란 파편 한 점이 수습되었다.

①(사진12-6-③, 도면12-9) : 구연부나 저부의 형태는 알 수 없으며, 몸체의 중앙이 거의 수직하게 저부로 이어지는 형태이다. 파편의 내면에 선명한 물레자국이 있으며 유약이 일부 시유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대형의 병으로도 생각되지만, 단언할 수 없다. 장식은 없으며, 태토에는 미세한 모래알갱이가 소량 섞여 있다. 광택이 있고 투명한 담록색의 유약을 얇게 씌웠으나, 용융상태가 고르지 못하다.

나. 靑磁 : 완과 호가 주류를 이루며, 회색의 태토에 암록색의 유약을 씌운 것이 대부분이다.

● 罍 : 두 종류의 파편이 수습되었다.

①(사진12-6-①, 도면12-10) : 구연은 파손되었고 몸체의 기벽이 사선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의 폭이 좁고 바닥에는 원각이 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회색으로 잡물이 섞여 있지 않다. 굽은 높이가 낮고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고르고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편평하게 깎아내었으며, 접지면의 유약을 닦지않고 내화토비

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고 투명한 암록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빙렬이 있다.

②(사진12-6-④, 도면12-11) : 구연은 파손되었고 몸체의 기벽이 사선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은 오목한 곡면을 이룬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밝은 회색으로 미세한 모래알갱이가 소량 섞여 있다. 굽은 높이가 낮고 내경하여, 몸체와 경계가 분명하지 못하다. 굽안 바닥을 편평하게 깎아내었으며, 접지면의 유약을 닦지 않고 내화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고 투명한 암록색의 유약을 씌웠으나 시유상태가 고르지 못하며, 빙렬이 있다.

● 壺 : 두 점의 저부 파편이 수습되었다.

①(사진12-3-④~⑤, 도면12-12~13) : 구연과 몸체일부가 파손되어 구체적인 형태는 알 수 없지만, 현재의 파편으로는 두 점 모두 몸체의 기벽이 사선형으로 뺨어 저부에서 점차 폭이 좁아지다가 바닥에 이어지는 형태이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지만, 안쪽기벽에는 제작시 생긴 물레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태토는 적갈색으로 미세한 모래알갱이가 소량 섞여 있다. 굽은 따로 만들지 않고 바닥을 편평하게 다듬은 후,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암록색의 유약을 씌웠으나, 한 점은 외면의 용융상태가 불량하다.

다. 陶器 : 호의 파편이 확인되었다.

● 壺 : 한 점의 파편이 수습되었다.

①(사진12-6-②) : 몸체중앙의 일부에 해당하는 파편으로, 직경이 넓은 대형의 호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바깥면은 단정하게 다듬었지만, 안쪽면에는 물레자국이 그대로 드러나 보인다. 기벽의 두께가 얇으며, 태토는 회색으로 잡물이 섞여 있지 않다. 표면은 흑유를 얇게 입힌 것과 같이 흑색을 띠고 있다.

라. 其他

● 가마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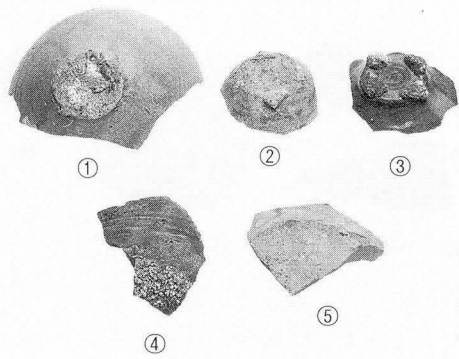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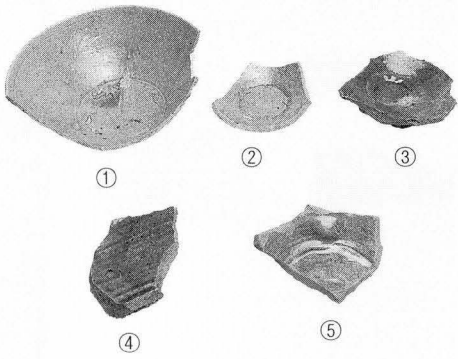
①(사진12-7) : 마사토질의 내화재료로 만들어졌으며 대부분 회흑색을 띠고 있다. 흙을 몇 겹으로 덧붙여 사용했던 흔적이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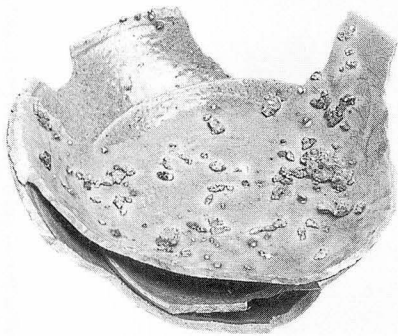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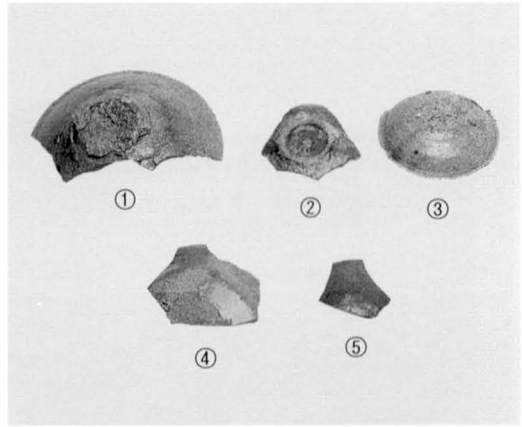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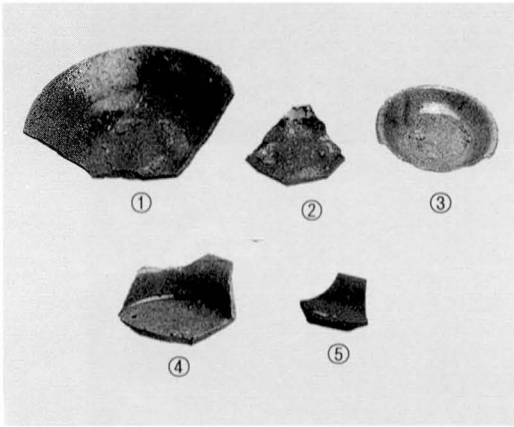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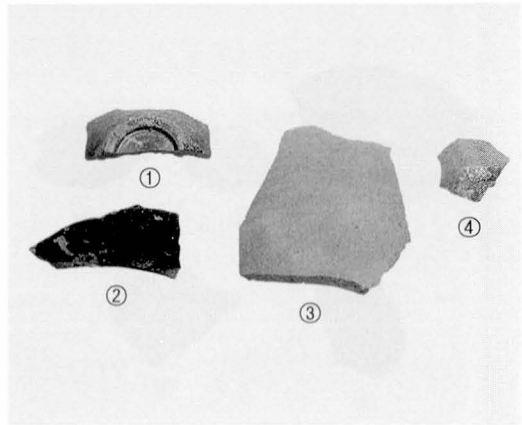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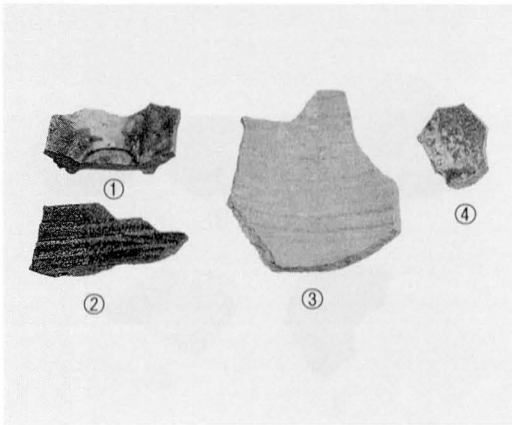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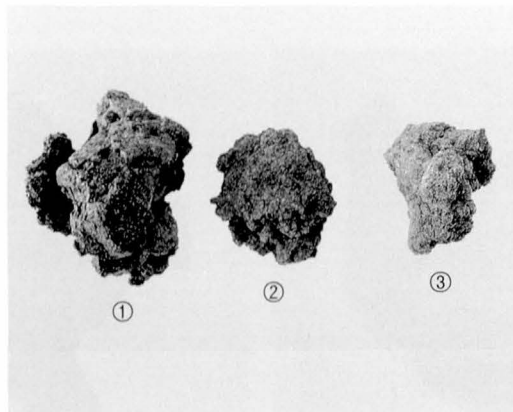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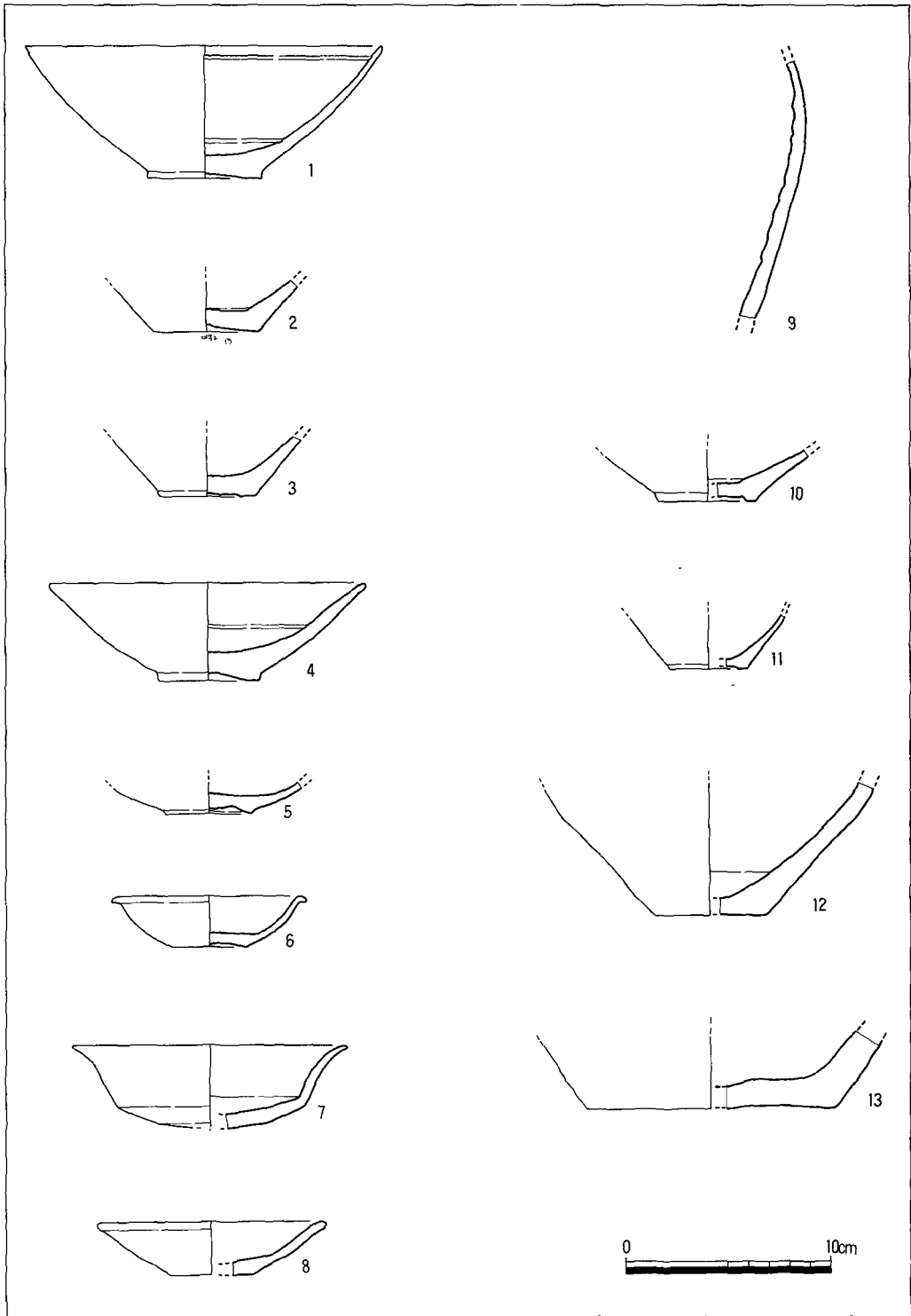


6



7

사진 12. 구성면 보정리 1호 요지



도면·12. 구성면 보정리 1호 요지

## 5. 陽智面

### 1) 南谷里 1호 요지

(1) 성 격 : 朝鮮 15~16世紀 白磁窯址

(2) 위 치 : 남곡리 은이골로 들어가는 비포장의 소로를 따라 계속 가다 보면 우측편에 두멍골이라는 골짜기에 아직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별장용 대지가 있다. 이곳에 철망이 둘러쳐져 있는데 유적은 바로 안쪽에 위치한다. 지번은 756전, 산 45-1임일대에 해당한다.(사진13-1, 지도1·12)

(3) 현 상 : 현재 건물이 들어설 대지는 세 개의 단으로 만들어 평탄작업을 하였고 안쪽에 모두 작은 나무를 식수하였으며, 주위는 철망이 둘러쳐져 있다. 대지 중간에 커다란 감나무가 세 곳에 흩어져 있는데, 나무와 나무 사이에 유적이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유적의 범위는 가로 30, 세로 30여 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평탄작업으로 정확한 유적의 위치와 범위는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며 형질도 심하게 변경되어 유적은 크게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소량이기는 하지만 백자파편들이 대지 안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4) 유 물 : 白磁와 窯道具, 그리고 가마벽편이 수습되었다.

가. 白磁 : 구연이 외반한 대접과 접시류가 주류를 이룬다. 유색은 담청백색이 대부분이며, 굽은 대마디 모양으로 깎아내었다. 굽바닥에는 태토비짐을 받쳐 포개구이하였다.

● 大 椀 : 다수의 파편이 확인되었으며, 두 개의 종류로 나뉜다.

①(사진13-2-①, 도면13-1) : 구연의 형태는 알 수 없으며, 몸체의 기벽이 완만한 곡면을 이루다가 굽언저리에서 각이 져 꺾이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넓고 편평한 안바닥에는 굽의 직경보다 넓은 원각이 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에는 미세한 잡티가 소량 섞여 있다. 굽은 대마디 모양으로 높이가 낮고 접지면의 폭이 고르지 않으며, 깎음새가 둔중하다. 굽안바닥을 얇고 오목하게 깎아낸 후, 바닥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용융상태가 좋지 않아 유약의 색은 알 수 없다.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②(사진13-2-②, 도면13-2) : ①번의 대접과 유사한 형태이지만, 전체적인 크기는 물론 원각의 직경도 현저하게 작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의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대마디 모양으로

접지면의 폭이 고르지 못하고 깎음새가 거칠다. 굽안바닥을 얇고 오목하게 깎아낸 후, 바닥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고 투명한 백유를 칠했으나, 외면에는 용융상태가 좋지 않다.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 櫛 匙 : 형태와 특징에 따라 두 개의 종류로 나뉜다.

①(사진13-3-①, 도면13-4) : 구연의 형태는 알 수 없으며, 몸체의 기벽이 완만한 사선을 그리다가 굽언저리에서 각이 져 꺾이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넓고 곡면을 이루는 안바닥의 가장자리에는 원각이 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에는 미세한 잡티가 소량 섞여 있다. 굽은 대마디 모양으로 높이가 낮고 접지면의 폭이 고르지 못하다. 굽안바닥을 얇고 오목하게 깎아낸 후, 굽과 굽주변에는 시유하지 않고 바닥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고 투명한 담청백색의 유약을 칠했으며, 빙렬은 없다.

②(사진13-3-②, 도면13-5) : ①번의 접시와 유사한 형태이지만, 크기가 작고 안바닥이 완전히 편평한 형태이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티가 없는 치밀질의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대마디 모양으로 접지면의 폭이 고르지 못하며, 깎음새가 거칠다. 굽안바닥을 오목하게 깎아낸 후, 굽에는 시유하지 않고 바닥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고 투명한 담청백색의 유약을 칠했으며, 빙렬은 없다.

- 盞 : 몇 점의 파편이 수습되었으며, 두 개의 종류로 나뉜다.

①(사진13-2-④, 도면13-6) : 구연의 형태는 알 수 없으며, 몸체의 기벽이 수직하다가 저부에서 부드럽게 각이 져 꺾이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이며, 안바닥은 편평하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대마디 모양으로 접지면의 폭이 고르고 비교적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오목하게 깎아낸 후, 굽안바닥에는 시유하지 않고 바닥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②(사진13-2-③, 도면13-3) : ①번의 잔과 유사하지만, 크기가 작고 구연이 외반되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의 백토이다. 굽은 대마디 모양으로 접지면의 폭이 고르지 못하고 깎음새가 거칠다. 굽안바닥을 오목하게 깎아낸 후, 굽에는 시유하지 않고, 바닥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나. 窯道具 : 다수의 개떡이 수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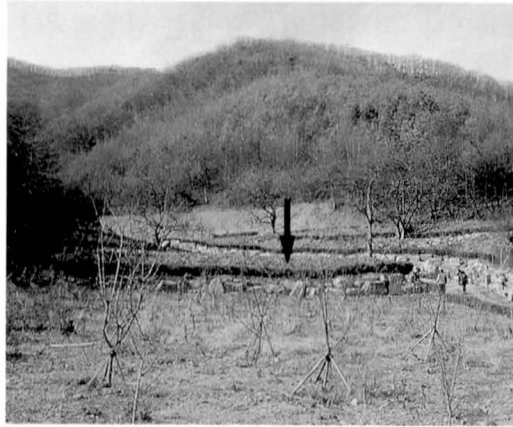
- 개 떡 : 크기가 조금씩 다를 뿐 모두 동일한 형태이다.

①(사진13-4-②) : 원반형으로 마사토질의 내화재료로 제작되었으며, 윗면에는 모래반침의 흔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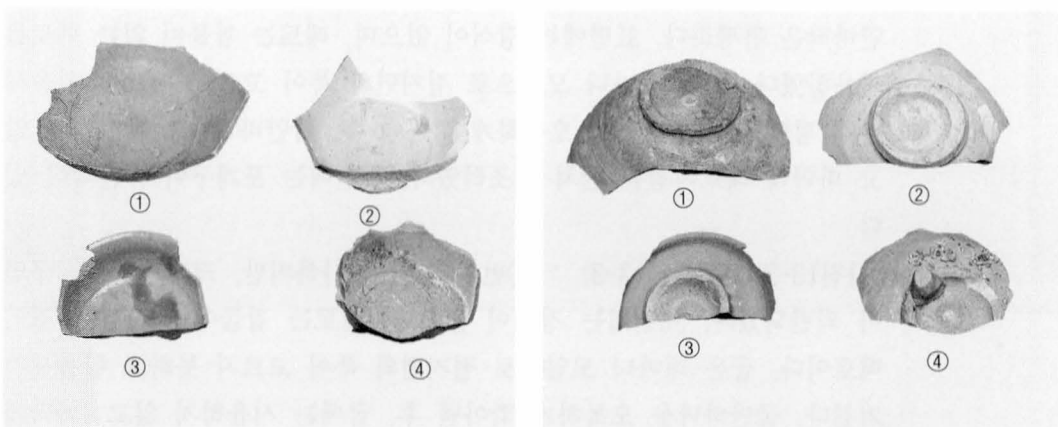
다. 기 타 : 가마벽편이 다수 확인되었다.

- 가마벽 : 축조재료와 색은 모두가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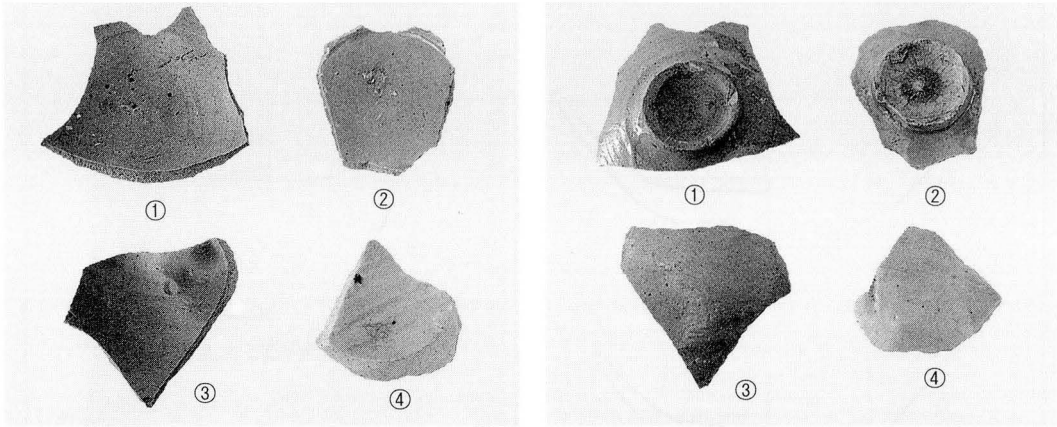
①(사진13-4-①) : 마사토질을 내화재료로 제작하였으며, 가마의 안쪽벽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백토를 발랐다. 가마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갈수록 암적색에서 갈색으로 색이 변화되어 나타나며, 몇 겹으로 보수된 예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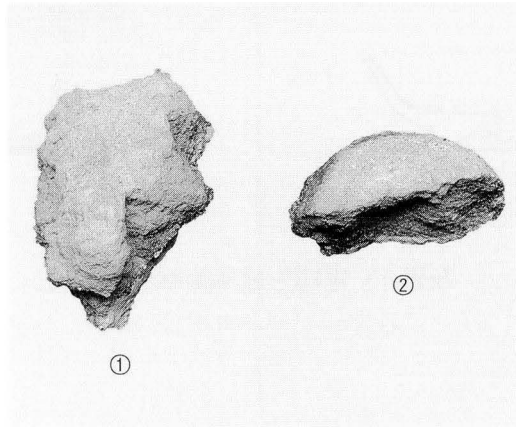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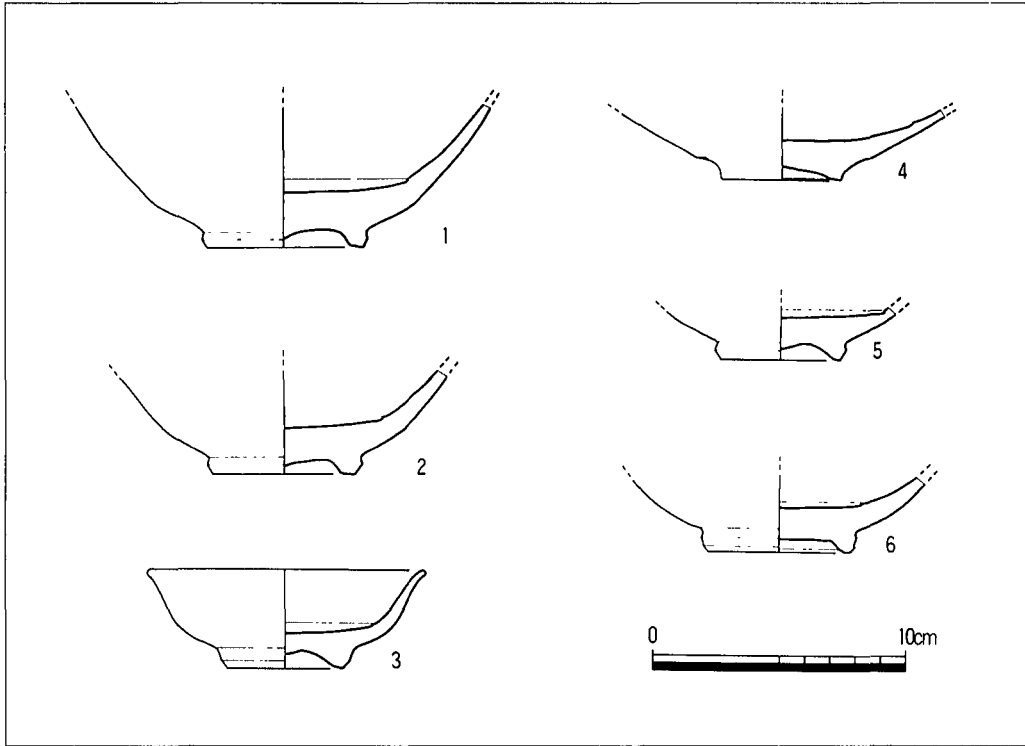


3



4

사진 13. 양지면 남곡리 1호 요지



도면 13. 양지면 남곡리 1호 요지

## 2) 大垈里 1호 요지

- (1) 성격 : 朝鮮 15~16世紀 白磁窯址
- (2) 위치 : 대대리 사기점을 가로질러 경기도 광주군 도척면으로 넘어가는 329번 포장도로의 좌측편 발에 위치하고 있다. 지번은 산 200임일대에 해당한다. 이곳에서 동쪽으로 250 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2·3호 요지가 위치한 고향촌 식당이 있다.(사진14-1, 지도1·13)
- (3) 현상 : 원래는 낮은 구릉을 이루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금은 낙차가 큰 계단식의 발과 논으로 개간되었다. 또한 위쪽 발의 중앙에는 묘지가 조성되어 유적의 일부가 훼손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는 발의 지표면과 발과 논 사이의 단애면에 파편이 집중되어 있다. 유적의 범위는 가로 30, 세로 20여 미터에 달한다.
- (4) 유물 : 白磁와 窯道具, 물레도구 등이 수습되었다.
  - 가. 白磁 : 대접과 접시가 주류를 이루며, 이외에도 잔과 병, 호 등이 수습되었다.

유색은 회백색과 담청백색이 주류를 이루며, 바닥에는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한 것이 많다.

- 大 楨 : 다수의 파편이 확인되었으며, 형태와 특징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뉜다.
  - ①(사진14-2-③, 도면14-3) : 구연은 파손되었으며 몸체의 기벽이 완만한 곡면을 이루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편평한 안바닥의 가장자리에는 원각이 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의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약간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고르지 못하고 깎음새가 비교적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비교적 깊고 편평하게 깎아낸 후 굽안바닥까지 시유하고, 바닥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밝은 회백색의 유약이 씌워졌으며, 빙렬은 없다.
  - ②(사진14-2-①, 도면14-1) : 구연은 파손되었으며 몸체의 기벽이 사선을 그리다가 저부에서 부드럽게 꺾여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편평한 안바닥의 가장자리에는 예리하게 깎인 원각이 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의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대마디 모양으로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고르지 못하고 깎음새가 거칠다. 굽안바닥을 얇고 오목하게 깎아낸 후, 굽주변에는 시유하지 않고, 네 곳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윗면에는 포개구기의 흔적이 있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회백색의 유가 씌워졌으며, 빙렬은 없다.
- 楨 匙 : 다수의 파편이 흩어져 있었으며, 수습된 파편은 형태와 특징에 따라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었다.
  - ①(사진14-3-②, 도면14-5) : 구연은 외반하고, 몸체가 완만한 곡면을 이루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넓고 편평한 안바닥의 가장자리에는 원각이 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미세한 잡티가 소량 섞여있지만 양질이다. 굽은 대마디 모양으로 약간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고르지 못하고 깎음새가 거칠다. 굽안바닥을 얇게 대충 깎아낸 후 굽과 굽언저리는 시유하고, 바닥 세 곳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회백색의 유약이 씌워졌으며, 빙렬은 없다.
  - ②(사진14-3-①, 도면14-4) : 구연은 파손되었으며 몸체의 기벽이 수평에 가까운 사선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매우 넓고 편평하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의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대마디 모양으로 직경이 비교적 넓고 내경하며, 깎음새도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얇고 오목하게 깎아낸 후, 굽에는 시유하지 않고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담청백색의 유약이 씌워졌으며, 빙렬은 없다. 윗면에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③(사진14-3-③, 도면14-6) : ①번의 접시와 유사한 형태이지만, 전체적으로 크기가 작고 안바닥에 원각이 없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티가 없는 양질이다. 굽은 대마디 모양으로 약간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고르지 못하고 깎음새가 거칠다. 굽안바닥을 대충 깎아낸 후 굽에는 시유하고, 바닥 네 곳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회백색의 유약이 씌워졌지만, 발색이 고르지 못하다.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 盞 : 여러 점이 확인되었으나, 모두가 동일한 형태로 크기가 조금씩 다르다.

①(사진14-2-②·4-③, 도면14-2·9) : 구연이 외반하고 몸체의 기벽이 사선을 그리다가 저부에서 부드러운 각을 이루며 꺾여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편평한 안바닥의 가장자리에 원각이 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의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대마디 모양으로 약간 내경하며, 깎음새가 단정한 예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접지면의 폭이 고르지 못하다. 굽안바닥을 얇고 오목하게 깎아낸 후, 굽과 굽주변에는 시유하지 않고 바닥 네 곳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담청백색의 유가 시유되었으며, 빙렬은 없다. 몸체의 높이는 대체적으로 유사하지만, 폭의 크기는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윗면에는 번조시 생긴 잡물이 붙어 있기도 하다.

● 瓶 : 한 점이 수습되었다.

①(사진14-4-②, 도면14-8) : 구연과 몸체상부는 파손되었으며, 몸체중앙이 타원형으로 팽만하다가 굽언저리에서 폭이 좁아지는 형태이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지만, 내면의 기벽에는 제작시 생긴 물레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태토는 회백색으로 잡물이 없다. 굽은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좁고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편평하게 깎아낸 후, 굽에는 시유하지 않고 번조하였으나, 받침흔적은 남아 있지 않다. 표면에는 광택이 좋고 투명한 회백색의 유약이 씌워졌지만, 외면에는 용융상태가 불량하다.

● 壺 : 한 점이 수습되었다.

①(사진14-4-①, 도면14-7) : 구연이 몸체에 직각으로 외반하고 목이 잘록하며 몸체의 중앙에서 평퍼짐한 형태로, 저부는 파손되어 알 수 없다. 표

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을 사용하였다. 표면에는 광택이 좋고 투명한 회백색의 유약이 씌워졌으며, 빙렬은 없다.

나. 窯道具 : 물레의 갓모와 자기의 번조에 사용된 도침이 수습되었다.

● 갓 모 : 백자로 제작된 것으로 한 점이 수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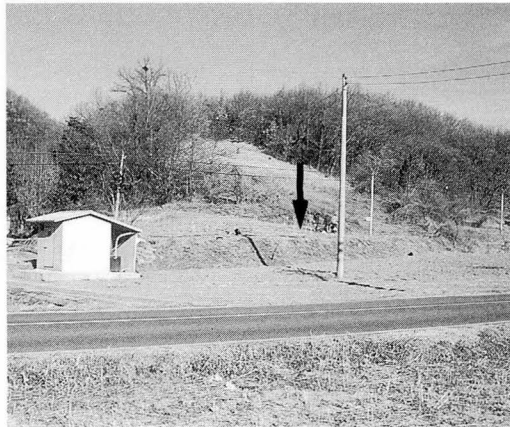
①(사진14-4-④, 도면14-10) : 원통을 얇은 두께로 잘라 놓은 듯한 형태로, 아래면보다는 윗면의 폭이 넓고 편평하며, 측면 두 곳에는 수직한 홈이 파여 있다.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의 백토를 사용하였으며, 바닥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표면에는 광택이 있는 담청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빙렬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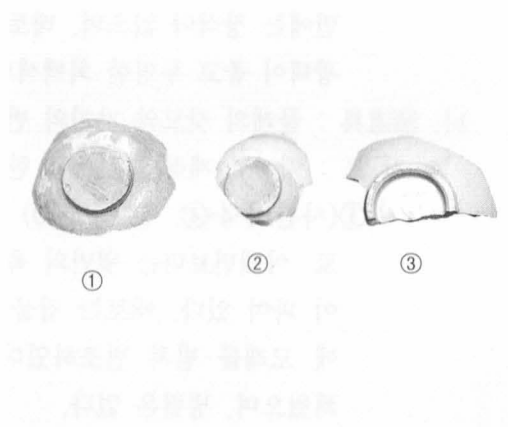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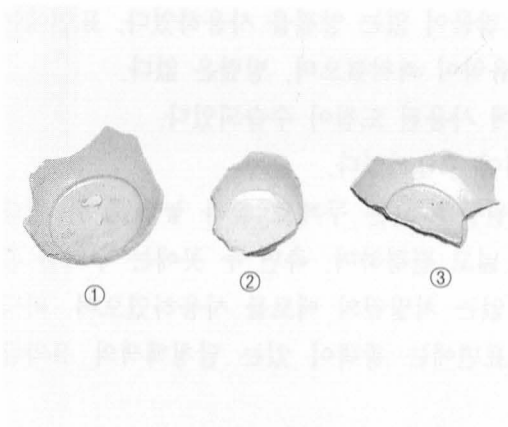
● 개 떡 : 다수의 유물이 확인되었으며, 크기와 형태가 조금씩 다르다.

①(사진14-5-①·③·⑤) : 원반형으로 마사토질 혹은 점토 등 내화재료로 제작되었으며, 두께와 직경이 다양하고, 두 개를 포개어 사용한 예도 있다. 윗면은 그릇을 놓을 수 있게 편평하게 다듬었으며, 모래받침의 자국이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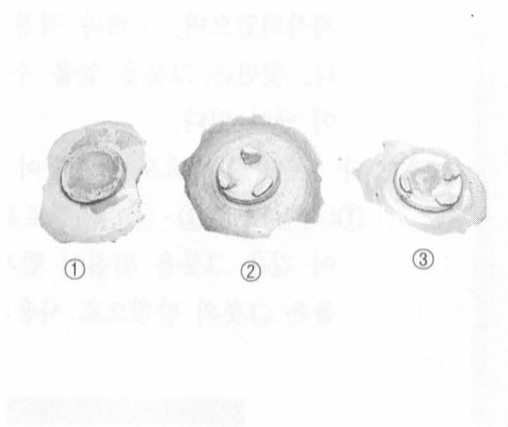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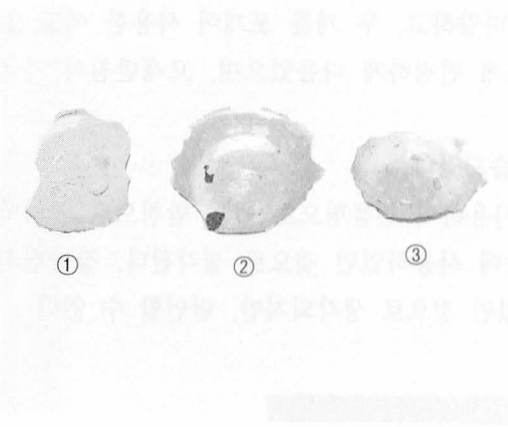
● 기 타 : 원뿔형의 요도구와 돌이 수습되었다.

①(사진14-5-②·④) : 점토를 사용하여 원뿔형으로 만든 받침으로 안바닥이 깊은 그릇을 뒤집어 받치는데 사용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장방형의 돌은 그릇의 받침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되지만, 단언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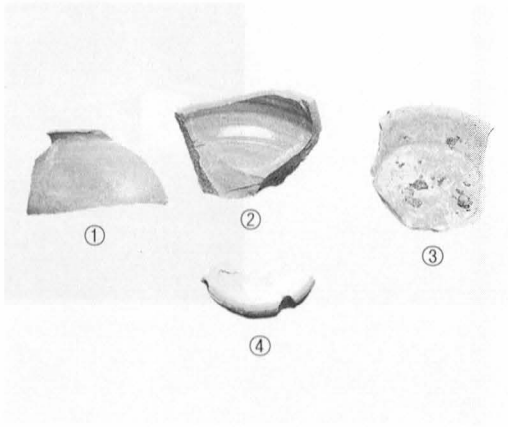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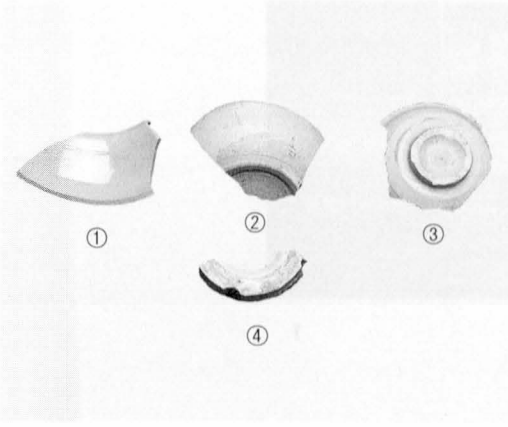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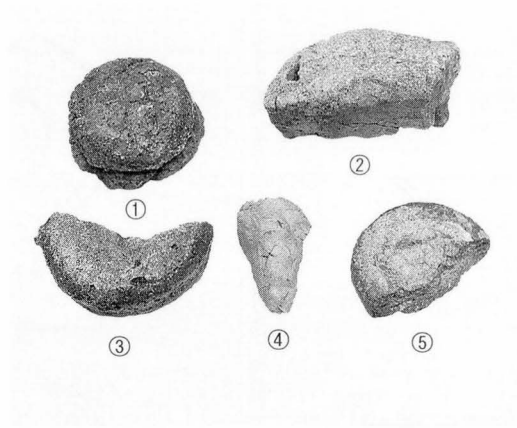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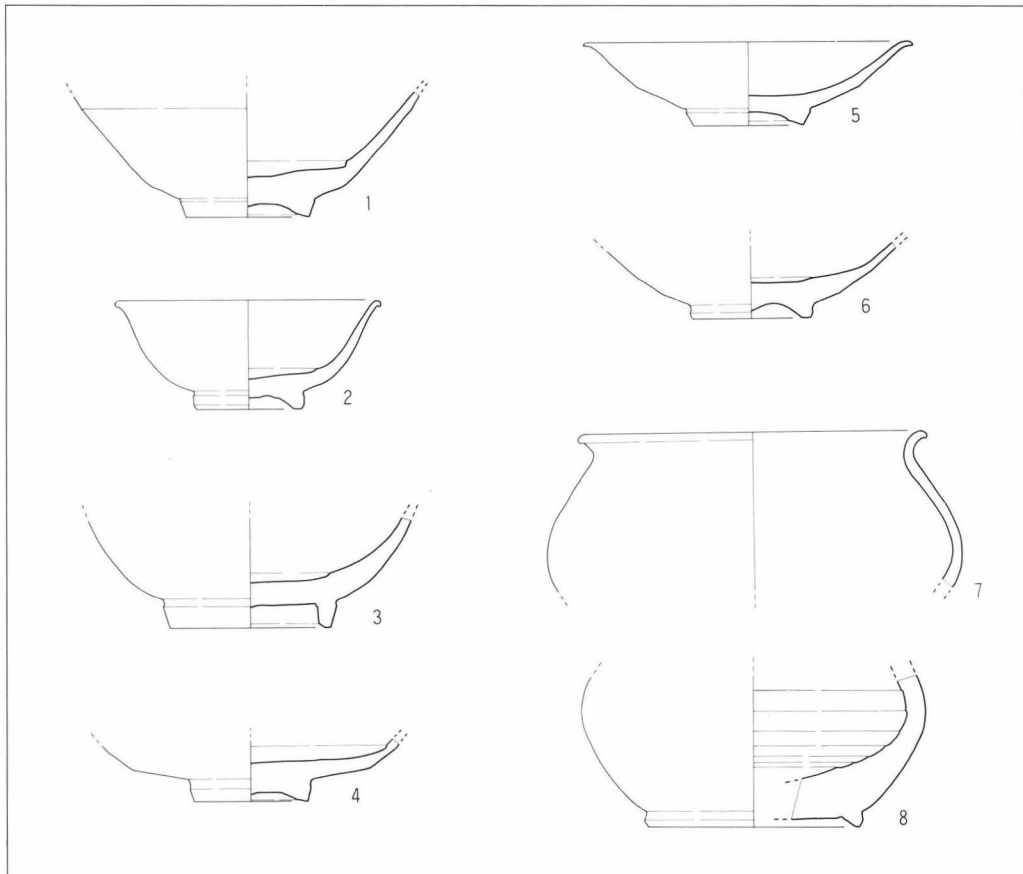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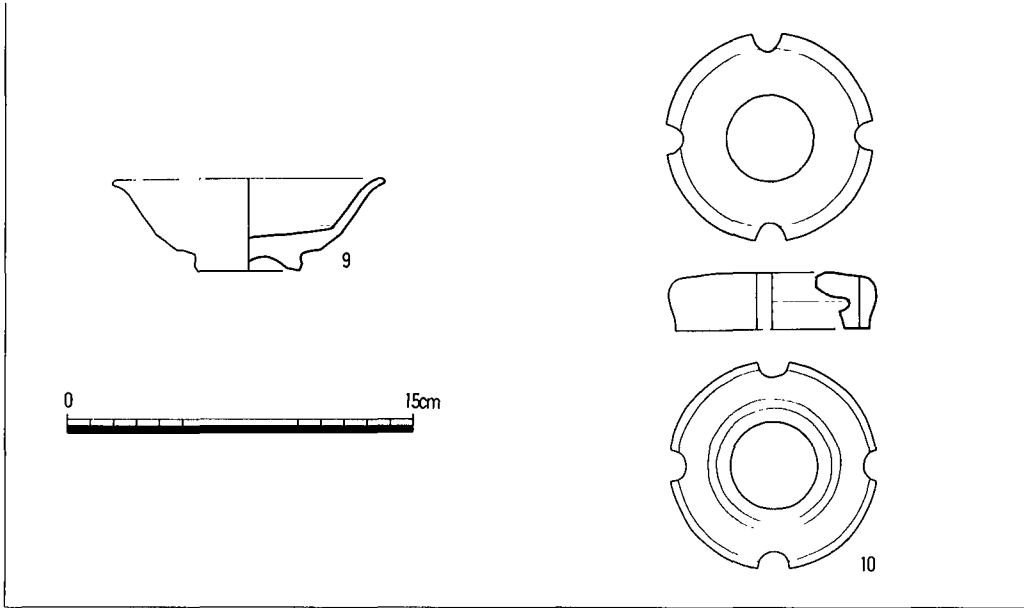


5

사진 14. 양지면 대대리 1호 요지







도면 14. 양지면 대대리 1호 요지

### 3) 大垈里 2호 요지

- (1) 성격 : 朝鮮 17世紀 白磁窯址
- (2) 위치 : 대대리에서 경기도 광주군 도척면으로 향하는 329번 도로변의 우측에 있는 고향촌 식당이 자리잡고 있다. 유적은 이 식당 정원내부에 있는 연못가 좌측편에 위치한다. 지번은 산 224임, 795전일대에 해당한다.(사진 15-1, 지도1·13)
- (3) 현상 : 이곳에는 두 곳의 요지가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서로간의 거리가 약 100여 미터 떨어진 상태이며 지표에 파편이 집중되어 있다. 그 중 동측의 요지로 지표에 소수의 백자파편과 함께 가마벽이 흩어져 있으며, 유적의 위쪽에는 지름 1.2미터, 높이 1미터 정도의 원형 2단의 작은 탑이 세워져 있는데, 이 탑은 이 곳의 가마벽편과 백자파편을 모아 만들었다. 유적의 범위는 가로 20, 세로 20여 미터에 달한다.
- (4) 유물 : 다양한 종류의 백자와 요도구가 수습되었다.
  - 가. 白磁 : 대접과 접시가 주류를 이루며, 이외에도 발, 잔, 병, 호 등이 수습되었다. 유색은 회백색이 대부분이며, 바닥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 鉢 : 몇 점의 파편이 수습되었다.

①(사진15-3-③, 도면15-12) : 구연은 몸체에 직각으로 꺾여 외반하는 폭이 좁은 전이 있으며, 몸체의 기벽이 사선을 그리는 형태로, 몸체중앙과 저부는 알 수 없다. 표면의 장식은 확인할 수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의 백토를 사용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담회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빙렬이 있다.

● 大 椽 : 형태와 크기에 따라 네 종류로 나뉜다.

①(사진15-2-①, 도면15-4) : 구연의 형태는 알 수 없으며, 몸체가 완만한 곡면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에는 굽의 직경보다 큰 예리하게 깎인 원각이 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이다. 굽은 내경하고 접지면의 폭이 좁으며, 깎음새가 단정하다. 안바닥을 오목하게 깎아내고, 바닥에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회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②(사진15-2-③, 도면15-6) : 구연의 형태는 알 수 없으며, 몸체가 호를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에는 직경이 매우 작은 원각이 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의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내경하고 접지면의 폭이 고르며, 깎음새가 단정하다. 안바닥을 얇고 편평하게 깎아내었으며, 바닥에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밝은 회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③(사진15-2-④, 도면15-7) : ①번의 대접과 유사하지만, 전체적으로 크기가 더욱 크고 안바닥에 원각이 없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의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약간 내경하고 접지면의 폭이 좁으며, 깎음새가 단정하다. 안바닥을 깊고 오목하게 깎아내었으며, 접지면에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적고 투명한 밝은 회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④(사진15-2-⑤, 도면15-8) : ②번의 대접과 유사하지만, 크기가 훨씬 작고 안바닥이 오목한 곡면을 이루고 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의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약간 내경하고 접지면의 폭이 좁으며, 깎음새가 단정하다. 안바닥을 오목하게 깎아내었으며, 바닥에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회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빙렬이 있다.

● 椽 匙 : 형태와 크기에 따라 세 종류로 나뉜다.

- ①(사진15-3-①, 도면15-12) : 구연의 형태는 알 수 없으며, 몸체의 기벽이 사선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넓고 편평한 대형접시이다. 표면에 장식은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이다. 굽은 약간 내경하고 접지면의 폭이 전체의 크기에 비하여 매우 좁으며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편평하게 깎아내고, 접지면에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회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윗면에는 포개 구이의 흔적이 있다.
- ②(사진15-4-③, 도면15-11) : 구연이 외반하며 몸체의 중심에서 부드러운 각을 이루며 꺾여 사선으로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편평한 안바닥의 가장자리에는 예리하게 깎인 원각이 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섞이지 않은 치밀질의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넓고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좁고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오목하게 깎아낸 후, 바닥에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윗면에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 ③(사진15-4-②, 도면15-10) : 구연은 파손되었고 몸체의 기벽이 사선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에는 넓은 원각이 있다. 전체적으로는 ②번의 접시와 유사하지만, 크기가 매우 작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섞이지 않은 치밀질의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넓고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고르지 못하다. 굽안바닥을 오목하게 깎아낸 후, 바닥에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윗면에는 번조시 생긴 잡물이 붙어 있다.
- 盞 : 모두 동일한 종류이다.
 

①(사진15-3-②, 도면15-14) : 구연의 형태는 알 수 없으며, 몸체의 기벽이 거의 수직하게 내려오다가 저부에서 부드러운 직각으로 꺾여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편평하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을 사용하였다. 굽은 약간 내경하고 깎음새가 둔중하다. 굽안바닥을 얇고 오목하게 깎아내고, 바닥전면에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담청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빙렬은 없다.
  - 瓶 : 한 점이 수습되었다.
 

①(사진15-3-④, 도면15-15) : 구연과 몸체의 형태는 알 수 없으며, 목이 길고 가는 형태이다. 표면의 장식은 알 수 없으며, 태토는 양질의 백토를 사용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회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빙렬이 있다.
  - 壺 : 모두 세 점의 파편이 수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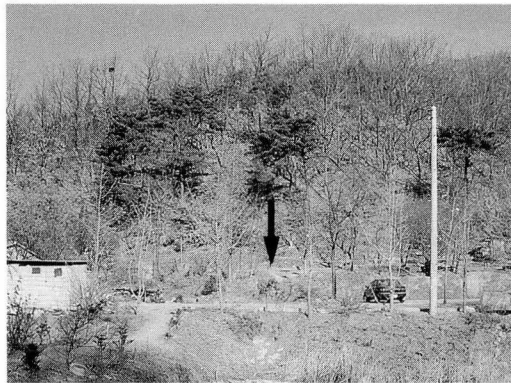
①(사진15-5-①~③, 도면15-1~3) : 구연은 외반하며 가장자리가 도톰하

고도 예리하게 깎여 있고, 몸체의 중앙에서 타원형으로 팽만하다가 굽은  
 저리에서 폭이 좁아지는 형태이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지만, 내면의 기벽  
 에는 물레자국이 남아 있는 예도 있다.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의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약간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고르고 깎음새가 단정하  
 다. 굽안바닥을 편평하게 깎아내고, 바닥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  
 이 좋고 투명한 밝은 회백색의 유약이 씌워졌으며, 빙렬이 있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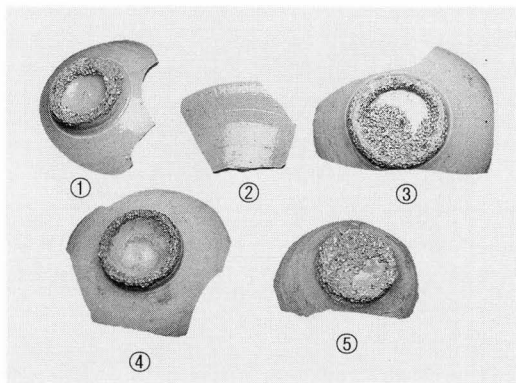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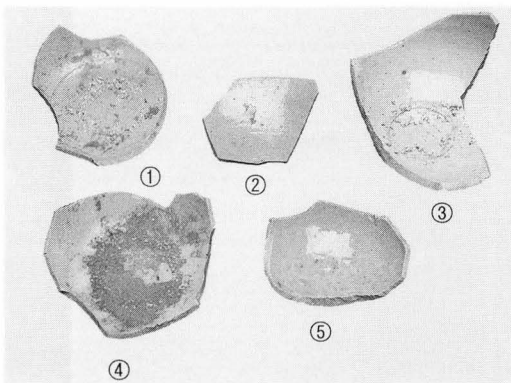
나. 窯道具 : 다수의 개떡이 수습되었다.

● 개 떡 : 크기가 조금씩 다를 뿐 모두 동일한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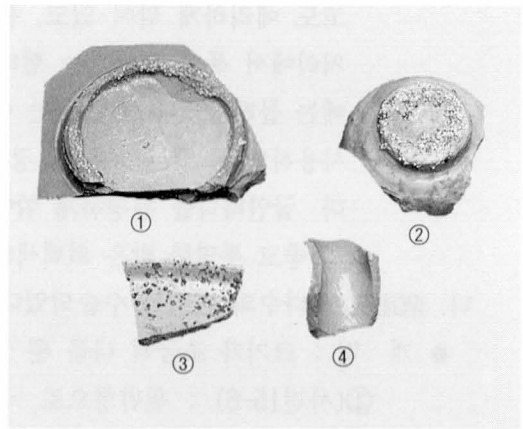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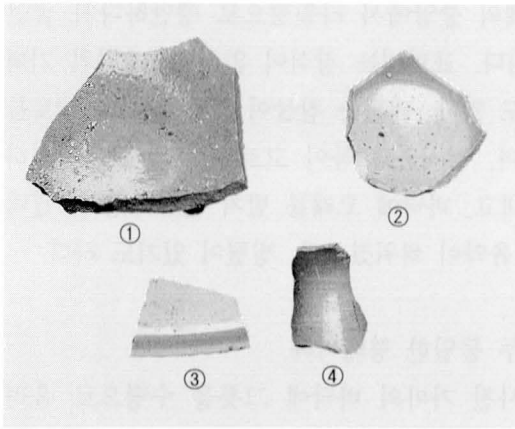
①(사진15-6) : 원반형으로, 경사진 가마의 바닥에 그릇을 수평으로 올려  
 놓기 좋게 하기 위하여 한 쪽은 얇고 다른 한쪽은 두껍게 만들었다. 마  
 사토질의 내화재료로 제작되었으며, 윗면에는 그릇을 놓았던 자국과 모  
 래받침의 흔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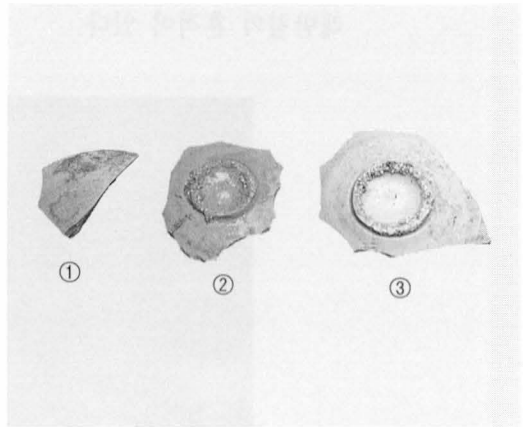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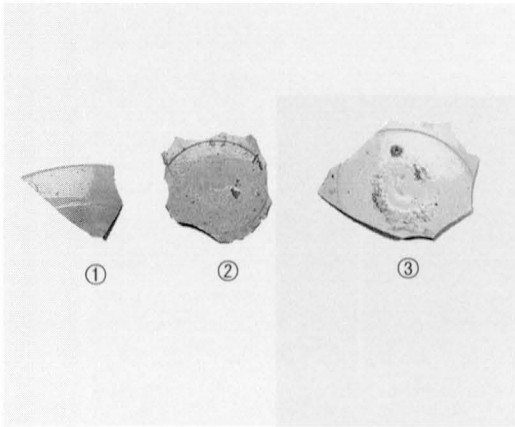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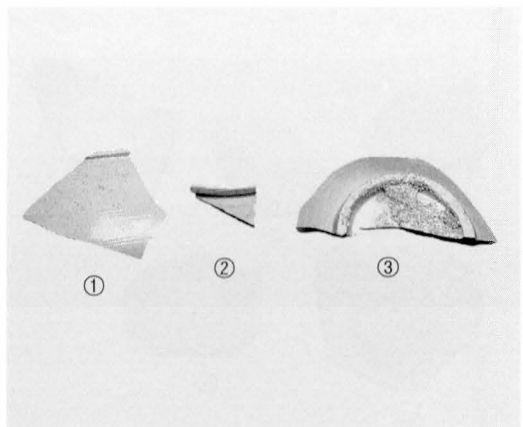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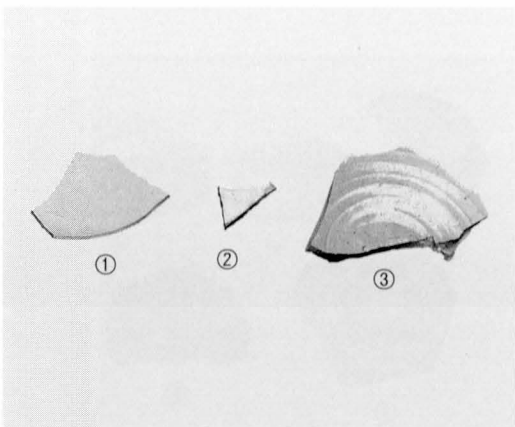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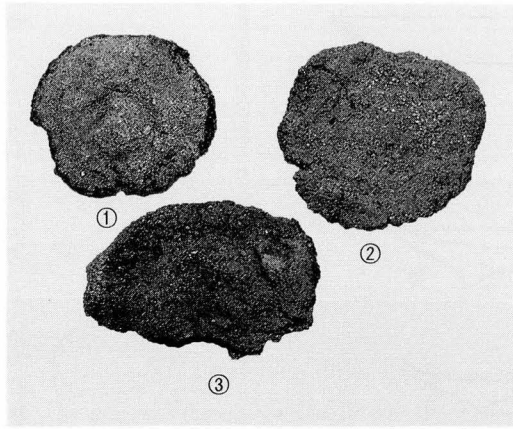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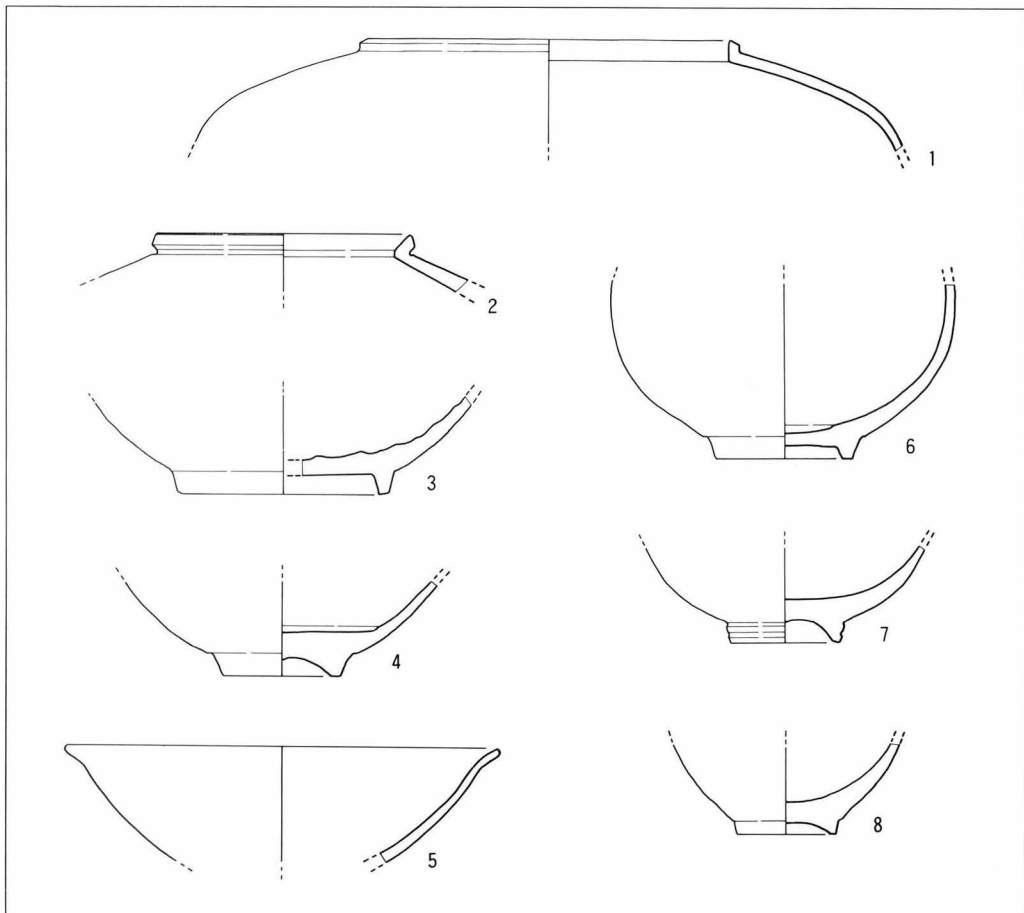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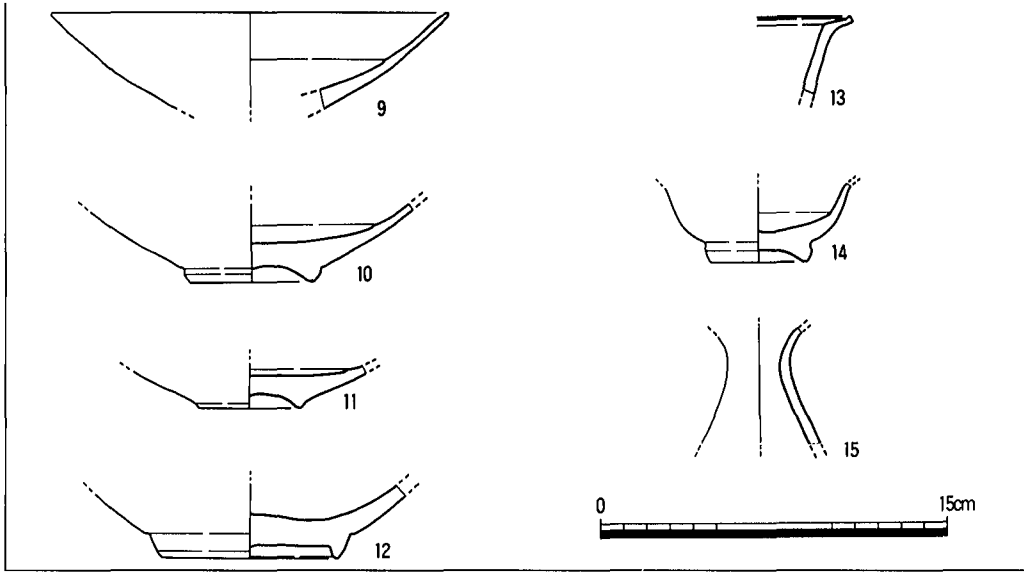
5



6

사진 15. 양지면 대대리 2호 요지





도면 15. 양지면 대대리 2호 요지

#### 4) 大垈里 3호 요지

- (1) 성격 : 朝鮮 17世紀 (鐵畫) 白磁窯址
- (2) 위치 : 대대리에서 경기도 광주군 도척면으로 향하는 329번 도로변의 우측에 위치한 고향촌 식당의 정원내부에 연못가가 있다. 유적은 이 곳 우측편 발에 위치한다. 지번은 796전, 795전일대에 해당한다.(사진16-1, 지도1·13)
- (3) 현상 : 두 곳의 가마터가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서로간의 거리가 약 100여 미터 떨어진 채로 지표에 파편이 집중되어 있다. 두 요지중 서측편 것으로 현재 발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발중앙에 있는 커다란 나무를 중심으로 경작시 출토된 파편과 가마벽 등이 이곳에 집중되어 있다. 범위는 백자가마 2호요지와 비슷하게 보이나 식당조성시 많이 훼손되어 있어 정확한 윤곽을 잡기는 어려운 실정이다.(사진 16-2)
- (4) 유물 : 다양한 종류의 (鐵畫)백자와 요도구가 수습되었다.
  - 가. 白磁 : 대접과 접시가 주류를 이루며, 이외에도 발, 병, 호 등이 수습되었다. 유색은 회백색이 대부분이며, 바닥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 鉢 : 한 점의 파편이 수습되었다.
  - ①(사진16-3-①) : 구연은 몸체에 직각으로 꺾여 외반하는 폭이 좁은 전이

있으며, 몸체의 기벽이 사선을 그리는 형태로, 몸체중앙과 저부는 알 수 없다. 표면에는 밤갈색의 철사안료로 초화문을 그린 듯한 장식이 있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의 백토를 사용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회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빙렬은 있다.

- 大 椀 : 다수의 잔편들이 수습되었으며, 이 중에는 철화백자의 편들이 많다.
  - ①(사진16-4-①·③~⑤) : 전체적인 형태는 알 수 없으며, 몸체가 완만한 곡면을 그리는 형태이다. 표면에는 밤갈색의 철사안료로 다양한 형태의 초화문을 그렸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을 사용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회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나, 발색이 고르지 않아 갈회색을 보이는 것도 있으며 용융상태가 좋지 못한 예도 있다.
- 椀 匙 : 다수의 파편이 수습되었으며,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 ①(사진16-5-②, 도면16-2) : 구연은 파손되었고 몸체의 기벽이 사선에 가까운 완만한 곡면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넓고 편평한 안바닥 가장자리에는 원각이 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의 백토이다. 굽은 높이가 낮고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좁고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오목하게 깎아내고, 바닥에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백유를 씌웠으며, 빙렬은 없다.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 ②(사진16-5-④, 도면16-3) : 구연이 외반하고 몸체의 기벽이 사선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넓고 편평하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의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약간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좁고 깎음새가 매우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편평하게 깎아내고, 바닥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백유를 씌웠으며, 빙렬은 없다. 번조시 형태가 다소 변형되었다.
  - ③(사진16-5-③, 도면16) : 구연은 파손되었고, 몸체의 기벽이 사선을 그리다가 굽언저리에서 꺾여 굽으로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넓고 편평하며 원각이 없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의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약간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고르지 못하다. 굽안바닥을 오목하게 깎아내고, 바닥에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회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빙렬은 없다.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 瓶 : 한 점의 철화백자편이 수습되었다.



①(사진16-4-②) : 몸체가 원통형인 병의 잔편만이 수습되어 전체적인 형태는 알 수 없다. 표면에는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는 철화장식이 있으며, 내면에는 물레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태토는 치밀질의 백토를 사용했으며, 광택이 좋고 투명한 밝은 회백색의 유약을 씌웠다.

● 壺 : 한 점의 철화백자편이 수습되었다.

①(사진16-3-②) : 구연과 저부는 파손되었으며, 어깨에서 부드럽게 각이져 꺾이며 수직한 몸체의 상부에 이어지는 형태이다. 표면에는 어깨에 두 줄의 음각형선을 돌리고 몸체에는 암갈색의 철사안료로 대나무를 그려 장식하였으며, 안쪽면에는 물레자국이 남아 있다.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의 백토를 사용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회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빙렬은 없다.

● 其他 : 器種이 정확치 않은 파편이 수습되었다.

①(사진16-5-①, 도면16-1) : 구연과 몸체가 파손되고 윗면에 물레자국만이 남아 있는 파편으로, 호나 발의 저부로 생각된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의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약간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고르고 깎음새가 매우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편평하게 깎아내고, 바닥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회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빙렬은 없다.

나. 窯道具 : 다수의 개떡이 수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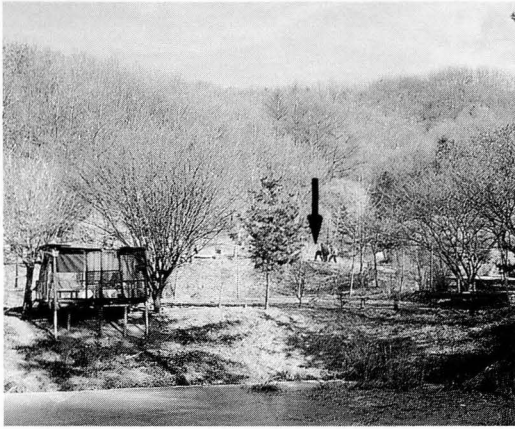
● 개 떡 : 크기가 조금씩 다를 뿐 모두 동일한 형태이다.

①(사진16-7-②~③) : 원반형으로, 경사진 가마의 바닥에 그릇을 수평으로 올려놓기 좋게 하기 위하여 한 쪽은 얇고 다른 한쪽은 두껍게 만들었다. 마사토질의 재료로 제작되었으며, 윗면에는 그릇을 놓았던 자국과 모래받침의 흔적이 있다.

다. 其他 : 가마벽편이 다수 확인되었다.

● 가마벽 : 축조재료와 색은 모두가 동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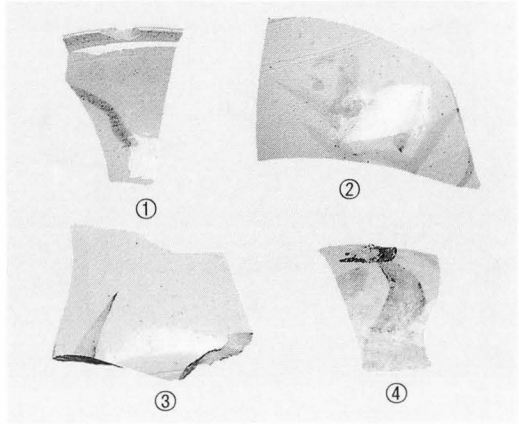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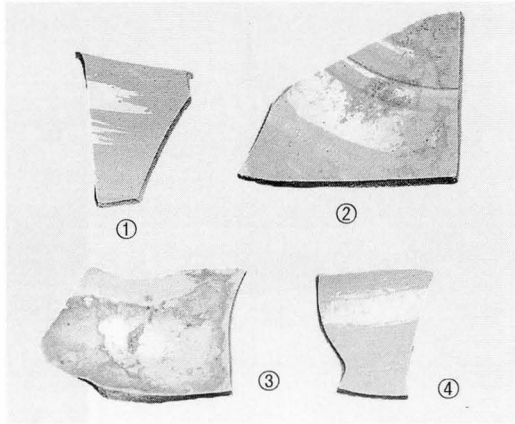
①(사진16-7-①) : 마사토질을 내화재료로 제작하였으며, 가마의 안쪽 벽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백토를 바르기도 하였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갈수록 암적색에서 갈색으로 색이 변화되어 나타나며, 몇 겹으로 보수된 예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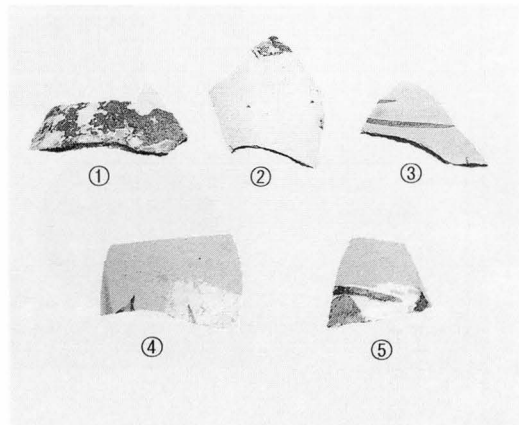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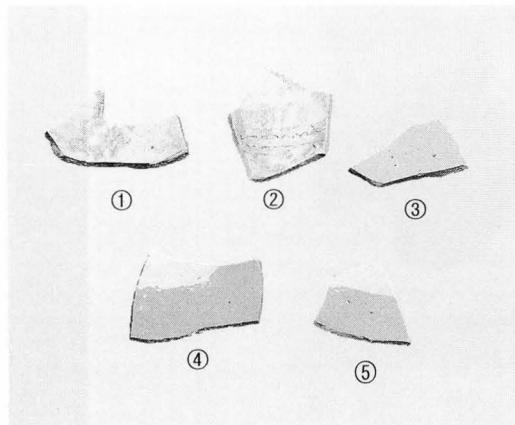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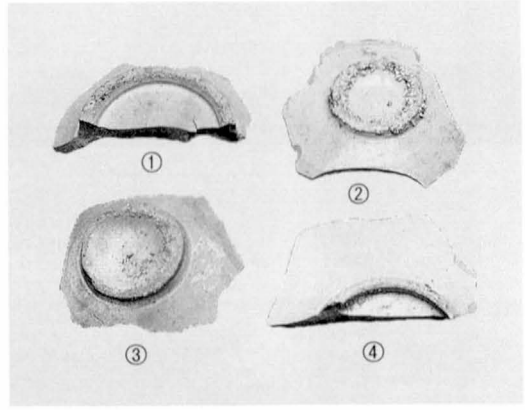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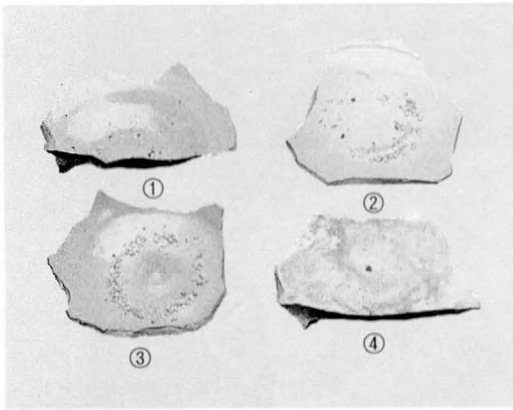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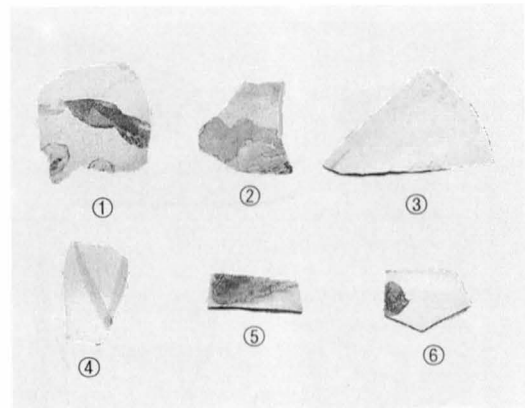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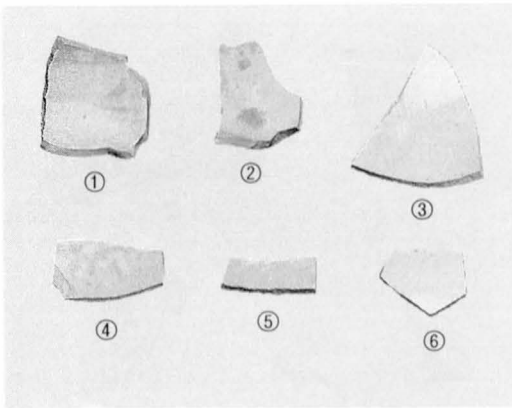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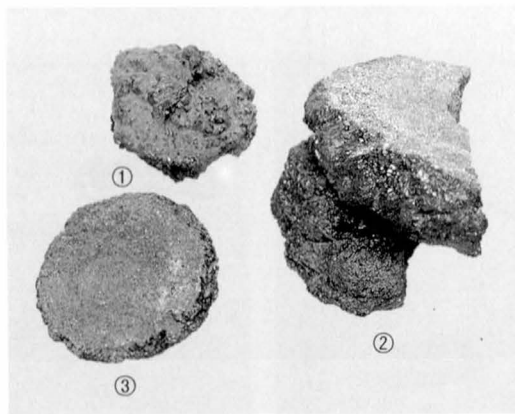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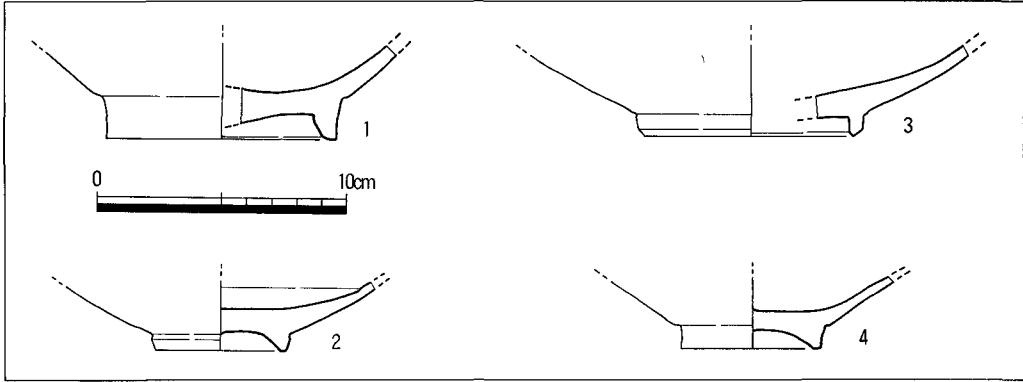


6



7

사진 16. 양지면 대대리 3호 요지



도면 16. 양지면 대대리 3호 요지

## 6. 二東面

### 1) 西里 1호 요지

- (1) 성격 : 高麗 9-11世紀 白磁窯址
- (2) 위치 : 서리 중덕부락 진입로의 북편을 보면 커다란 느티나무가 서 있는 동서로 뻗은 얇은 구릉이 있다. 유적은 이 구릉에 위치한다. 지면은 이동면 서리 중덕부락 산 23번지에 해당한다.(사진17-1, 지도1·14)
- (3) 현상 : 유적은 폭이 약 50 미터이고, 상하의 길이가 80여 미터에 달하는 매우 커다란 규모이며, 제작시 사용된 갑발의 퇴적이 좌우측에 낮은 구릉을 형성하고 있다. 자편들은 호암미술관의 발굴조사로 인하여 별로 보이지 않으며 다만 갑발편만이 보이고 있을뿐이다. 가마의 하단부는 축사와 민가로 인해 훼손된 것으로 보이며 가마의 상단부는 소로의 조성으로 파괴된 듯 하다. 이곳은 사적 329호로 지정되어 있다.(사진17-2)
- (4) 유물 : 白磁와 匣鉢이 수습되었다.

가. 白磁: 접시와 잔이 수습되었다.

- 標匙 : 대접과 포개구이서 파손된 한 점의 파편이 수습되었다.

①(사진17-3-③) : 구연이 외반하고 몸체의 기벽이 호를 그리는 형태로, 안바닥은 넓은 곡면을 이룬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고, 태토는 적갈색이며 잡물이 섞여 있지 않다. 굽은 대접과 붙어 있어 확인할 수 없으며, 광택이 있고 반투명한 회백색의 유약을 두껍게 씌웠다. 용융상태가 좋지 못하며, 빙결이 있다. 구연부에는 갑발의 흔적이 일부 남아 있다.

- 蓋 : 한 점이 수습되었다.

①(사진17-3-②, 도면17-2) : 구연이 외반하고 몸체의 기벽이 사선에 가까운 곡면을 이루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은 편평하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고,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의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높이가 낮고 접지면의 폭이 좁으며, 깎음새가 고르지 못하다. 굽안바닥을 얇게 깎아내었으며, 굽에는 시유하지 않고 바닥에 백색내화토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회청백색의 유약을 두껍게 씌웠으며, 빙렬이 있다. 구연부에는 갑발의 흔적이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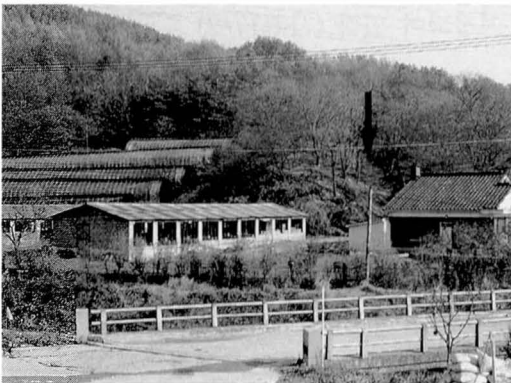
- 其他 : 기종을 정확히 알 수 없는 파편 한 점이 수습되었다.

①(사진17-3-①, 도면17-1) : 구연과 몸체는 파손되었으며, 몸체 저부의 기벽이 사선으로 굽에 이어지는 형태이며, 안바닥은 곡면이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고,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을 사용하였다. 굽은 낮고 접지면의 폭이 고르며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편평하게 깎았으며, 바닥에 백색내화토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고 투명한 담갈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빙렬이 있다.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대접이나 완의 파편으로 생각되다.

나. 窯道具 : 다량의 갑발 퇴적이 확인되었다.

- 匣鉢 : 크기가 조금씩 다르지만 형태는 거의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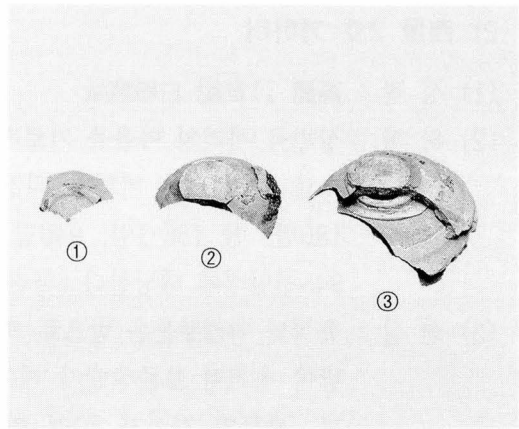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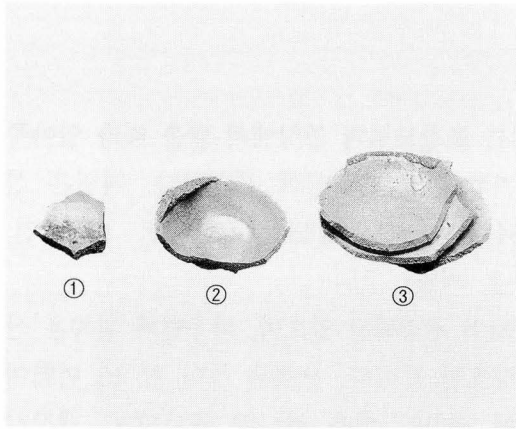
①(사진17-4) : 구경이 넓은 원통형으로, 마사토질의 내화재료로 제작되었다. 기벽의 두께는 측면보다 윗면이 훨씬 얇다. 윗면에는 번조시 파손된 백자의 파편이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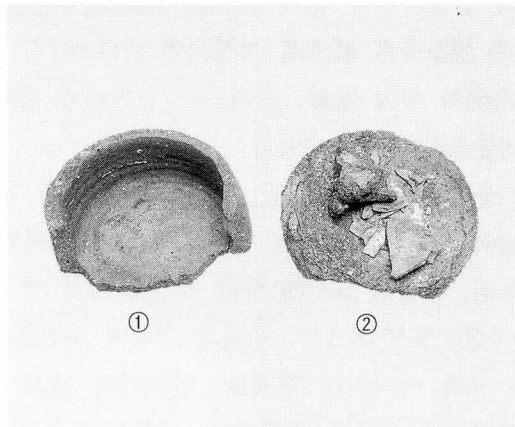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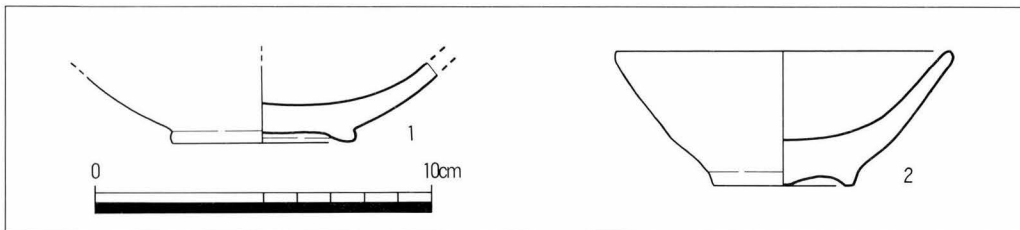


3



4

사진 17. 이동면 서리 1호 요지



도면 17. 이동면 서리 1호 요지

## 2) 西里 2호 가마터

- (1) 성 격 : 高麗 11世紀 白磁窯址
- (2) 위 치 : 상반곡 사리치 마을을 가로지르는 포장도로의 중앙에서 발을 따라 임야쪽으로 약 250여 미터 올라간 지점의 낮은 구릉에 위치한다. 지번은 산 185입, 산 186-1입, 940답, 941답, 942답, 943답, 947-1전, 947-2전, 945전일대에 해당한다.(사진18-1, 지도1·15)
- (3) 현 상 : 유적의 아래부분은 발로 개간되어 경작되고 있으며, 좌우변과 위쪽은 산림이 우거져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한 편이다. 유적은 폭이 약 45 미터이고, 상하의 길이가 70여 미터에 달하는 매우 커다란 규모이며, 제작시 사용된 갑발의 퇴적이 우측에 낮은 구릉을 형성하고 있다. 지표에는 엄청난 양의 갑발파편과 함께 11세기 고려백자의 파편이 소량 흩어져 있다. 이곳은 향토유적 45호로 지정되어 있다.(사진18-2)
- (4) 유 물 : 다량의 白磁와 함께 匣鉢, 그리고 가마벽편과 함께 가마의 축조에 사용되었던 벽돌조각이 수습되었다.

가. 白磁 : 수습된 유물은 발, 대접, 완, 접시, 종지, 뚜껑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 鉢 : 구연이 남아 있는 예가 없어 구연부의 형태는 확인할 수 없으며, 몸체와 세부의 특징, 그리고 크기에 따라 크기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

①(사진18-3-①, 도면18-1) : 몸체의 기벽이 사선형으로 저부에서 점차 좁아지다가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넓고 완만한 곡면을 이루며 수습된 파편중에서 가장 대형이다. 기벽의 두께는 전체의 크기에 비하여 얇은 편이며, 표면에는 장식이 없고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이다. 굽은 직립하며 직경이 매우 넓고, 깎음새가 단정하다. 접지면의 가장자리를 매우 예리한 직각으로 깎아내었으며, 세부를 꼼꼼하게 다듬었다. 접지면의 폭이 고르고 굽안바닥을 편평하게 깎아내었다. 굽안바닥까지 시유한 후 접지면의 유약을 닦지 않고 백색의 내화토를 받쳐 번조하였다. 유는 반투명질로 연록색이 빛긴 회백색이며, 비교적 두껍게 시유되었으나 용융상태가 고르지 못하다. 윗면에는 번조시 생긴 잡물이 붙어 있어 지저분하다.

②(사진18-3-②, 도면18-2) : 몸체의 기벽이 완만한 곡면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①번의 유물보다는 크기가 작으며 완만한 곡면을 이루는 안바닥에는 물레자국이 드러나 보인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

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이다. 굵은 직립하며 접지면의 폭이 비교적 넓다. 굽접지면의 가장자리를 매우 예리한 직각으로 깎아내었지만, 접지면의 폭이 다소 고르지 못하다. 굽안바닥까지 시유하였으며 접지면의 유약을 닦지 않고 백색의 내화토를 받쳐 번조하였다. 표면에는 광택이 좋고 투명한 연록색의 유약을 씌웠으나, 발색이 고르지 못하여 갈록색을 보이기도 하며, 곳곳에 빙렬이 있다.

③(사진18-3-③, 도면18-3) : 몸체의 기벽이 사선형으로 저부에서 점차 좁아지다가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은 완만한 곡면을 이루고 있으며, ①번이나 ②번 유물에 비하여 다소 크기가 작다. 기벽의 두께는 대체적으로 얇은 편이며, 표면에는 장식이 없다.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이다. 굵은 약간 내경하며, 깎음새가 단정하다. 접지면의 가장자리를 예리한 직각으로 깎아내고 주변을 꼼꼼하게 다듬었다. 굽안바닥까지 시유하였으나 바닥의 유약을 대충 닦아내고 접지면에 백색의 내화토를 받쳐 번조하였다. 유는 반투명질로 녹색빛이 도는 회백색이며, 비교적 두껍게 시유되었으나 용융상태가 고르지 못하다. 윗면에는 번조시 생긴 잡물이 붙어 있다.

● 大 椽 : 수습된 대접은 모두 유사한 형태와 크기이다.

①(사진18-4-①, 도면18-4) : 몸체의 기벽이 사선형으로 저부에서 점차 좁아지다가 굽언저리에서 부드러운 곡면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폭이 좁지만 편평한 안바닥의 가장자리에는 원각이 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지만, 구연부의 안쪽면에 한 줄의 음각선이 돌려져 있다. 태토에는 미세한 입자의 모래알갱이가 소량 섞여 있지만, 대체적으로 양질이다. 굵은 직립하며 높이가 비교적 낮고,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언저리와 접지면의 주변을 예리한 직각으로 깎아내고 세부를 꼼꼼히 다듬었다. 굽안바닥은 편평하게 깎아내었지만, 바닥중앙은 완전히 다듬지 않아 불룩하게 솟아 있다. 굽안바닥까지 시유하였으며 접지면의 유약을 닦지 않고 굽안바닥과 접지면에 걸쳐 백색의 내화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표면에는 광택이 있고 투명한 담갈색의 유가 얇게 시유되었으며, 곳곳에 빙렬이 있다. 윗면에는 번조시 생긴 잡티가 붙어 있다.

● 罍 : 몸체의 형태와 세부의 특징에 따라 모두 다섯 종류로 나뉘어진다.

①(사진18-5-①, 도면18-12) : 구연과 몸체가 사선형으로 곧게 뻗어 저부



에서 점차 폭이 좁아지며 굽으로 이어지는 형태로, 보통 해무리굽완이라고 불리우는 예이다. 안바닥 중앙에는 매우 얇은 원각이 있으며, 표면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다.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이다. 굽은 약간 내경하며, 높이가 비교적 낮고 접지면의 폭이 넓다. 굽과 깎음새가 단정하며, 접지면의 폭도 고르다. 굽안바닥까지 시유하였으며 접지면의 유약을 닦지 않고 백색 내화토를 받쳐 번조하였다. 표면에 씌워진 유약은 용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색깔을 확인할 수 없다.

- ②(사진18-5-② 도면18-13) : 구연이 직립하며 기벽이 사선형으로 저부에서 점차 폭이 좁아지다가 굽언저리에서 곡면을 이루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이다. 안바닥의 중앙은 편평하지만 가장자리에서 곡면을 이루며, 바닥에는 한 줄의 원각선이 있다. 표면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이다. 굽은 약간 내경하며, 높이가 낮고 접지면의 폭이 좁다. 굽안바닥을 얇고 편평하게 깎았으며,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까지 시유하였으며 접지면의 유약을 닦지 않고 접지면과 굽안바닥 사이에 백색내화토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연록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빙렬이 있다.
- ③(사진18-5-③, 도면18-11) : 구연이 살짝 외반하며 기벽이 사선형으로 저부에서 점차 폭이 좁아지다가 굽언저리에서 곡면을 이루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 중앙은 오목하다. 표면에는 아무런 문양이 없으며, 구연부 안쪽면에 한 줄의 음각선이 돌려져 있을 뿐이다.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이다. 굽은 약간 내경하며, 높이가 낮고 접지면의 폭이 좁다. 굽안바닥까지 시유하였으며 접지면의 유약을 닦지 않고 접지면과 굽안바닥 사이에 백색내화토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담갈록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전면에 빙렬이 있다. 번조시 갑발안에서 포개구이하였는지 다른 완이 표면 일부에 붙어있다.
- ④(사진18-6-①, 도면18-6) : 구연이 외반하고 기벽이 사선형으로 저부에서 점차 폭이 좁아지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 중앙이 오목하다. 구연부 안쪽에 한 줄의 음각선을 돌렸을 뿐, 아무런 장식을 하지 않았다.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이다. 굽은 직립하며, 높이가 비교적 높고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편평하게 깎아낸 후, 다시 바닥중앙에 작은 원반형의 홈을 파놓았다. 굽안바닥까지 시유하였으며 접지면의 유약을

닿지 않고 접지면과 굽안바닥 사이에 백색내화토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담갈록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빙렬이 있다.

⑤(사진18-6-②, 도면18-7) : 구연과 기벽이 사선형으로 저부에서 점차 폭이 좁아지다가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 중앙이 오목하다. 표면에는 아무런 장식을 하지 않았으며, 태토는 치밀질이다. 굽은 안굽으로 굽을 따로 만들지 않고 바닥중앙을 얇게 파낸 후, 접지면은 일정한 폭으로 깎아내었다. 굽안바닥까지 시유하였으며 접지면의 유약을 대충 닦고 세 곳에 백색내화토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고 투명한 담갈록색의 유약을 얇게 시유하였으나, 굽언저리는 시유상태가 고르지 못하다.

● 栞匙 : 몸체의 형태와 세부의 특징에 따라 모두 네 종류로 나뉘어진다.

①(사진18-6-③, 도면18-8) : 구연에는 몸체에서 직각으로 꺾여 밖으로 벌어진 폭이 좁은 전이 있고 몸체의 기벽이 짧고 수직하다가 저부에서 부드러운 직각으로 꺾여 굽으로 이어지는 형태로, 기벽과 만나는 편평한 안바닥의 가장자리는 곡면으로 처리되어 있다. 표면에는 문양이 없으며, 태토는 양질이다. 굽은 높이가 낮고 직경이 비교적 크지만, 접지면의 폭이 좁고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얇게 깎아낸 후, 접지면의 유약을 닦지 않고 백색의 내화토비집을 받쳐 번조하였다. 표면에는 회백색의 유가 얇게 씌워져 있으며, 빙렬은 없다. 안바닥 중앙에는 포개구이할 때 생기는 내화토받침의 흔적이 남아 있다.

②(사진18-7-③, 도면18-9) : 전체적인 형태는 ①번의 접시와 유사하지만, 기벽과 만나는 편평한 안바닥의 가장자리가 직각으로 꺾이며, 여기에 깊게 파인 음각선이 있는 것이 다르다. 표면에는 문양이 없으며, 바닥의 두께가 다소 두껍고, 태토는 양질이다. 굽은 높이가 낮고 직경이 비교적 작으며,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까지 시유하였으며, 접지면의 유약을 닦지 않고 백색의 내화토를 받쳐 번조하였다. 표면에는 유약이 얇게 씌워져 있지만, 용융상태가 좋지 못하여 유색은 확인할 수 없다. 안바닥 중앙에는 포개구이할 때 생기는 내화토받침의 흔적이 남아 있다.

③(사진18-7-②, 도면18-10) : 구연에는 몸체에서 직각으로 꺾여 밖으로 벌어진 폭이 좁은 전이 있고 몸체가 작은 弧를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은 완만한 곡면을 이룬다. 표면에는 문양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이다. 굽은 직립하며, 높이가 낮고 접지면의 폭이 좁다.

굽안바닥을 얇게 깎아낸 후, 접지면의 유약을 닦지 않고 백색의 내화토를 받쳐 번조하였다. 표면에는 유약이 얇게 씌워져 있지만 용융상태가 좋지 못하여, 유색은 확인할 수 없다.

④(사진18-7-①, 도면18-11) : 구연에는 몸체에서 직각으로 꺾여 밖으로 벌어진 폭이 좁은 전이 있고 몸체가 작은 弧를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①번의 접시와 유사하지만 크기가 매우 작고 몸체의 세부형태에 차이가 있다. 표면에는 문양이 없으며, 태토는 양질이다. 굽은 높이가 낮지만, 접지면의 폭이 비교적 넓고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얇게 깎아낸 후, 접지면의 유약을 닦지 않고 백색의 내화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표면에는 맑고 투명한 담갈색의 유가 얇게 시유되었으며, 일부 빙렬이 있다. 윗면에는 갑발로 추정되는 파편이 네 곳에 붙어 있다.

● 종 지 : 수습된 종지는 유사한 형태와 크기이다.

①(사진18-4-②, 도면18-5) : 구연과 몸체의 기벽선이 직립하다가 저부에서 곡면을 이루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은 넓고 편평하다. 표면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으며, 기벽 물레의 흔적이 남아 있다. 태토에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이다. 굽은 약간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비교적 좁고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편평하게 깎았으며, 접지면의 유약을 닦지 않고 바닥 전면에 백색의 내화토를 받쳐 번조하였다. 표면에는 광택이 있고 투명한 담록색의 유가 시유되었으며, 전면에 빙렬이 있다.

● 뚜 꺽 : 어떤 기종의 뚜껍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현장에서 수습된 뚜껍은 모두가 유사한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

①(사진18-8, 도면 18-14) : 윗면의 중앙은 편평하며, 측면은 사선형을 이루는 형태이다. 표면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으며, 기벽에 물레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도 있다. 태토는 미세한 잡티가 섞여 있는 것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양질이다. 표면에는 광택이 있고 투명한 담록색 혹은 담갈색의 유가 얇게 시유되었으며, 빙렬은 없다.

#### 나. 窯道具

● 匣鉢 : 갑발은 모두가 원통형으로 형태는 모두가 동일하며 크기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①(사진18-9) : 커다란 원통을 뒤집어 놓은 것과 같은 형태이며, 마사토질의 재료로 제작되었다. 윗면중앙에는 일반적인 대접이나 접시의 굽지름만한 크기의 백색내화토받침의 흔적이 남아 있으며, 몸체의 측면에는 물

레자국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다. 색은 적갈색이며, 몸체의 측면은 대부분 유리질화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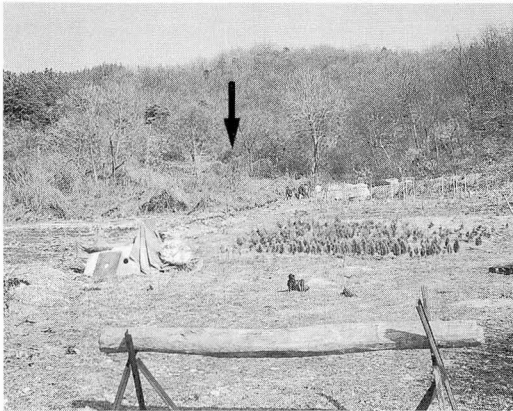
다. 其他

● 가마벽

①(사진18-10-②) : 가마의 벽편으로 마사토질의 재료로 만들어졌으며, 곳곳에 석영 알갱이가 섞여 있다. 가마의 안쪽에 해당하는 벽의 표면에는 외벽으로 향할수록 진홍색에서 적색으로 색이 변화되어 나타난다.

● 벽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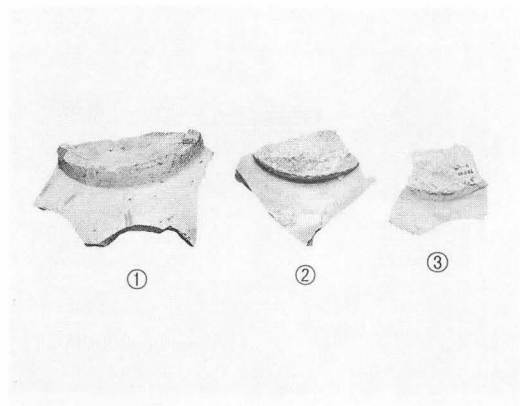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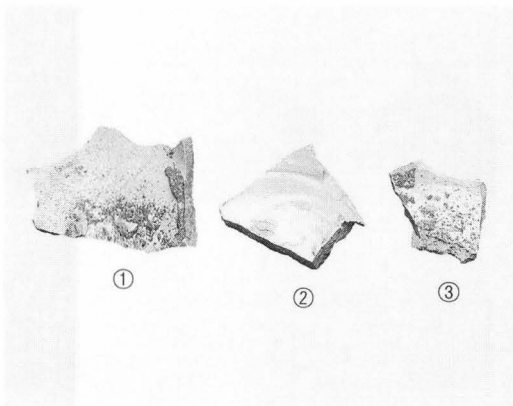
①(사진18-10-①) : 가마 축조시 구조물로 사용되었던 장방형의 벽돌로 적색을 띠고 있으며, 가마의 내부쪽을 향하였던 면은 유리질화되어 있다. 입자가 고운 점토질로 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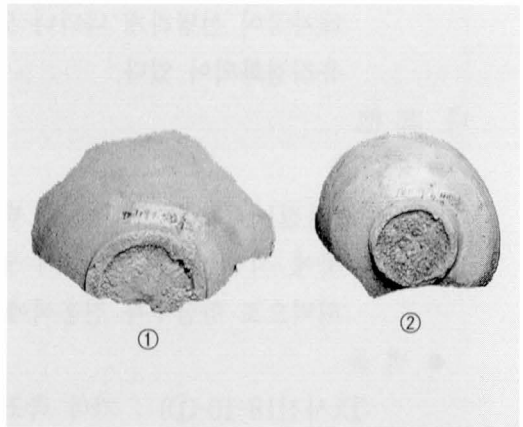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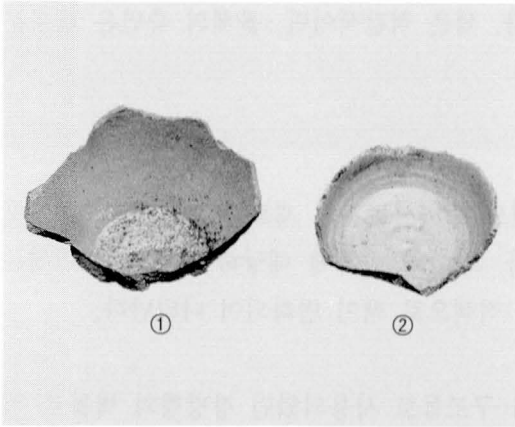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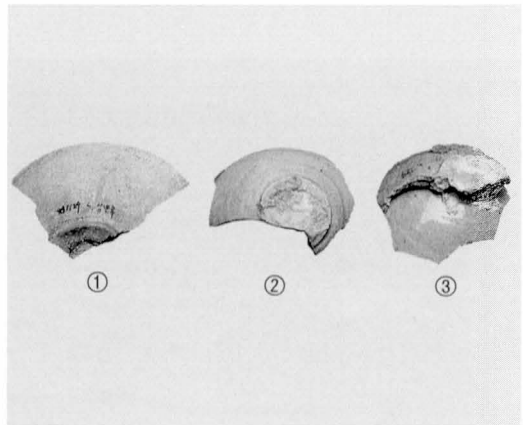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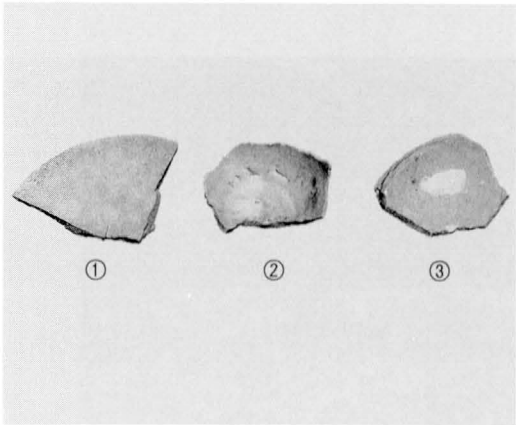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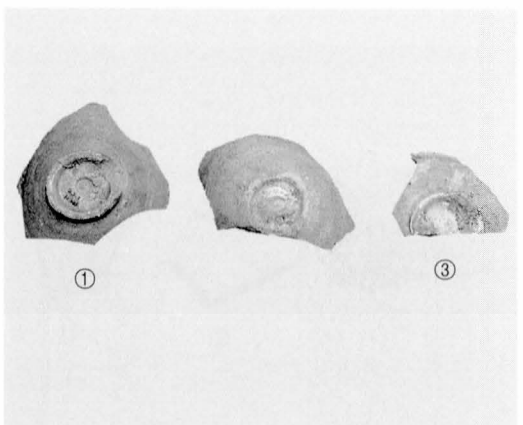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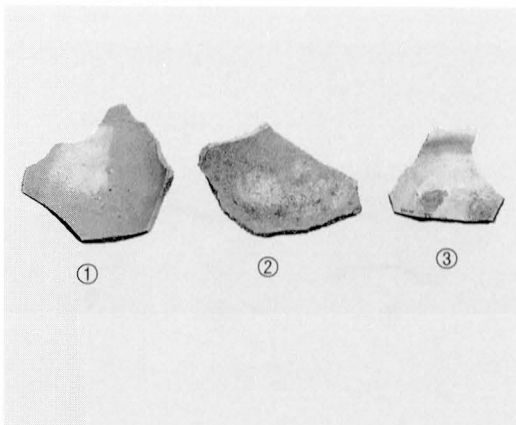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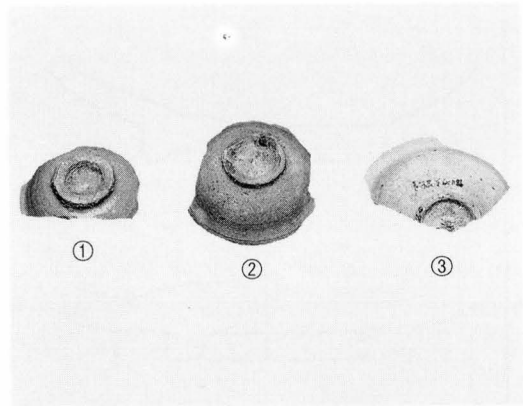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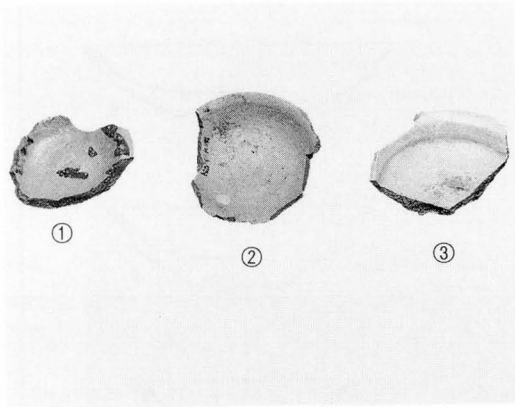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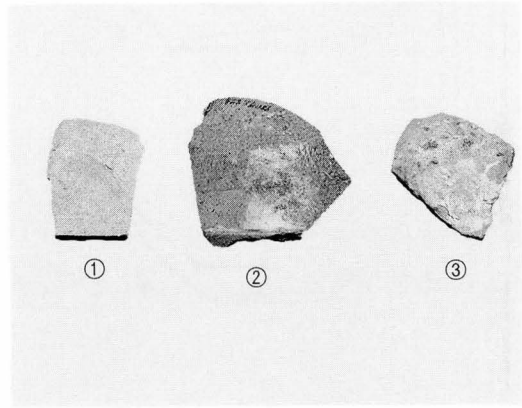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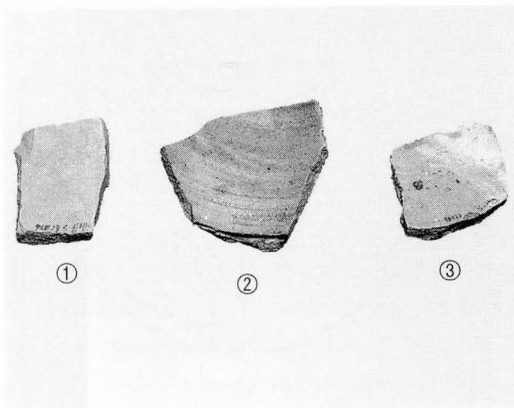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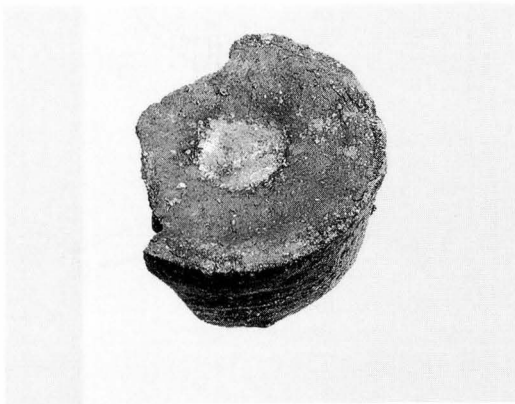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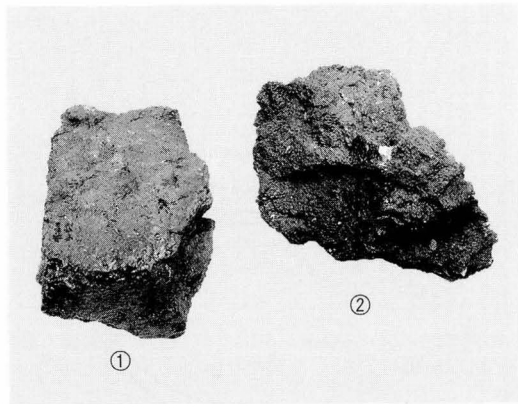
7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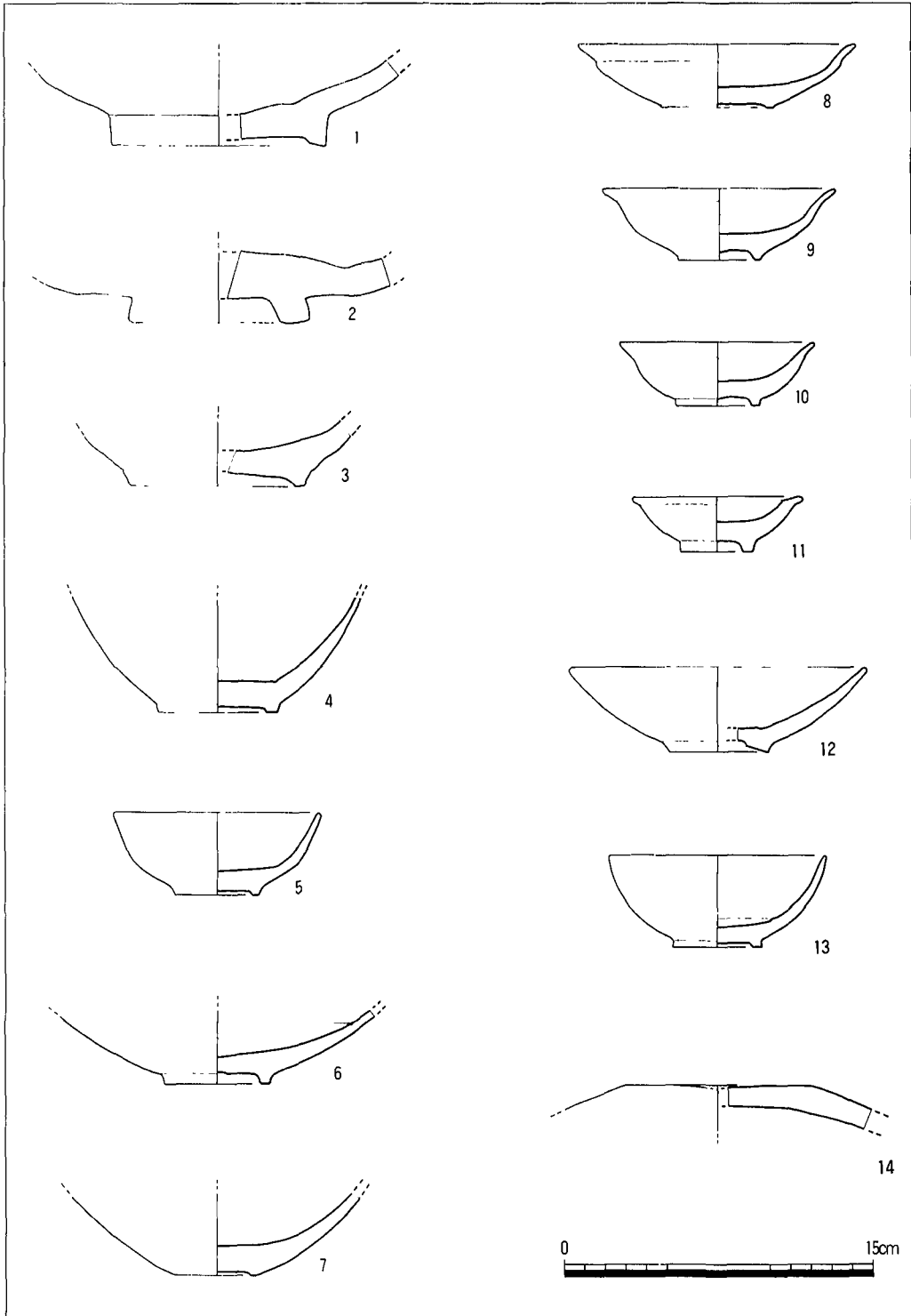


9



10

사진 18. 이동면 서리 2호 요지



도면 18. 이동면 서리 2호 요지

### 3) 西里 3호 요지

- (1) 성 격 : 朝鮮 19世紀 白磁窯址
- (2) 위 치 : 서리 상덕저수지의 서측 위쪽에 있는 비포장 소로와 접한 낮은 구릉에 위치한다. 지번은 1176구일대에 해당한다.(사진19-1, 지도1·16)
- (3) 현 상 : 요지가 위치한 낮은 구릉의 주변은 현재 경지정리로 현상이 변경되어 있으며, 유적의 중심에는 묘지가 조성되어 있다. 묘지공사시 구릉의 윗쪽에서 백토 찌꺼기로 생각되는 흔적이 나타났다고 한다. 현재 지표에서 대략 가로 20 미터, 세로 20 미터 정도의 범위에 백자파편이 흩어져 있다.(사진19-2)
- (4) 유 물 : 백자와 번조시 그릇을 받치는데 사용하였던 개떡, 그리고 가마벽편과 가마의 구조물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돌조각이 수습되었다. 백자는 양질의 백토를 사용하여 제작하였으며, 유색은 대부분 회백색이다. 바닥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으며, 포개구이를 하였다.

가. 白磁 : 대접과 접시가 주류를 이루며, 이외에도 잔이 수습되었다.

- 大 椀 : 구연이 남아 있는 예가 없어 구연부의 형태는 확인할 수 없지만, 몸체와 굽의 특징에 따라 크게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뉜다.

①(사진19-3-①, 도면19-1) : 구연은 파손되었고 몸체의 기벽이 수직하다가 저부에서 각이 져 꺾여 수평에 가까운 사선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넓은 안바닥의 중앙이 오목하게 만들어졌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을 사용하였다. 굽은 직립하며 접지면의 폭이 좁고 깎음새가 매우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굽언저리보다 깊고 편평하게 깎아낸 후, 바닥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담회록색의 유약을 두껍게 씌웠으며, 빙렬이 있다.

②(사진19-3-②, 도면19-2) : 구연은 알 수 없고 몸체의 기벽이 저부에서 각이 져 꺾여 사선을 그리며 점차 폭이 좁아지다가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은 넓고 편평하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고,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의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크기가 작고 접지면의 폭도 매우 좁지만, 깎음새는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굽언저리보다 더욱 깊고 오목하게 깎아낸 후, 접지면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밝은 회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나, 시유상태가 고르지 못해 적갈색의 태토가 드러나 보이기도 한다.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남아 있다.



③(사진19-3-③, 도면19-3) : 구연은 알 수 없고 몸체의 기벽이 수직하다가 저부에서 예리하게 꺾여 사선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은 넓고 편평하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치밀질이다. 굽은 높이가 매우 낮아 몸체와 굽의 경계가 분명하지 못하며, 직경이 작고 접지면의 폭도 매우 좁다. 굽안바닥은 얇고 오목하게 깎아내었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회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곳곳에 빙렬이 있다. 굽안바닥까지 시유한 후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으며,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 櫛 匙 : 수습된 유물은 모두 구연이 남아 있지 않으며, 몸체의 형태와 굽의 특징에 따라 크게 두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①(사진19-4-③, 도면19-5) : 몸체의 기벽이 사선형으로 저부에서 점차 좁아지다가 굽연저리에서 예리한 각을 이루며 꺾여 굽으로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은 넓고 편평하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이다. 굽은 비교적 높이가 높고 직경이 넓으며, 접지면의 폭은 일정하지 않다. 굽안바닥은 비교적 얇고 오목하게 깎아내었으며, 광택이 좋고 투명한 갈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나, 용융상태가 고르지 못하다. 굽안바닥까지 시유하였으며, 접지면의 유약을 닦지 않고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윗면에는 번조시 생긴 태토의 균열이 있으며,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②(사진19-4-②, 도면19-6) : 몸체의 기벽이 완만한 호를 그리며 굽으로 이어지는 형태로, 편평한 안바닥의 가장자리에는 원각이 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의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높이가 낮아 몸체와 경계가 불분명하지만, 깎음새는 단정하다. 접지면의 폭은 매우 좁고, 굽안바닥을 편평하게 깎아내었다. 광택이 좋은 밝은 회백색의 유약을 씌웠지만 발색이 고르지 못하며, 빙렬이 있다. 굽안바닥까지 시유한 후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으며,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 鐘 匙 : 수습된 유물은 모두가 동일한 형태와 크기이다.

①(사진19-4-①, 도면19-4) : 구연이 밖으로 살짝 벌어지고 몸체의 중앙이 수직하다가 저부에서 부드럽게 꺾여 굽으로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의 중앙은 편평하지만 기벽으로 이어지는 가장자리는 곡면을 이루고 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의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비교적 높이가 낮고 크기가 작으며, 꺾음새가 다소 거칠다. 굽안바닥을 편평하게 깎아내고, 광택이 좋은 회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곳곳에 빙털이 있다. 굽안바닥까지 시유하였으며, 바닥에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윗면에는 번조시 생긴 잡물이 곳곳에 붙어 있다.

나. 窯道具

- 개 떡 : 수습된 개떡은 형태와 크기, 재질 등에 있어 거의 유사하다.
  - ①(사진19-5-①·③) : 원반형으로 직경이 크고 두께가 매우 두꺼우며, 마사토질의 내화재료로 제작되었다. 윗면의 바닥중앙은 다소 오목하고 편평하게 만들어졌으며, 주변에 굽은 모래가 붙어 있다. 색은 대부분 적갈색을 보이며, 재티나 유약이 흘러내려 윗면 일부가 유리질화된 곳도 있다.

다. 其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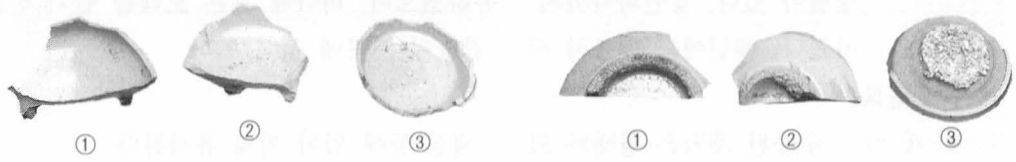
- 가마벽
  - ①(사진19-5-②) : 가마의 벽편으로 마사토질의 내화재료로 만들어졌으며, 가마의 안쪽에 해당하는 벽의 표면에는 백토가 얇게 발려 있다.
- 돌조각
  - ①(사진19-5-④) : 가마 축조시 구조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돌조각이 다수 산재해 있었는데, 모두가 붉은 색으로 산화되어 있으며 충격에 쉽게 부서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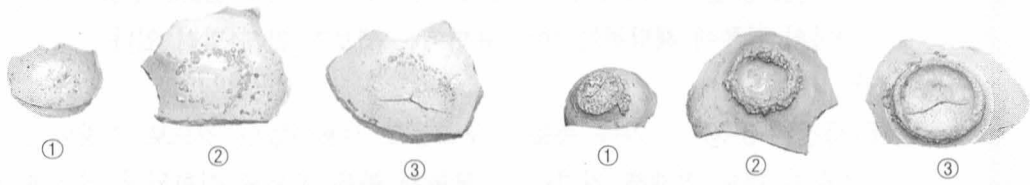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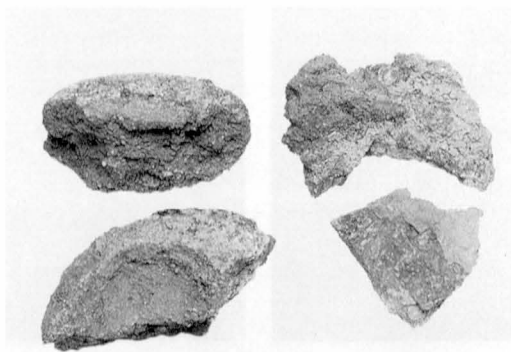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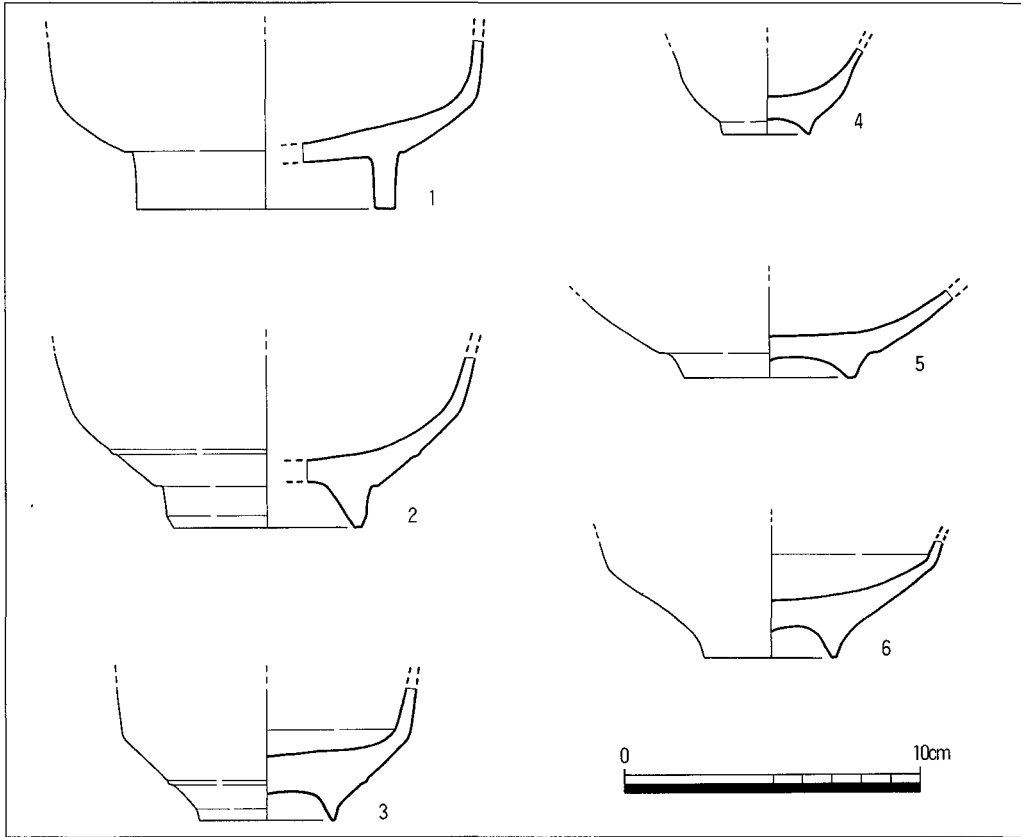


4



5

사진 19. 이동면 서리 3호 요지



도면 19. 이동면 서리 3호 요지

#### 4) 西里 4호 요지

- (1) 성격 : 朝鮮 15世紀 粉靑沙器窯址
- (2) 위치 : 서리 사기막골 안쪽 끝자락에 사슴농장이 있는데, 이 건물 뒷편에 조성된 족구장과 접해 있는 임야에 위치한다. 지번은 293답, 294전, 산 23-1임 일대에 해당한다.(사진20-1, 지도1·17)
- (3) 현상 : 유적의 아래부분은 농장건물 뒷편의 정원으로 개간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위쪽과 좌우변은 소나무숲이 우거진 임야에 속해 있어서 비교적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유적은 폭은 약 40 미터이고 상하의 길이가 45 미터에 달하는 대규모이며, 지표에는 다량의 분청사기편과 요벽편들이 확인되고 있다.(사진20-2)
- (4) 유물 : 粉靑沙器 및 靑磁, 陶器와 함께 窯道具 등이 수습되었다.

가. 粉靑沙器 : 15세기 전반에서 중반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형태의 유물로, 구연이 외반된 대접과 높이가 낮고 크기가 작은 접시가 대부분이며 이외에 작은 병의 파편이 수습되었다. 표면에는 상감·인화·귀얄분장으로 장식된 것이 대부분인데, 상감장식의 경우는 渦線文이 있는 것이 많고, 인화장식은 兩點文과 蓮瓣文 장식이 다수를 차지한다. 귀얄분장은 주로 대접의 내면에 한 것이 많다.

- 鉢 : 구연과 기벽일부가 있는 파편 한 점만이 수습되어 저부의 형태는 알 수 없다.

①(사진20-6-③, 도면20-14) : 구연에는 몸체에서 거의 직각으로 외반하는 폭이 좁은 전이 있고, 몸체의 기벽은 사선을 그리는 형태이다. 안쪽면 일부에는 백토를 귀얄분장한 흔적이 남아 있으며, 외면에는 장식이 없다. 태토는 양질이고, 유는 암록색으로 작은 빙렬이 있다.

- 大 椀 : 장식기법에 따라 인화문과 귀얄문 대접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다시 세부의 형태와 크기에 따라 나뉘어진다.

①(사진20-3-①, 도면20-1) : 몸체의 기벽이 완만한 사선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넓고 편평하다. 안바닥에는 몸체에 우점문을 뾰뾰하게 장식하고 바닥중앙에는 두 줄의 원권속에 네 송이의 국화를 인화하였으며, 외면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다.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로, 검붉은 색을 띠고 있다. 굽은 약간 내경하며,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편평하게 깎아낸 후, 굽언저리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표면에는 갈록색의 유를 시유하였다. 윗면바닥의 중앙에는 포개구이할 때 나타나는 태토비짐의 받침흔적이 남아 있다.

②(사진20-3-②, 도면20-2) : 구연부가 살짝 밖으로 벌어지고 몸체의 기벽이 완만한 弧를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은 넓은 곡면을 이루고 있다. 안쪽면에는 각각 방향을 달리하는 우점문대를 뾰뾰하게 장식하고 바닥중앙에는 세 줄의 원권속에 쌓인 한 송이의 국화를 인화하였으며, 외면에는 몸체위쪽에 귀얄장식을 하였다.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로, 검붉은 색을 띠고 있다. 굽은 약간 내경하며, 접지면의 가장자리는 예리하게 다듬어져 있다. 굽안바닥까지 시유한 후, 굽언저리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표면에는 갈록색의 유를 시유하였다. 윗면바닥의 중앙에는 포개구이할 때 나타나는 태토비짐의 받침흔적이 남아 있다.

③(사진20-3-③, 도면20-3) : ②번의 대접과 유사한 형태이지만, 크기가

작고 문양장식이 다르다. 안쪽면에는 변형된 우점문을 장식하고 바닥중 양에는 국화와 연잎을 인화하였으며, 외면에는 몸체위쪽에 귀얄장식을 하였다. 태토는 양질이며, 검붉은 색을 띠고 있다. 굽은 약간 내경하며,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언저리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표면에는 갈록색의 유를 시유하였다. 구연부에는 다른 그릇의 파편이 붙어 있다.

- ④(사진20-3-④, 도면20-4) : ①번의 대접과 유사한 형태이지만, 장식문양이 다르다. 안쪽 면에는 우점문을 뺄뺄하게 장식하고 바닥에는 다섯 줄의 원권속에 쌓인 국화와 연잎을 인화하였으며, 외면에는 귀얄장식을 하였다.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이며, 검붉은 색이다. 굽은 약간 내경하며, 접지면을 직각으로 예리하게 깎아냈다. 굽안바닥까지 시유한 후, 바닥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표면에는 갈록색의 유를 시유하였다. 윗면 바닥에는 포개구이할 때 나타나는 태토비짐의 받침흔적이 남아 있다.
- ⑤(사진20-4-①, 도면20-5) : ①번의 대접과 유사한 형태이지만, 세부의 형태와 장식문양이 다르다. 안쪽면 기벽에 음각으로 여러 줄의 선을 그린 후, 그 위에 귀얄분장을 하였을 뿐, 외면에는 아무런 장식을 가하지 않았다.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이며, 검붉은 색이다. 굽은 비교적 작고 약간 내경한다. 굽언저리 네 곳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표면에는 암록색의 유를 시유하였으며, 윗면바닥에는 포개구이할 때 나타나는 태토비짐의 받침흔적이 남아 있다.
- ⑥(사진20-4-②, 도면20-6) : 구연과 몸체의 기벽선이 호를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은 곡면을 이루고 있다. 안쪽면 기벽에 음각으로 여러 줄의 선을 그린 후 귀얄장식을 하였을 뿐, 외면에는 아무런 장식을 가하지 않았다.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이며, 암적색이다. 굽은 내경하며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언저리 세 곳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표면에는 암갈록색의 유를 시유하였다.
- ⑦(사진20-4-③, 도면20-7) : ⑤번의 대접과 유사한 형태이지만, 크기가 매우 작다. 안쪽면 기벽에 음각으로 여러 줄의 선을 그리고 그 위에 얇게 귀얄분장을 하였다.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이며, 암갈색이다. 굽은 비교적 작고 내경한다. 굽언저리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표면에는 암갈색의 유를 시유하였으며, 윗면바닥에는 잡물이 떨어져 있다.
- ⑧(사진20-5-③) : ⑤번의 대접과 유사한 형태이지만, 세부의 형태와 장식문양이 다르다. 안쪽면 전면에 얇게 귀얄분장을 하였을 뿐, 외면에는 아

무런 장식을 가하지 않았다.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이며, 암갈색이다. 굽은 내경하며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언저리 네 곳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표면에는 암록색의 유를 시유하였으며, 윗면바닥에는 태토 속에 기포가 생긴 흔적이 남아 있다.

⑨(사진20-5-②) : 구연이 외반하고 몸체가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저부에서 점차 좁아지는 형태이나 굽의 모양은 알 수 없다. 안쪽면 기벽에는 음각으로 몇 줄의 선을 그리고 귀알분장을 한 후, 그 위에 네 개의 단으로 나누어 칼자국을 내었다. 태토는 양질이며, 표면에는 암록색의 유를 얇게 시유하였다.

● 櫛 匙 : 장식기법에 따라 인화문과 귀알문 대접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다시 세부의 형태와 크기에 따라 나뉘어진다.

①(사진20-6-④~⑤, 도면20-15~16) : 몸체의 기벽이 직립하며 저부에서 부드러운 직각으로 꺾여 수평으로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넓고 편평하다. 안바닥에는 몸체중앙에 와선문을 상감하고 주변에 우점문을 뺨뺨이 인화하고, 외면에는 기벽일부에 귀알분장을 하였다.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로, 암적색이다. 굽은 약간 내경하며, 깎음새가 다소 거칠다. 굽과 굽언저리는 시유하지 않았으며, 접지면 세 곳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②(사진20-7-①, 도면20-9) : 구연부가 살짝 외반하고 몸체의 기벽이 사선을 그리다가 저부에서 곡면을 이루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이다. 안바닥 중앙에는 여러 줄의 와선문을 백상감하였으며, 외면에는 장식이 없다.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로 암적색이며, 외면에는 몰레자국이 드러나 보인다. 굽은 약간 내경하며, 둔중하다. 접지면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으며, 유는 암갈록색이다.

③(사진20-7-②, 도면20-10) : 구연과 몸체가 완만한 호를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넓고 편평하다. 안바닥 중앙에는 여러 줄의 와선문을 음각한 후, 그 위에 귀알로 분장하였다.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로 적갈색이다. 굽은 약간 내경하며, 깎음새가 거칠다. 굽과 굽언저리는 시유하지 않고 바닥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유는 암록색으로 비교적 두껍게 시유하였다.

④(사진20-7-③, 도면20-11) : ②번의 접시와 유사한 형태이지만, 크기가 작다. 안바닥 중앙에는 여러 줄의 와선문을 백상감하였으며, 외면에는 장

식이 없다.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로 암적색이다. 굽은 약간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일정치 못하고 깎음새가 다소 거칠다. 접지면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으며, 유는 암갈색이다.

⑤(사진20-6-①, 도면20-12) : 구연의 형태는 알 수 없으며, 기벽이 완전한 사선형으로 굽에 이어지는 형태이다. 안바닥에는 한 줄의 와선문을 그리고, 그 위에 넓게 백토분장을 하였으며, 외면은 장식이 없다.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로 암갈색이다. 굽은 약간 내경하며, 깎음새가 조잡하고 거칠다. 접지면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으며, 유는 암록색으로 굽과 굽언저리에는 시유하지 않았다.

⑥(사진20-6-②, 도면20-13) : 몸체의 기벽이 수직하다가 저부에서 곡면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 가장자리에는 圓刻이 있다. 안바닥에는 장식이 없으며, 외면 기벽에만 귀얄분장을 하였다.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로 암갈색이다. 굽은 약간 내경하며,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주위는 시유하지 않고,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으며, 유는 암갈색이다.

● 瓶 : 어깨부분에 해당하는 파편 한 점만이 수습되었다.

①(사진20-5-①, 도면20-8) : 어깨에서 몸체로 이어지는 부분이 거의 직각으로 꺾이며, 몸체의 기벽은 수직인 형태이다. 어깨에는 각이져 꺾이는 부분에 몇 줄의 횡선을 그리고, 그 밑에 두 줄의 파상선문을 백상감하였다. 태토는 양질이며, 표면에는 암록색의 유를 얇게 시유하였다.

나. 靑磁 : 표면에 아무런 장식을 가하지 않은 대접으로, 형태와 특징은 분청사기와 동일하며, 수량이 적다.

● 大 椀 : 소량의 파편만이 수습되었다.

①(사진20-8-①, 도면20-17) : 구연은 확인할 수 없고, 기벽은 완전한 호를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은 넓은 곡면을 이룬다. 표면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로 암적색이다. 굽은 내경하며 깎음새가 단정하다. 접지면의 폭이 고르지 못하며, 굽안바닥을 매우 깊게 깎아내었다. 표면에는 암록색의 유약을 얇게 씌웠으며, 윗면에는 잡물들이 붙어 있다.

다. 陶器 : 소수의 파편이 수습되었으나, 그중에서도 형태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예는 매우 드물다.

● 壺 : 저부의 형태를 알 수 있는 파편이 매우 드물다.

①(사진20-8-③, 도면20-18) : 구연의 형태는 확인할 수 없으며, 몸체의



기벽은 사선형으로 저부에서 점차 폭이 좁아지다가 바닥으로 이어지는 형태이다. 문양은 없으나 외면중앙에는 제작시 생긴 타날자국이 있으며, 안쪽 면에는 테쌓기로 제작된 흔적이 남아 있다. 바닥은 굽을 따로 만들지 않은 평저로, 받침흔적은 분명치 않다.

라. 窯道具 : 자기의 제작에 사용된 다양한 형태와 재료의 도침이 수습되었다.

- 匣鉢 : 갑발과편은 한 점만이 수습되었다.

①(사진20-10-②) : 커다란 원통을 뒤집어 놓은 것과 같은 형태이며, 마사토질의 내화재료로 제작되었다. 몸체외면의 물레자국은 비교적 잘 다듬어져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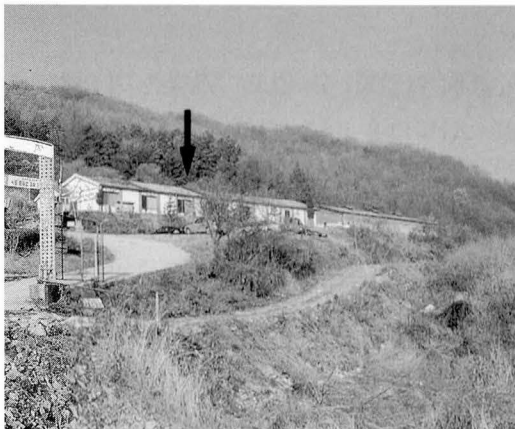
- 陶枕 : 크기가 조금씩 다른 아령형과 장방형의 도침이 수습되었다.

①(사진20-9) : 아령형 혹은 원통형으로, 마사토질의 내화재료로 제작되었다. 윗면중앙에는 그릇을 놓기 좋도록 편평하게 만들거나 얇게 흙을 파 놓았으며, 모래받침의 흔적이 남아 있다.

②(사진20-10-①·③~④) : 장방형 등 다양한 모양으로, 돌을 편평하게 다듬은 것이다. 돌의 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그릇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윗면을 다듬었으며, 모래받침의 흔적이 남아 있다.

- 개떡 : 크기가 조금씩 다를 뿐 모두 동일한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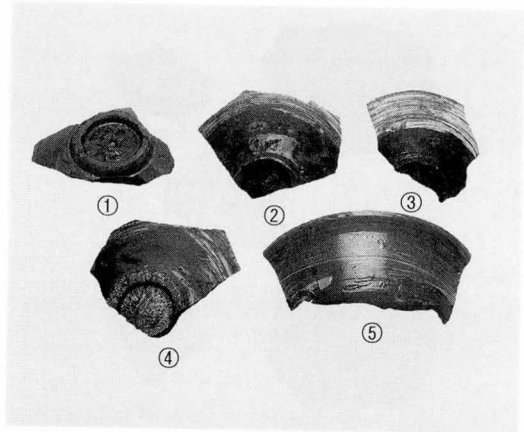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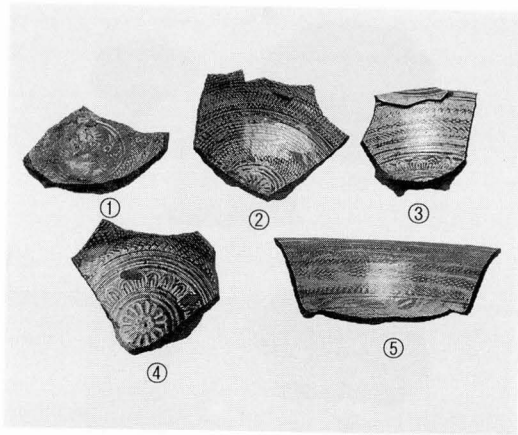
①(사진20-10-⑤~⑥) : 작은 원반형으로, 점토 혹은 마사토질의 내화재료로 제작되었다. 윗면은 그릇을 놓을 수 있게 편평하게 다듬었으며, 모래받침의 흔적이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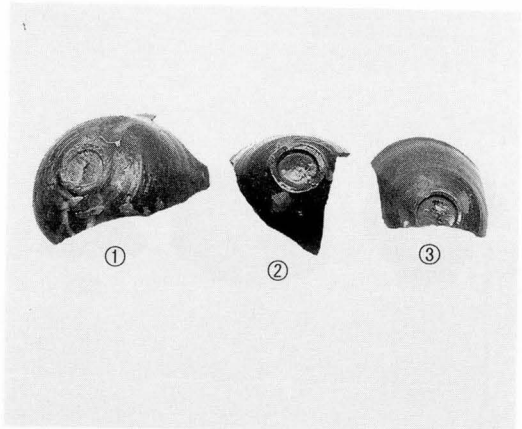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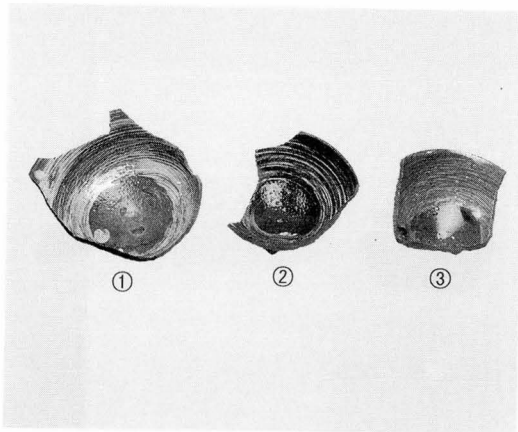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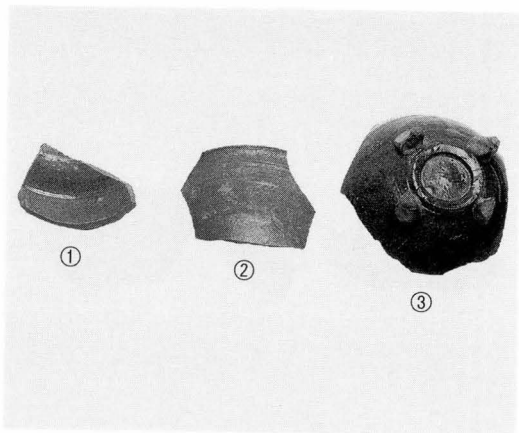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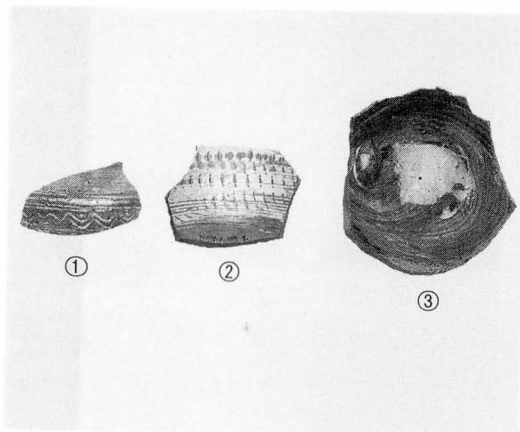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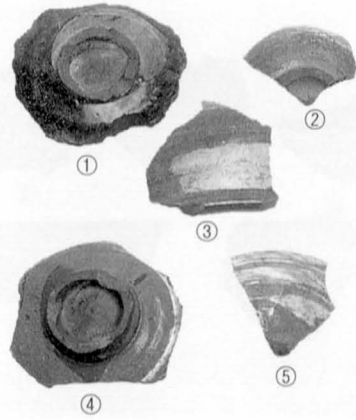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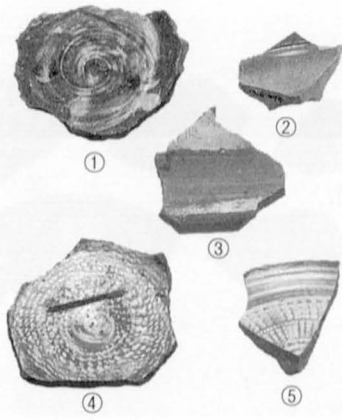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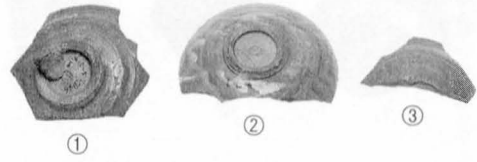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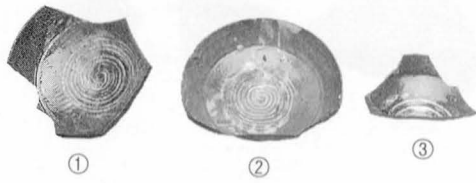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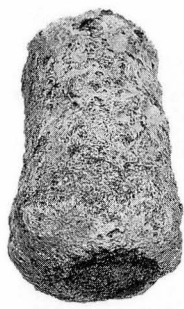
6



7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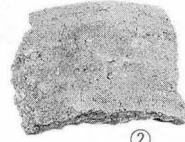
①



②



①



②



③



④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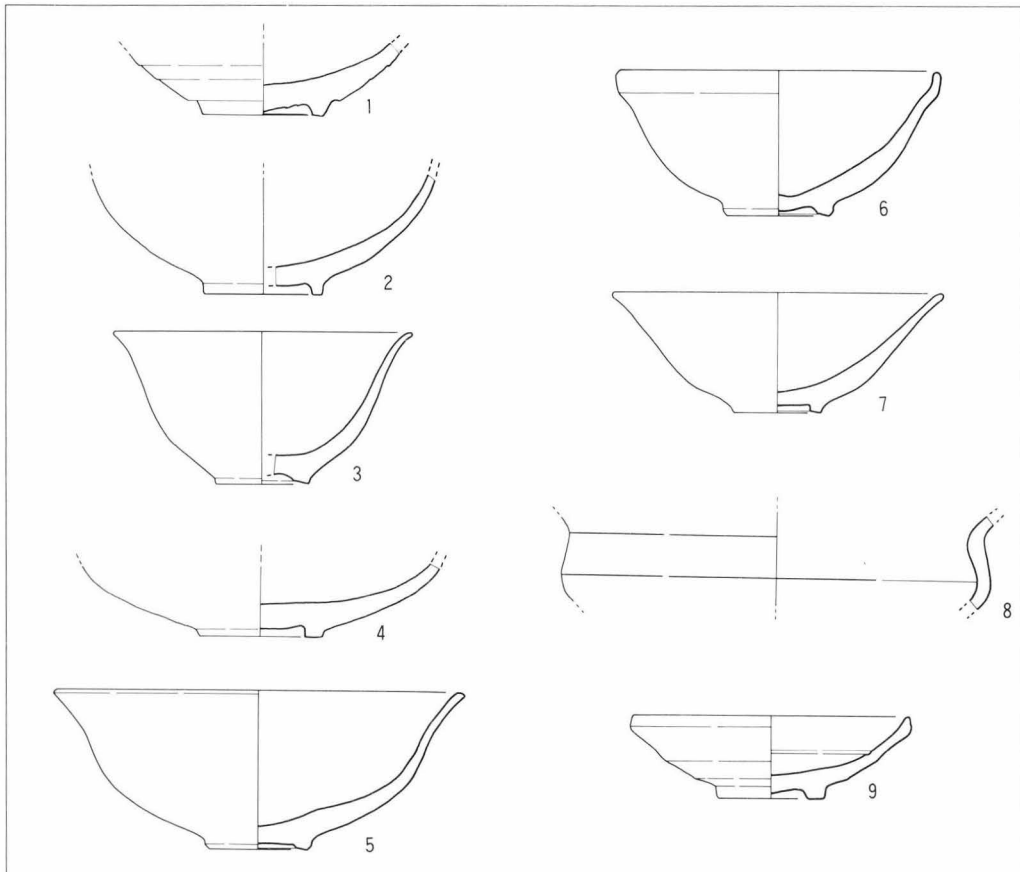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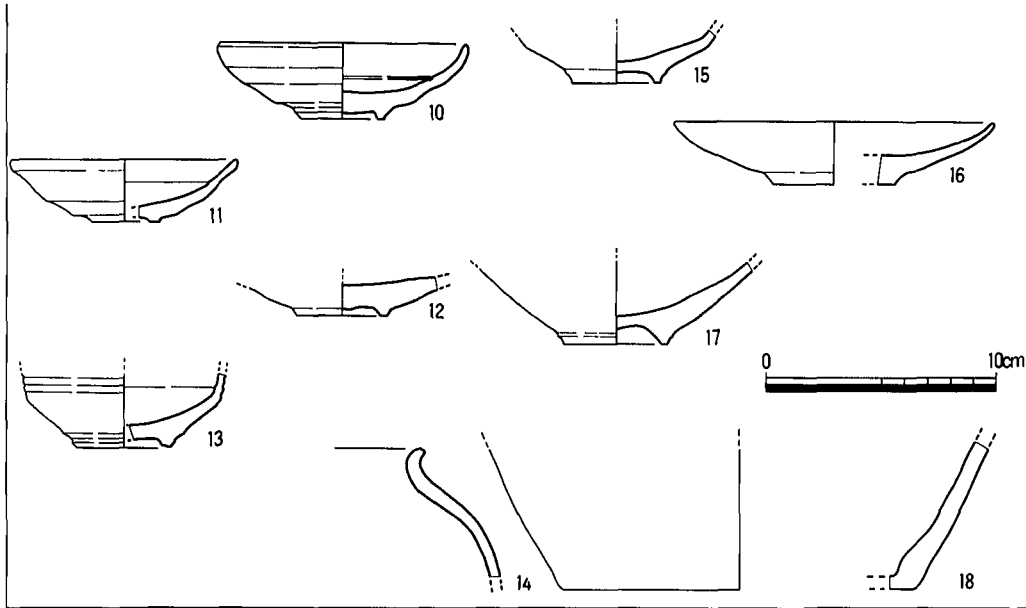
⑥

9

10

사진 20. 이동면 서리 4호 요지





도면 20. 이동면 서리 4호 요지

#### 5) 西里 5호 요지

- (1) 성격 : 朝鮮 19世紀 白磁 · 黑磁窯址
- (2) 위치 : 서리 산 18번지에서 포장도로를 따라 사슴농장쪽으로 100여 미터 간 지점에 접해 있는 작은 밭에 위치한다. 지번은 311전, 311-1전일대에 해당한다.(사진21-1, 지도1·17)
- (3) 현상 : 유적의 윗쪽은 소로와 주택이 있고, 좌우변과 아래쪽은 밭으로 개간되어 있어 일부가 훼손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밭의 표면에서도 발견되고 있으며, 밭과 밭 사이에 형성된 단애면에는 경작시 출토된 파편을 모아 놓은 둔덕이 있다. 유적의 규모는 좌우변의 폭이 20여 미터에 달하고 상하의 길이가 약 30여 미터에 이른다. 이 요지에서는 백자와 함께 흑자가 출토되지만, 지역적으로나 위치상 두 종류의 자기가 구분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동시에 제작활동을 벌였던 곳으로 생각된다.(사진21-2)
- (4) 유물 : 白磁와 黑磁, 그리고 窯道具 등이 수습되었다.
  - 가. 白磁 : 구연이 직립하고 안바닥이 깊은 대접과 높이가 낮고 크기가 작은 접시가 주류를 이룬다.
    - 大 椀 : 형태와 크기에 따라 세 개의 유형으로 나뉜다.

①(사진21-3-②, 도면21-2) : 구연의 형태는 알 수 없으며, 몸체의 기벽은 사선형으로 점차 폭이 좁아지다가 굽언저리에서 부드러운 곡면을 이루는 형태이며, 안바닥은 넓고 오목하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에는 미세한 모래알갱이가 섞여 있다. 굽은 직립하며 높이가 매우 낮고 직경이 넓다. 안바닥을 굽언저리보다 깊게 깎아내었으며, 바닥전면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표면에는 회백색의 유가 씩뚱져 있지만, 발색이 고르지 못하다. 안바닥에는 포개구이할 때 나타나는 모래받침의 흔적이 있다.

②(사진21-3-①, 도면21-1) : ①번의 대접과 유사한 형태이지만, 몸체의 기벽선이 더욱 밖으로 벌어져, 안바닥이 넓고 편평하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이다. 굽은 직립하며 높이가 매우 낮고 직경이 넓다. 안바닥을 굽언저리보다 매우 깊게 깎아내었으며, 바닥과 굽언저리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표면에는 회백색의 유가 얇게 씩뚱져 있지만, 용융상태가 고르지 못하다. 안바닥에는 포개구이할 때 나타나는 모래받침의 흔적이 있다.

③(사진21-3-⑤, 도면21-4) : 구연과 몸체가 직립하며 저부에서 곡면을 이루는 형태로, 안바닥이 깊고 오목하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이다. 굽은 높이가 낮아 몸체와 경계가 불분명하며, 굽안바닥을 굽언저리보다 매우 깊게 깎아내었다. 안바닥까지 시유하였으며 접지면의 유약을 닦지 않고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표면에는 회백색의 유가 얇게 씩뚱졌으며, 빙렬이 있다. 안바닥에는 포개구이할 때 나타나는 모래받침의 흔적이 있다.

- 櫛 匙 : 다수의 파편이 흩어져 있었지만, 모두가 유사한 형태와 크기이다.

①(사진21-3-③, 도면21-3) : 구연과 몸체의 기벽이 완만한 호를 그리는 형태로, 안바닥이 넓고 편평하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에는 잡티가 소량 섞여 있지만 양질이다. 굽은 높이가 낮고 직립하며, 굽안바닥을 매우 깊게 깎아내었다. 접지면의 유를 닦지 않고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으며, 표면에는 광택이 있는 회백색의 유약을 얇게 입혔다. 안바닥에는 포개구이할 때 나타나는 모래받침의 흔적이 있다.

나. 黑 磁 : 작은 항아리와 항아리 모양의 주자, 병 등이 주류를 이루며, 백자의 종류와는 확연히 구분된다.

- 瓶 : 여러 점의 파편이 수습되었다.

①(사진21-4-①~②, 도면21-6~7) : 구연은 넓고 직립하는 광구로 목과 주둥이를 따로 만들어 접합시켰으며, 풍만한 몸체는 기벽이 완만한 호를 그리며 굽으로 이어지는 형태이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양질로, 적갈색이다. 굽은 안굽으로 굽안바닥을 얇게 깎아내었으며,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까지 대충 시유한 후,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표면에는 광택이 좋은 흑유를 얇게 입혔다.

● 壺 : 다수의 파편이 흩어져 있었으며, 형태에 따라 세 종류로 나뉜다.

①(사진21-5-①, 도면21-8) : 구연에는 외반된 폭이 좁은 전이 있고, 몸체의 저부에서 급격히 폭이 좁아지는 형태이며, 굽의 모양은 확인할 수 없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로 갈색이다. 표면에는 광택이 좋은 흑유를 얇게 입혔다.

②(사진21-5-②, 도면21-10) : 구연이 내만하고 몸체의 기벽이 호를 그리며 저부로 이어지는 형태이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몸체의 저부 외면에 물레자국이 드러나 보인다.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로 갈색이다. 굽은 안굽으로 굽안바닥을 얇게 깎고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표면에는 광택이 좋은 흑유를 얇게 입혔다.

③(사진21-5-④, 도면21-9) : 광구병의 구연부와 같이 직립된 전에 계단모양의 턱이 있는 커다란 항아리로, 몸체의 형태는 확인할 수 없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회흑색이다. 표면에는 흑유를 얇게 입혔지만, 용융상태가 고르지 못하다.

● 注子 : 한 점의 파편이 수습되었다.

①(사진21-5-③, 도면21-11) : 구연이 밖으로 도톰하게 말려 있고 몸체의 중앙이 평평해진 작은 항아리의 측면에, 사선형으로 짧게 뺀 주구를 붙인 주자이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로 흑갈색이다. 표면에는 광택이 좋은 흑유를 두껍게 씌웠다.

다. 陶器 : 광구병의 파편 한 점과 뚜껑이 소수 수습되었다.

● 瓶 : 한 점의 파편이 수습되었다.

①(사진21-6-①) : 구연이 외반하고 구연부의 중앙에 계단모양의 턱이 있는 소형의 광구병으로 몸체와 굽의 형태는 알 수 없다. 표면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갈색의 양질이다.

● 뚜껑 : 몇 점의 파편이 수습되었으나, 모두 유사한 크기와 형태이다.

①(사진21-6-②, 도면21-12) : 완만한 반구형으로, 윗면중앙에는 버섯모양의 꼭지가 달려 있다. 내면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으나, 표면을 칼로 대충 다듬어 칼자국이 드러나 보인다. 안바다에 모래를 받쳐 번조한 흔적이 남아 있다.

라. 窯道具 : 물레의 갓모와 자기의 번조에 사용된 도침이 수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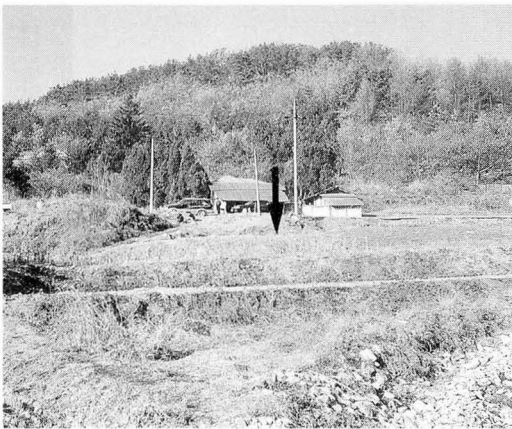
● 갓 모 : 백자로 제작된 것으로 한 점이 수습되었다.

①(사진21-3-④, 도면 21-5) : 원통을 얇은 두께로 잘라 놓은 듯한 형태로, 아래면보다는 윗면의 폭이 넓고 편평하며, 측면 두 곳에는 수직한 홈이 파여 있다.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이며, 바닥에는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표면에는 광택이 있는 회백색의 유를 입혔으나, 발색이 고르지 못하다.

● 陶 枕 : 원통형과 굽이 높은 접시모양의 도침으로 분류된다.

①(사진21-7-⑤) : 전체적으로는 원통형이지만, 아래쪽의 구경이 위쪽보다 커 나팔을 엮어놓은 듯한 형태이며, 마사토질의 재료로 제작되었다. 몸체의 측면에는 물레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 윗면과 밑면에는 굵은 모래가 붙어 있다.

②(사진21-7-①~④) : 작은 접시에 매우 높은 굽이 달린 모양으로, 비교적 질이 좋은 태토나 마사토질의 재료로 제작되었다. 윗면에는 모래를 받쳤던 흔적이 있으며, 바닥에는 굵은 모래가 붙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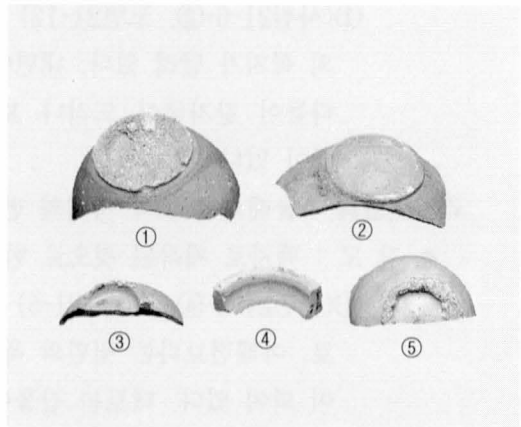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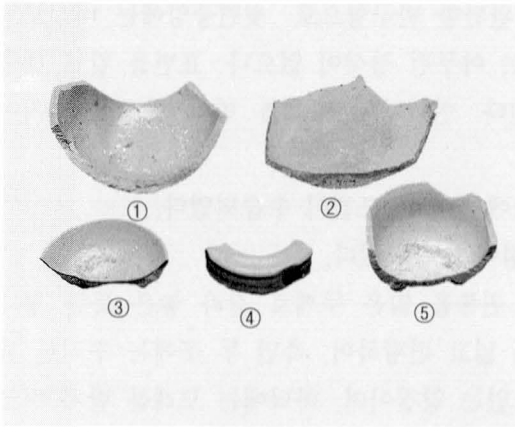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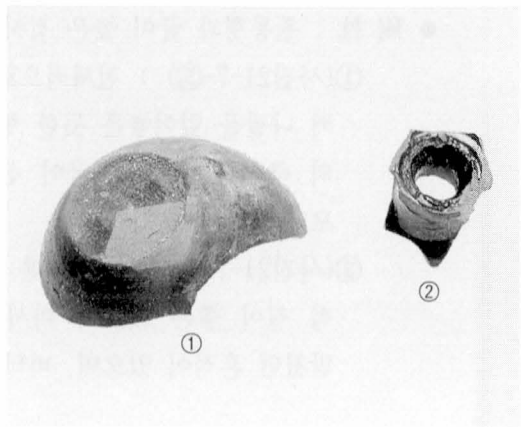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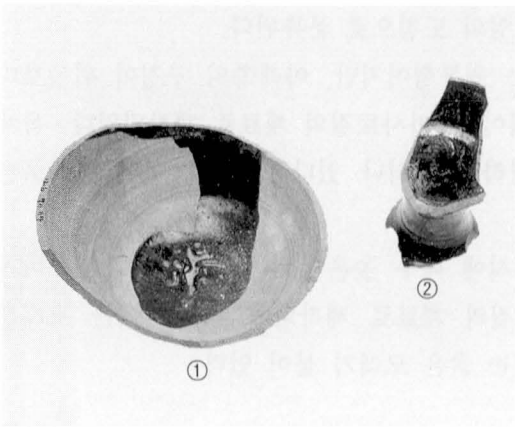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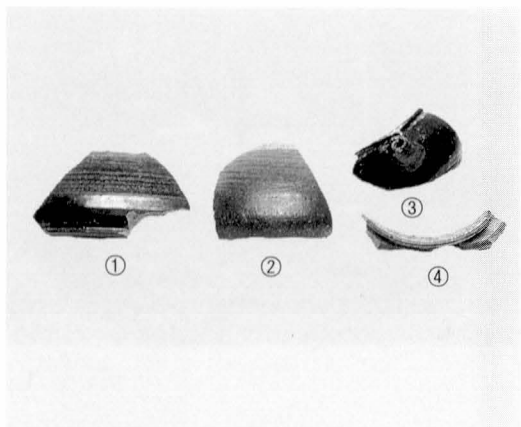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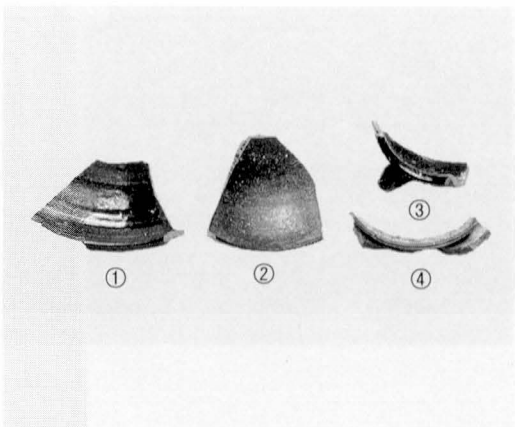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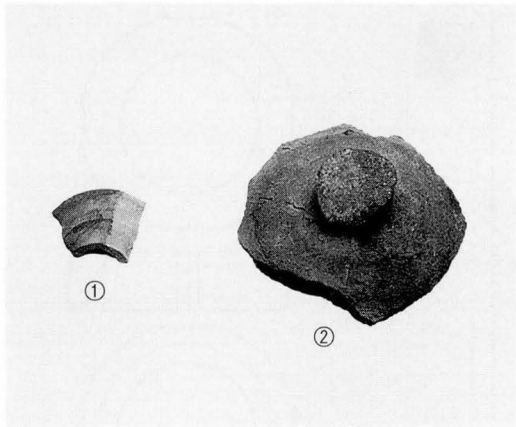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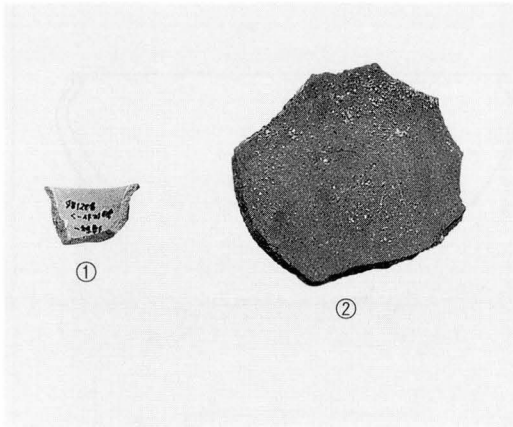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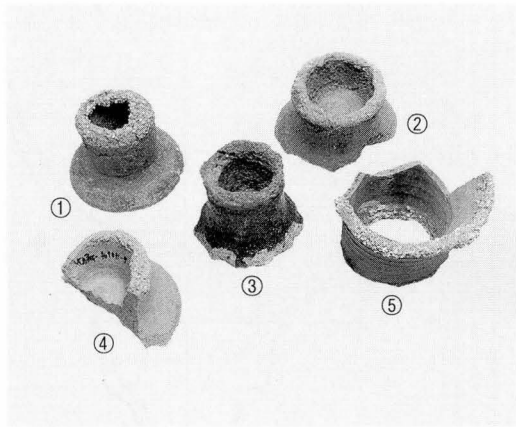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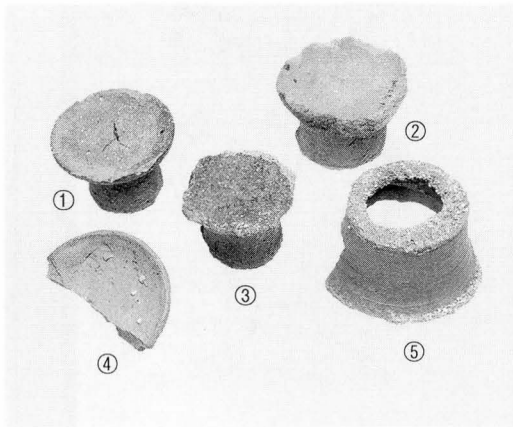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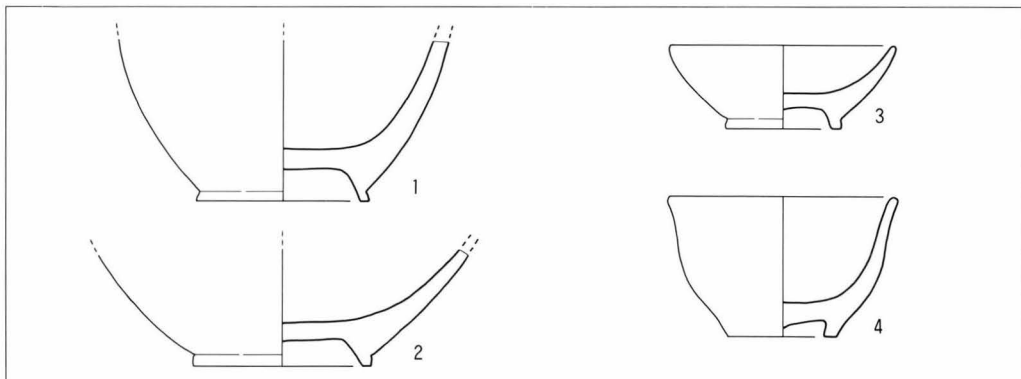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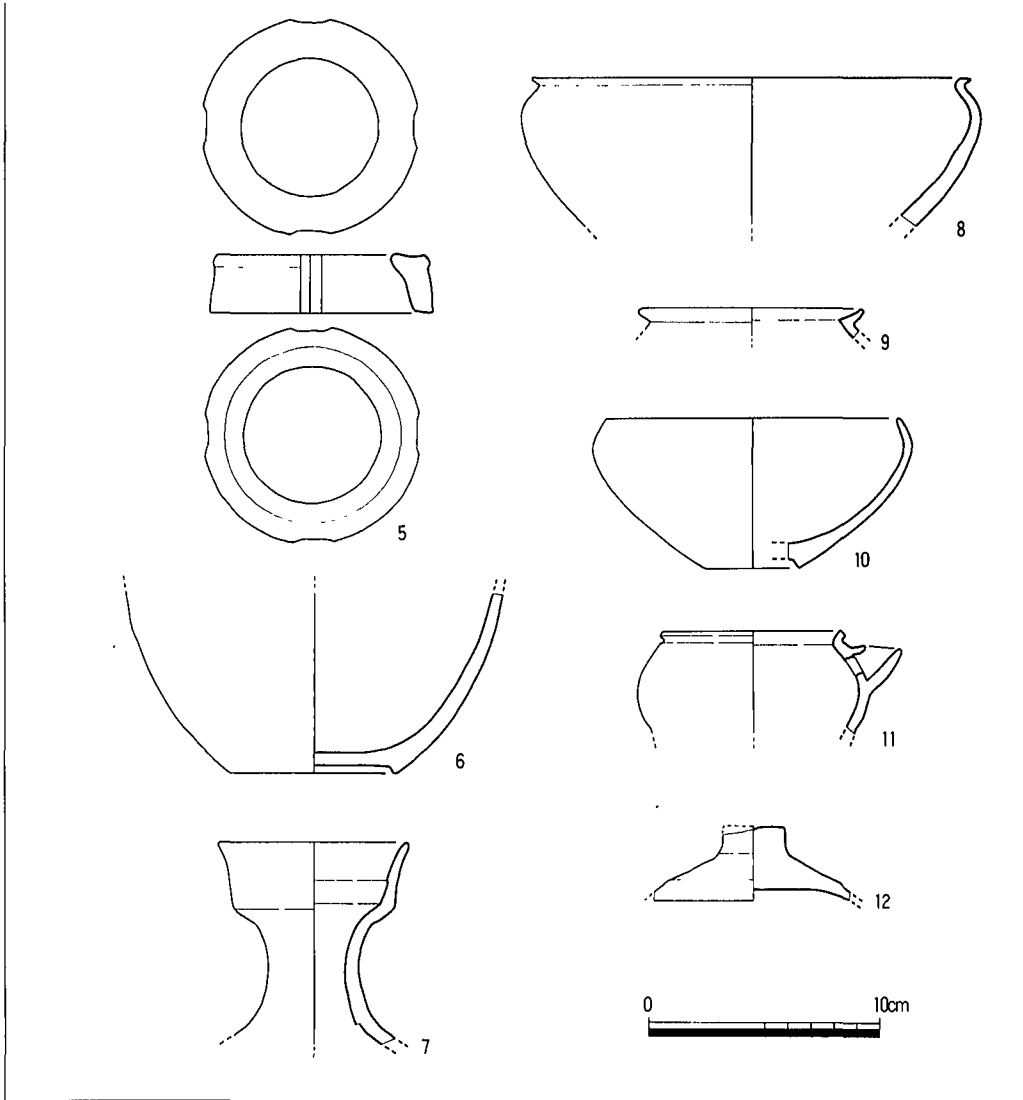
6



7

사진 21. 이동면 서리 5호 요지





도면 21. 이동면 서리 5호 요지

6) 西里 6호 요지

- (1) 성격 : 朝鮮 17世紀 (鐵畫) 白磁窯址
- (2) 위치 : 사슴농장에서 약 400여 미터 소로를 따라 내려온 부근에 있는 낮은 구릉으로 서리 사기막골 산 18번지에 위치한다. 지번은 318전일대에 해당한다.(사진22-1, 지도1·17)
- (3) 현상 : 소로변에 접해 있는 낮은 구릉에 위치하지만, 유적의 앞부분은 현재 남

아 있는 가건물의 건축으로 크게 파손되었다. 건물공사시 절단된 구릉에 요지의 퇴적으로 높이 3미터 가량의 단애가 형성되어 있다. 이 단애면에 백자파편과 요도구들이 다량 흩어져 있다. 유적의 폭은 20여 미터에 달하지만, 길이는 10여 미터 정도로 단애면 윗쪽으로는 숲이 형성되어 있다.(사진22-2)

(4) 유 물 : (鐵畫)白磁와 窯道具가 수습되었다.

가. 白磁 : 대접과 접시, 잔, 종지 등이 주류를 이루며, 소수의 철화백자도 함께 출토되었다.

● 鉢 : 형태와 크기에 따라 크게 세 개의 유형으로 나뉜다.

①(사진22-3-①, 도면22-1) : 구연은 직각으로 꺾이듯 짧게 외반하며 몸체의 중앙에서 살짝 각이 져 저부에서 점차 폭이 좁아지는 형태이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나 안쪽면 중앙에 한 줄의 음각선이 돌려져 있다.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이며, 표면에는 광택이 좋은 담청백색의 유를 씌웠으나 발색이 고르지 않아 황갈색을 보이기도 한다. 굽의 형태는 알 수 없으며, 표면에는 빙렬이 있다.

②(사진22-3-②, 도면22-2) : 구연이 부드럽게 외반하고 몸체가 호를 이루며 저부에서 폭이 좁아지는 형태이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양질이다. 표면에는 담갈색의 유를 얇게 입혔으며, 빙렬은 없다. 굽의 형태는 알 수 없다.

③(사진22-3-③~④·4-②~③, 도면22-3~6) : 금속기에서와 같이 구연이 몸체에 직각으로 예리하게 각이 져 외반하고, 몸체는 사선을 그리며 저부에서 점차 폭이 좁아지는 형태이다. 표면 아무런 장식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草文장식이 있는 鐵畫白磁의 예도 있다(사진22-IV-②~③).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이다. 광택이 좋은 회갈색 혹은 담회색의 유를 얇게 시유하였으며, 빙렬은 없다.

● 大 楨 : 형태와 크기에 따라 크게 네 개의 유형으로 나뉜다.

①(사진22-5-③, 도면23-3) : 구연이 외반하고 몸체의 기벽이 완만한 호를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에는 굽보다 넓은 원각이 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고,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이다. 굽은 높이가 낮고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좁다. 굽안바닥을 오목하게 깎아낸 후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회백색의 유를 얇게 씌웠으나, 발색이 고르지 않아 황갈색으로 보이기도 한다. 윗면 안바닥에는 포개구이할 때 나타나는 모

래받침의 흔적이 있다.

②(사진22-5-②, 도면23-2) : 구연부가 내만하며 몸체의 기벽선이 弧를 이루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에는 굽보다 작은 원각이 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고,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이다. 굽은 높이가 낮고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좁다. 굽안바닥을 깊고 오목하게 깎아내었으며,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윗면 안바닥에는 포개구이할 때 나타나는 모래받침의 흔적이 있다.

③(사진22-5-①, 도면23-1) : 구연부가 내만하며 몸체의 기벽선이 부드러운 곡면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에 굽보다 작은 원각이 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이다. 굽은 높이가 낮고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좁고 깎음새가 단정하다. 안바닥을 편평하게 깎은 후,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황갈색의 유를 씌웠으며, 빙렬이 있다. 윗면 안바닥에는 포개구이할 때 나타나는 모래받침의 흔적이 있다.

④(사진22-6-①, 도면23-4) : ①번 대접과 유사한 형태이지만, 크기가 작고 안바닥에 원각이 없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이다. 굽은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좁고 깎음새가 단정하다. 안바닥을 오목하게 깎은 후,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회백색의 유를 씌웠으며, 빙렬이 있다. 윗면 안바닥에는 포개구이할 때 나타나는 모래받침의 흔적이 있다.

⑤(사진22-6-②, 도면23-5) : 구연과 몸체의 기벽이 사선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구경이 매우 크고 안바닥에 원각이 있는 내만대접이다. 장식은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이다. 굽의 형태는 알 수 없으며, 표면에는 회백색의 유를 얇게 씌웠고, 빙렬은 없다.

● 櫛匙 : 형태와 크기에 따라 크게 네 개의 유형으로 나뉜다.

①(사진22-7-②, 도면23-9) : 구연이 외반하고 몸체가 완만한 호를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편평한 안바닥의 가장자리에는 한 줄의 원각선이 있다. 장식은 없으며, 태토는 잡티가 소량 섞여 있는 양질이다. 굽은 높이가 낮고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좁다. 굽안바닥을 오목하게 깎아낸 후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담회색의 유를 얇게 씌웠으며 빙렬은 없다. 윗면 안바닥에는 포개구이할 때 나타나는 모래받침의 흔적이 있다.

②(사진22-7-①, 도면23-10) : ①번의 접시와 유사한 형태이지만, 구연이

사선으로 뻗어 있다. 편평한 안바닥의 가장자리에 한 줄의 원각이 있을 뿐, 다른 장식은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이다. 굽은 높이가 낮고 내경하며, 굽안바닥을 깊게 깎아 내었다. 표면에는 광택이 있는 회백색의 유를 시유하였으며, 빙렬이 있다. 윗면 안바닥에는 포개구이할 때 나타나는 모래받침의 흔적이 있다.

③(사진22-7-④, 도면23-11) : 구연이 직립하며 몸체가 호를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은 넓은 곡면을 이루고 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이다. 굽은 높이가 낮고 내경하며, 굽안바닥을 오목하게 깎아 내었다. 광택이 있는 황갈색의 유를 입혔으며, 빙렬이 있다. 윗면 안바닥에는 포개구이할 때 나타나는 모래받침의 흔적이 있다.

④(사진22-7-③, 도면23-12) : 구연이 비교적 넓게 외반하며 몸체의 저부에서 부드럽게 꺾여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넓고 편평하다. 장식은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이다. 굽은 높이가 낮고 내경하며, 굽안바닥을 오목하게 깎아 내었다. 광택이 있는 회백색의 유를 입혔으며, 빙렬은 없다. 윗면 안바닥에는 포개구이할 때 나타나는 모래받침의 흔적이 있다.

● 蓋 : 소수 수습되었으나 모두 동일한 종류이다.

①(사진22-8-①, 도면23-6) : 구연이 외반하고 몸체의 기벽이 수직하다가 저부에서 완만한 직각으로 꺾여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편평한 안바닥의 가장자리에는 한 줄의 원각이 있다. 장식은 없으며, 태토는 잡티가 소량 섞여 있으나 양질이다. 굽은 비교적 크고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좁다. 굽안바닥을 오목하게 깎아낸 후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황갈색의 유를 얇게 씌웠으며 빙렬은 없다.

● 踵 지 : 형태와 세부의 특징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뉜다.

①(사진22-8-②, 도면23-7) : 전체적으로 잔과 유사한 형태이지만, 크기가 매우 작고 안바닥 가장자리의 꺾임도 더욱 예리하다. 장식은 없으며 안바닥에 한 줄의 원각이 둘러져 있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이다. 굽은 높이가 낮고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오목하게 깎아내고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황갈색의 유를 얇게 씌웠으며 빙렬이 있다.

②(사진22-8-③, 도면23-8) : ①번의 종지와 유사한 형태이지만, 안바닥에 원각이 없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치밀질이다. 굽은 높이가 비교적 높고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오목하게 깎아내고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는 담회청색의 유를 시유하였다.

- 壺 : 한 점이 수습되었다.

①(사진22-4-①, 도면23-13) : 구연이 밖으로 외반하고 몸체의 중앙에서 팽만하다가 저부로 가며 점차 폭이 좁아지는 형태이다. 표면에는 암갈색의 철사안료로 대나무로 추정되는 그림을 그려 장식하였다. 태토는 양질이며, 회백색의 유약을 얇게 씌웠다. 표면 곳곳에는 잡물이 붙어 있다.

나. 窯道具 : 다수의 개떡이 수습되었다.

- 개 떡 : 크기가 조금씩 다를 뿐 모두 동일한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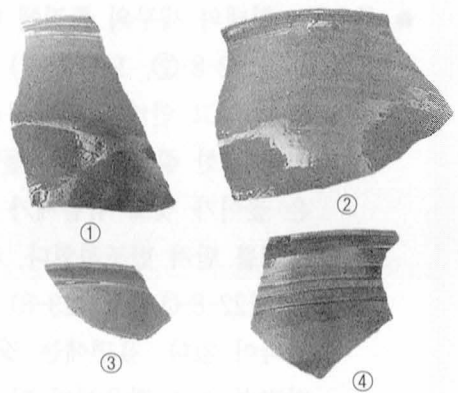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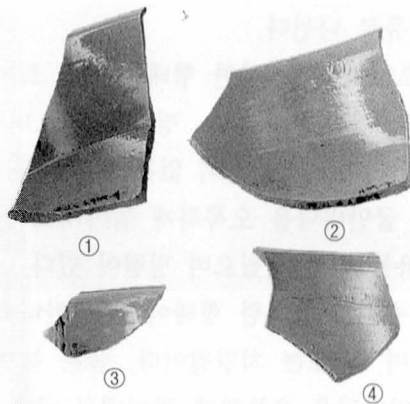
①(사진22-9) : 작은 원반형으로, 경사진 가마의 바닥에서 그릇을 수평으로 올려놓기 좋게 하기 위하여 한 쪽은 얇고 다른 한쪽은 두껍게 하여 경사지게 하였으며, 점토 혹은 마사토질의 내화재료로 제작되었다. 윗면은 그릇을 놓을 수 있게 편평하게 다듬었으며, 모래받침의 흔적이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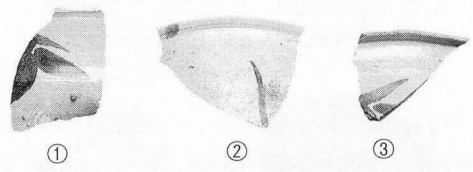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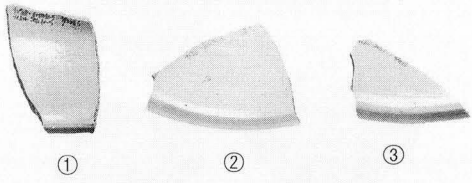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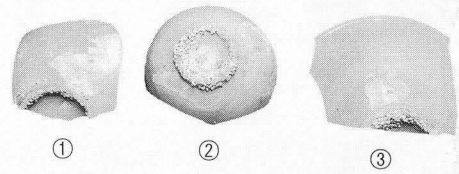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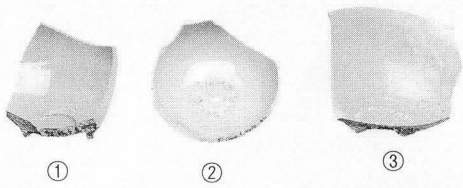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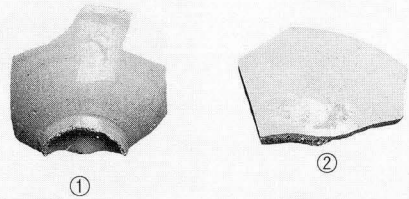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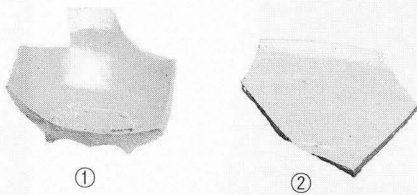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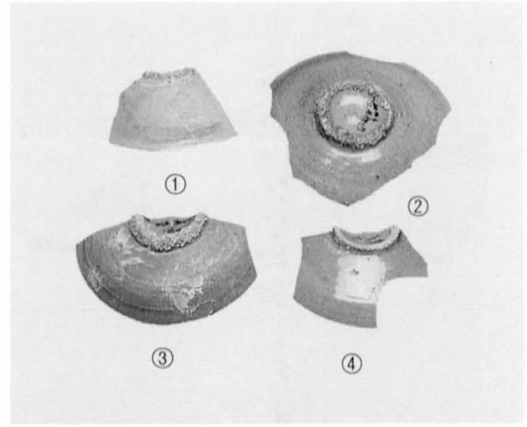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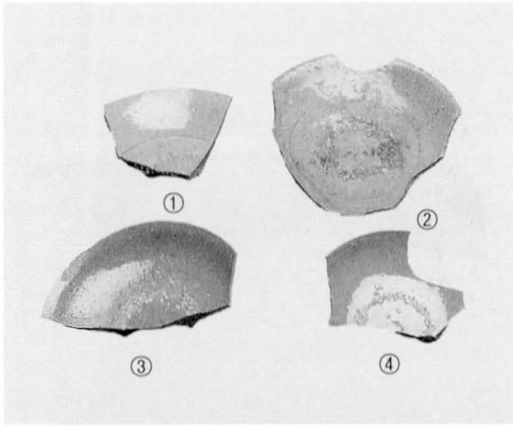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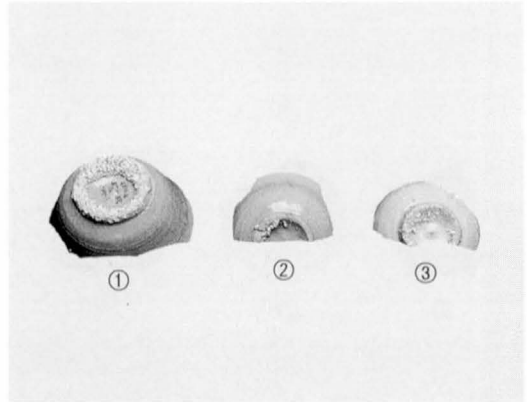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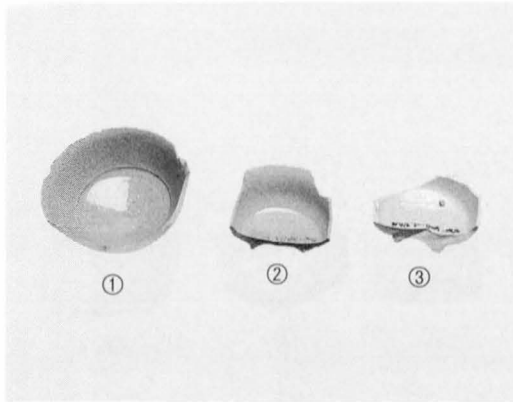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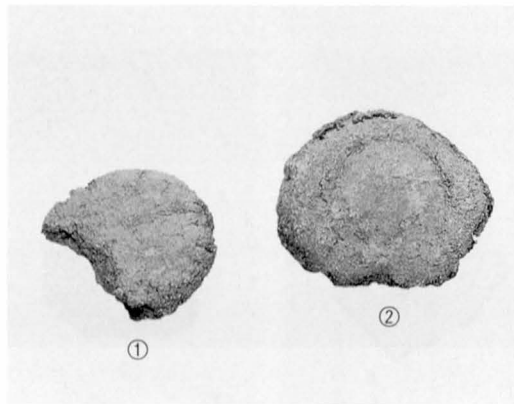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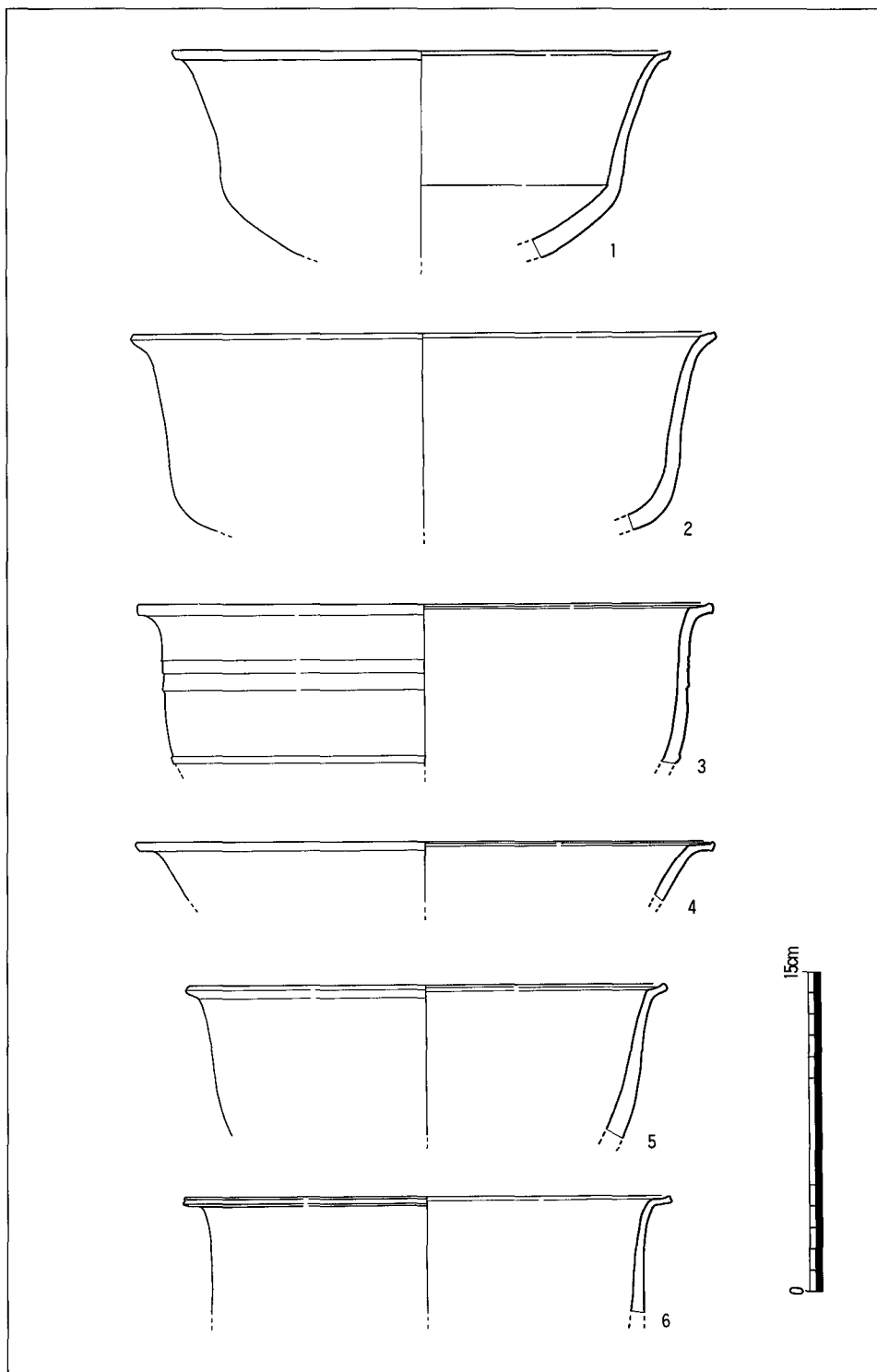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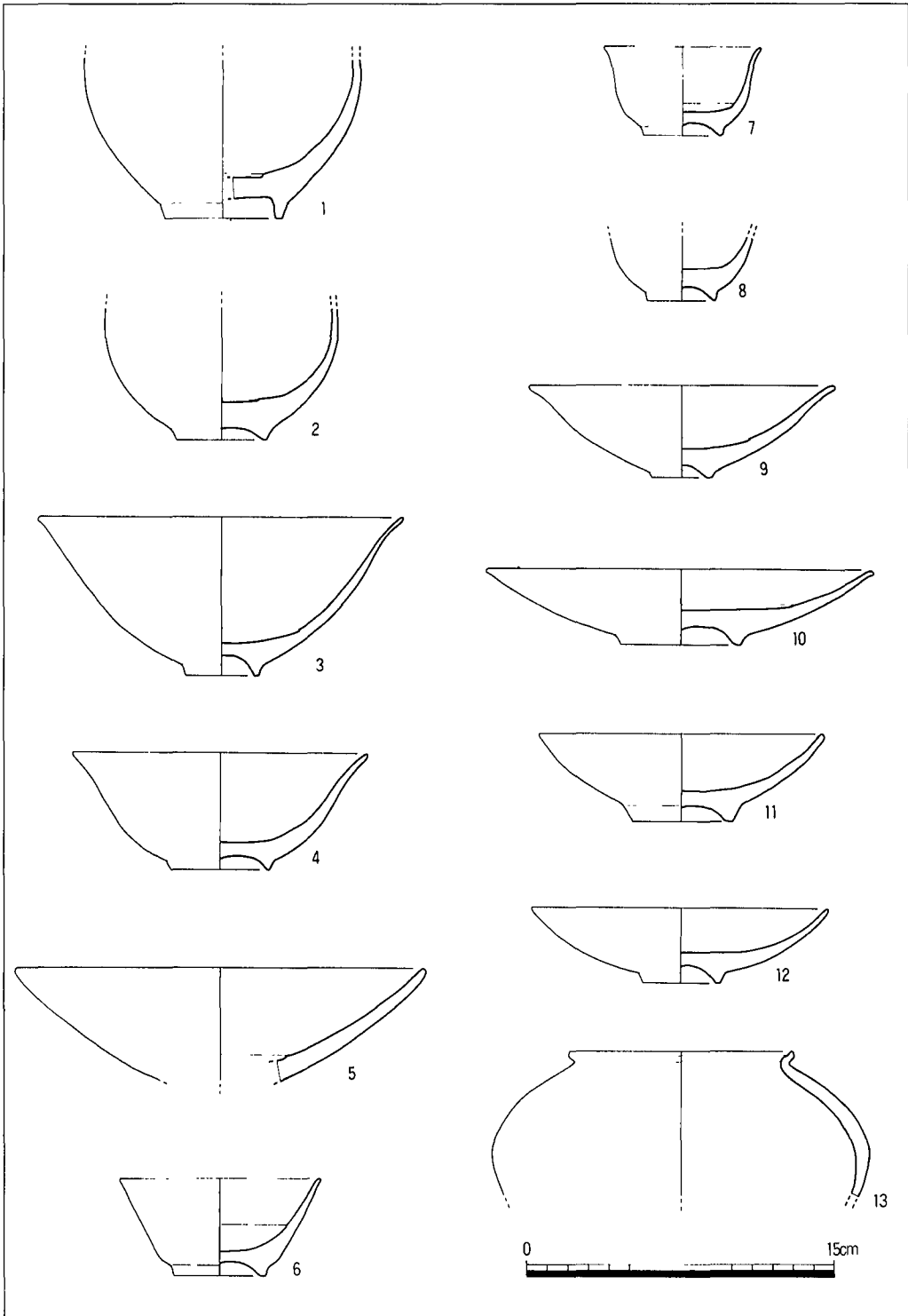


9

사진 22. 이동면 서리 6호 요지



도면 22. 이동면 서리 6호 요지



도면 23. 이동면 서리 6호 요지

## 7) 泉里 1호 요지

(1) 성 격 : 朝鮮 15~16世紀 白磁窯址

(2) 위 치 : 천리 노루실을 지나는 포장도로에서 삼미별장에 채 못미쳐 소로변의 우측에 있는 밭에 위치한다. 지번은 931답, 산 187-1임일대에 해당한다.(사진23-1, 지도1·18)

(3) 현 상 : 지형상으로 나즈막한 구릉을 이루고 있고, 모두 밭으로 개간된 상태로 가마터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밭에는 묘가 있다. 유적의 범위는 가로 20, 세로 10여 미터이며, 지표에는 파편, 도집 등이 흩어져 있으나 퇴적의 정확한 범위를 설정하기가 어렵다. 현재는 밭과 묘지 사이의 소로에 파편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이다.

(4) 유 물 : 白磁와 窯道具가 수습되었다.

가. 白磁 : 대접과 접시, 잔이 주류를 이룬다. 유색은 회백색이 대부분이며, 바닥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 大 椀 : 수습된 파편은 두 종류로 나뉜다.

①(사진23-2-①, 도면24-1) : 구연은 파손되었고 몸체의 기벽이 완만한 호를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편평한 안바닥의 가장자리에 원각이 없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의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대마디 모양으로 높이가 낮고 접지면의 폭이 고르지 못하며, 깎음새가 둔중하다. 굽안바닥을 얇게 깎아낸 후, 굽과 굽언저리에는 시유하지 않고,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고 투명한 회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②(사진23-2-③, 도면24-3) : 구연은 파손되었고 몸체의 기벽이 사선을 그리다가 저부에서 각이 져 꺾여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의 곡면을 이루며 중앙에 원각이 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이다. 굽은 대마디 모양으로 높이가 낮고 깎음새가 거칠다. 굽안바닥을 얇고 오목하게 깎아낸 후, 굽에는 시유하지 않고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고 투명한 회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 椀 匙 : 몇 점의 파편이 수습되었으며, 모두 동일한 종류이다.

①(사진23-3-②~③, 도면24-7~8) : 구연이 외반하고 몸체의 기벽이 완만한 호를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넓고 편평한 안바닥의 가장자리

에는 예리하게 깎인 원각이 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에는 미세한 잡티가 소량 섞여 있다. 굽은 대마디 모양으로 깎음새가 단정한 것도 있으나 대부분 거칠고 둔중하다. 굽안바닥을 얇게 깎아낸 후, 굽과 굽언저리에는 시유하지 않고, 바닥 네 곳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고 투명한 회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나, 발색이 고르지 않아 담갈색을 보이기도 하며, 빙렬은 없다.

- 盞 : 크기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 동일한 종류이다.

①(사진23-2-②·3-①, 도면24-2·6) : 구연은 알 수 없으며, 몸체의 기벽이 사선을 그리다가 굽언저리에서 각이 져 꺾이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은 편평하다. 몸체의 크기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표면에는 모두 장식이 없으며, 태토에는 미세한 잡티가 소량 섞여 있다. 굽은 대마디 모양으로 내경하며, 깎음새가 둔중하다. 굽안바닥을 얇게 깎아낸 후, 굽과 굽언저리에는 시유하지 않고, 바닥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고 투명한 밝은 회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빙렬은 없다.

- 瓶 : 한 점의 파편이 수습되었다.

①(사진23-4-①, 도면24-4) : 구연과 몸체는 파손되었으며, 몸체 저부의 기벽이 완만한 곡면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이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나, 안쪽 면에는 물레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의 백토를 사용했다. 굽은 대마디 모양으로 직립하며, 접지면의 폭이 고르지 못하고 깎음새가 거칠다. 굽안바닥을 얇게 깎아낸 후 굽에는 시유하지 않고, 바닥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는 갈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나, 바깥 면에는 용융이 좋지 못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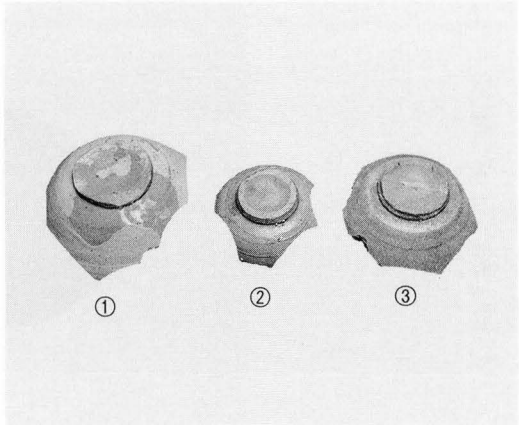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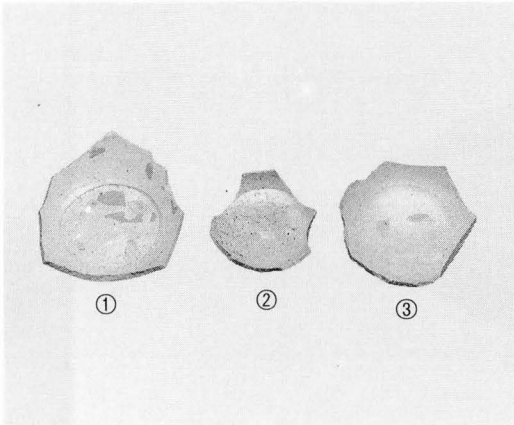
나. 窯道具 : 한 점의 개떡이 수습되었다.

- 개 떡 : 조선전기의 백자가마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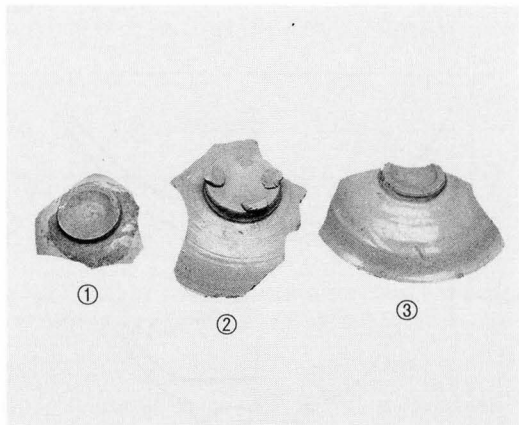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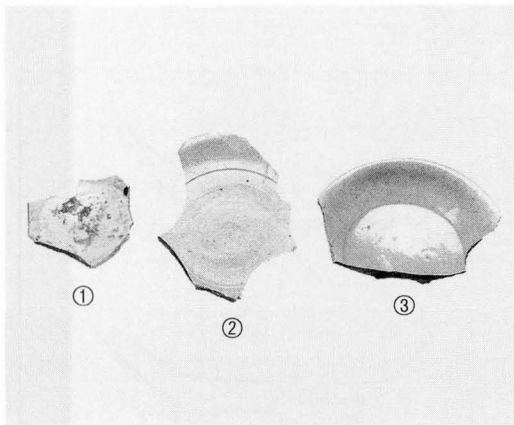
①(사진23-5) : 원반형으로 직경에 비하여 두께가 다소 두꺼운 편이다. 마사토질의 내화재료로 제작되었으며, 윗면에는 그릇을 놓았던 흔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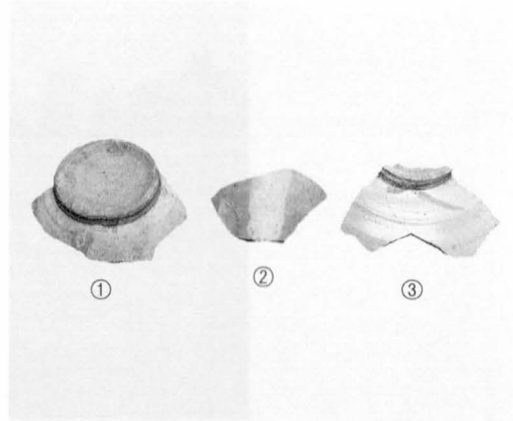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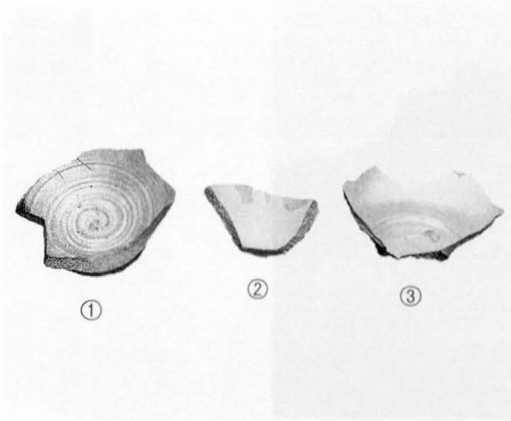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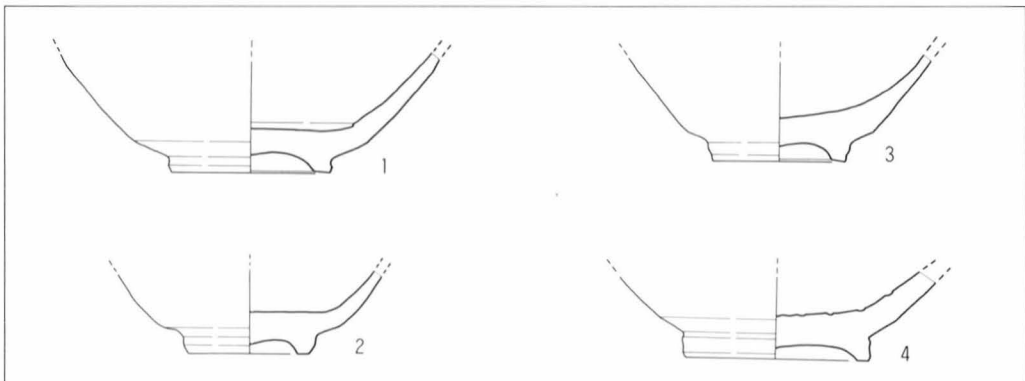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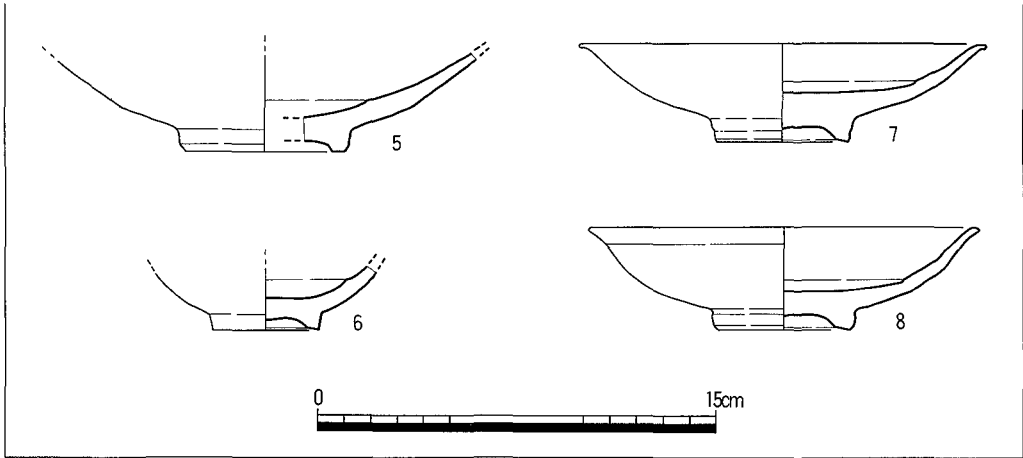
4



5

사진 23. 이동면 천리 1호 요지





도면 24. 이동면 천리 1호 요지

#### 8) 泉里 2호 요지

- (1) 성격 : 朝鮮 15~16世紀 白磁窯址
- (2) 위치 : 泉里 적동 전원주택단지의 뒷편으로, 포장도로에서 재밀리골쪽으로 들어가는 입구의 밭과 임야 사이에 위치한다. 지번은 산 19임일대에 해당한다.(사진24-1, 지도1·19)
- (3) 현상 : 유적의 일부는 현재 임야지역으로 수풀이 무성하지만, 일부는 밭으로 개간되어 훼손된 것으로 생각된다. 밭과 임야가 접한 경계면에는 파편퇴적이 있으며, 밭에도 다수의 백자파편이 흩어져 있다. 유적의 범위는 가로 40미터, 세로 30여 미터에 달하며 유적의 좌상부쪽에는 산속으로 향하는 작은 소로를 내면서 일부가 파손된 듯하다.(사진24-2)
- (4) 유물 : 다수의 白磁파편과 陶器, 그리고 窯道具가 수습되었다.

가. 白磁 : 구연이 외반한 대접과 접시, 잔류가 주류를 이루며, 밭과 호 등이 있다. 대체적으로 태토는 순백의 치밀질로 잡물이 없는 양질이며, 유약의 색깔은 담청백색이다. 굽은 대마디 모양으로 조선전기의 전형적인 백자이다.

- 鉢 : 몇 점의 파편이 수습되었으며, 형태는 대체적으로 유사하다.

①(사진24-3-①~③, 도면25-8~10) : 구연은 금속기와 같이 몸체에서 직각으로 예리하게 꺾여 외반하고, 기벽은 완만한 호를 그리며 저부에서 점차 폭이 좁아지는 형태로, 안바닥에는 원각이 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나 기벽에 물레자국이 드러나 보이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이다. 굽은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비교적 좁고, 깎음새가 다소 거칠다. 굽안바닥을 편평하게 깎은 후, 굽주변은 대충 시유하고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표면에는 회청색의 유를 씌웠으며, 빙렬은 없다.

● 大 椀 : 형태와 크기에 따라 크게 세 개의 유형으로 나뉜다.

①(사진24-4-②, 도면25-2) : 구연이 외반하고 몸체의 기벽이 완만한 호를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굽은 대마디 모양으로 깎음새가 거칠고 둔중하다. 대체적으로 굽안바닥을 얇게 깎아내었으며, 굽과 굽주변에는 시유하지 않고, 바닥 네 곳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는 담청백색의 유를 씌웠으며, 빙렬은 없다. 윗면 안바닥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남아 있다.

②(사진24-4-③, 도면25-3) : ①번의 대접과 유사한 형태이지만, 크기가 작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티가 없는 치밀질이다. 굽은 대마디 모양으로 깎음새가 거칠다. 굽안바닥을 얇게 깎아내었으며, 굽과 굽주변에는 시유하지 않고, 바닥 네 곳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는 담청백색의 유를 씌웠으며, 빙렬이 있다.

③(사진24-4-①, 도면25-1) : 구연이 직립하고 몸체의 기벽이 매우 완만한 호를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의 내만대접으로, 안바닥에 굽의 지름보다 큰 원각이 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티가 없는 치밀질이다. 굽은 대마디 모양으로 깎음새가 거칠고 접지면의 폭이 일정치 않다. 굽안바닥을 약간 깊게 깎아내었으며, 굽과 굽주변을 시유하지 않고, 바닥 네 곳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는 회백색의 유를 씌웠으며, 빙렬은 없다. 윗면 안바닥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남아 있다.

● 椀 匙 : 형태와 크기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①(사진24-5-①, 도면25-6) : 구연의 외반하고 몸체의 기벽이 완만한 곡면을 이루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 가장자리에 한 줄의 원각이 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티가 없는 치밀질이다. 굽은 직립하는 대마디 모양으로, 깎음새가 거칠다. 굽안바닥을 다소 오목하게 깎아내었으며, 굽과 굽주변에는 시유하지 않고, 바닥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는 담청백색의 유를 씌웠으며, 빙렬은 없다. 윗면 안바닥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남아 있다.

②(사진24-5-②, 도면25-7) : ①번의 접시와 유사한 형태이지만, 몸체 저

부의 꺾임이 보다 예리하고 크기가 작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이다. 굽은 직립하는 대마디 모양으로, 꺾음새가 조잡하다. 굽안바닥을 얇게 깎아내었으며, 굽과 굽언저리 일부는 시유하지 않고, 바닥 네 곳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는 담청백색의 유를 씌웠으며, 빙렬은 없다. 윗면 안바닥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남아 있다.

- 盞 : 형태와 크기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①(사진24-6-①, 도면25-4) : 구연이 외반하고 몸체의 기벽이 수직하다가 저부에서 부드러운 곡면을 이루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편평한 안바닥의 가장자리에는 한 줄의 원각이 있다. 장식은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이다. 굽은 대마디 모양으로 내경하며, 안바닥을 오목하게 깎아내었다. 접지면의 폭이 좁고 꺾음새가 조잡하며, 굽과 굽주변은 시유하지 않고 바닥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은 담청백색의 유를 얇게 시유하였으며, 빙렬은 없다.

②(사진24-6-②, 도면25-5) : ①번의 잔과 유사한 형태이지만, 기벽이 보다 둥근 곡면을 이루며 크기가 작다. 장식은 없으며, 편평한 안바닥의 가장자리에는 한 줄의 원각이 있다.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의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대마디 모양으로 내경하며, 안바닥을 얇고 오목하게 깎아내었다. 굽안바닥에는 시유하지 않았으며, 바닥 세 곳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표면에는 광택이 좋은 담회백색의 유를 얇게 시유하였다.

- 壺 : 몇 점의 몸체파편이 수습되었다.

①(사진24-7) : 몸체파편의 일부만이 수습되어 전체적인 형태나 구연, 굽 등의 세부는 확인 할 수 없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몸체 내부에는 물레자국이 남아 있기도 하다.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의 백토를 사용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백유를 시유하였다.

나. 陶器 : 몇 점의 도기파편이 수습되었으며, 모두가 동일한 종류이다.

- 壺 (사진24-8-③) : 어깨에서 몸체로 이어지는 부분의 파편으로 전체적인 형태와 특징은 확인할 수 없다. 표면에는 동일한 간격으로 장식한 음각 횡선문대가 있으며, 태토는 적갈색으로 작은 모래알갱이가 섞여 있다. 전체적인 크기에 비하여 기벽은 얇은 편이지만 매우 단단하며, 표면에는 고동색의 유를 얇게 씌웠다.

다. 窯道具

- 개 떡 : 크기가 조금씩 다를 뿐 모두 동일한 형태이다.

①(사진24-8-①~②·9-③) : 작은 원반형으로 마사토질의 재료로 제작되었다. 윗면은 그릇을 놓을 수 있게 편평하게 다듬었으며, 모래받침의 흔적이 남아 있다.

라. 其他

- 가마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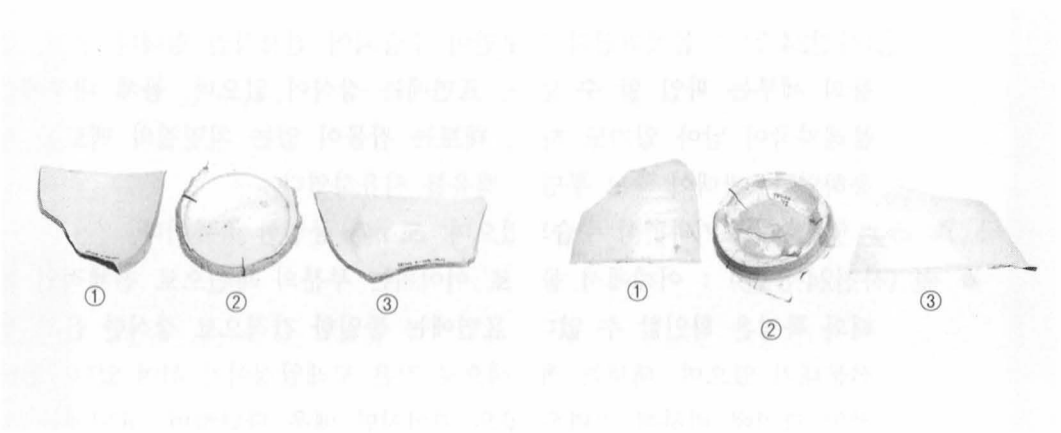
①(사진24-9-②) : 가마의 벽편으로 마사토와 점토질의 내화재료로 만들어졌으며, 가마의 안쪽에 해당하는 면에는 白土가 얇게 발려 있다. 벽의 외면으로 갈수록 진홍색에서 적색으로 색이 변화되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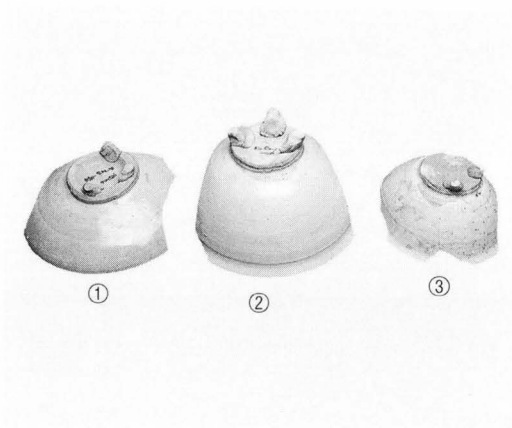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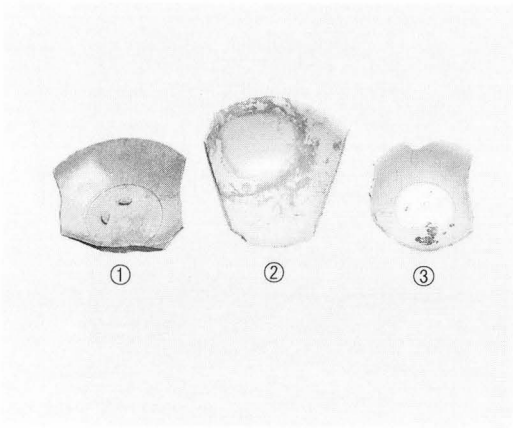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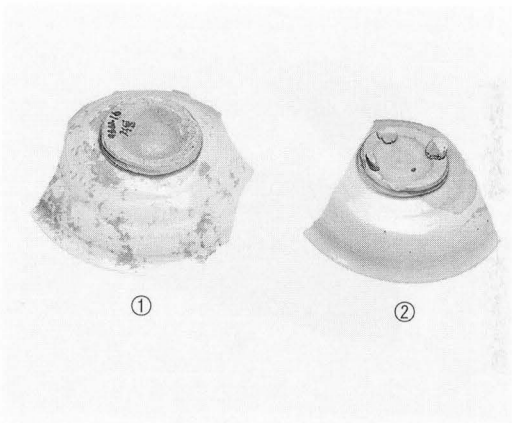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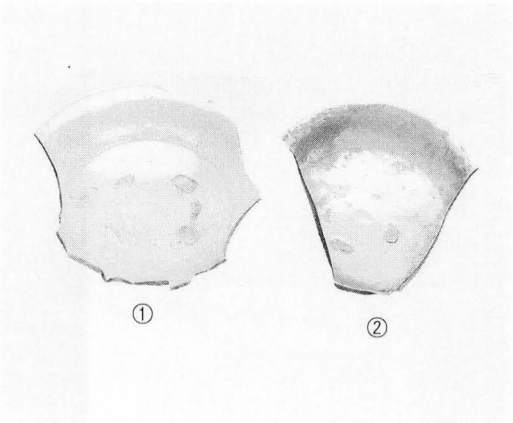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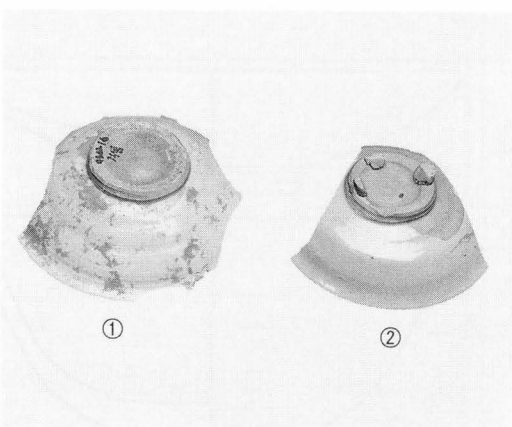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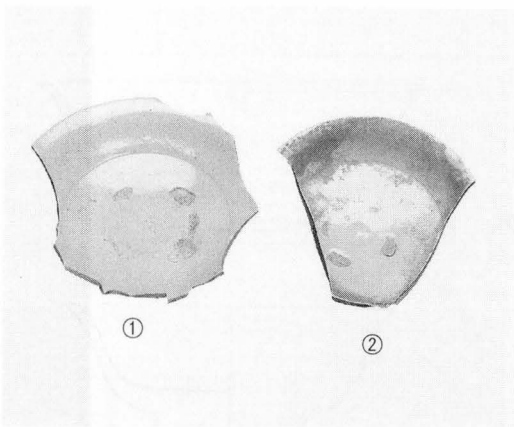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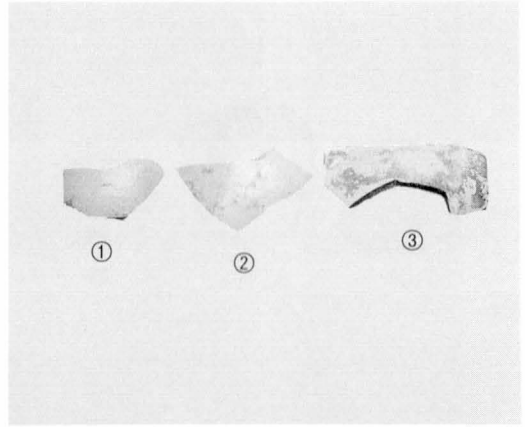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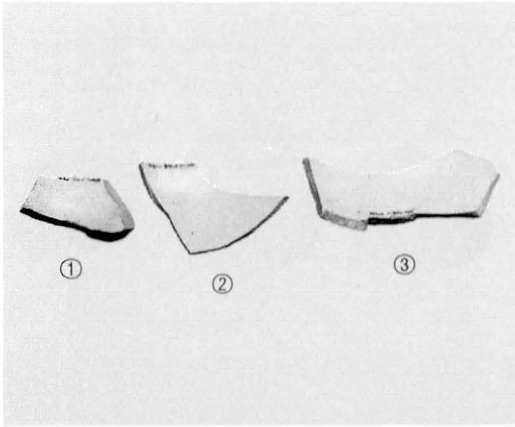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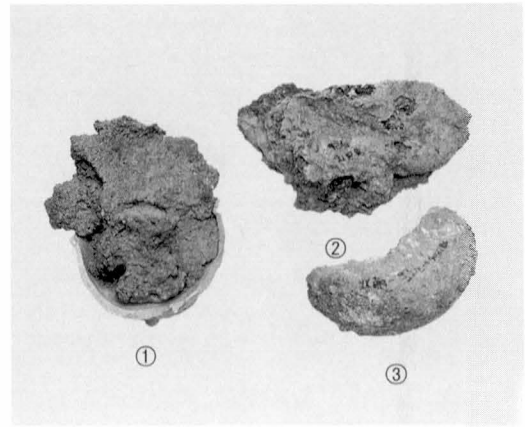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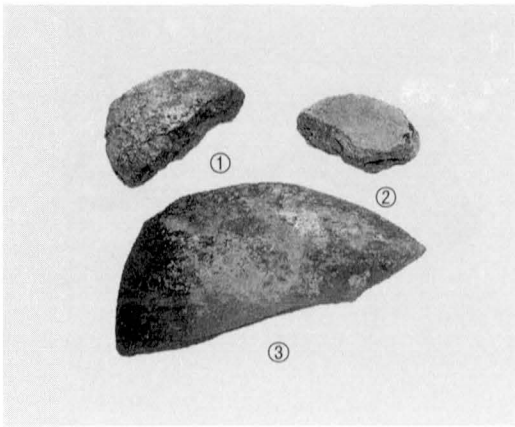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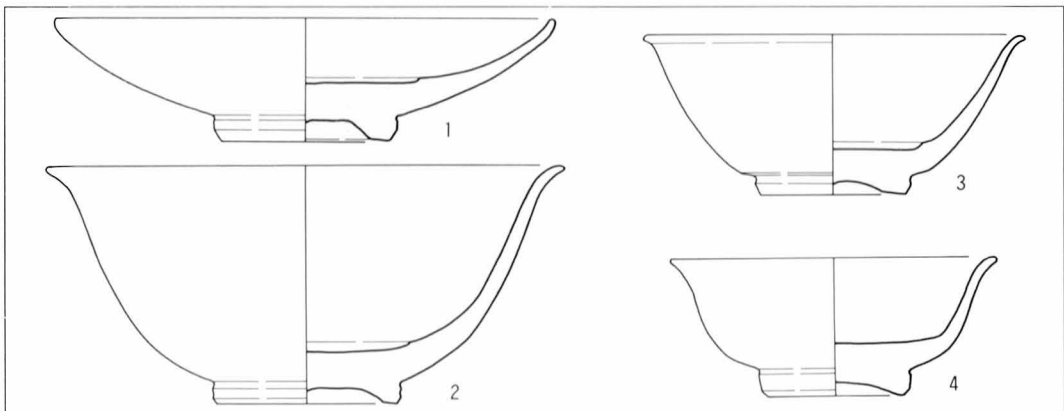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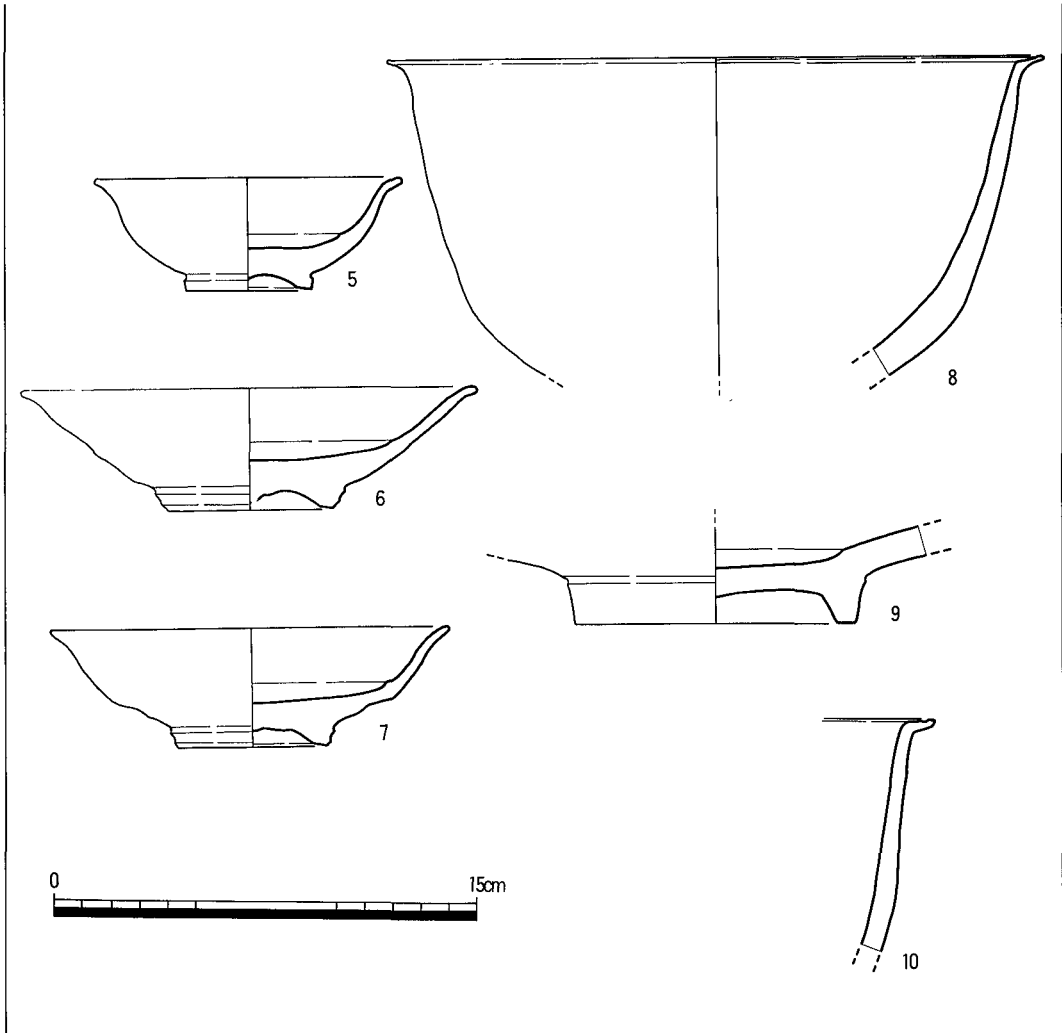


8

9

사진 24. 이동면 천리 2호 요지





도면 25. 이동면 천리 2호 요지

9) 墨里 1호 요지

- (1) 성 격 : 朝鮮 15~16世紀 白磁窯址
- (2) 위 치 : 장춘부락에서 동쪽으로 500여 미터 떨어진 병목골 초입에 있는 임야에 위치하고 있으며 앞쪽에 폭 3미터 냇가가 있다. 지번은 산66-1입, 230전, 240전, 241전, 244전일대에 해당한다.(사진25-1, 지도1·20)
- (3) 현 상 : 유적의 위쪽에는 평탄작업을 하고 작은 나무를 뺏뺏이 식수하였으며, 이곳을 제외한 주변지역은 잡풀이 무성하다. 평탄작업시 유적의 일부분이

파손된 것으로 생각되지만, 주변지역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표상에 백자편은 소량이 보이고 있는데 위쪽보다는 넷가에 가까울수록 수량이 많아지고 있다. 유물의 채집범위로 보아 유적의 크기는 가로 20 미터, 세로 20 미터 정도로 파악된다.(사진25-2)

(4) 유 물 : 다수의 白磁파편과 가마벽편이 산재해 있다.

가. 白磁 : 대접과 접시가 주류를 이루며, 형태와 크기도 유사한 것들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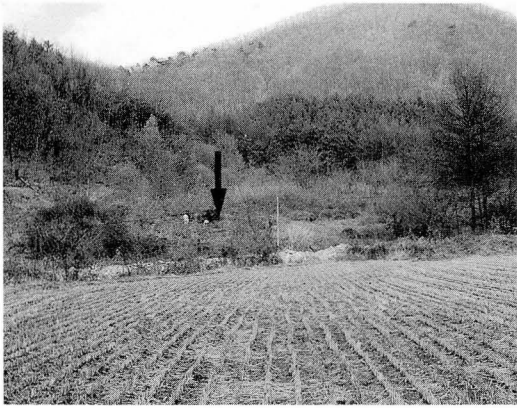
● 大 椀 : 형태와 크기에 따라 크게 두 개의 유형으로 나뉜다.

①(사진25-3-①, 도면26-1) : 구연의 외반하고 몸체의 기벽이 완만한 호를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에는 굽의 직경과 크기가 비슷한 원각이 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티가 없는 치밀질이다. 굽은 대마디 모양으로 깎음새가 거칠고 둔중하다. 굽안바닥을 얇게 깎아 내었으며, 굽과 굽주변에는 시유하지 않고, 바닥 네 곳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는 담청백색의 유를 씌웠으며, 빙렬은 없다. 윗면 안바닥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남아 있다.

②(사진25-3-②, 도면26-2) : ①번의 대접과 유사한 형태이지만, 크기가 매우 작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티가 없는 치밀질이다. 굽은 대마디 모양으로 깎음새가 거칠다. 굽안바닥을 얇게 깎아내었으며, 굽과 굽주변에는 시유하지 않고, 바닥 네 곳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는 담갈색의 유를 씌웠으며, 빙렬이 있다.

● 椀 匙 : 다수 수습되었으나, 형태와 크기가 대부분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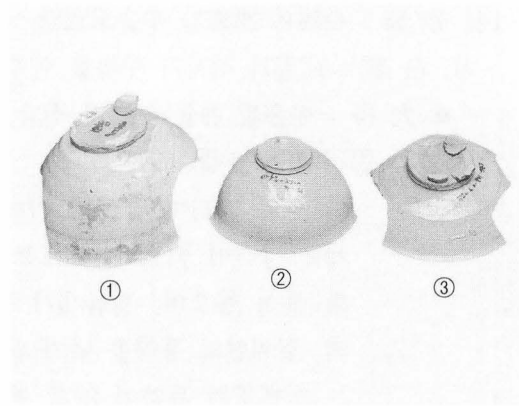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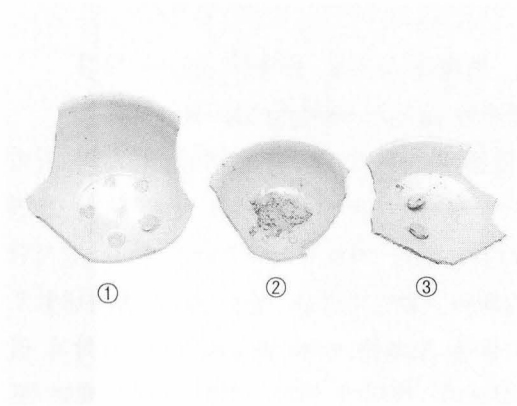
①(사진25-3-③, 도면26-3) : 구연의 외반하고 몸체의 기벽이 사선을 그리며 점차 폭이 좁아지다가 저부에서 곡면을 이루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편평한 안바닥의 가장자리에는 한 줄의 원각이 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고,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이다. 굽은 대마디 모양으로 깎음새가 거칠다. 굽과 굽주변에는 시유하지 않고 바닥 네 곳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는 회백색의 유약이 시유되었으며, 빙렬은 없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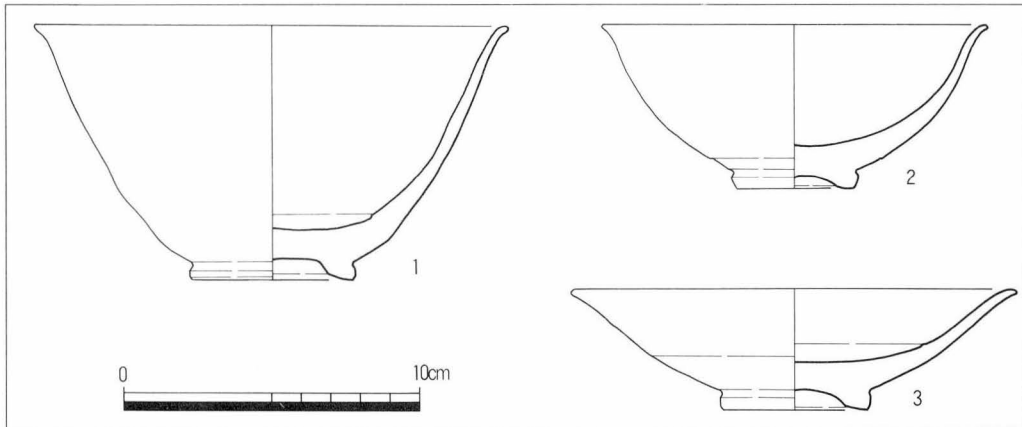


2



3

사진 25. 이동면 묵리 1호 요지



도면 26. 이동면 묵리 1호 요지



## 10) 墨里 2호 요지

- (1) 성 격 : 朝鮮 19世紀 後半 ~ 20世紀 初 白磁 · 黑磁窯址
- (2) 위 치 : 목리 당모랭이를 지나는 포장도로에서 기찬가든 음식점 입구로 들어가면 좌측변에 수영장과 밭이 있다. 유적은 이 사이에 있는 단애면에 위치한다. 지번은 607-2전일대에 해당한다.(사진26-1, 지도1·21)
- (3) 현 상 : 음식점과 도로공사 등으로 유적이 파괴되어, 유적의 범위가 정확치 않다. 단애면을 정면에 두고, 좌측에는 백자가 많은 유적이 있고 우측으로 20여 미터 떨어진 곳에는 흑자의 퇴적이 보인다. 백자파편의 경우는 공사시 출토되어 단애면으로 모아둔 것으로 추정되지만, 흑유자기는 원퇴적이 파손되며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사진26-2)
- (4) 유 물 : 白磁와 黑磁가 수습되었다.

가. 白磁 : 대접과 접시가 주류를 이루며, 형태와 크기도 유사한 것들이 많다.

- 大 椀 : 수습된 유물의 수가 적고, 형태와 크기가 대체적으로 유사하다.

①(사진26-3-②, 도면27-1) : 구연은 파손되어 알 수 없지만, 몸체의 기벽이 호를 그리며 굽으로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넓고 편평하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티가 없는 치밀질이다. 굽은 낮고 접지면의 폭이 좁으며,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매우 깊게 깎아내었으며, 접지면의 유약을 닦지 않고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는 회백색의 유약이 얇게 씌워졌으며, 빙렬이 있다. 윗면 안바닥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남아 있다.

- 椀 匙 : 수습된 유물의 수가 적고, 형태와 크기가 대체적으로 유사하다.

①(사진26-3-①, 도면27-2) : 구연이 내만하고 몸체의 기벽이 사선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은 넓고 편평하다. 표면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양질이다. 굽은 낮고 접지면의 폭이 좁으며, 깎음새가 비교적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굽언저리보다 깊게 깎아내었으며, 접지면의 유약을 닦지 않고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회백색의 유약을 씌워지만, 용융상태가 고르지 못하다. 윗면 안바닥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남아 있다.

나. 黑磁 : 항아리와 광구병이 대부분이다.

- 瓶 : 형태와 크기가 대체적으로 유사하다.

①(사진26-4-①~④, 도면27-3~5) : 구연이 직립하고 구연부의 중앙에 계단형의 턱이 있는 광구병으로, 목이 잘록하며 몸체의 상부에서 평평잡하

다가 점차 폭이 좁아져 굽으로 이어지는 형태이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고, 태토는 적갈색의 양질이다. 굽은 안굽으로 직경이 매우 넓으며,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얇게 깎아낸 후 흙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표면에는 검은 빛의 유를 두껍게 씌웠으며, 내외면 곳곳에 유가 흘러 묻쳐 있다.

● 壺 : 형태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①(사진26-5-③, 도면27-7) : 구연이 넓고 직립하며 예리하게 각이 져 있는 형태로, 몸체와 굽은 확인할 수 없다. 장식은 없으며, 태토는 양질이다. 표면에는 황갈색의 유약이 두껍게 씌워져 있으며, 발색이 일정치 못하다.

②(사진26-5-①, 도면27-6) : 구연이 도톰하게 밖으로 말려 있고, 목이 비교적 긴 형태로, 몸체와 굽은 알 수 없다. 장식은 없으며, 태토는 흑갈색으로 양질이다. 표면에는 암흑색의 유가 두껍게 씌워져 있으며, 빙렬은 없다.

다. 其他 : 흑자로 추정되는 뚜껑이 한 점 있다.

● 뚜 껑 : 여러 점이 수습되었으나 형태와 크기가 대체적으로 유사하다.

①(사진26-5-②, 도면27-8) : 윗면은 중앙보다 가장자리로 갈수록 높이가 다소 높아지며, 밑면은 가장자리에서 저부쪽으로 사선형으로 곧게 뺀 형태로, 윗면중앙에 꼭지가 달려 있다. 윗면에는 꼭지를 중심으로 몇 줄의 음각원권이 장식되어 있으며, 저부가 파손되어 받침흔적은 남아 있지 않다. 태토는 적갈색으로 잡물이 없는 양질이다. 흑자와 함께 수습되었으나, 표면에 유약이 시유되지 않아 종류는 알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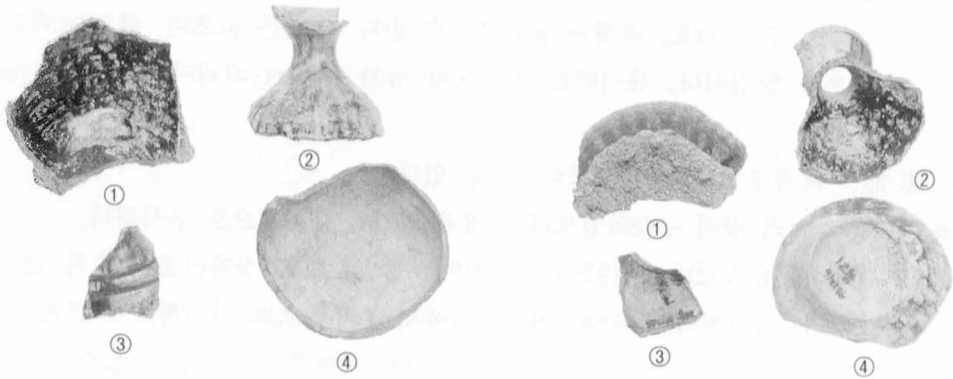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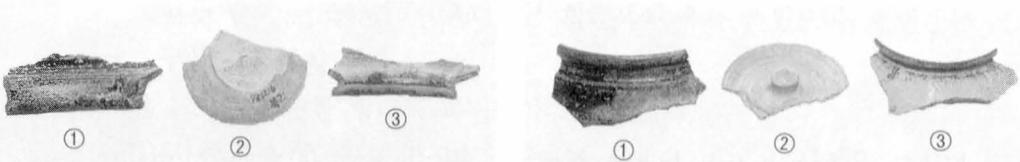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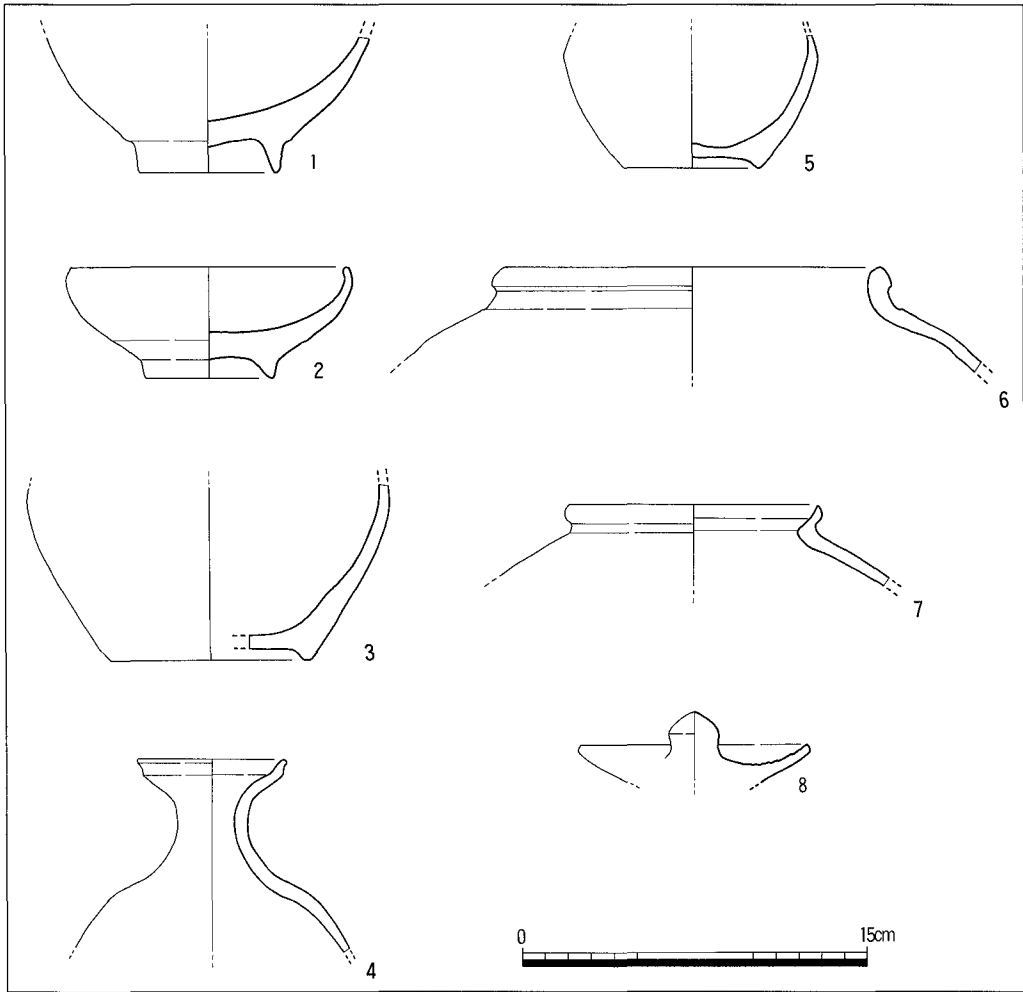


4



5

사진 26. 이동면 묵리 2호 요지



도면 27. 이동면 목리 2호 요지

11) 華山里 1호 요지

- (1) 성 격 : 朝鮮 17世紀 白磁窯址
- (2) 위 치 : 화산리를 가로지르는 길을 가다보면 요산동 마을과 골프장으로 들어가는 삼거리가 나온다. 여기서 남측에 위치한 요덕저수지로 넘어가는 논길이 있는데 이를 따라 약 300여 미터 정도 이동하면 밭과 임야가 접한 지역이 나오는데 이곳에 유적이 위치한다. 지번은 산 100임일대에 해당한다.(사진27-1, 지도1·22)
- (3) 현 상 : 낮은 구릉의 가장자리와 밭 일부에 걸쳐 다량의 백자파편이 분포하는 양

상을 띠고 있으며, 퇴적 일부는 경작지 정리로 파손된 듯하지만, 유적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할 것으로 추정된다. 유적의 범위는 폭과 상하의 길이가 각각 30여 미터를 이루며, 현재 경작지 정리시에 출토된 파편들이 밭과 밭 사이의 둔덕에 모아져 있다.(사진27-2)

(4) 유 물 : 다양한 종류의 白磁파편이 수습되었다.

가. 白磁 : 대접과 접시, 잔이 주류를 이루며, 각각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양질의 백토로 제작되었으며, 유색은 회백색이 대부분이다.

● 大 椀 : 형태와 크기에 따라 여섯 종류로 나뉜다.

①(사진27-3-①, 도면28-4) : 구연의 형태는 알 수 없으며, 몸체가 완만한 곡면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에는 굽의 직경보다 큰 예리하게 깎인 원각이 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이다. 굽은 직경이 넓고 접지면의 폭이 좁으며, 깎음새가 단정하다. 안바닥을 오목하게 깎아내고, 바닥에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회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②(사진27-4-③, 도면28-3) : ①번 대접과 유사하지만, 내저면 원각이 굽 직경만한 크기로 보다 작은 형태이다. 표면에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이다. 굽은 높이가 낮고 직경이 넓으며, 접지면을 둥글게 다듬었다. 안바닥을 오목하게 깎아내고, 바닥에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는 담청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③(사진27-3-②, 도면28-5) : 몸체가 뒤틀려 구연의 형태는 알 수 없으며, 저부에서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에는 굽의 직경보다 작은 원각이 있다. 표면에 장식이 없으며, 태토에는 잡티가 소량 섞여 있으나 양질이다. 굽은 직립하며 접지면의 폭이 좁고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깊고 오목하게 깎아내었으며, 바닥에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은 담청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나 발색이 고르지 못하다.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④(사진27-3-③, 도면28-6) : 구연의 형태는 알 수 없으며, 대체적으로 ③번의 대접과 유사한 형태이지만, 안바닥에 있는 원각이 좀더 작다. 표면에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이다. 굽은 직립하며 깎음새

가 매우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깊고 오목하게 깎아낸 후, 바닥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은 담갈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⑤(사진27-4-②, 도면28-2) : 구연이 살짝 외반하며 몸체의 기벽이 수직하다가 저부에서 곡면을 이루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오목한 안바닥의 중앙에는 매우 작은 원각이 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소량의 잡티가 섞인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높이가 낮으며, 굽안바닥을 매우 깊고 오목하게 깎아내었다. 바닥과 굽주면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은 암회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⑥(사진27-4-①, 도면28-1) : 구연의 형태는 알 수 없으며, 몸체의 기벽이 수직하다가 저부에서 부드럽게 꺾여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은 넓은 곡면을 이루고 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이다. 굽은 비교적 높이가 높으며, 접지면의 폭이 좁고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오목하게 깎아내고, 바닥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은 담청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 櫛 匙 : 다수의 백자파편이 수습되었으나, 형태와 크기에 따라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①(사진27-5-③~⑤, 도면28-12~14) : 구연이 직립하며 몸체의 기벽이 완만한 호를 그리는 형태로, 크기에 따라 大中小로 나뉘어 진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모두 잡물이 없는 양질의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높이가 낮고 대체적으로 직경이 넓으며, 접지면의 폭이 좁다. 굽안바닥을 오목하게 깎아내고, 바닥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은 회백색, 혹은 회청, 갈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윗면에는 모두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②(사진27-5-①~②, 도면28-10~11) : 구연이 살짝 외반하고 몸체의 기벽이 완만한 곡면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크기가 큰 것과 작은 것으로 나뉘어 진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에는 소량의 잡티가 섞여 있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양질이다. 굽은 높이가 낮고 접지면의 폭이 좁아, 몸체와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굽안바닥을 얇고 오목하게 깎아

내었으며, 바닥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는 회백색의 유약을 얇게 씌웠으며, 윗면에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 蓋 : 형태와 크기에 따라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①(사진27-6-①, 도면28-7) : 구연의 형태는 알 수 없으며, 몸체의 기벽이 사선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오목한 곡면을 이룬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의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높이가 매우 낮고 접지면의 폭이 좁아, 몸체와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 굽안바닥을 얇고 오목하게 깎아내었으며, 받침흔적은 남아 있지 않다. 초벌편으로 유약은 씌워져 있지 않다.

②(사진27-6-②, 도면28-8) : 구연과 몸체의 기벽이 사선을 이루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은 폭이 좁은 곡면이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외면기벽에는 물레자국이 남아 있다. 태토는 미세한 잡티가 소량 섞여 있는 양질의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높이가 낮고 접지면의 폭이 좁으며, 안바닥을 얇게 깎아 내었다. 바닥과 굽주변까지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회백색의 유약이 씌워졌으며, 빙렬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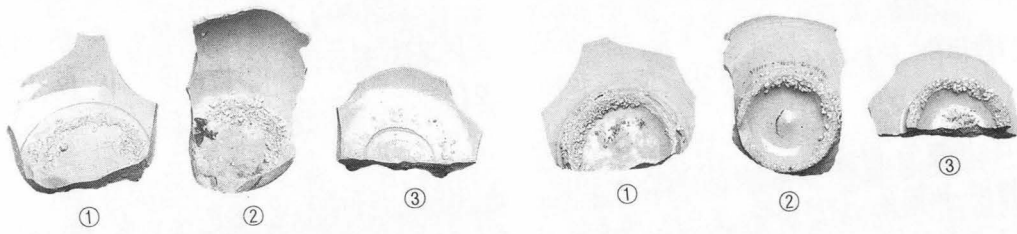
③(사진27-6-③, 도면28-9) : 구연이 살짝 외반하고 몸체의 기벽이 수직하다가 저부에서 부드럽게 꺾여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넓고 편평하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에는 미세한 잡티가 소량 섞여 있다. 굽은 높이가 낮고 직경이 작으며, 접지면의 폭이 좁아 몸체와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담갈색의 유약을 씌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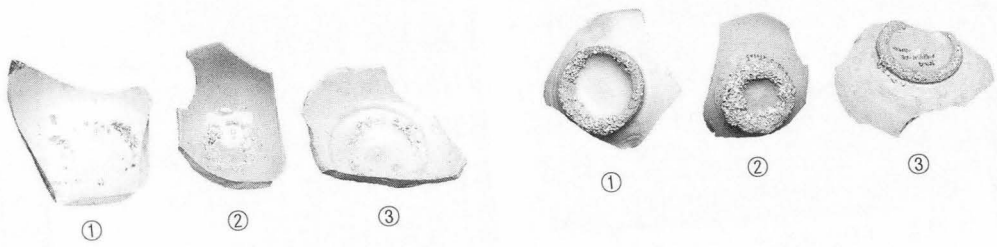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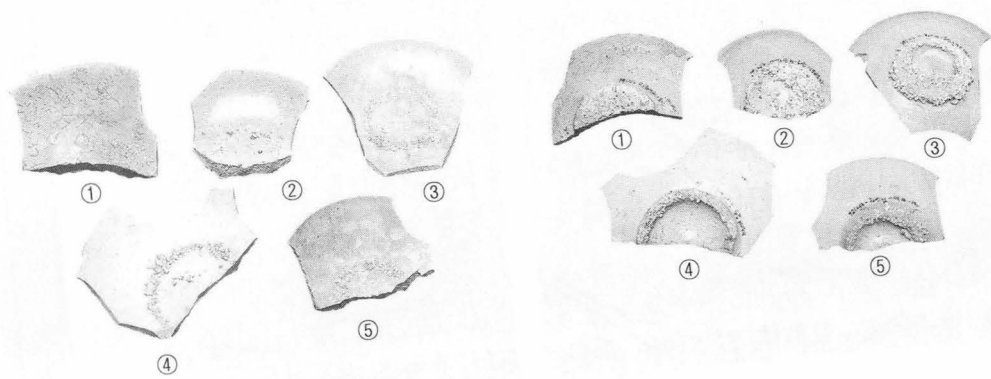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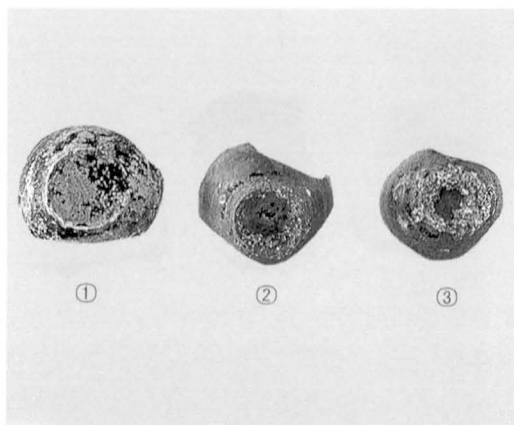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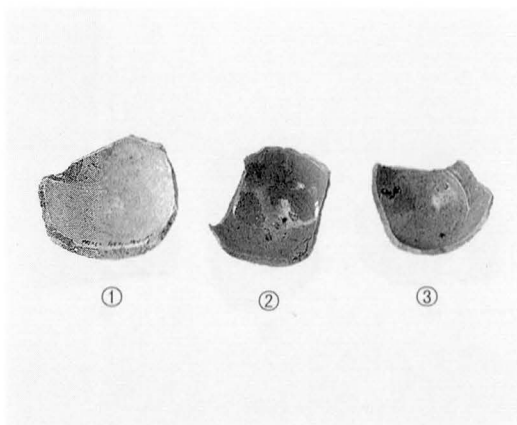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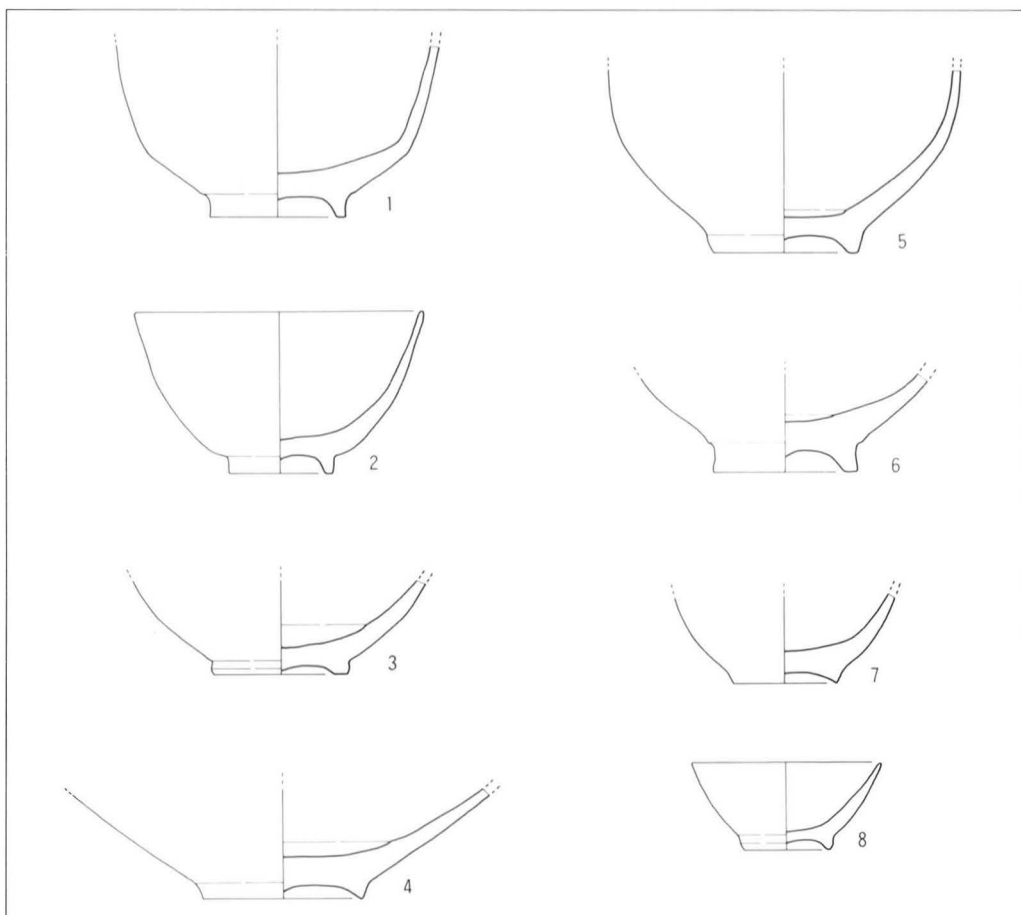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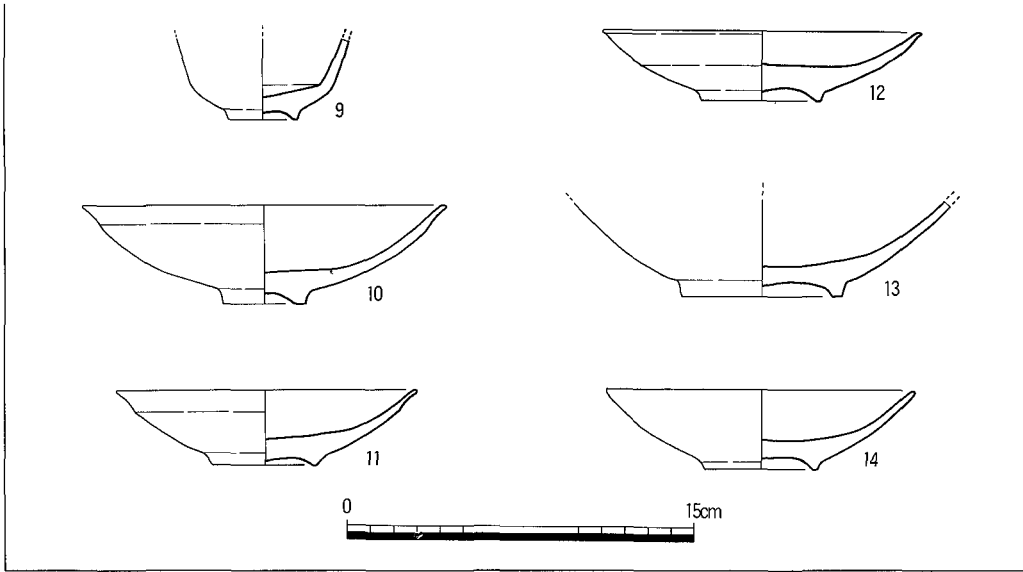




6

사진 27. 이동면 화산리 1호 요지





도면 28. 이동면 화산리 1호 요지

## 12) 華山里 2호 요지

- (1) 성 격 : 朝鮮 17世紀 白磁窯址
- (2) 위 치 : 화산리 골프장 뒷편 우측 계곡을 따라 약 300여 미터 들어가면 전나무 군락지가 있다. 유적은 이 부근에 위치하는데 골프장과 인접한 상태이다. 지번은 산 60임일대에 해당한다.(사진28-1, 지도1·23)
- (3) 현 상 : 유적의 주변은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으며, 유적의 좌측 아래부분에 개울이 형성되어 있다. 유적의 범위는 가로 30, 세로 20여 미터에 달하며, 형질의 변화가 적어 유구의 보존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추정된다. 백자와 편들이 계곡과 산길을 따라 노출되어 있다.

- (4) 유 물 : 白磁와 窯道具가 수습되었다.

가. 白磁 : 대접과 접시가 주류를 이루며, 이외에도 잔, 종지 등이 수습되었다. 유색은 회백색이 대부분이며, 바닥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 大樑 : 다수의 유물이 수습되었으며, 형태에 따라 크게 세 종류로 나뉜다.

①(사진28-2-①·3-④~⑤·4-③, 도면29-1·7~8·11) : 구연이 외반하거나 혹은 파손되어 알 수 없는 것이 다수 있지만, 몸체는 대체적으로 완만한 호를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은 곡면을 이루며 원

각이 없다. 표면에는 모두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을 사용하였다. 굽은 내경하고 접지면의 폭이 좁으며, 깎음새가 대체적으로 단정하다. 안바닥을 오목하거나 편평하게 깎아내고, 바닥에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회백색 혹은 미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나, 발색이 일정하지 않으며,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②(사진28-2-②~③·3-③, 도면29-2~3·6) : 구연의 형태는 알 수 없고 몸체가 호를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에는 직경의 크기가 매우 다양한 원각이 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의 백토를 사용하였지만, 소량의 잡티가 섞여 있는 것으로 있다. 굽은 내경하고 접지면의 폭이 고르고,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얇고 오목하게 깎아내었으며, 바닥에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회백색 혹은 담청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③(사진28-5-①, 도면29-12) : 구연이 직립하고 몸체의 기벽이 호를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반구형을 이루어 보통 내만대접이라고 부르는 예이다. 표면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미세한 잡티가 소량 섞여 있지만 양질이다. 굽은 높이가 낮고 약간 내경하고 접지면의 폭이 좁다. 굽안바닥을 얇고 오목하게 깎아내었으며, 접지면에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적고 투명한 어두운 회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 栞匙 : 다수의 유물이 수습되었으며, 형태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뉜다.

①(사진28-5-②, 도면29-13) : 구연이 외반하고 몸체의 기벽이 완만한 호를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은 넓은 곡면이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을 사용하였다. 굽은 내경하고 접지면의 폭이 좁으며,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얇고 오목하게 깎아내고, 바닥에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담청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②(사진28-5-③, 도면29-14) : 대접의 ③번을 축소시켜 놓은 듯한 형태로, 그릇의 높이가 낮고 안바닥이 완만한 호를 이루고 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티가 소량 섞여 있으나 치밀질이다. 굽은 높이가 낮고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좁다. 굽안바닥을 오목하게 깎아내었으며,

바닥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회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나, 발색이 고르지 못하여 갈회색을 보이기도 한다.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 蓋 : 형태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뉜다.

①(사진28-4-②, 도면29-9) : 구연은 파손되었고 몸체의 저부에서 부드럽게 각이 저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넓고 편평하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을 사용하였다. 굽은 내경하고 접지면의 폭이 좁으며,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오목하게 깎아내고, 바닥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회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빙렬이 있다.

②(사진28-4-①, 도면29-10) : 구연이 외반되고 몸체의 기벽이 호를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은 넓은 곡면을 이루고 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에는 미세한 잡티가 소량 섞여 있으나 양질이다. 굽은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좁고, 깎음새가 비교적 양호하다. 굽안바닥을 오목하게 깎아내었으며, 접지면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회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빙렬이 있다.

● 종 지 : 형태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뉜다.

①(사진28-5-④, 도면29-15) : 구연은 외반하며 가장자리가 도톰하게 말려 있고, 몸체의 기벽이 수직하다가 저부에서 부드러운 직각으로 꺾여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은 편평하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양질의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낮고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좁고, 깎음새가 고르지 못하다. 굽안바닥을 오목하게 깎아낸 후, 접지면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담청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빙렬은 없다.

②(사진28-5-⑤, 도면29-16) : 구연이 살짝 외반되었고 몸체의 기벽이 수직하다가 저부에서 각이 저 꺾이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은 완만한 곡면을 이룬다. 기벽의 두께가 매우 얇고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을 사용하였다. 굽은 내경하고 접지면의 폭이 좁으며,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얇게 깎아내고, 바닥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회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빙렬이 있다.

나. 窯道具 : 다수의 개떡이 수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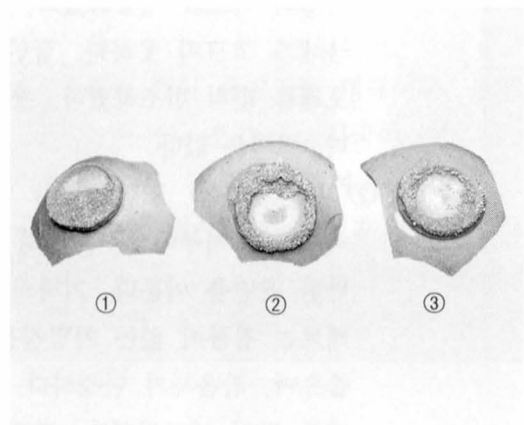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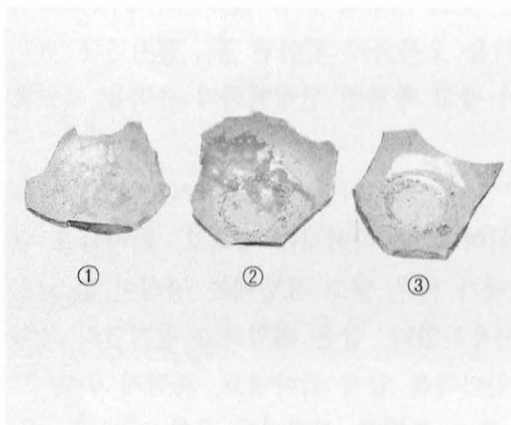
● 개 떡 : 크기가 조금씩 다를 뿐 모두 동일한 형태이다.

①(사진28-6-①~②·④~⑤) : 원반형으로 경사진 가마의 바닥에 그릇을 수평으로 올려놓기 좋게 하기 위하여 한 쪽은 얇고 다른 한쪽은 두껍게 만들었다. 마사토질의 내화재료로 제작되었으며, 윗면에는 그릇을 놓았던 자국과 모래받침의 흔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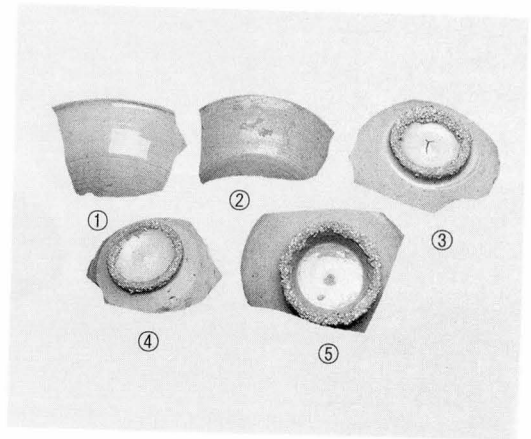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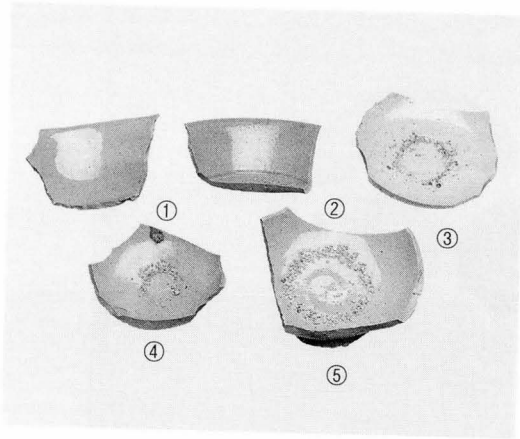
②(사진28-6-③) : 작은 접시의 안바닥에 받침용 모래를 가득 채워 채워 개떡의 대용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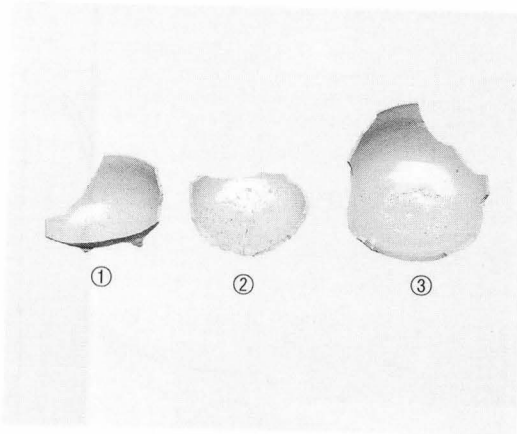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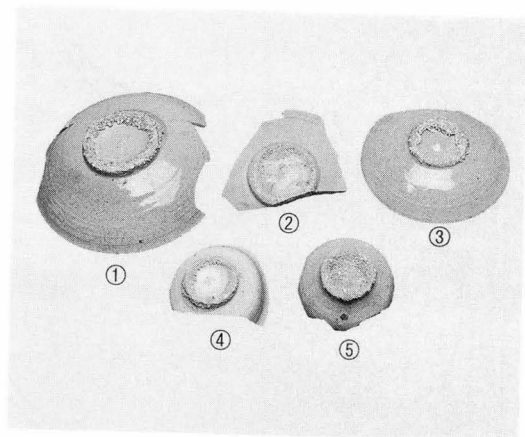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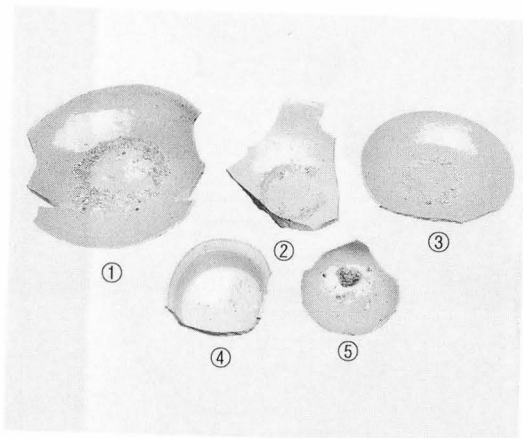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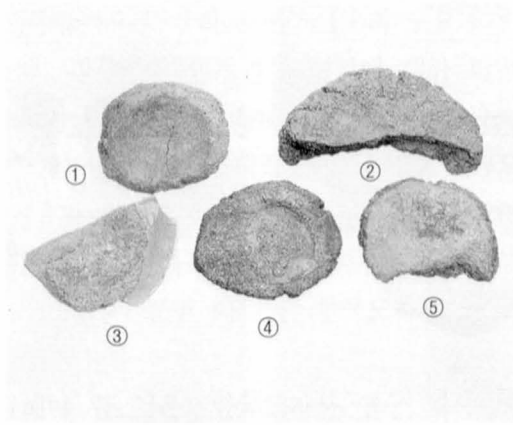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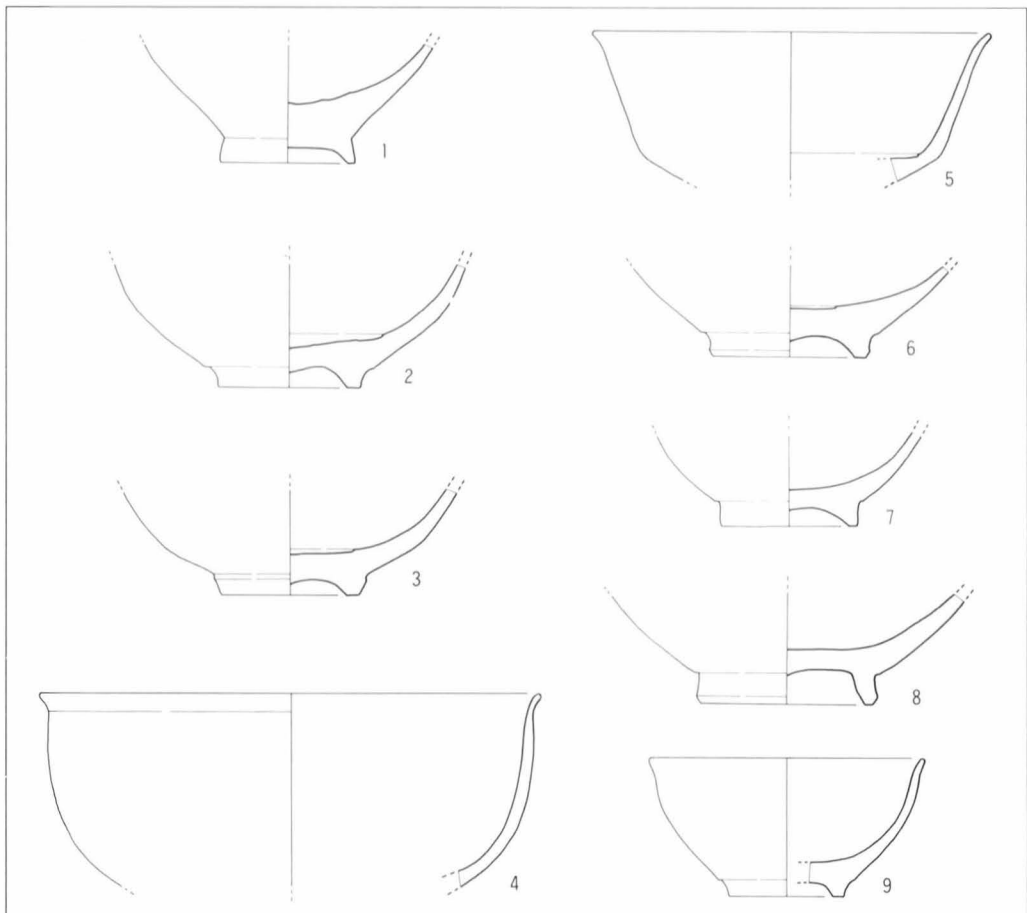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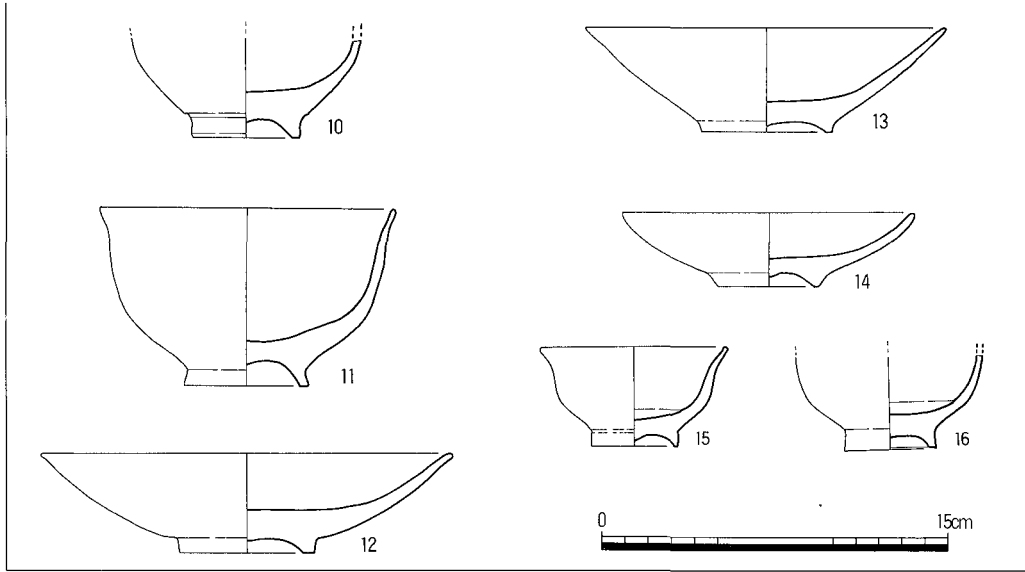
5



6

사진 28. 이동면 화산리 2호 요지





도면 29. 이동면 화산리 2호 요지

## 7. 遠三面

### 1) 文村里 1호 요지

- (1) 성격 : 朝鮮 19世紀 白磁窯址
- (2) 위치 : 문촌리의 마을을 가로지르는 포장도로에서 약 200여 미터 떨어진 나즈막한 임야지역의 버섯농장 안쪽에 위치한다. 지번은 산35-1임, 383-1전, 384-2전, 384-3전일대에 해당한다.(사진29-1, 지도1·24)
- (3) 현상 : 주변이 뺨뺨한 나무로 둘러싸여 있으며 유적의 우측은 단애면을 형성하며 비교적 폭이 넓은 내울과 접해 있다. 백자 파편들이 버섯농장뿐만 아니라 유적의 아랫쪽에 있는 조류를 사육하는 곳까지 넓게 퍼져 있다. 유적의 범위는 가로 20, 세로 30 미터 정도이지만, 가마의 구조물이 지면에 노출되어 있으며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지표에서 확인되는 가마의 크기는 대략 봉통쪽의 폭이 1.4 미터이고 굴뚝쪽이 3 미터에 달하며 길이는 13 미터 정도이다. 또한 가마내부의 칸막이가 양호하게 남아있으며, 주변의 현상이 매우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다.(사진29-2)
- (4) 유물 : 다수의 白磁가 수습되었다.
  - 가. 白磁 : 대접과 접시가 주류를 이루며, 이외에도 잔, 굽이 높고 각이 진 祭器의



파편 등이 수습되었다. 유색은 회백색이 대부분이며, 굽은 안바닥을 외면보다 깊게 깎아내었고 바닥에 모래를 받쳐 포개구이하였다.

- 大 櫛 : 다수의 파편이 확인되었으며, 형태에 따라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 ①(사진29-3-③, 도면30-3) : 구연이 도톰하며 약간 내만하고 몸체의 기벽이 호를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 중앙이 편평하다. 표면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회백색으로 잡물이 없다. 굽은 비교적 높고 내경하며, 깎음새가 비교적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깊고 편평하게 깎아내었으며, 바닥에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적고 반투명한 회백색의 유약을 두껍게 씌웠으나, 용융상태가 좋지 못하다.
  - ②(사진29-3-①, 도면30-1) : 구연이 직립하며 몸체의 기벽이 완만한 호를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은 넓은 곡면을 이루고 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회백색으로 미세한 잡티가 소량 섞여 있다. 굽은 비교적 높고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고르지 못하다. 안바닥을 깊게 깎고, 바닥에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회청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빙렬이 있다.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 ③(사진29-3-②, 도면30-2) : 구연의 형태는 알 수 없으며, 몸체의 기벽이 사선에 가까운 곡면을 이루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몸체로 이어지는 편평한 안바닥의 가장자리에는 예리한 각이 형성되어 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회백색으로 잡물이 없는 양질이다. 굽은 높이가 낮으며, 접지면의 폭이 좁다. 굽안바닥을 굽언저리보다 깊게 깎아 낸 후, 바닥에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담회청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 櫛 匙 : 다량의 파편이 확인되었으며, 수습된 유물은 형태에 따라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 ①(사진29-4-①·③, 도면30-4·6) : 구연과 몸체의 기벽이 사선을 이루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기벽의 높이가 낮고 안바닥이 넓은 접시이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이다. 굽은 대체적으로 높이가 낮고 내경하며,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편평하게 깎아내었으며, 바닥에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회백색의 유약을 두껍게 씌웠으며,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도 있다.

②(사진29-4-②, 도면30-5) : ①번의 접시와 유사하지만, 구연이 거의 직립하고 몸체가 완만한 호를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더욱 깊고 넓은 곡면을 이룬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이다. 굽은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고르고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오목하고 깊게 깎아내었으며, 바닥에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회청색의 유약을 두껍게 씌웠으며, 빙렬이 있다.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남아 있다.

● 盞 : 한 점의 파편이 수습되었다.

①(사진29-5-①, 도면30-7) : 구연이 직립하고 몸체의 기벽이 완만한 곡면을 이루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에는 번조시 생긴 커다란 잡물이 붙어 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이다. 굽은 넓고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좁다. 굽안바닥을 굽언저리보다 깊고 오목하게 깎아내었으며, 바닥에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회청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빙렬이 있다.

● 壺 : 한 점의 파편이 수습되었다.

①(사진29-5-②, 도면30-8) : 구연에는 몸체에 직각으로 꺾여 외반하는 폭이 좁은 전이 있으며, 몸체의 기벽은 완만한 호를 그리며 저부에서 점차 폭이 좁아지는 형태이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나, 성형시 생긴 물레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이며, 굽은 파손되어 알 수 없다. 광택이 좋고 반투명한 담청백색의 유약을 두껍게 씌웠으며, 빙렬은 없다.

● 祭器 : 소수 수습되었으며, 모두 동일한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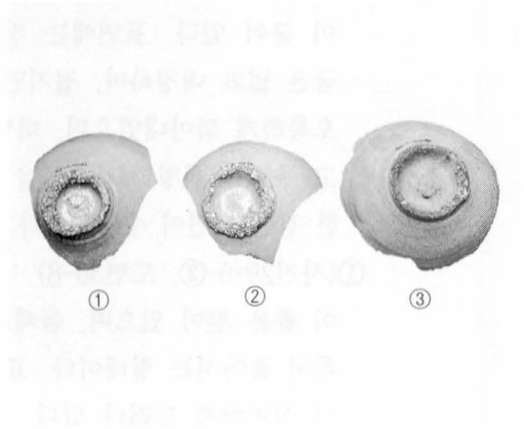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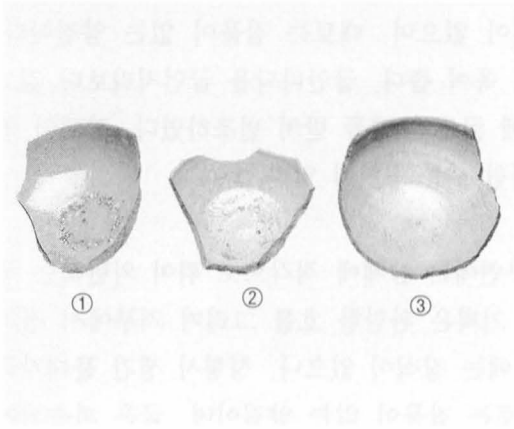
①(사진29-5-③, 도면30-9) : 구연은 외반하며 몸체의 기벽이 사선을 그리다가 저부에서 각이 저 꺾여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넓고 편평한 접시모양의 제기이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직경이 넓고 높이가 매우 높으며, 표면을 각면의 폭이 일정하지 않은 팔각으로 모깎이하였다. 접지면의 폭이 좁고, 비교적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깊게 깎은 후, 굽안쪽에는 시유하지 않고 바닥에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는 회백색의 유약을 두껍게 시유하였으며, 빙렬이 있다. 윗면에는 번조시 생긴 잡물이 붙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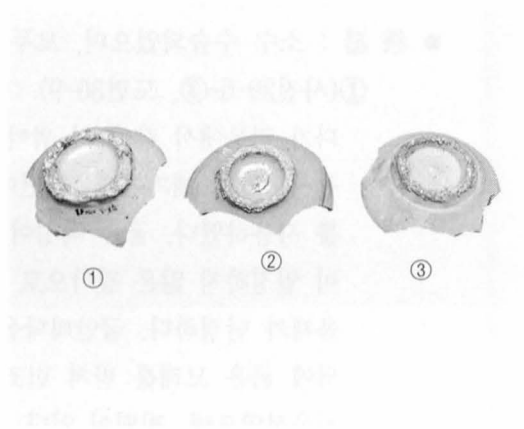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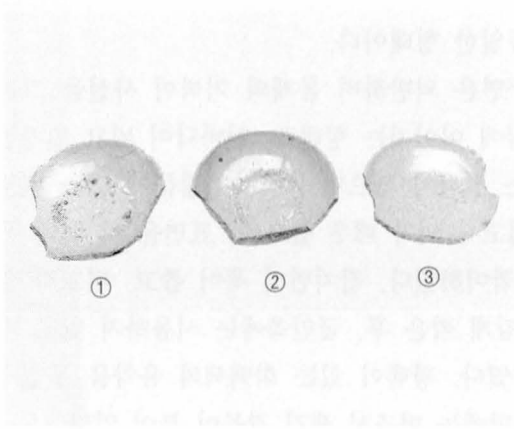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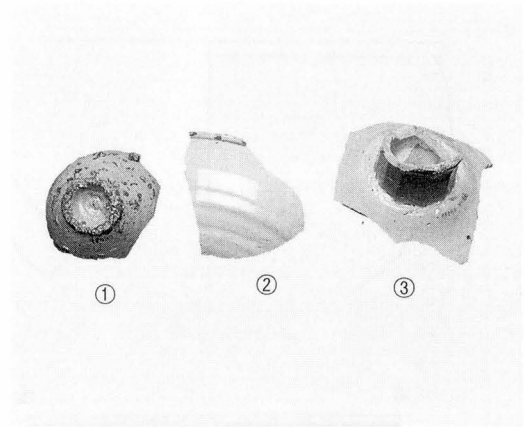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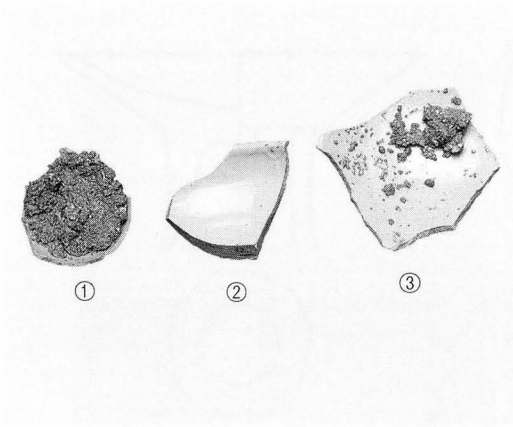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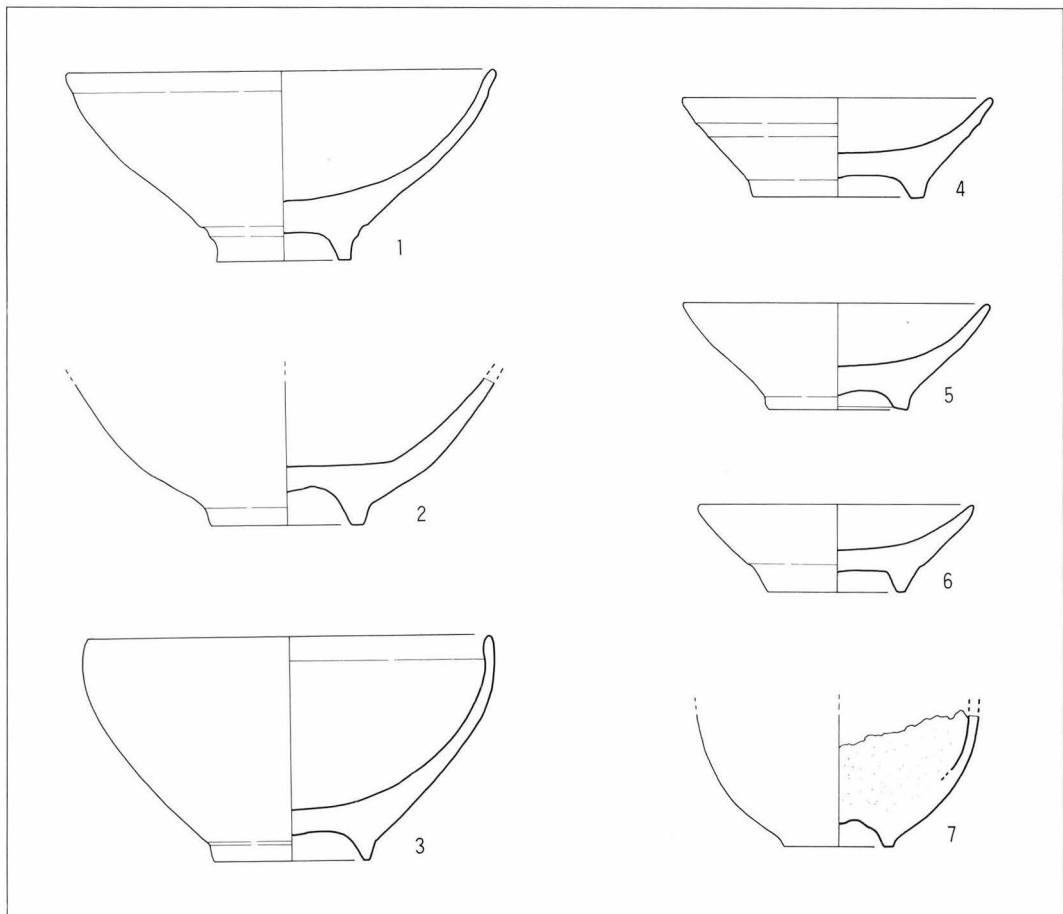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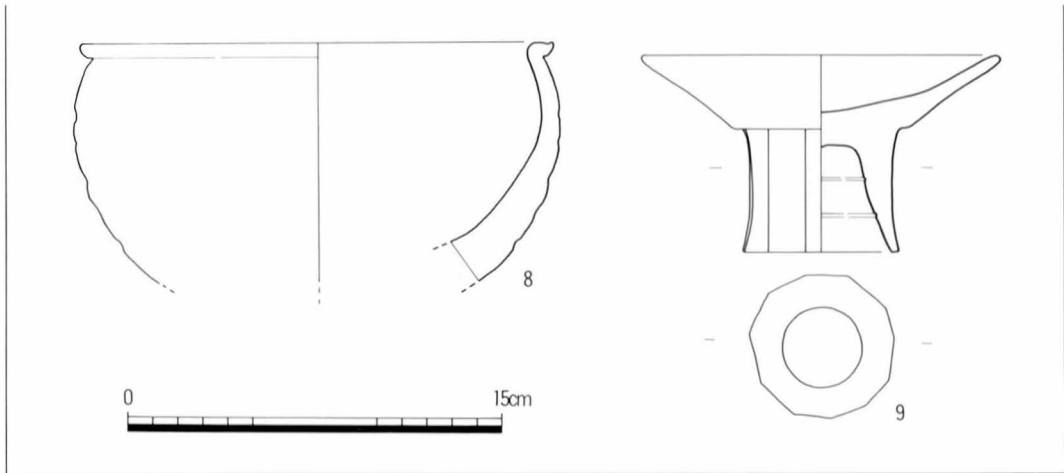
4



5

사진 29. 원삼면 문촌리 1호 요지





도면 30. 원삼면 문촌리 1호 요지

## 2) 文村里 2호 요지

- (1) 성 격 : 20世紀 初 甕器窯址
- (2) 위 치 : 문촌리의 도로에서 200여 미터 떨어진 박찬헌 옹의 자택(454-2번지) 우측편에 조성된 묘지 주변에 위치한다. 지번은 산 50임일대에 해당한다. (사진30-1, 지도1·24)
- (3) 성 격 : 20세기 초에 천주교도들에 의해 옹기가 제작되던 유적이다. 현재는 묘지 조성과 밭으로 개간되어 형질이 크게 변경되어, 유적의 규모나 특징을 확인할 수 없다(사진30-2).
- (4) 유 물

① 甕器 : 대부분 항아리의 잔편들로, 짙은 밤색을 띠고 있다.



1



2

사진 30. 원삼면 문촌리 2호 요지

### 3) 學日里 1호 요지

(1) 성 격 : 朝鮮 19世紀 白磁窯址

(2) 위 치 : 고초풀 저수지를 통과하여 골짜기 안쪽으로 들어가는 포장도로가 있는데 여기서 약 150여 미터 떨어진 윤창희씨댁(76-2번지)과 이종칠씨댁(52번지)의 주변 밭에 위치한다. 지번은 산 55임, 68전일대에 해당한다.(사진 31-1, 지도1·25)

(3) 현 상 : 유적이 택지와 밭으로 개간되어 훼손된 것으로 생각되며, 이종칠씨댁 주변에는 가마벽의 파편이 다수 산재해 있고, 윤창희씨 댁과 사이에 있는 밭에서는 다수의 백자파편이 흩어져 있다. 파편의 분포범위는 가로 30미터, 세로 30여 미터 정도이다.(사진31-2)

(4) 유 물 : 다수의 白磁와 陶枕, 가마벽 등이 수습되었다.

가. 白 磁 : 대접이 주류를 이루며, 이외에도 접시와 작은 병이 수습되었다. 유색은 회백색과 회청색이 대부분이며, 굽은 안바닥을 외면보다 깊게 깎아내었고 바닥에 모래를 받쳐 포개구이하였다.

● 大 椀 : 수습된 파편은 형태에 따라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①(사진31-3-①, 도면31-1) : 구연과 몸체의 기벽이 직립하다가 저부에서 반구형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깊은 곡면을 이룬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을 사용하였다. 굽은 직립하며 접지면의 폭이 좁고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굽언저리보다 깊게 깎아내었으며, 바닥에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담회청색의 유약을 두껍게 시유하였으며, 빙렬이 있다.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②(사진31-3-②, 도면31-2) : 구연과 몸체의 기벽이 직립하다가 저부에서 부드러운 곡면으로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①번의 대접에 비해 크기가 작고 높이도 매우 낮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의 백토이다. 굽은 직립하며 접지면의 폭이 매우 좁고, 깎음새가 비교적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굽언저리보다 깊게 깎아낸 후, 접지면에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고 반투명한 청백색의 유약을 두껍게 시유하였으나, 용융상태가 고르지 못하다.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③(사진31-3-③, 도면31-3) : 구연이 살짝 외반하고 몸체가 기벽이 직립하

다가 저부에서 곡면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구경이 매우 넓고 안바닥이 편평한 대접이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의 백토이다. 굽은 직립하며 접지면의 폭이 고르지 못하고, 깎음새가 예리하다. 굽안바닥을 굽언저리보다 깊고 편평하게 깎아낸 후, 접지면에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적고 반투명한 청백색의 유약을 두껍게 시유하였으나, 용융상태가 고르지 못하다.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 櫛 匙 : 수습된 파편은 모두 동일한 종류이다.

①(사진31-4-①, 도면31-4) : 구연과 몸체의 기벽이 완만한 곡면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넓고 편평하며 크기에 비하여 기벽이 매우 두꺼운 접시이다. 표면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의 백토이다. 굽은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고르고, 비교적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매우 깊게 깎아내었으며, 바닥에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반투명한 담회청색의 유약을 두껍게 시유하였다.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 瓶 : 한 점의 파편이 수습되었다.

①(사진31-4-②, 도면31-5) : 구연은 파손되어 알 수 없으며, 목이 잘록하고 몸체의 중앙이 납작한 타원형을 이루는 작은 병이다. 표면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이다. 굽은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고르고,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편평하게 깎아내고, 굽 주변 단정하게 다듬은 후 번조하였으나 받침흔적은 남아있지 않다. 표면에는 유약이 얇게 씌워져 있으나, 용융상태가 좋지않아 유색은 알 수 없다.

나. 窯道具 : 다수의 도침이 수습되었다.

- 陶 枕 : 굽이 낮은 접시모양의 도침이 다수 확인되었으며, 세부의 형태가 조금씩 다르다.

①(사진31-5, 도면31-6) : 몸체의 직경에 비하여 굽과 기벽의 높이가 높으며 안바닥이 편평한 접시모양으로, 바닥중앙에는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 예가 다수 있다. 표면은 밤갈색이지만 태토는 잡물이 없는 회백색을 띠고 있다. 대체적으로 굽의 저부는 나팔모양으로 벌어져 있으며, 접지면의 폭이 고르고 깎음새가 비교적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깊게 깎아내었으며, 바닥과 윗면에 굽은 모래를 받쳤던 흔적이 남아 있다.

다. 其他

● 가마벽

①(사진31-6-①) : 가마의 벽편으로 마사토질의 내화재료로 만들어졌으며, 가마의 안쪽에 해당하는 면에는 白土가 얇게 발려 있기도 하다. 벽의 외면으로 갈수록 진홍색에서 적색으로 색이 변화되어 나타난다.

● 불창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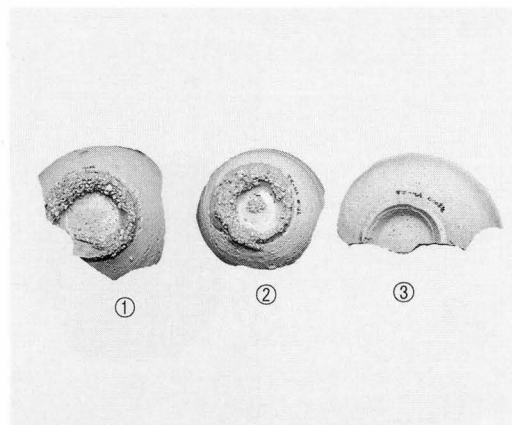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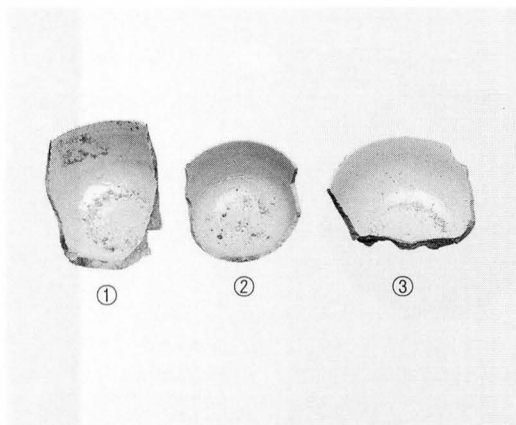
①(사진31-6-②) : 전체적으로는 원통형이지만, 위쪽의 직경이 아래쪽 보다 다소 크다. 마사토질의 내화재료로 만들어졌으며, 표면에는 유질화된 곳도 있다. 바닥의 형태는 파손되어 알 수 없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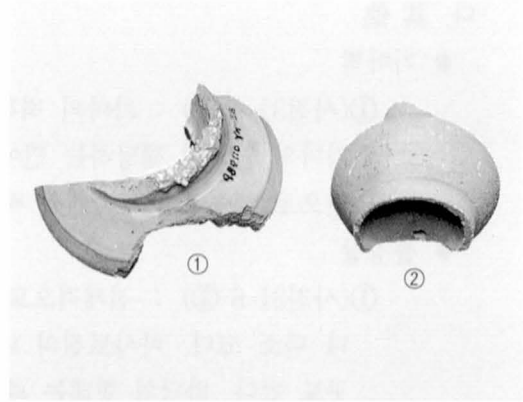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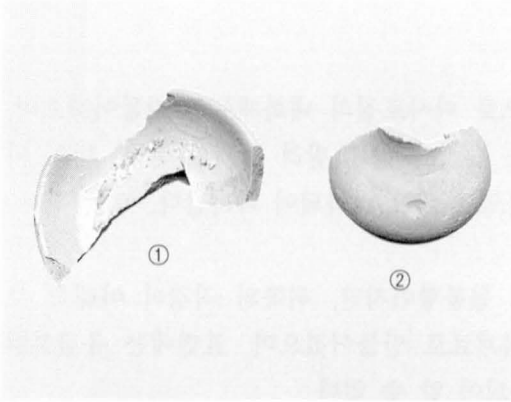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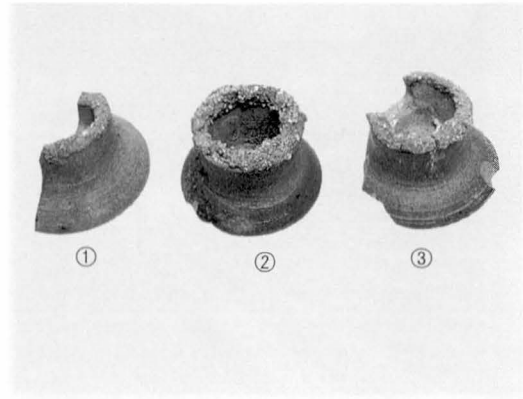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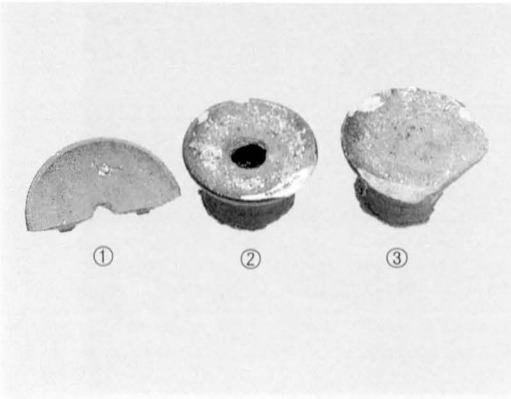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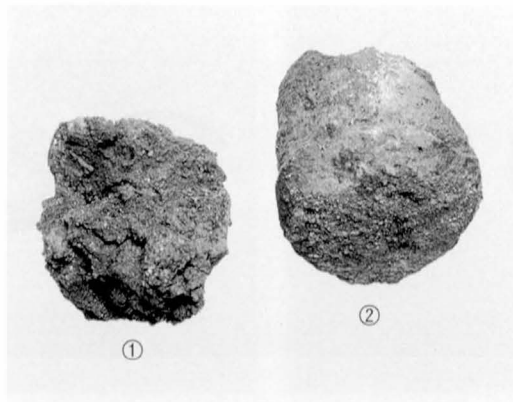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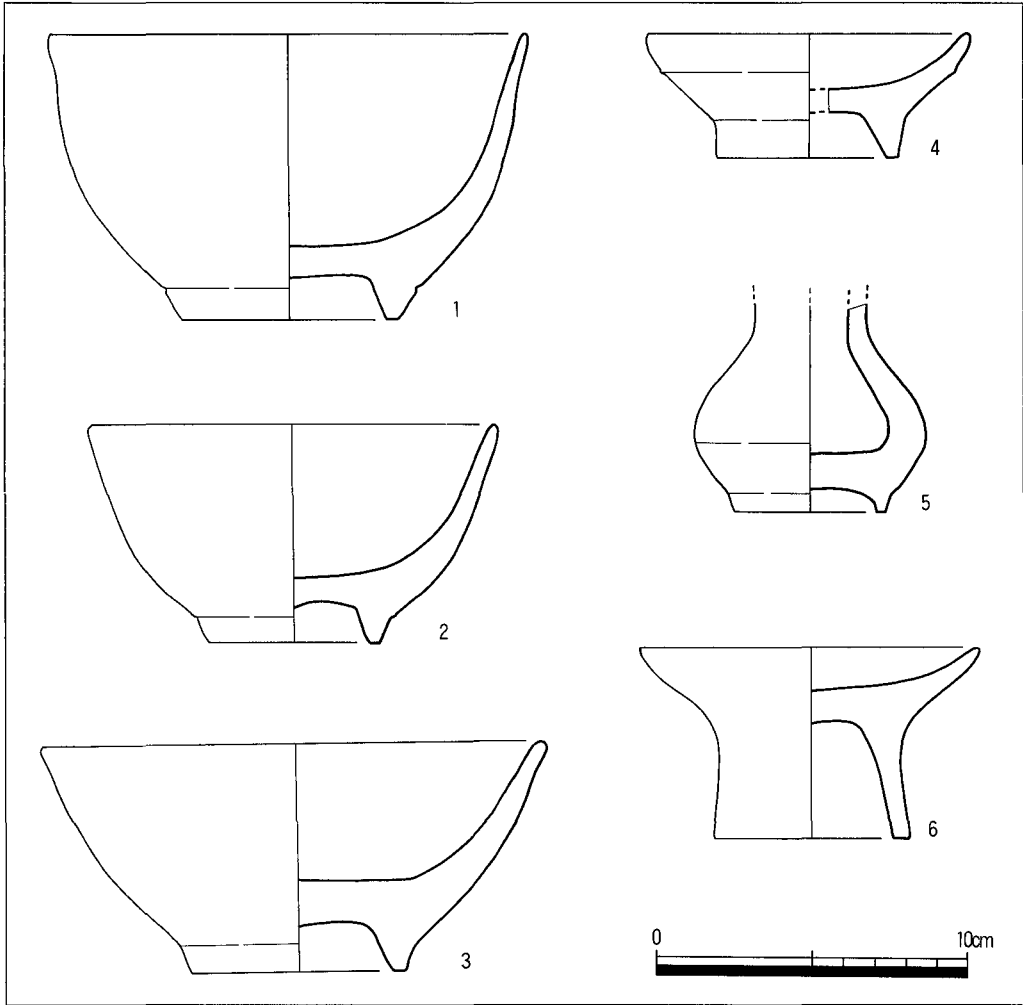


5



6

사진 31. 원삼면 학일리 1호 요지



도면 31. 원삼면 학일리 1호 요지

#### 4) 學日里 2호 요지

- (1) 성격 : 朝鮮 19世紀 白磁窯址
- (2) 위치 : 고리안골에 위치한 쌍용저수지 제방 동측 끝편에서 냇가를 따라 임야쪽으로 250여 미터 정도 올라간 지점에 위치한다. 지번은 532전일대에 해당한다.(사진32-1, 지도1·26)
- (3) 현상 : 유적은 경사가 완만한 작은 구릉에 위치하지만, 아래쪽은 급경사를 이룬 비탈진 사면을 따라 냇가로 이어진다. 유적의 범위는 가로 25, 세로 25 미터 정도로 아래쪽에 파편퇴적이 집중되어 있다. 현재 지표에는 가마의 구조

물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데 가마는 가로 1.7~3.0 미터이며, 세로 15 미터 정도의 크기로 매우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다. 가마의 위쪽에는 불탄 돌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것은 굴뚝부분의 축조시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이곳에는 보호유적이라는 내용의 경고판이 세워져 있다.(사진32-2)

(4) 유 물 : 다수의 白磁와 陶枕, 가마벽 등이 수습되었다.

가. 白磁 : 대접이 주류를 이루며, 이외에도 접시와 굽이 높은 제기 등이 수습되었다. 유색은 회백색이 대부분이며, 굽은 안바닥을 외면보다 깊게 깎아내었고 바닥에 모래를 받쳐 포개구이하였다.

● 大 椀 : 수습된 파편은 형태에 따라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①(사진32-3-①, 도면32-1) : 구연과 몸체의 기벽이 사선을 그리며 저부에서 점차 폭이 좁아지다가 반구형의 곡면으로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은 비교적 폭이 좁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에는 잡티가 소량 섞여 있다. 굽은 높이가 매우 낮고 직립하며 접지면의 폭이 좁아, 몸체와 경계가 분명하지 못하다. 굽안바닥을 굽언저리보다 깊게 깎아내었으며, 바닥에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회백색의 유약을 두껍게 시유하였으나, 용융상태가 고르지 못하다.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②(사진32-3-②~③, 도면32-2~3) : ①번의 대접과 동일한 형태이지만, 크기가 매우 작다. 구연은 대부분 직립하지만, 가장자리가 외반하듯 두껍게 만들어진 것도 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대부분 미세한 잡물이 섞여 있는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높이가 매우 낮고 접지면의 폭이 좁아, 몸체와 경계가 분명하지 못하다. 굽안바닥을 굽언저리보다 깊게 깎아내고, 바닥에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는 회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빙렬이 있는 예도 있다.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③(사진32-3-④, 도면32-4) : 구연이 직립하고 몸체의 기벽이 반구형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은 넓은 곡면이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의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높이가 낮고 접지면의 폭이 고르며,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편평하게 깎아내고, 바닥에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는 회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빙렬은 없다.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 椀 匙 : 소수의 파편이 수습되었으며, 모두 동일한 형태이다.

①(사진32-4-③, 도면32-7) : 구연과 몸체의 기벽이 사선을 그리다가 저부

에서 부드럽게 꺾여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넓고 편평한 작은 접시이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에는 미세한 모래알갱이가 소량 섞여 있다. 굽은 높이가 낮고 접지면의 폭이 고르지 못하다. 굽안바닥을 비교적 얇게 깎아내었으며, 바닥에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고 반투명한 회백색의 유약을 두껍게 시유하였으나, 용융상태가 고르지 못하다. 윗면에는 미세한 잡티가 곳곳에 붙어 있다.

● 祭器 : 소수 수습되었으며, 크기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뉜다.

①(사진32-4-①, 도면32-5) : 구연은 외반하며 몸체의 기벽이 사선에 가까운 곡면으로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넓고 편평한 접시모양의 제기이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의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직경이 넓고 높이가 매우 높으며, 아래쪽으로 갈수록 나팔모양으로 벌어져 있다. 굽안바닥은 시유하지 않았으며, 바닥에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고 반투명한 회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굽안바닥에는 또다른 굽모양의 터미 있는데 이것은 접시를 만든 후 원통형의 굽을 따로 만들어 붙여서 이 제기를 제작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②(사진32-4-②, 도면32-6) : ①번의 제기와 유사한 형태이지만, 전체의 크기가 매우 작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의 백토이다. 굽은 높이가 매우 높으며 아래쪽으로 갈수록 나팔모양으로 벌어져 있다. 굽안바닥을 깊게 깎아내었으며, 굽안바닥까지 시유한 후 바닥에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고 투명한 회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남아있다.

나. 窯道具 : 다수의 도침이 수습되었다.

● 陶枕 : 다양한 형태의 도침이 수습되었다.

①(사진32-5-③~④, 도면32-8) : 일반적인 외반접시의 모양, 몸체의 직경에 비하여 굽의 높이가 매우 높은 제기의 모양, 그리고 번조시 잘못된 대접이나 잔을 사용한 도침으로 나뉜다. 표면은 적갈색이지만 태토는 잡물이 없는 회백색을 띠고 있다. 대체적으로 윗면에는 모래받침의 흔적이 남아 있다.

다. 其他

● 가마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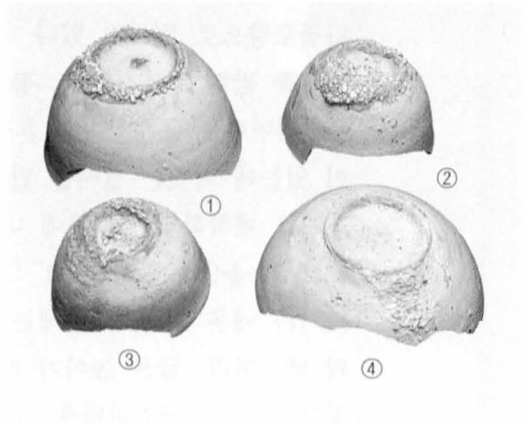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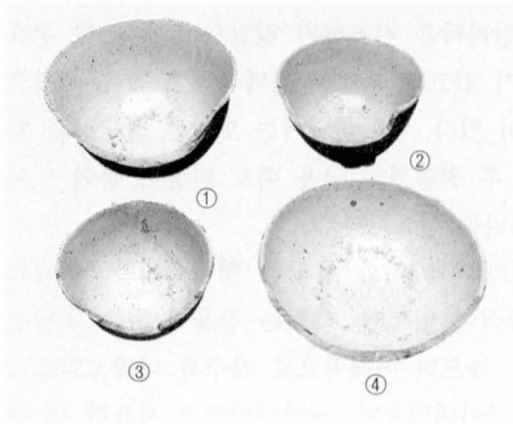
①(사진32-5-①~②) : 가마의 벽편으로 마사토질의 재료로 만들어졌으며, 흙을 몇 겹으로 덧붙여 사용했던 흔적이 남아 있는 예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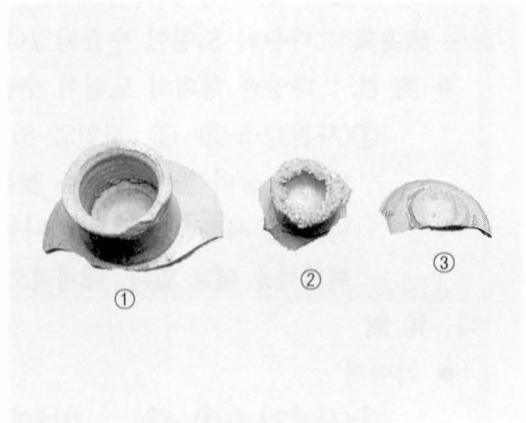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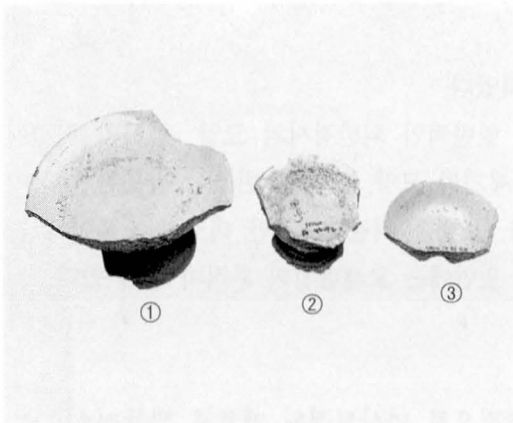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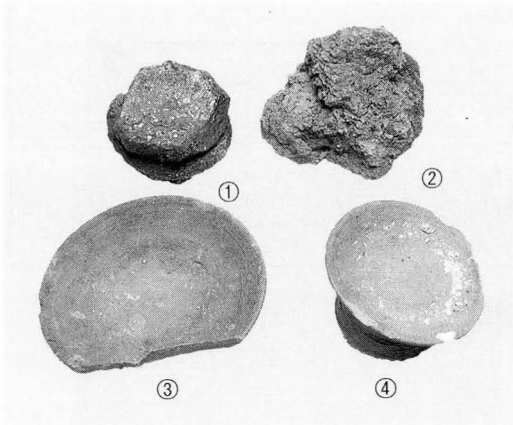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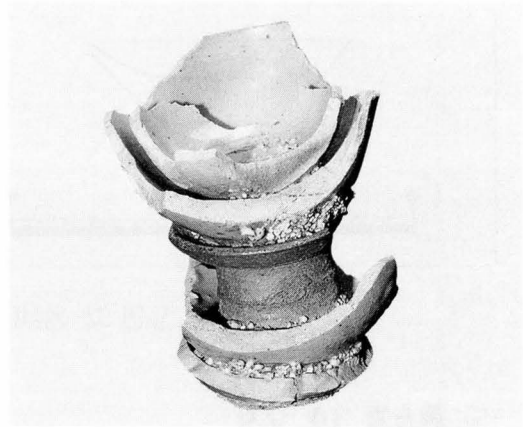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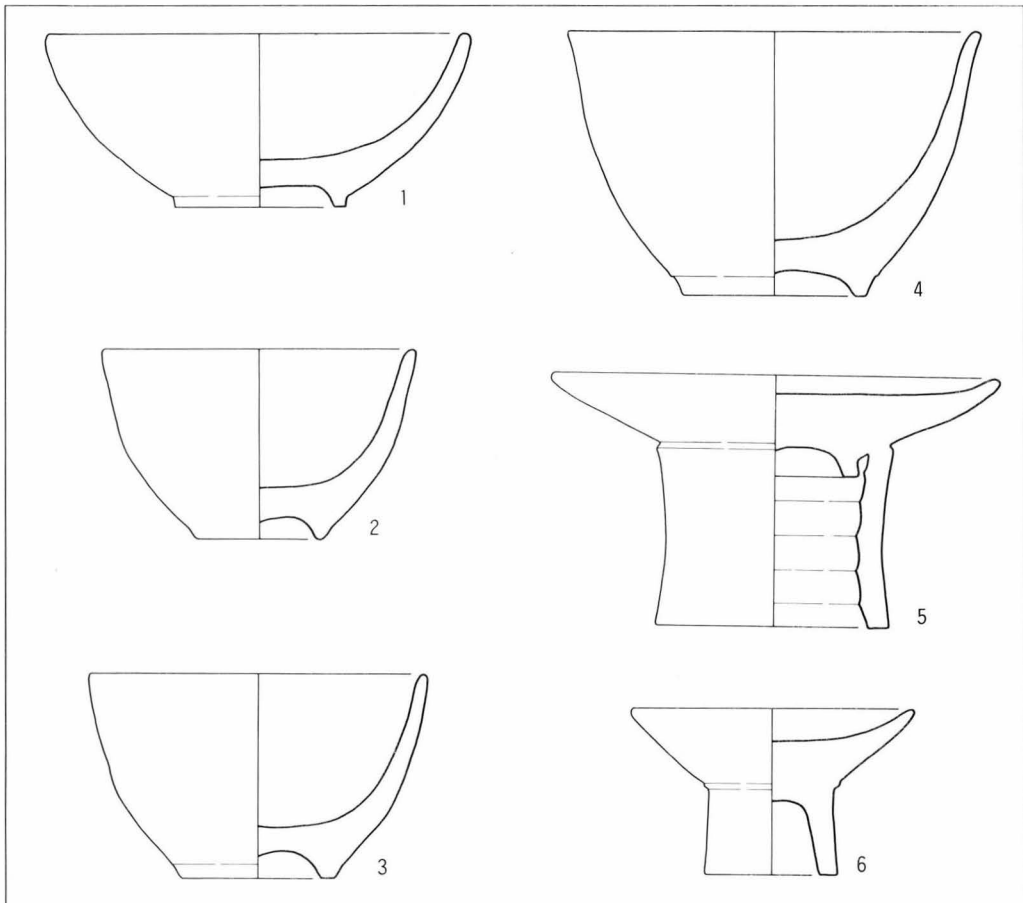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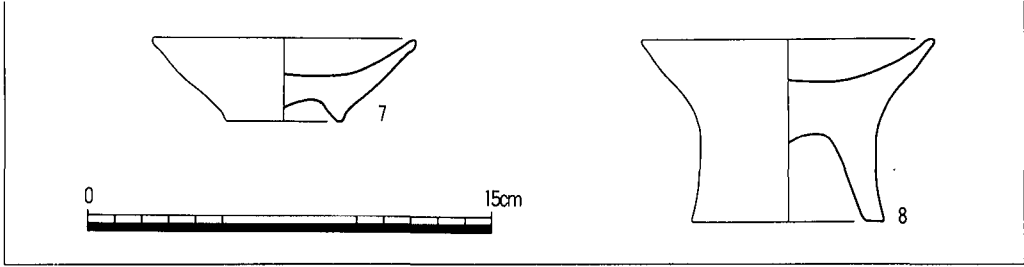
5



6

사진 32. 원삼면 학일리 2호 요지





도면 32. 원삼면 학일리 2호 요지

### 5) 學日里 3호 요지

- (1) 성 격 : 朝鮮 15世紀 粉靑沙器窯址
- (2) 위 치 : 쌍용저수지 남측 끝편에서 서측 임야쪽으로 150 미터 떨어져 있고, 19세기 백자가마에서 남측으로 약 250여 미터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다. 지번은 산 37-1임일대에 해당한다.(사진33-1, 지도1·26)
- (3) 현 상 : 임야중간을 가로지르는 소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2미터 폭의 소로공사로 인하여 유적이 많이 파괴된 상태이다. 유적의 범위는 가로 15, 세로 15 미터 정도로 소로와 임야의 단애면에 퇴적이 노출되어 있으며, 소로 주변에 파편이 흩어져 있다.(사진33-2)
- (4) 유 물 : 粉靑沙器와 靑磁, 窯道具가 수습되었다.

가. 粉靑 : 대접과 접시가 주류를 이루며, 이외에도 병의 저부가 수습되었다. 유색은 대부분 암록색이며, 바닥에는 태토비짐 혹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 大 楨 : 소량의 파편이 수습되었으며, 구연과 몸체, 굽의 형태가 완전하게 갖추어진 예가 없었다.

①(사진33-3-②·5-②, 도면33-2) : 구연의 형태는 알 수 없으며, 몸체의 기벽이 사선에 가까운 완만한 곡면을 이루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넓고 오목하다. 안쪽면에는 몇 줄의 횡선을 백상감하여 문양대를 구획한 후, 그 속에 繩簾文과 국화를 印花하였으며, 바깥면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다. 태토는 적갈색이며 잡물이 섞이지 않은 양질이다. 굽은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고르지 못하다. 굽안바닥을 편평하게 깎아낸 후, 바닥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는 암록색의 유약을 씌웠으나, 발색이 고르지 못하여 전체적으로 담갈색을 보인다.

②(사진33-3-①, 도면33-1) : 구연이 살짝 외반하고 몸체의 기벽이 사선을

그리며 저부에서 폭이 점차 좁아지는 형태로, 굽부분은 파손되었다. 안쪽면의 기벽에는 여러 줄의 횡선을 음각하고 그 위에 귀알로 백토를 입혀 마치 상감장식을 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며, 바깥면은 장식이 없다. 태토는 적갈색으로 잡물이 없다. 광택이 있고 투명한 갈록색의 유약이 씌워졌으며, 용융상태가 고르지 못하다.

- 櫛 匙 : 잘게 부수어진 작은 파편들이 다수 수습되었으며, 형태와 특징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뉜다.

①(사진33-4-③, 도면33-4) : 구연과 몸체의 기벽이 사선을 그리다가 저부에서 예리한 각으로 꺾여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편평한 안바닥의 가장자리 역시 예리하게 각이 있다. 안쪽면에는 기벽에 횡선문을 뺨뺨하게 장식하고 안바닥에는 원권과 같이 변형된 승렴문을 백상감하였다. 바깥면에는 기벽에 몇 줄의 횡선문을 돌렸을 뿐 저부에는 장식하지 않았다. 태토는 암회색으로 잡물이 없다. 굽은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좁고, 비교적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에는 시유하지 않았으며, 바닥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투명한 암록색의 유약을 얇게 씌웠으며, 윗면에는 번조시 생긴 잡물이 떨어져 있다.

②(사진33-4-⑤, 도면33-5) : ①번의 접시와 대체적으로 유사하지만, 크기가 보다 작고 몸체의 기벽에서 저부로 이어지는 부분이 부드러운 곡면으로 제작되었다. 안쪽면에는 기벽과 바닥이 모두 횡선문으로 장식되었으며, 바깥면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다. 태토는 적갈색이며 잡물이 없는 양질이다. 굽은 내경하며, 깎음새가 다소 거칠다. 굽안바닥에는 시유하지 않았으며,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 瓶 : 커다란 병의 저부파편 한 점이 수습되었다.

①(사진33-4-①, 도면33-3) : 구연과 몸체는 파손되어 알 수 없으며, 굽언저리에서 완만한 곡면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커다란 병의 저부이다. 표면의 장식은 확인할 수 없으며, 병의 내부에는 물레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 태토는 적갈색과 회흑색이 동시에 나타나며, 미세한 모래알갱이가 섞여 있기도 하다. 굽은 직경이 넓고 직립하며, 둔중하다. 굽안바닥을 얇게 깎아내었으며, 받침흔적은 정확치 않다. 표면에는 유약이 두껍게 씌워져 있지만, 용융상태가 불량하여, 유색은 확인할 수 없다.

나. 靑 磁 : 소수의 청자파편이 수습되었다.



- 大 楨 : 소량의 파편이 수습되었으나, 구연부와 몸체의 형태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예는 발견되지 않았다.

①(사진33-3-③) : 구연이 외반하고 몸체의 기벽이 사선을 그리다가 저부에서 곡면을 이루는 형태로, 굽은 파손되어 알 수 없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회흑색으로 잡물이 섞여 있지 않다. 암갈록색의 유약이 씩뚝져 있으며, 빙렬은 없다. 윗면에는 미세한 잡티가 곳곳에 붙어 있다.

②(사진33-5-①) : 구연은 파손되었으며, 몸체의 기벽도 변조시 심하게 뒤틀려 정확한 모양을 확인할 수 없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적갈색으로 잡물이 없다. 굽은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고르지 못하고, 깎음새가 둔중하다. 안바닥을 편평하게 깎아내었으며, 바닥에 모래를 받쳐 변조하였다. 광택이 있고 투명한 암갈록색의 유약을 얇게 씩뚝였으며, 빙렬은 없다. 윗면에는 잡티가 붙어 있다.

다. 窯道具 : 다수의 개떡이 수습되었다.

- 개 떡 : 다수의 유물이 확인되었으며, 크기와 형태가 조금씩 다르다.

①(사진33-6-①~③·⑤) : 원반형으로 모두 점토로 제작되었으며, 두께와 직경은 다양하다. 윗면은 그릇을 놓을 수 있게 편평하게 다듬었으며, 모래받침의 자국이 남아 있는 예도 있다.

라. 其他

- 가마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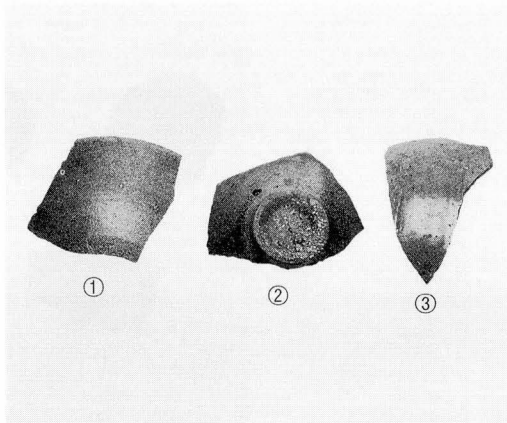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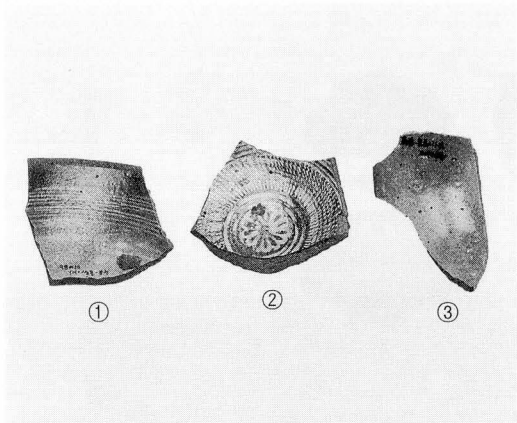
①(사진33-6-④) : 가마의 벽편으로 마사토질의 재료로 만들어졌으며, 흙을 몇 겹으로 덧붙여 사용했던 흔적이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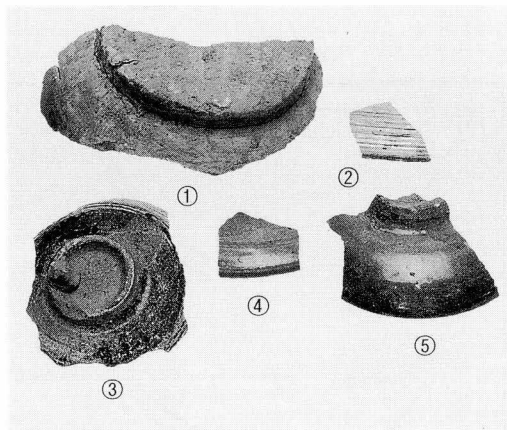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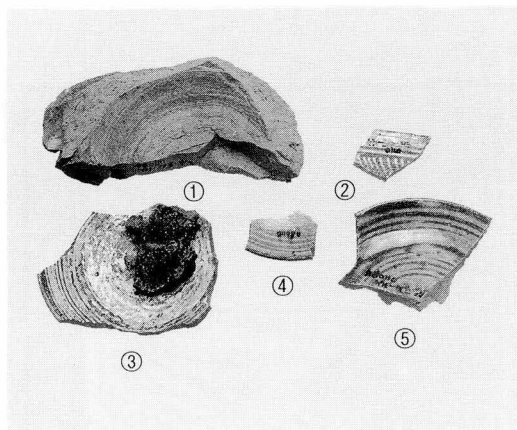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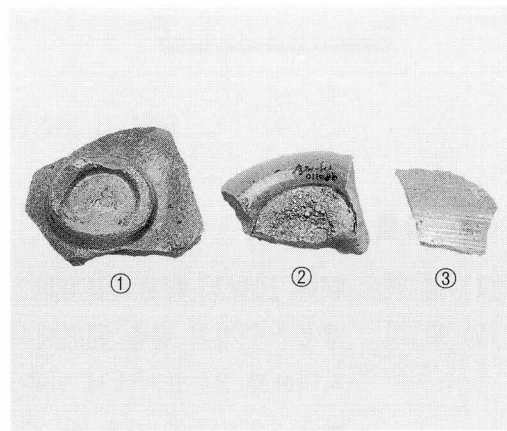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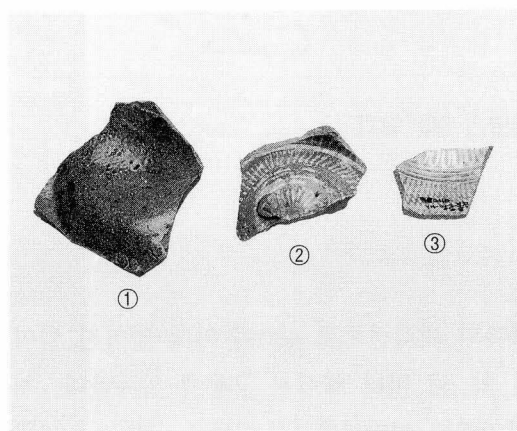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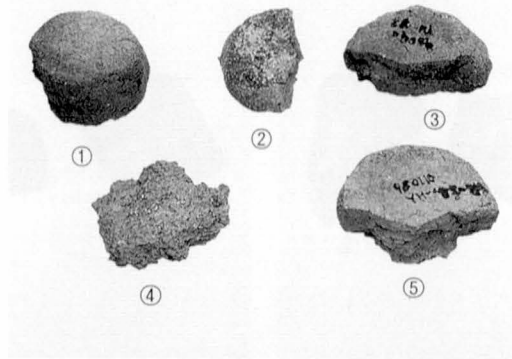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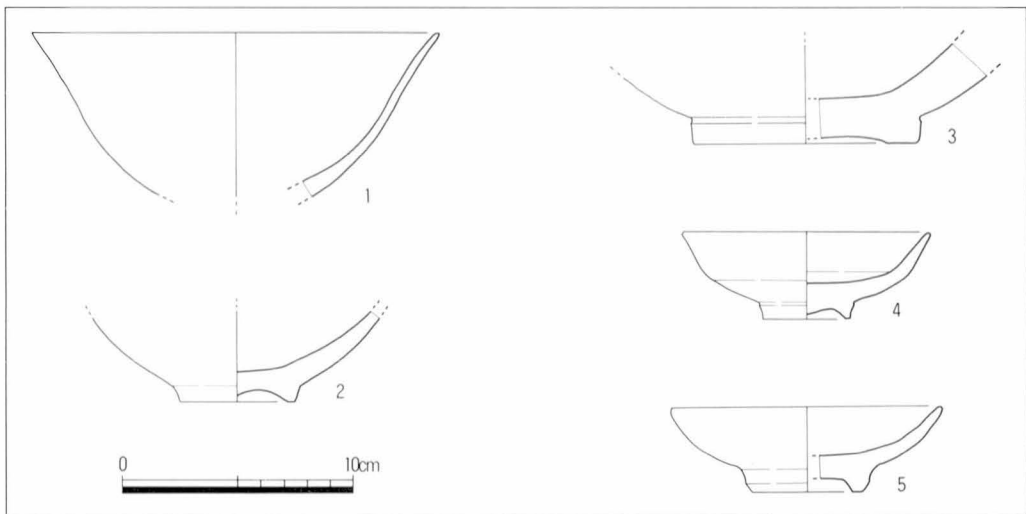


5



6

사진 33. 원삼면 학일리 3호 요지



도면 33. 원삼면 학일리 3호 요지

#### 6) 學日里 4호 요지

(1) 성 격 : 朝鮮 15世紀 粉靑沙器窯址

(2) 위 치 : 쌍용저수지의 남측 끝편에서 좌측의 대각선으로 400여 미터 떨어진 임야 지역으로 3호요지에서 남측으로 약 50 미터 떨어진 구릉에 위치한다. 이번은 3호요지와 같은 산 37-1임일대에 해당한다.(사진34-1, 지도1·26)

(3) 현 상 : 입야지역으로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이며, 유적의 범위는 가로 20, 세로 20 미터 정도로 보인다. 지표에는 소량의 분청사기편만이 노출되고 있을 뿐이나 구릉사면의 양상으로 보아 위쪽의 토사가 내려와 퇴적을 덮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4) 유 물 : 粉靑沙器와 靑磁, 窯道具, 가마벽편이 수습되었는데, 특이하게도 수습품들중에는 포개구이를 한 예가 확인되지 않는다.

가. 粉靑 : 대접과 접시가 주류를 이루며, 이외에도 병의 저부가 수습되었다. 유색은 암록색이나 갈록색이 주류를 이루며, 바닥에는 모래를 받쳐 번조한 것이 많다.

● 大 楨 : 다수의 파편이 확인되었으며, 형태와 특징에 따라 세 종류로 나뉜다.

①(사진34-2-①~④, 도면34-1~3) : 구연이 외반하고 몸체의 기벽이 호를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은 넓은 곡면이다. 안쪽면에는 몇 줄의 횡선문을 상감하여 문양대를 구획한 후, 그 속에 승림문과 연판문, 연꽃, 국화, 集團圓圈文 등을 인화하였으며, 바깥면에는 기벽중앙에 간략화되고 성근 승림문이나 횡선문을 장식하였다. 태토는 대부분 회흑색이며, 잡물이 거의 없는 양질이다. 굽은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고르지 못하고 깎음새가 거칠다. 안바닥을 편평하게 깎아내고, 모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암록색의 유약이 씌워졌으나, 발색이 고르지 못하여 갈록색을 띠는 것도 있으며, 빙렬은 없다.

②(사진34-2-⑤) : 구연이 직립하며 몸체의 기벽이 반구형의 곡면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①번 대접과는 전체의 크기와 구연의 모양에서 차이가 있다. 안쪽면에는 몇 줄의 횡선문을 상감하여 문양대를 구획한 후, 그 속에 승림문을 인화하였으며, 바깥면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다. 태토는 갈회색이며, 잡물이 없는 양질이다. 굽은 파손되어 정확한 형태를 확인할 수 없다. 갈록색의 유약이 씌워졌으나, 용융상태가 고르지 못하다.

③(사진34-3-①, 도면34-4) : ①번의 대접과 유사한 형태이지만, 전체적인 크기가 크고 안바닥이 매우 넓다. 안쪽면에는 몇 줄의 횡선을 음각한 후 귀얄로 분장하였으며, 바깥면에는 아무런 장식을 하지 않았다. 태토는 회흑색이며, 잡물이 거의 없는 양질이다. 굽은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고르지 못하고 깎음새가 거칠어 칼자국이 드러나 보인다. 안바닥을 편평하

게 깎아내었으며, 굽에는 시유하지 않고 번조하였으나, 받침흔적은 남아 있지 않다. 암록색의 유약이 씩워졌으나, 발색이 고르지 못하여 일부 갈록색을 보이기도 한다.

- 櫛 匙 : 형태와 특징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뉘지만, 문양장식은 매우 다양하다.
  - ①(사진34-4, 도면34-6~8) : 구연과 몸체의 기벽이 사선을 그리다가 저부에서 부드럽게 각이 져 꺾여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매우 넓고 편평하다. 안쪽면에는 기벽과 바닥에 몇 줄의 횡선문을 상감하여 문양대를 구획하고, 그 속에 승렵문과 국화문을 인화하였으며, 바깥면에는 기벽에 몇 줄의 횡선문을 돌리거나 장식하였다. 태토는 회흑색이거나 적갈색이며, 대부분 잡물이 없는 양질이다. 굽은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고르지 못하고 깎음새가 거칠다. 안바닥을 편평하게 깎아내었으며, 굽과 굽 주변에는 시유하지 않고 번조하였으며, 받침흔적은 분명하지 않다. 유약은 대부분 광택이 있는 암록색이지만, 갈록색이나 연록을 보이는 것도 있다.
  - ②(사진34-5-①, 도면34-9) : 구연과 몸체의 기벽이 사선을 그리다가 저부에서 각이 져 꺾여 굽에 이어지는 형태이다. 안쪽면에는 바닥중앙에 와선문을 음각한 후, 그 위에 귀얄분장을 하였으며, 바깥면에는 장식이 없다. 태토는 회흑색으로 잡물이 없는 양질이다. 굽은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고르지 못하고 깎음새가 거칠다. 안바닥을 편평하게 깎아내었으며, 굽에는 시유하지 않고 번조하였으며, 받침흔적은 분명하지 않다. 유약은 광택이 적은 갈록색이다.
- 瓶 : 한 점이 수습되었다.
  - ①(사진34-5-③, 도면34-11) : 구연과 몸체가 파손되어 전체적인 형태는 알 수 없으나, 몸체의 저부에서 곡면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이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안쪽면에는 물레자국이 남아 있다. 태토는 적갈색으로 잡물이 없다. 굽은 직립하며 접지면의 폭이 고르지 못하고 깎음새가 거칠다. 바닥을 편평하게 깎아내었으며,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고 투명한 암록색의 유약을 씩웠으나, 바깥면은 용융상태가 불량하다.
- 나. 靑 磁 : 확인된 파편의 양은 많지 않으며, 대접과 접시가 수습되었다. 유색은 암록색이며,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거나 흔적이 분명하지 못하다.
  - 大 椽 : 소수의 파편이 확인되었으며, 모두 동일한 형태이다.

①(사진34-3-②~③, 도면34-5) : 구연이 외반하고 몸체의 기벽이 부드러운 곡면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매우 넓다. 표면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회흑색으로 잡물이 없는 양질이다. 굽은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고르지 못하고 깎음새가 거칠다. 안바닥을 편평하게 깎아내었으며, 바닥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는 암록색의 유약이 씌워졌으나, 용융상태가 불량하여 유색을 확인할 수 없는 것도 있다.

- 櫛 匙 : 동일한 형태의 잔파편이 소량 수습되었다.

①(사진34-5-②, 도면34-10) : 구연과 몸체의 기벽이 사선을 그리다가 저부에서 각이 져 꺾여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분청사기 ②번 접시와 유사하다. 표면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회흑색으로 잡물이 없는 양질이다. 굽은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고르지 못하고 깎음새가 둔중하다. 굽은 시유하지 않고 번조하였으나, 받침흔적은 분명하지 않다. 광택이 있는 암록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빙렬은 없다.

다. 窯道具 : 다수의 개떡이 수습되었다.

- 陶 枕 : 아령모양의 도침이 수습되었다.

①(사진34-6-②·④) : 몸체중앙에 비하여 위쪽과 아래쪽이 넓게 만들어진 아령모양으로, 마사토질의 재료로 제작되었다. 윗면에는 그릇을 받쳤던 모래받침의 흔적이 남아 있다.

- 개 떡 : 몇 점의 유물이 확인되었으며, 크기와 형태가 조금씩 다르다.

①(사진34-6-③) : 원반형으로 마사토질 혹은 점토질의 내화재료로 제작되었으며, 두께와 직경은 다양하다. 윗면은 그릇을 놓을 수 있게 편평하게 다듬었으며, 모래받침의 자국이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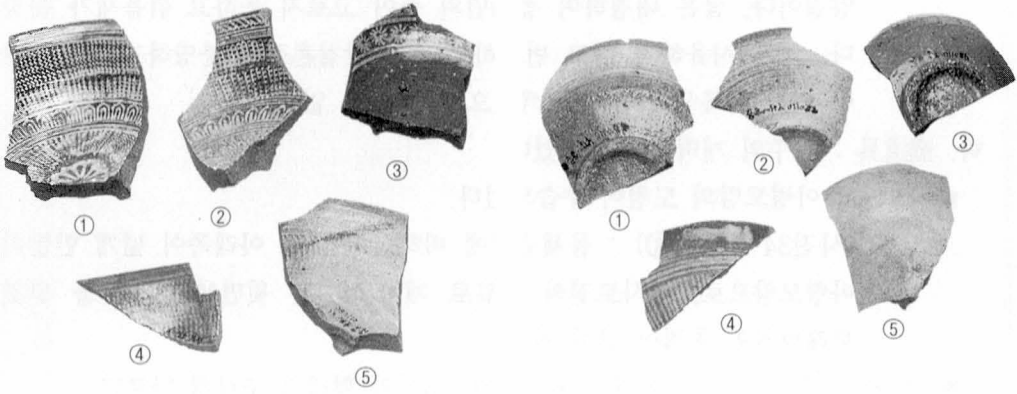
라. 其他

- 가마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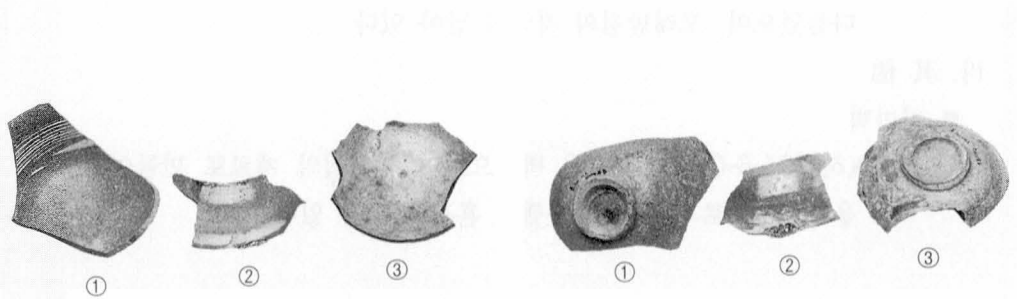
①(사진34-6-①) : 가마의 벽편으로 마사토질의 재료로 만들어졌으며, 흙을 몇 겹으로 덧붙여 사용했던 흔적이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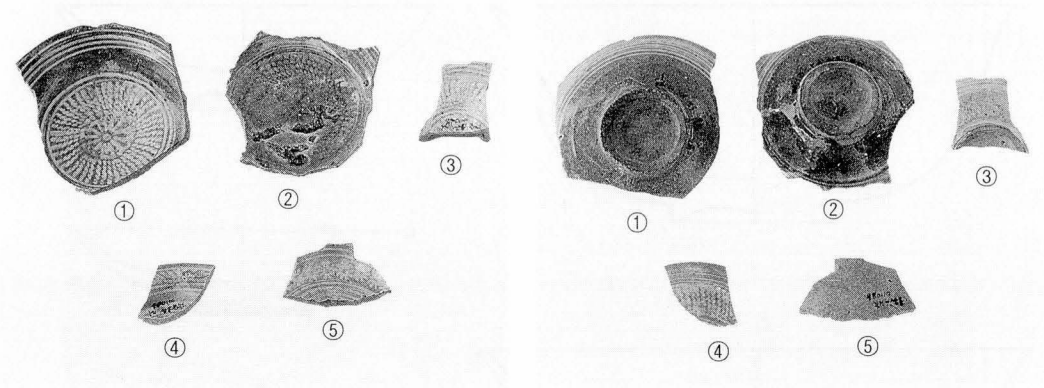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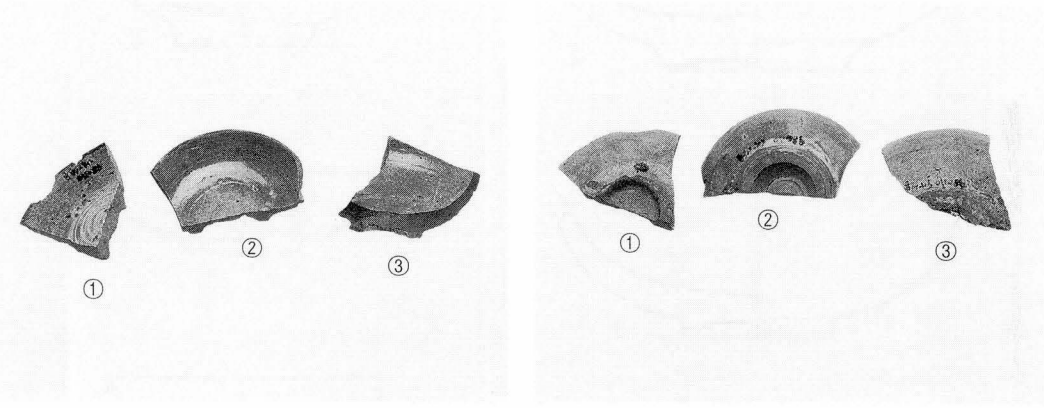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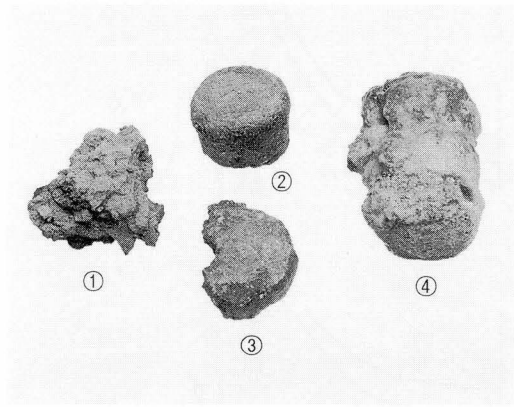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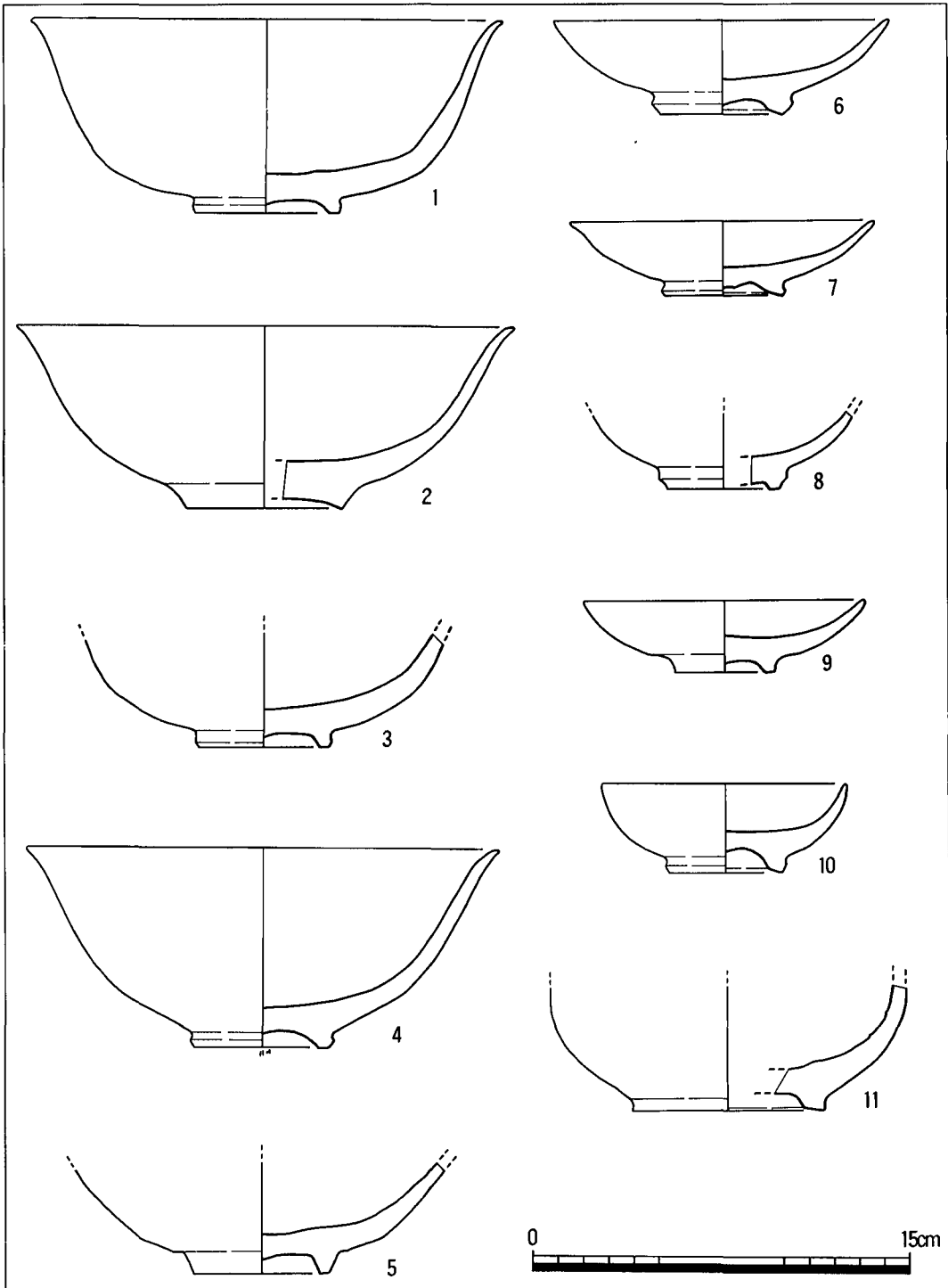
5



6

사진 34. 원삼면 학일리 4호 요지





도면 34. 원삼면 학일리 4호 요지

## 8. 白岩面

### 1) 湧泉里 1호 요지

(1) 성 격 : 朝鮮 19世紀 後半 甕器窯址

(2) 위 치 : 용천리 상리마을 뒤편으로 내려오는 구릉과 동쪽편에 접한 밭 사이에 비탈면에 위치하며 도로변에서 오리농장쪽으로 약 300여 미터 떨어진 지점이다. 지번은 산 53임일대에 해당한다.(사진35-1, 지도1·27)

(3) 현 상 : 원래는 낮은 구릉을 이루는 산자락에 위치하였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는 구릉의 일부가 밭으로 개간되면서 유적의 일부가 훼손되어 구릉의 끝자락에만 퇴적이 쌓여 있는 상태이다. 유적의 범위는 가로 15, 세로 10미터 정도로 작은 편이며, 가마벽편의 양에 비하여 파편의 수가 매우 적다.(사진35-2)

(4) 유 물 : 甕器와 가마벽이 수습되었다.

가. 甕 器 : 확인된 유물은 모두가 壺였으며, 유색은 대부분 밤갈색이다.

● 壺 : 다수의 파편이 확인되었으며, 구연부의 형태에 따라 세 종류로 나뉜다.

①(사진35-3-①, 도면35-1) : 구연부에는 몸체에서 직각으로 꺾여 내만하는 폭이 넓은 전이 있으며, 몸체의 기벽은 사선을 그리며 점차 넓어지지만, 몸체중앙과 저부의 형태는 알 수 없다. 구연부의 전은 중심이 오목하게 제작되어 있어 뚜껑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암적색으로 작은 모래알갱이가 소량 섞여 있다. 표면에는 밤색의 유약이 얇게 씌워져 있다.

②(사진35-3-②, 도면35-2) : 구연은 내만하고 몸체의 기벽은 사선을 그리며 점차 넓어지지만, 몸체중앙과 저부의 형태는 알 수 없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지만, 몸체상부에 한 줄의 돌대가 있으며, 태토는 적색으로 작은 모래알갱이가 소량 섞여 있다. 표면에는 밤색의 유약이 얇게 씌워져 있지만, 용융상태가 고르지 못하다.

③(사진35-3-③, 도면35-3) : 구연과 저부는 알 수 없지만, 목이 길고 어깨에서 크게 벌어지는 형태로, ①번과 ②번의 호와는 확연히 다르다. 표면에 장식은 없으며, 태토는 암적색으로 작은 모래알갱이가 섞여 있다. 표면에는 짙은 밤색의 유약이 얇게 씌워져 있다.

● 其 他 : 호의 저부와 손잡이가 있는 파편이 수습되었다.

①(사진35-3-④·4-①~②, 도면35-4) : 수습된 호의 저부는 몸체가 사선

형으로 점차 폭이 좁아지며 바닥으로 이어지는 형태로, 장식은 없으나 내면에 제작시 생긴 타날의 흔적이 남아 있다. 태토에는 작은 모래알갱이가 섞여 있으며, 표면에는 밤색의 유약을 씌웠다. 호의 손잡이는 몸체에 수직하게 반원형으로 만들어 붙였으며, 크기가 작다.

나. 其他

● 가마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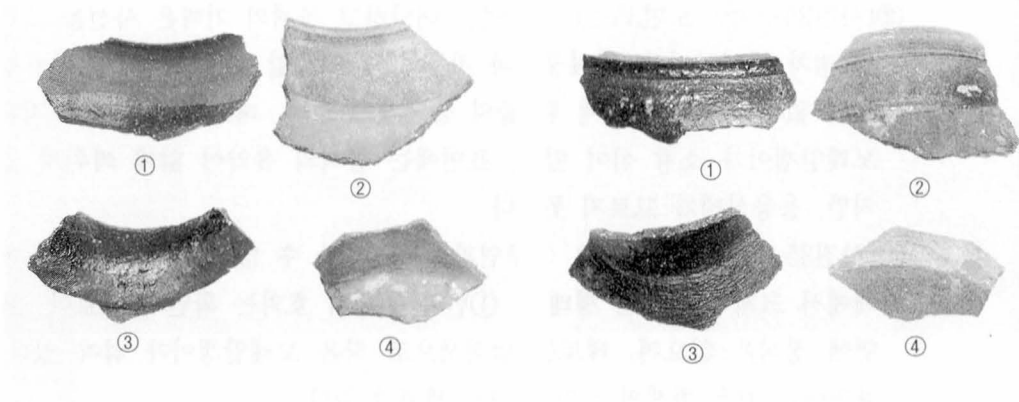
①(사진35-4-③) : 가마의 벽편으로 마사토질의 내화재료로 만들어졌으며, 가마의 안쪽에 해당하는 면은 붉은 색을 띠지만 외면으로 갈수록 회청색으로 색이 변화되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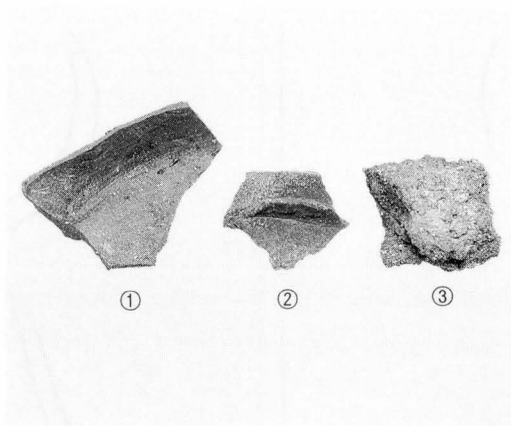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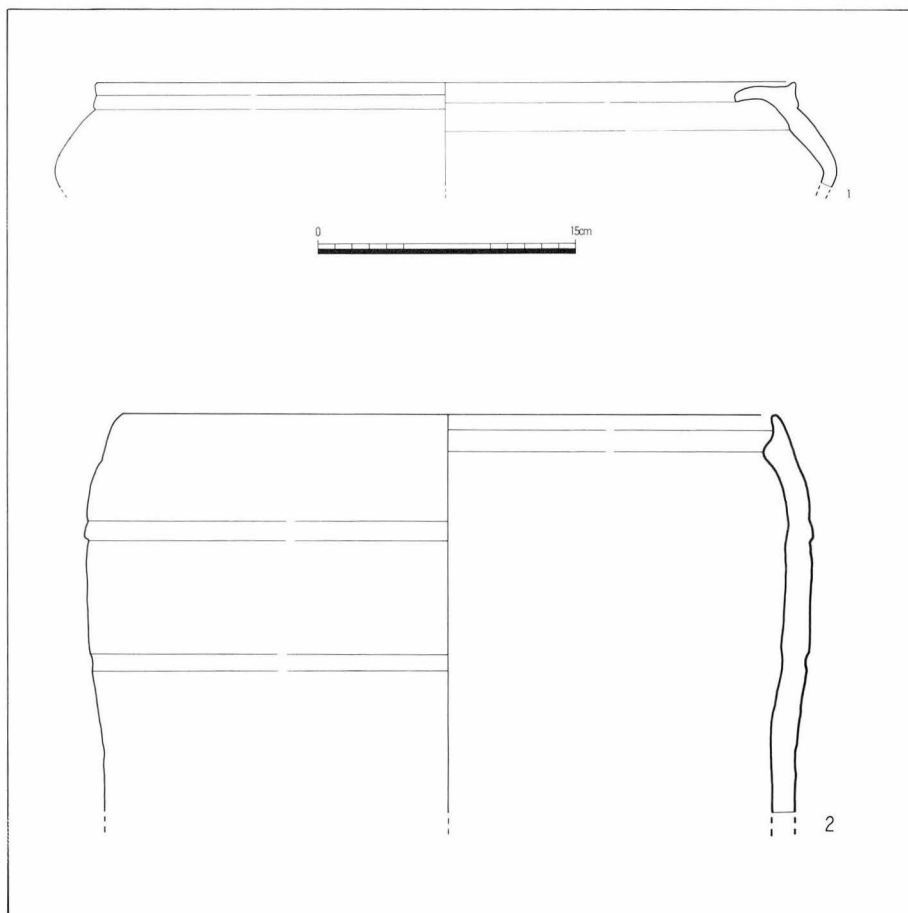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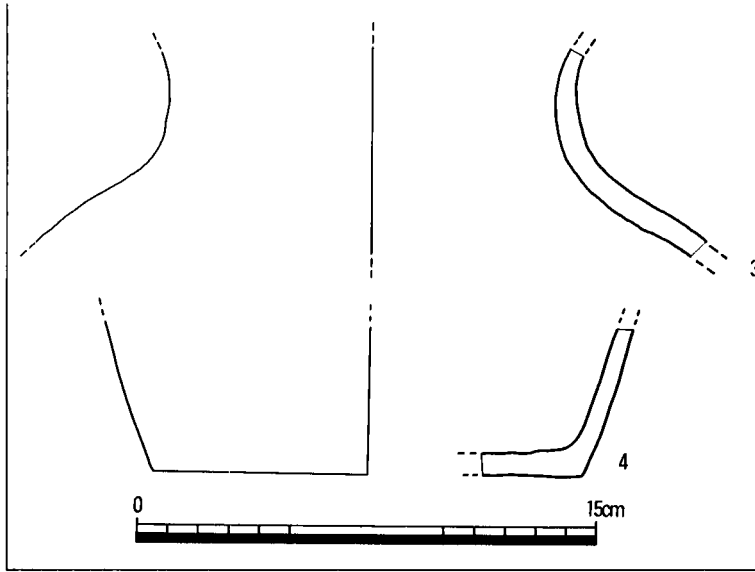
3



4

사진 35. 백암면 용천리 1호 요지





도면 35. 백암면 용천리 1호 요지

## 2) 湧泉里 2호 요지

(1) 성격 : 朝鮮 19世紀 白磁窯址

(2) 위치 : 용천리 죽말마을 북쪽에 있는 구릉에 존재하는데 용기요지에서 오솔길을 따라 서북측으로 약 400여 미터 지난 임야의 중간에 위치한다. 지번은 산 51임일대에 해당한다.(사진36-1, 지도1·27)

(3) 현 상 : 주변이 모두 울창한 숲으로 덮여 있으며, 주변에 높이 6~7 미터 가량의 커다란 감나무가 몇 그루 있다. 현재 이곳에는 3개의 대규모 파편퇴적이 형성되어 있으며, 주변에서 다수의 기와파편도 수습되었다. 유적의 범위는 약 가로 50미터, 세로 50여 미터로 대규모이며,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사진36-2)

(4) 유 물 : 대량의 白磁와 窯道具가 확인되었으나, 그릇의 종류가 적다.

가. 白磁 : 대접과 종지가 주류를 이루며, 유색은 회백색이 대부분이고, 굽은 안바닥을 외면보다 깊게 깎아내고 바닥에 모래를 받쳐 포개구이하였다.

● 大 楨 : 다수의 파편이 확인되었으며, 형태에 따라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다.

①(사진36-3-①, 도면36-1) : 구연이 외반하고 몸체가 완만한 호를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넓은 곡면을 이룬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의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높이가 낮

고 접지면의 폭이 매우 좁다. 굽언저리보다 굽안바닥을 깊고 편평하게 깎아낸 후, 접지면의 유약을 닦지 않고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는 반투명질의 회백색 유약을 두껍게 씌웠으며, 빙렬은 없다.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②(사진36-4-①, 도면36-4) : 구연의 형태는 알 수 없으며, 대체적으로 ①번 대접과 유사하지만 내면의 폭이 좁고 안바닥이 편평하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높이가 낮고 직립하며, 접지면의 폭이 매우 좁다. 안바닥을 매우 깊게 깎아내었으며, 바닥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고 투명한 회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나, 발색이 고르지 않아 안쪽면은 담갈색을 띤다.

③(사진36-3-②, 도면36-2) : 구연이 직립하며 몸체의 기벽이 수직하다가 저부에서 곡면을 이루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크기가 작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티가 소량 섞여 있는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높이가 낮고 직립하며, 접지면의 폭이 매우 좁다. 안바닥을 굽언저리보다 깊게 깎아 내었으며, 접지면 주변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고 투명한 담청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빙렬이 있다.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④(사진36-3-③, 도면36-3) : 구연이 직립하며 몸체의 기벽이 완만한 호를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구경과 안바닥이 매우 넓은 대접이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양질이다. 굽은 높이가 낮고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좁다. 안바닥을 굽언저리보다 깊게 깎아 내었으며, 접지면 주변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고 투명한 회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나, 용융상태가 고르지 못하다.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 종 지 : 다수의 파편이 확인되었으나, 모두가 동일한 종류이다.

①(사진36-4-②, 도면36-5) : 구연의 형태는 알 수 없으며 몸체가 완만한 호를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은 곡면을 이룬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작은 모래알갱이와 같은 잡물이 소량 섞인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높이가 매우 낮고 내경하며, 몸체와 경계가 분명하지 못하다. 안바닥을 비교적 얇고 오목하게 깎아내었으며, 접지면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고 투명한 담갈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윗면에는 잡티가 붙어 있다.

나. 窯道具 : 다수의 도침이 수습되었다.

● 陶 枕 : 굽이 낮은 접시모양의 도침이 다수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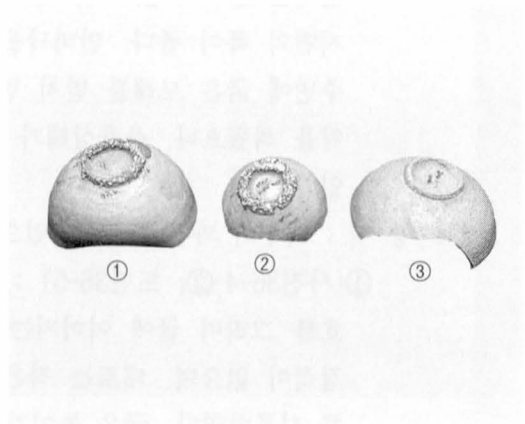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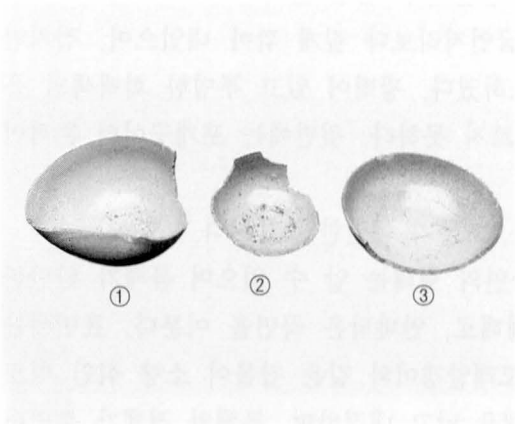
①(사진36-4-③, 도면 36-6) : 몸체의 직경에 비하여 굽과 기벽의 높이가 높으며 안바닥이 편평한 접시모양으로, 표면은 밤갈색이지만 태토는 잡물이 없는 회백색을 띠고 있다. 굽은 접지면의 폭이 고르고 깎음새가 비교적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깊게 깎아내었으며, 바닥과 윗면에 굵은 모래를 받쳤던 흔적이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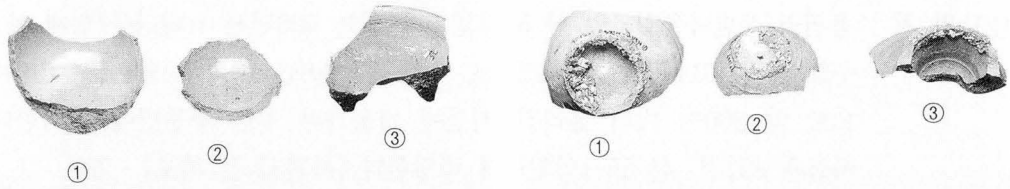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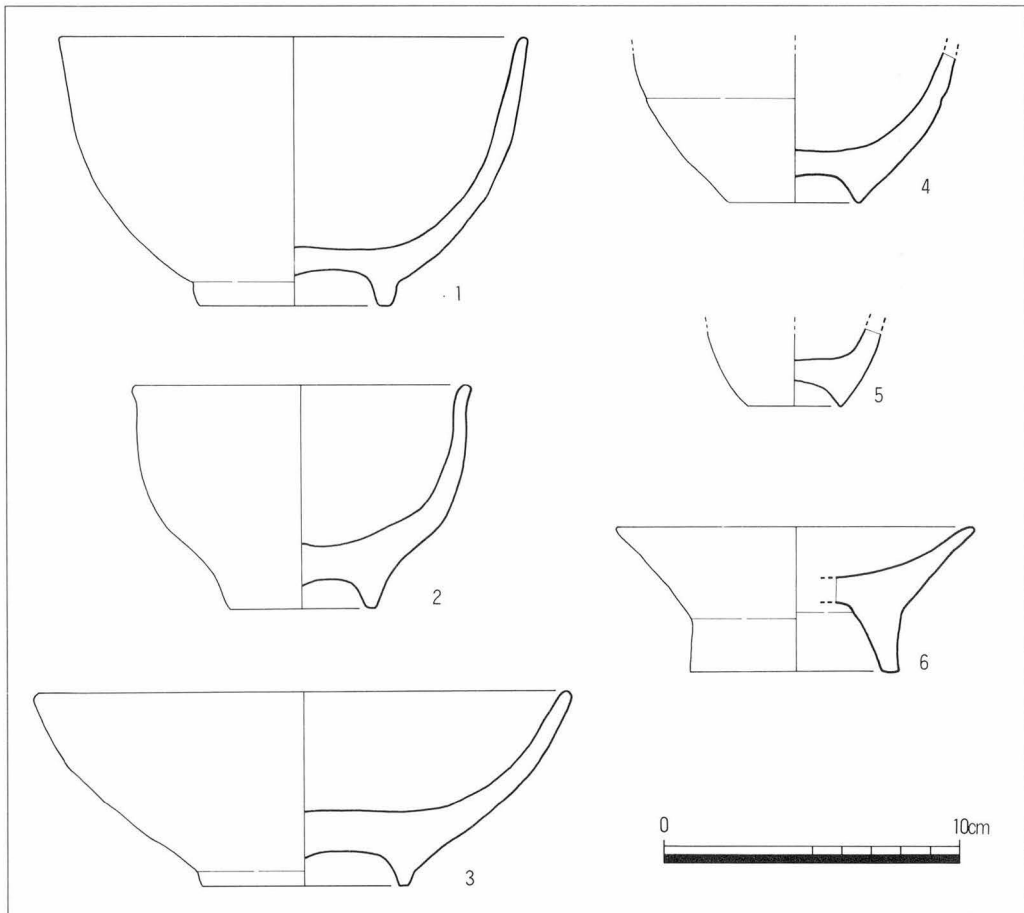


3



4

사진 36. 백암면 용천리 2호 요지



도면 36. 백암면 용천리 2호 요지



### 3) 湧泉里 3호 요지

- (1) 성 격 : 朝鮮 19世紀 白磁窯址
- (2) 위 치 : 용천리 죽말마을입구인 산 55-1번지에 있는 400년된 느티나무(현재 보호수로 지정, 고유번호 : 5-25-14, 지정일 : 88년 10월 15일)에서 임야쪽으로 약 300여 미터 올라간 지점에 개울가와 접한 구릉면에 위치한다. 지번은 691전, 산 55-1임일대에 해당한다.(사진37-1, 지도1·29)
- (3) 현 상 : 낮은 구릉일부와 개울의 가장자리에 걸쳐 있으며, 구릉과 개울의 가장자리에 단애면이 형성된 두 곳에 약 15 미터의 간격을 두고 퇴적층이 노출되어 있다. 주변에는 붉은 색의 소토와 함께 다량의 파편이 개울과 주변에도 흩어져 있다. 유적의 범위는 폭이 25 미터, 상하의 길이가 10여 미터이다.(사진37-2)
- (4) 유 물 : 白磁와 窯道具가 수습되었다.

가. 白磁 : 구연이 직립하는 대접과 접시 등이 주류를 이루며, 이외에도 잔, 굽이 높고 각이 진 祭器의 파편도 수습되었다. 유색은 담청백색 혹은 회백색이 대부분이고, 굽은 안바닥을 외면보다 깊게 깎아내고 바닥에 모래를 받쳐 포개구이하였다.

● 大 椀 : 다수의 파편이 확인되었으며, 형태에 따라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①(사진37-3-①, 도면37-1) : 구연이 직립하며 몸체가 완만한 곡면을 이루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넓고 편평하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의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비교적 높고 직립하며, 접지면의 폭이 고르고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편평하게 깎아내고 바닥에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담회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빙렬이 있다.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②(사진37-3-②, 도면37-2) : 구연이 약간 내만하며, 몸체가 호를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완만한 곡면을 이룬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의 백토이다. 굽은 직립하며, 접지면의 폭이 좁고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깊고 편평하게 깎아낸 후, 바닥에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담청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빙렬은 없다.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 椀 匙 : 형태에 따라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①(사진37-4-①, 도면37-7) : 구연이 직립하고 몸체의 기벽이 사선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이곳에서 수습된 접시중 가장 커다란 종류이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의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직경이 넓고 높이가 비교적 높으며,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안 바닥을 깊고 편평하게 깎아낸 후, 바닥에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는 회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나 용융상태가 고르지 못하다.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②(사진37-4-②·5-②, 도면37-5·8) : 구연은 살짝 외반하고 몸체의 기벽이 사선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몸체의 높이가 매우 낮고 굽이 높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높이가 매우 높고 굽바닥쪽으로 갈수록 나팔모양으로 약간 벌어지는 형태이다. 굽은 접지면의 폭이 고르고, 깎음새가 단정하다. 안바닥을 깊고 편평하게 깎아낸 후, 바닥에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는 회백색 혹은 갈회색의 유약을 두껍게 씌웠으며, 빙렬이 있기도 하다.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③(사진37-4-③, 도면37-9) : ①번의 접시와 유사한 형태이지만, 구연이 사선형으로 곧게 뻗어 있고 크기가 작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의 백토이다. 굽은 직경이 넓고 직립하며, 접지면의 폭이 좁다. 안바닥을 깊고 편평하게 깎아낸 후, 바닥에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는 회청백색의 유약을 두껍게 씌웠으며, 빙렬은 없다.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 종 지 : 동일한 형태의 종지가 다수 확인되었다.

①(사진37-5-①, 도면37-4) : 구연이 직립하며 몸체의 기벽이 타원형의 곡면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은 넓은 곡면으로 되어 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의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높이가 낮고 접지면의 폭이 좁아, 몸체와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 안바닥을 얇고 오목하게 깎아내고, 바닥에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회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빙렬이 있다.

● 祭 器 : 소수 수습되었으며, 형태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뉜다.

①(사진37-3-③, 도면37-3) : 구연은 도톰하고 외반하며, 몸체가 수직하다가 저부에서 부드럽게 각이 져 꺾여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은 곡

면인 蠶모양의 제기이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의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높이가 매우 높으며 표면을 육각으로 모꿈이하였다. 접지면의 폭이 고르고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깊게 깎아낸 후, 바닥에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는 담청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빙렬이 있다.

②(사진37-5-③, 도면37-6) : 구연의 형태는 알 수 없으며, 몸체의 기벽이 수평에 가까운 사선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넓고 편평한 접시모양의 제기이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직경이 넓고 높이가 매우 높으며, 표면을 팔각으로 모꿈이하였다. 접지면의 폭이 고르고, 깎음새가 매우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깊게 깎은 후, 굽안쪽에는 시유하지 않고 바닥에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는 회백색의 유약을 두껍게 시유하였으며, 빙렬이 있다.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나. 窯道具 : 다수의 도침이 수습되었다.

● 陶 枕 : 다양한 형태의 도침이 다수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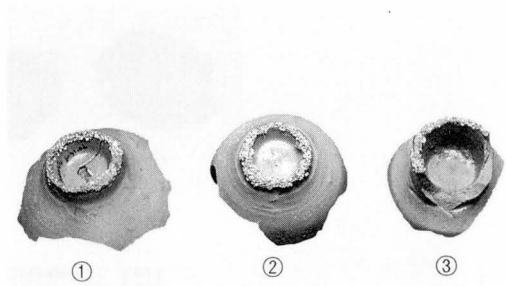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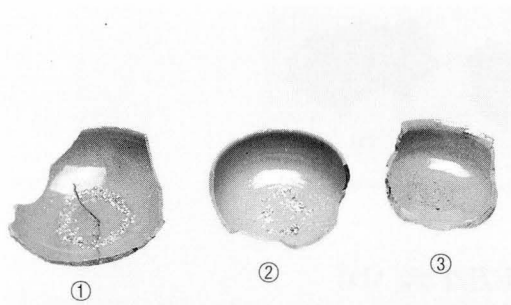
①(사진37-6) : 특별한 형태로 따로 제작하여 사용한 예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크기가 작은 접시의 초벌편이나, 번조시 잘못된 대접의 저부를 도침으로 사용하였다. 도침의 윗면에는 그릇의 받침으로 사용한 굽은 모래가 잔뜩 깔려 있으며, 그 사이로 그릇을 놓았던 흔적이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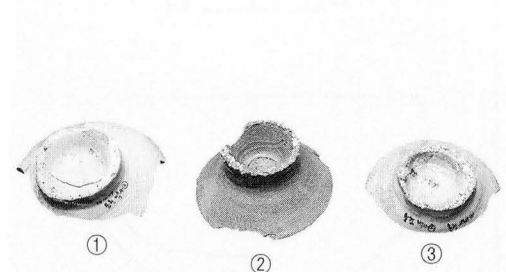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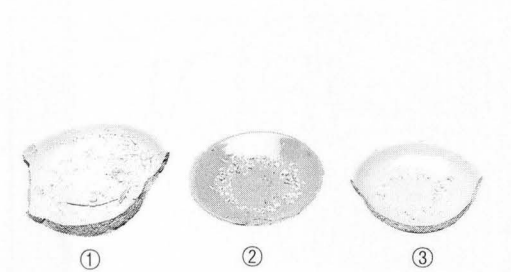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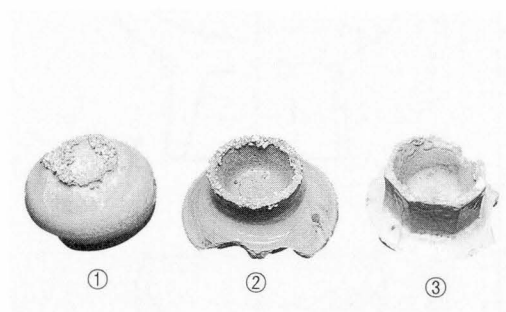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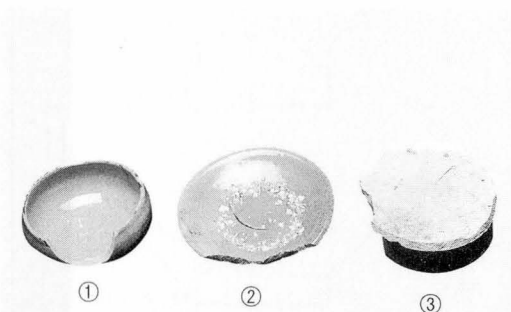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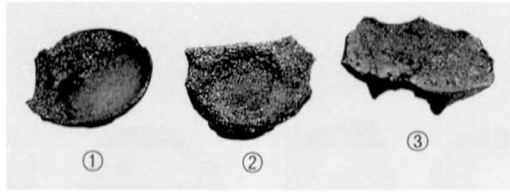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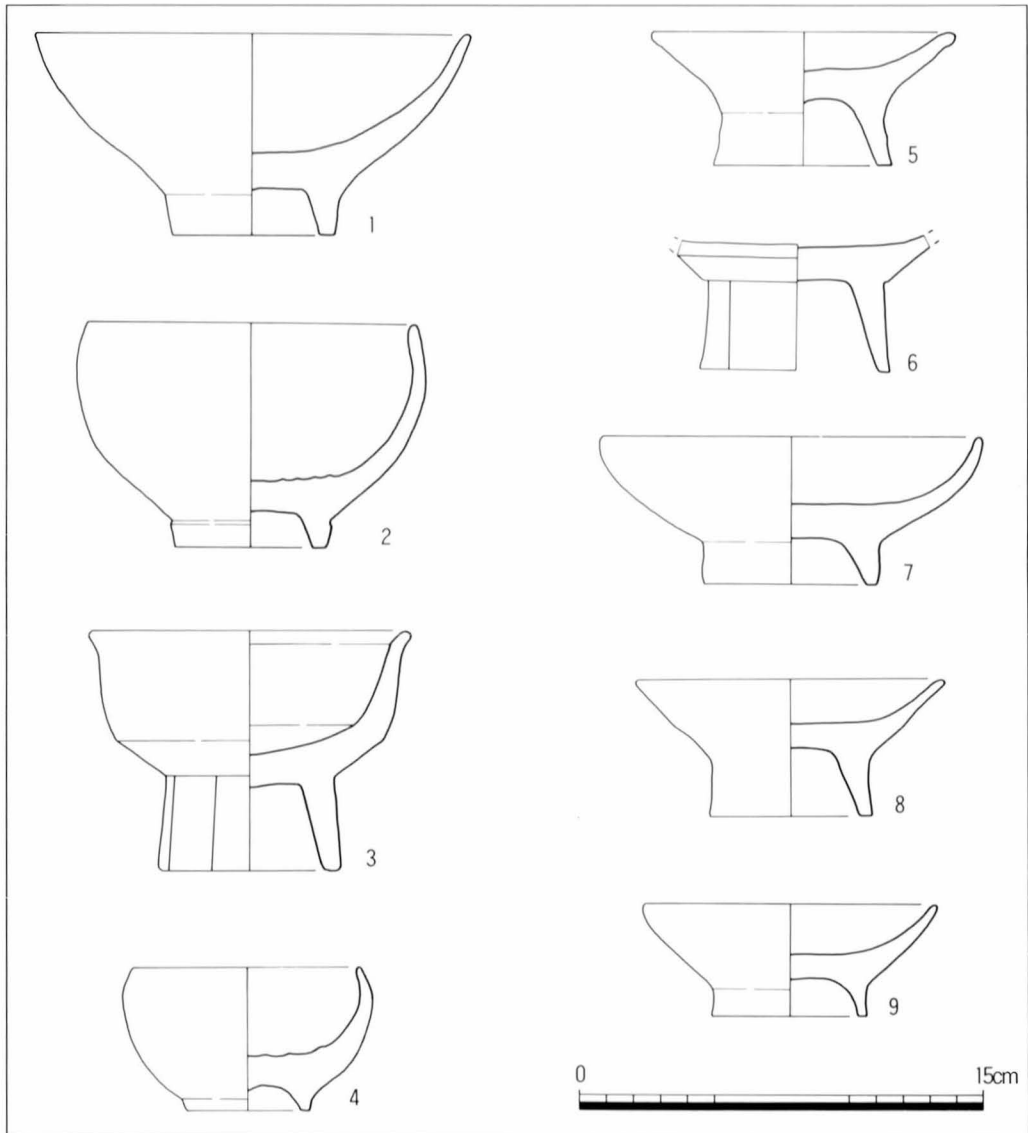


5



6

사진 37. 백암면 용천리 3호 요지



도면 37. 백암면 용천리 3호 요지

#### 4) 石川里 1호 요지

(1) 성 격 : 朝鮮 15世紀 粉靑沙器窯址

(2) 위 치 : 백암 암자의 뒷편 입아쪽으로 약 200 여 미터 떨어진 높은 언덕에 반계 유형원 선생의 묘소가 있다. 유적은 바로 묘소 오른쪽 사면에 위치한다. 지번은 산 28-1입일대에 해당한다.(사진38-1, 지도1·29)

(3) 현 상 : 유적은 반계선생의 묘소의 우측면에 있으며, 그 주변으로 4~5기의 묘지가 조성되면서 퇴적의 일부가 파손되었다. 주변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 파편은 반계선생의 묘소를 오르는 곳부터, 묘소의 우측에 있는 퇴적까지 매우 넓게 분포하지만, 가마유적과 퇴적의 일부가 묘소 우측면에 일부 노출되어 있다. 유적의 범위는 약 가로 20 미터, 세로 20여 미터에 달한다.(사진38-2)

(4) 유 물 : 粉靑沙器와 靑磁, 그리고 다양한 窯道具가 수습되었다.

가. 粉靑 : 대접과 접시가 주류를 이루며, 이외에도 병이 수습되었다. 유색은 황갈색이 대부분이며, 바닥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 大 椀 : 수습된 파편의 형태는 모두 유사하지만, 장식기법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①(사진38-3-①~③·⑤, 도면38-1~3·5) : 구연의 형태는 알 수 없고, 몸체의 기벽이 사선을 그리다가 저부에서 부드럽게 꺾여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넓은 곡면을 이루며 크기에 따라 세부의 모양이 조금씩 다르다. 안쪽면에는 국화와 승림문이 인화된 예도 있지만, 기벽에 몇 줄의 음각형선을 그린 후 그 위에 귀얄로 백토를 바른 것이 대부분이며, 바깥면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다. 태토는 인화문이 있는 대접의 경우에는 질이 좋지만, 대부분 미세한 모래알갱이 소량 섞여 있다. 굽은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고르지 못하고, 깎음새가 다소 거칠다. 굽안바닥을 편평하게 깎아내고 바닥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황갈색의 유약이 씌워졌으며, 빙렬은 없다.

- 椀 匙 : 다수의 파편이 수습되었으며, 형태와 장식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①(사진38-4-④·5-①, 도면38-9~10) : 구연이 직립하고 몸체가 사선을 그리다가 저부에서 직각으로 꺾여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매우 넓고 편평한 접시이다. 안쪽면에는 기벽에 몇 줄의 형선문을 백상감하고 바닥에는 집단원권문과 국화문을 뺨뺨이 인화시문하였으며, 바깥쪽에는

기벽에 횡선문을 장식하였다.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을 사용하였다. 굽은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고르지 못하고, 깎음새가 둔중하다. 굽안바닥을 편평하게 깎아내었으며, 굽에는 시유하지 않고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표면에는 광택이 좋고 투명한 황갈색의 유약을 씌웠으나, 바깥면에는 이물질이 묻어 지저분하다.

②(사진38-4-①~③, 도면38-6~8) : ①번의 접시와 전체적인 형태는 유사하지만, 크기가 매우 작다. 안쪽면에는 바닥중앙에 와선문만을 백상감하거나 그 주변에 집단승림문을 뺄뺄이 인화시문하기도 하였으며, 바깥면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다. 태토에는 미세한 잡티가 소량 섞여 있지만 양질이다. 굽은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고르지 못하고 깎음새가 거칠다. 굽안바닥을 편평하게 깎아내었으며, 굽에는 시유하지 않고 바닥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갈록색의 유약이 씌워졌으며, 빙렬은 없다.

③(사진38-5-④~⑤, 도면38-13) : 구연이 외반하고, 몸체의 기벽이 완만한 곡면을 이루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넓고 편평하다. 안쪽면에는 기벽에 몇 줄의 횡선문을 상감하고 바닥중앙에 작은 와선문을 둘러 후 그 주위에 귀알로 백토를 분장하였으며, 바깥면에는 아무런 장식을 하지 않았다. 태토는 미세한 잡물이 소량 섞여 있다. 굽은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고르지 못하고 깎음새가 조잡하다. 굽안바닥을 편평하게 깎아내었으며, 굽에는 시유하지 않고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고 투명한 암갈록색의 유약이 씌워졌으며, 빙렬은 없다.

④(사진38-5-②~③, 도면38-11~12) : 구연이 외반하고 몸체의 기벽이 사선을 그리며 굽으로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편평하고 크기가 작은 접시이다. 안쪽면에는 기벽에 몇 줄의 횡선문을 상감하고 바닥중앙에 국화문과 승림문을 뺄뺄이 인화하였으며, 바깥면에도 기벽에 몇 줄의 상감선문을 장식하였다. 태토에는 미세한 모래알갱이가 소량 섞여 있다. 굽은 높이가 매우 낮고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고르지 못하고 깎음새가 거칠다. 굽안바닥을 편평하게 깎아내었으며, 굽에는 시유하지 않고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고 투명한 암갈록색 혹은 연록색의 유약이 씌워졌으며, 빙렬은 없다.

- 瓶 : 한 점의 파편이 수습되었다.

①(사진38-6, 도면38-14) : 구연이 외반하고 목이 세장하며 몸체중상으로 갈수록 점차 벌어지는 형태로, 저부가 파손되어 굽의 형태는 알 수 없다. 표면에는 목과 어깨에 몇 줄의 음각횡선을 돌린 후 그 주변을 귀얄로 백토를 칠하였다. 태토는 흑갈색으로 미세한 모래알갱이가 섞여 있다. 광택이 있고 투명한 암갈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빙렬은 없다.

나. 靑磁 : 몇 점의 잔파편이 수습되었다.

● 大 椀 : 한 점의 파편이 수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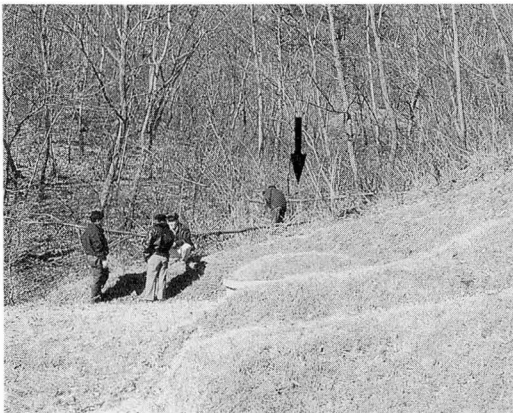
①(사진38-3-④, 도면38-4) : 구연의 형태는 알 수 없고, 몸체의 기벽이 완만한 호를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은 곡면이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회흑색으로 미세한 모래알갱이가 섞여 있다. 굽은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비교적 넓고 두께가 고르지 못하다. 굽안바닥을 편평하게 깎아내었으며, 바닥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고 투명한 암록색의 유약이 씌워졌으며, 빙렬은 없다.

다. 窯道具 : 형태와 재질이 다른 도침이 수습되었다.

● 陶 枕 : 아령모양의 도침이 수습되었다.

①(사진38-7-①·③) : 몸체 중앙에 비하여 위쪽과 아래쪽이 넓게 만들어진 아령모양으로, 마사토질의 내화재로로 제작되었다. 윗면에는 그릇을 받쳤던 모래받침의 흔적이 남아 있다.

②(사진38-7-②·④) : 장방형 등 다양한 모양으로, 돌을 편평하게 다듬은 것이다. 돌의 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그릇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윗면을 다듬었으며, 모래받침의 흔적이거나 그릇의 파편이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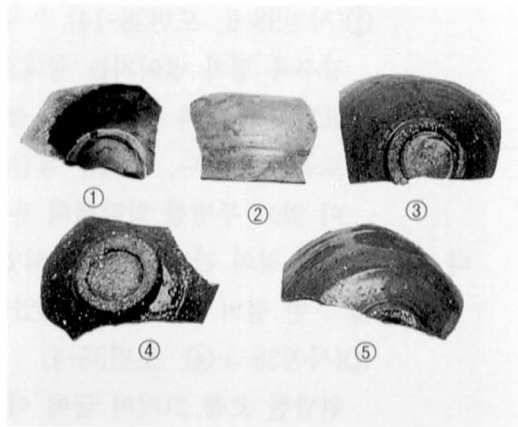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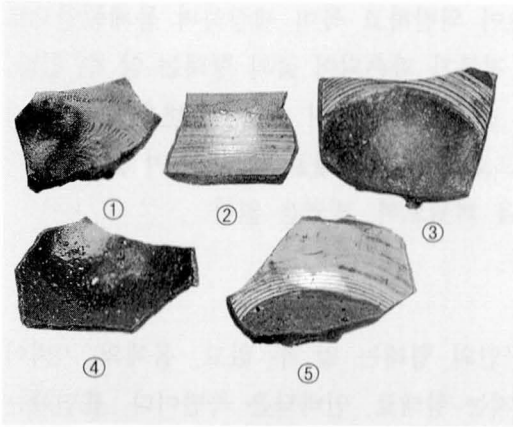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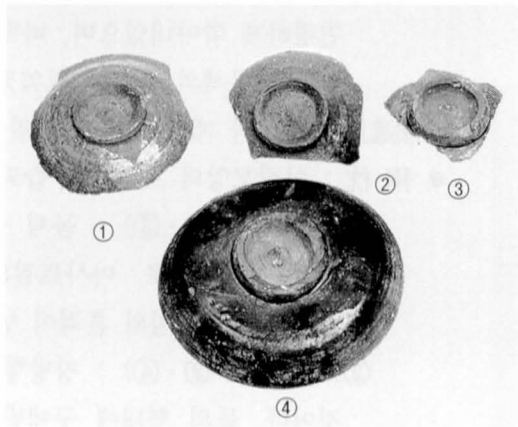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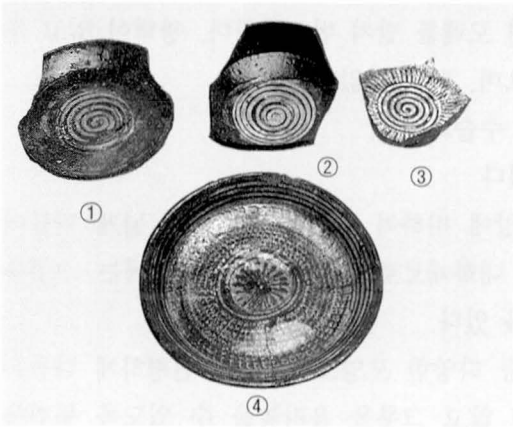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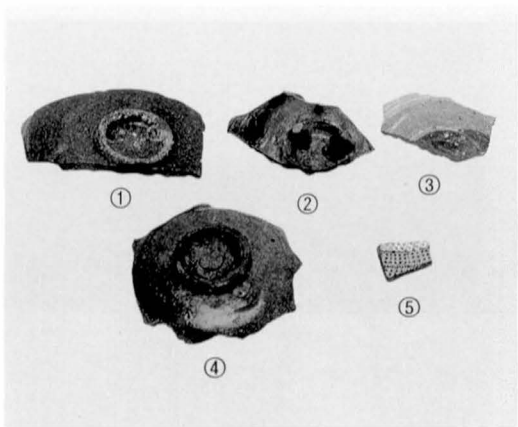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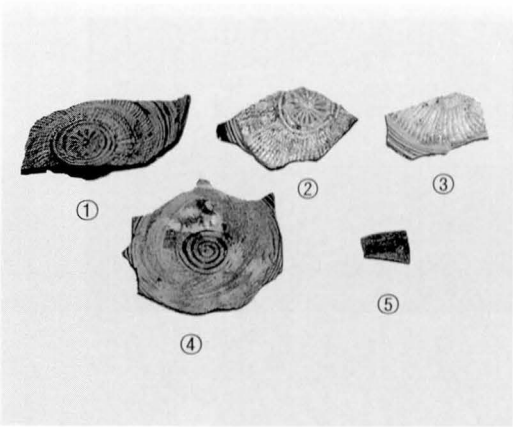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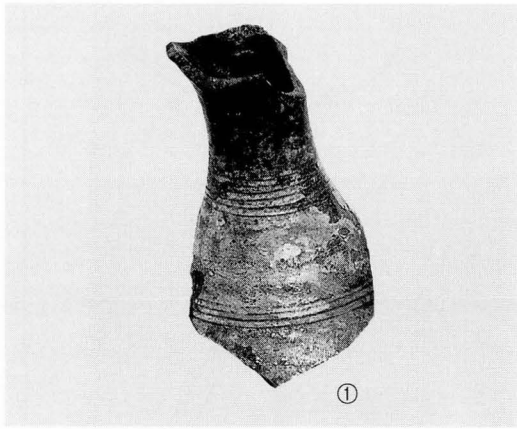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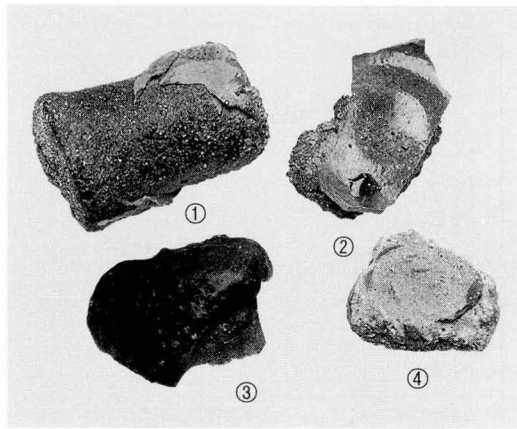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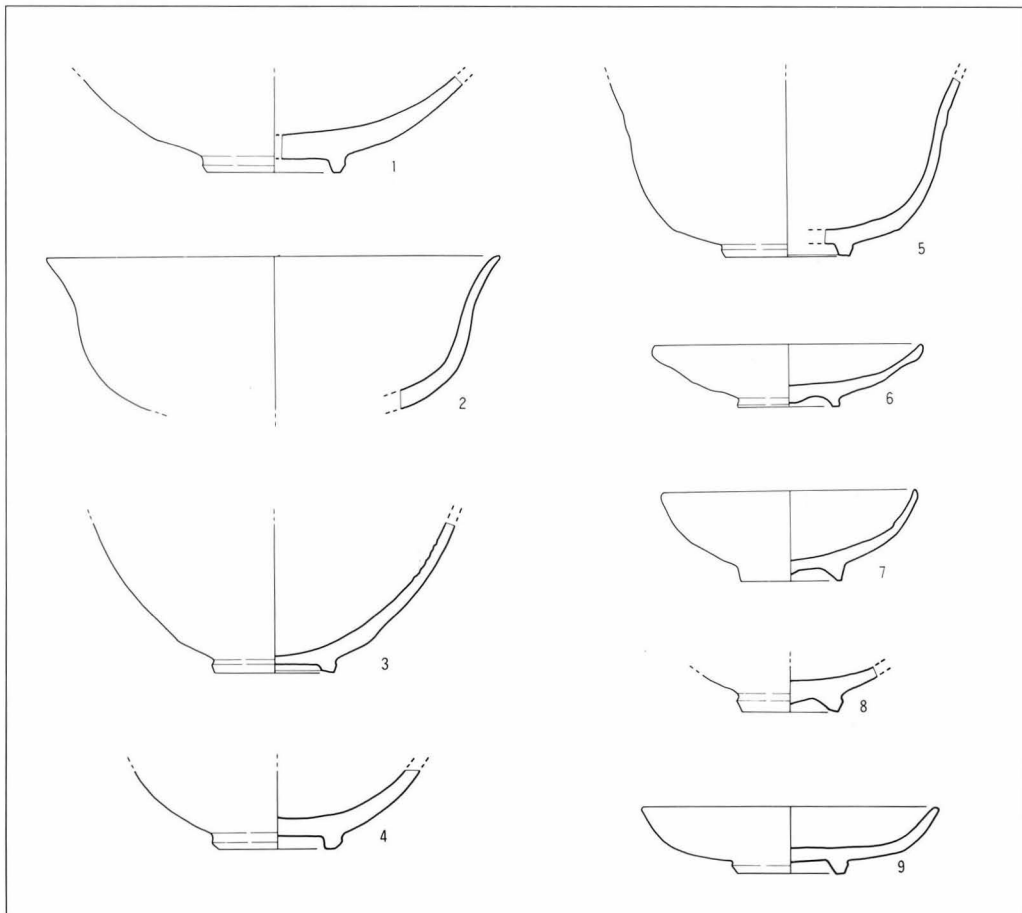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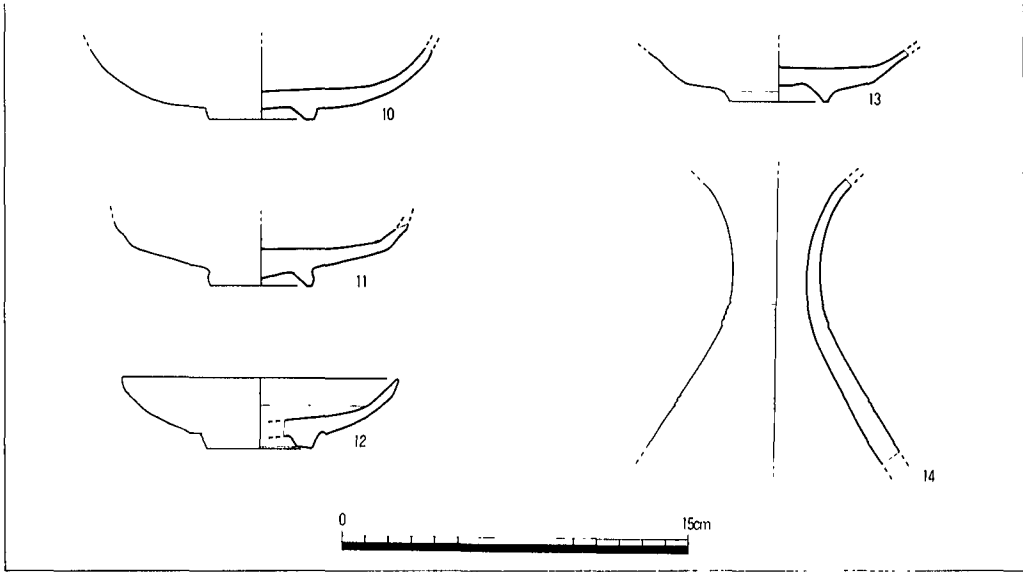
6



7

사진 38. 백암면 석천리 1호 요지





도면 38. 백암면 석천리 1호 묘지

### 5) 高安里 1호 묘지

- (1) 성격 : 朝鮮 15世紀 粉靑沙器窯址
- (2) 위치 : 지내 부락 남쪽에 있는 고안리 계곡의 안쪽 끝자락에 묘지가 커다랗게 조성되어 있는데, 이 묘지와 묘지 사이에 있는 나즈막한 구릉에 위치한다. 지번은 534답, 537답, 산 52임일대에 해당한다.(사진39-1, 지도1·29)
- (3) 현상 : 유적이 위치하는 구릉의 좌측편에 묘지가 조성되어 퇴적의 일부는 훼손된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묘지쪽에 걸쳐있는 유적의 표면은 다년생 풀이 자라고 있고, 구릉쪽에는 성근 나무가 있는데 이곳은 문화재자료 65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분청사기편들은 성근 나무쪽에 주로 노출되어 있다. 유적은 가로 30 미터, 세로 40여 미터에 이르는 대규모이다.(사진39-2)
- (4) 유물 : 粉靑沙器와 靑磁, 그리고 窯道具가 수습되었다.
  - 가. 粉靑 : 대접과 접시가 주류를 이루며, 표면에 상감, 인화, 귀얄기밥으로 장식된 다양한 파편이 수습되었다.
  - 大槩 : 다수의 파편이 수습되었으며, 형태와 크기, 장식에 따라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 ①(사진39-3-①·③) : 구연이 살짝 외반하고 몸체의 기벽이 완만한 弧를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전체적으로 크기가 작고 안쪽면이 곡면이다. 안쪽면에는 몇 줄의 횡선문으로 문양대를 구획하고 그 속에 승령문을 뺄뺄하게 인화하였으며, 바깥면에는 기벽에 승령문을 인화하거나 여러 줄의 횡선문만을 장식하기도 하였다.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이며, 회흑색이다. 굽은 모두 파손되어 확인할 수 없다. 표면에는 갈록색의 유약을 시유하였으며, 빙렬은 없다.
- ②(사진39-4-①, 도면39-3) : 구연이 외반하고 몸체의 기벽이 수직하다가 저부에서 부드러운 곡면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넓고 편평한 커다란 대접이다. 안쪽면에는 기벽중앙에 여러 줄의 횡선문을 음각한 후, 그 위에 귀알로 백토를 칠해 장식하였으며, 바깥면에는 기벽중앙에 넓게 귀알분장을 하였다.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이며, 회색이나 적갈색을 보인다. 굽은 직립하며, 접지면의 폭이 고르고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주변을 깨끗하게 다듬고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표면에는 갈록색의 유를 시유하였으나, 용융상태가 좋지 못하다.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 ③(사진39-3-②·④~⑤, 도면39-2) : 구연이 직립하고 몸체가 완만한 호를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이다. 안쪽면에는 기벽과 바닥에 여러 줄의 횡선문을 상감하여 문양대를 구획한 후, 그 사이에 승령문과 국화문을 뺄뺄이 인화하였으며, 바깥면에는 기벽일부에 승령문의 인화장식을 하였다.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이며, 연회색을 보인다. 굽은 직립하며, 접지면을 예리하게 깎아내었다. 굽과 굽언저리는 시유하지 않고 번조하였으며, 받침흔적은 분명하지 않다. 표면에는 암갈록색의 유약을 비교적 두껍게 씌웠으며, 빙렬은 없다.
- 櫛 匙 :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지만, 형태와 크기, 장식이 매우 다양하다.
 

①(사진39-5-①~⑤·6-①~⑤, 도면39-10~14) : 구연이 직립하며 몸체의 기벽이 매우 완만한 곡면을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크기와 장식문양이 매우 다양하다. 안쪽면에는 모두 몇 줄의 횡선문을 백상감하여 문양대를 구획한 후, 그 속에 당초문과 승령문, 집단원권문, 국화문 등을 조합하여 다양한 형식으로 인화하였으며, 바깥쪽에는 장식을 하지 않거나 혹은 승령문을 인화하거나 기벽일부에 귀알분장을 하였다. 태토는 미세한 잡물이 섞인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양질이다. 굽은 대부분 직립하

며 접지면의 폭이 고르고, 깎음새가 단정하다. 모두 굽안바닥과 굽언저리는 시유하지 않았으며 바닥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표면에는 대부분 갈록색의 유약이 씌워졌으며, 빙렬은 없다. 접시의 윗면에 마상배를 포개어 구웠던 흔적이 남아 있기도 하다.

②(사진39-7-②~⑤, 도면39-6~9) : 구연이 직립하며 몸체의 저부에서 부드러운 직각으로 꺾여 굽에 이어지는 형태이다. 이 형태의 접시는 안바닥 가장자리에 원각이 있어 바닥과 몸체의 기벽이 거의 직각을 이루는 것과 원각이 없어 곡면을 이루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원각이 없는 접시의 경우에는 大中小의 크기로 나눌 수 있다. 안쪽면에는 바닥중앙에 모두 와선문을 백상감하였으며, 바깥면에는 장식이 없거나 기벽일부에 귀알로 백토분장을 하였다. 태토는 미세한 잡티가 섞여 있는 예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양질이다. 굽은 직립하며, 접지면을 예리하게 깎아낸 것도 있지만, 깎음새가 거친 경우도 있다. 모두 굽과 굽언저리에는 시유하지 않고, 바닥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표면에는 갈록색조의 유약이 씌워졌으며, 발색은 일정하지 않다.

● 瓶 : 작은 병의 파편 두 점이 수습되었다.

①(사진39-4-④~⑤) : 구연과 저부의 형태는 알 수 없으며, 목이 잘록하고 어깨에서 둥글게 벌어지는 형태이다. 표면에는 몇 줄의 황선을 백상감하여 문양대를 구획하기도 하였으며, 그 속에 승렴문을 뺄뺄하게 인화하였다.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을 사용하였다. 표면에는 황갈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빙렬은 없다.

● 其他 : 기종을 알 수 없는 파편 두 점이 수습되었다.

①(사진39-4-③·7-①, 도면39-5) : 한 점은 합과 뚜껑을 포개어 구운 것으로도 생각되지만, 정확한 종류는 알 수 없다. 안쪽에는 귀알분장이 성글게 되어 있으며, 태토는 양질을 사용하였다. 표면에는 암록색의 유약이 씌워져 있다. 다른 한 점은鉢이나 壺의 저부로도 생각되지만, 확실한 종류는 알 수 없다. 아무런 장식이 없으며, 잡물이 없는 질이 좋은 태토를 사용하였고, 시유하지 않았다.

나. 靑磁 : 아무런 장식이 없으며, 암록색의 유약이 씌워진 파편이 소량 수습되었다.

● 大樑 : 파편의 대부분이 대접이며, 모두가 유사한 형태이다.

①(사진39-4-②, 도면39-4) : 구연이 외반하고 몸체의 기벽이 완만한 弧를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넓고 편평한 커다란 대접이다. 표면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으며, 태토에는 작은 모래알갱이가 섞여 있다. 굽은 높이가 비교적 낮고 접지면의 폭이 넓으며, 깎음새가 거칠고 조잡하다. 굽안바닥을 편평하게 깎아내고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고 투명한 암록색의 유약을 씌웠지만, 시유상태가 고르지 못해 기벽일부에 露胎된 곳도 있다.

다. 窯道具 : 다수의 도침이 수습되었다.

● 陶 枕 : 아령형의 도침이 다수 확인되었다.

①(사진39-10) : 윗부분과 아래부분이 크고 몸체의 중앙이 잘록한 아령모양의 도침으로, 마사토질의 재료로 제작되었다. 몸체의 윗면은 그릇을 놓기 좋게 하기 위하여 편평하게 다듬었으며, 현재에도 그릇을 놓았던 자국과 모래받침의 흔적이 남아 있다. 아랫면은 가마의 경사도만큼 기울여 그릇이 수평이 되게 만들었다. 몸체중앙에는 대접의 일부가 붙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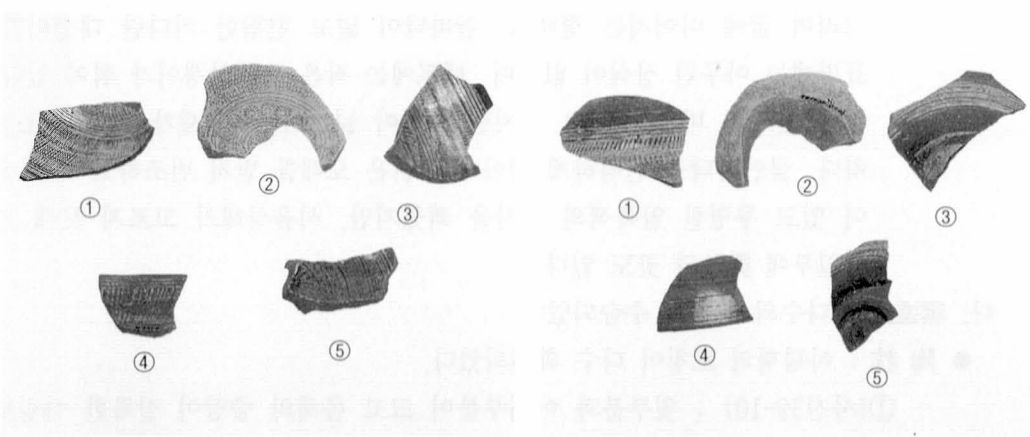
②(사진39-11) : 장방형 등 다양한 모양으로, 돌을 편평하게 다듬은 것이다. 돌의 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그릇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윗면을 다듬었으며, 모래받침의 흔적이나 그릇의 파편이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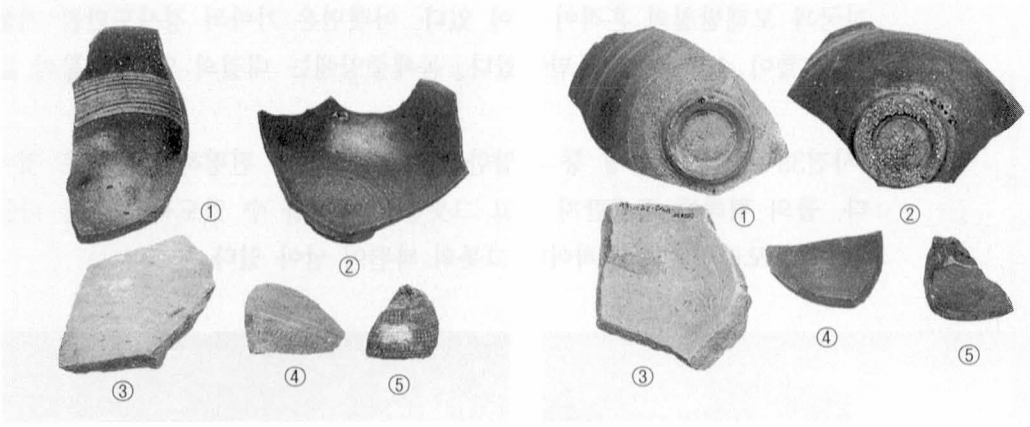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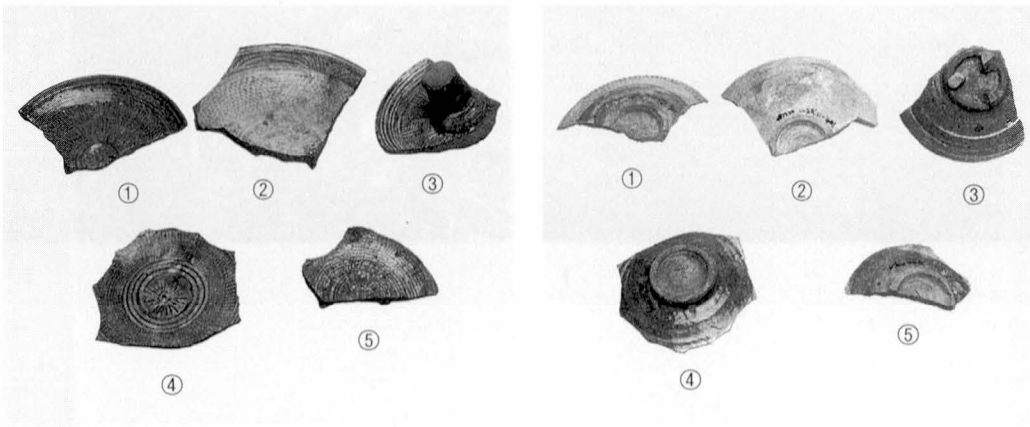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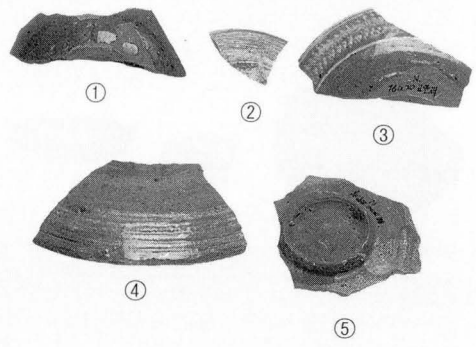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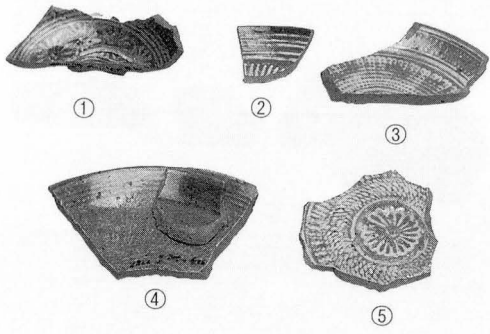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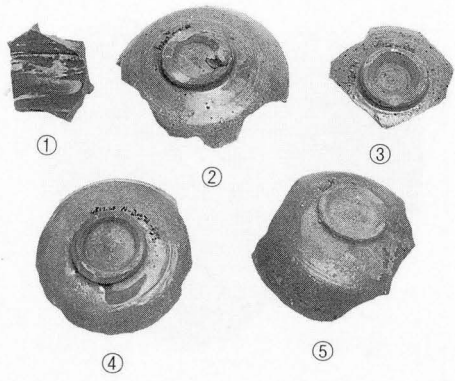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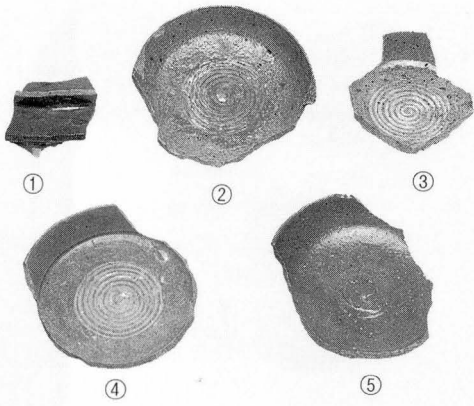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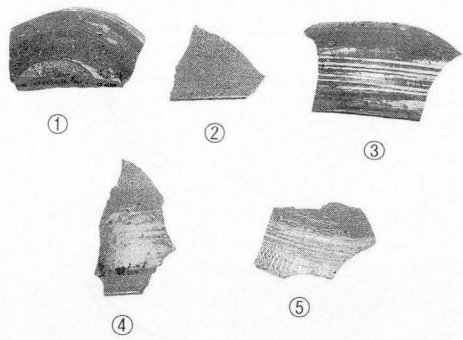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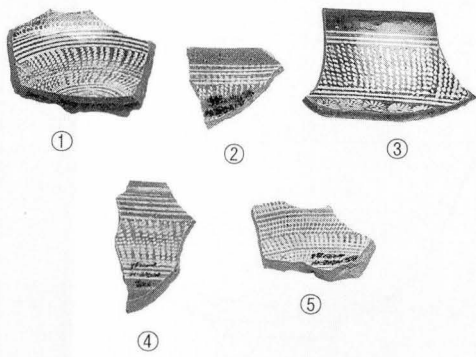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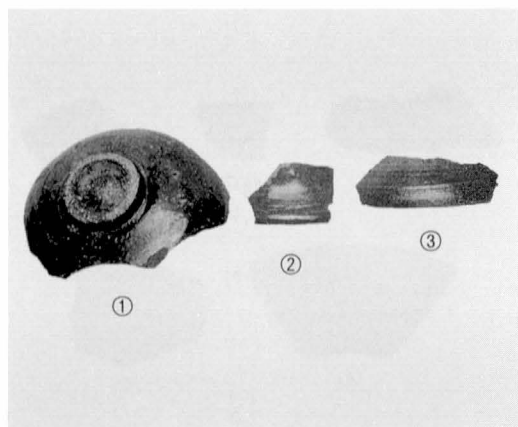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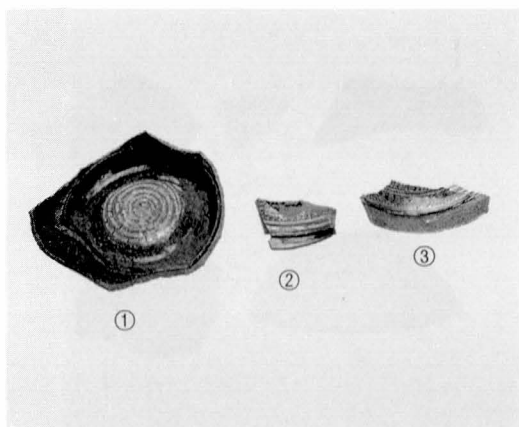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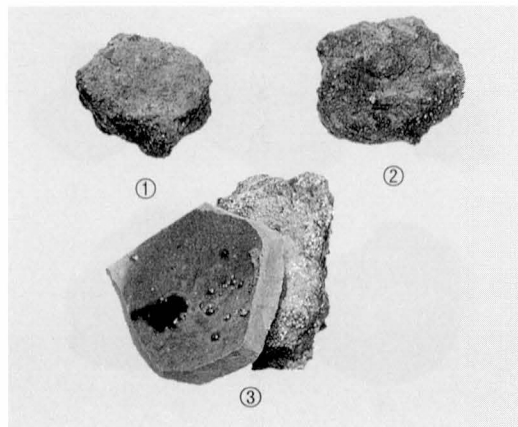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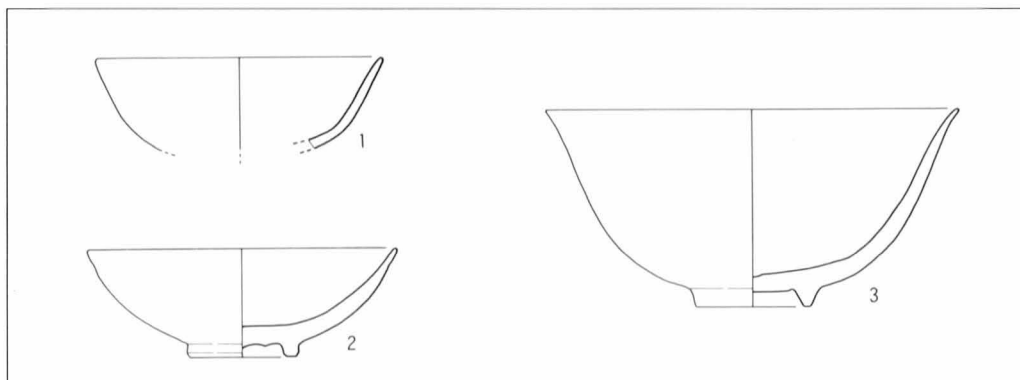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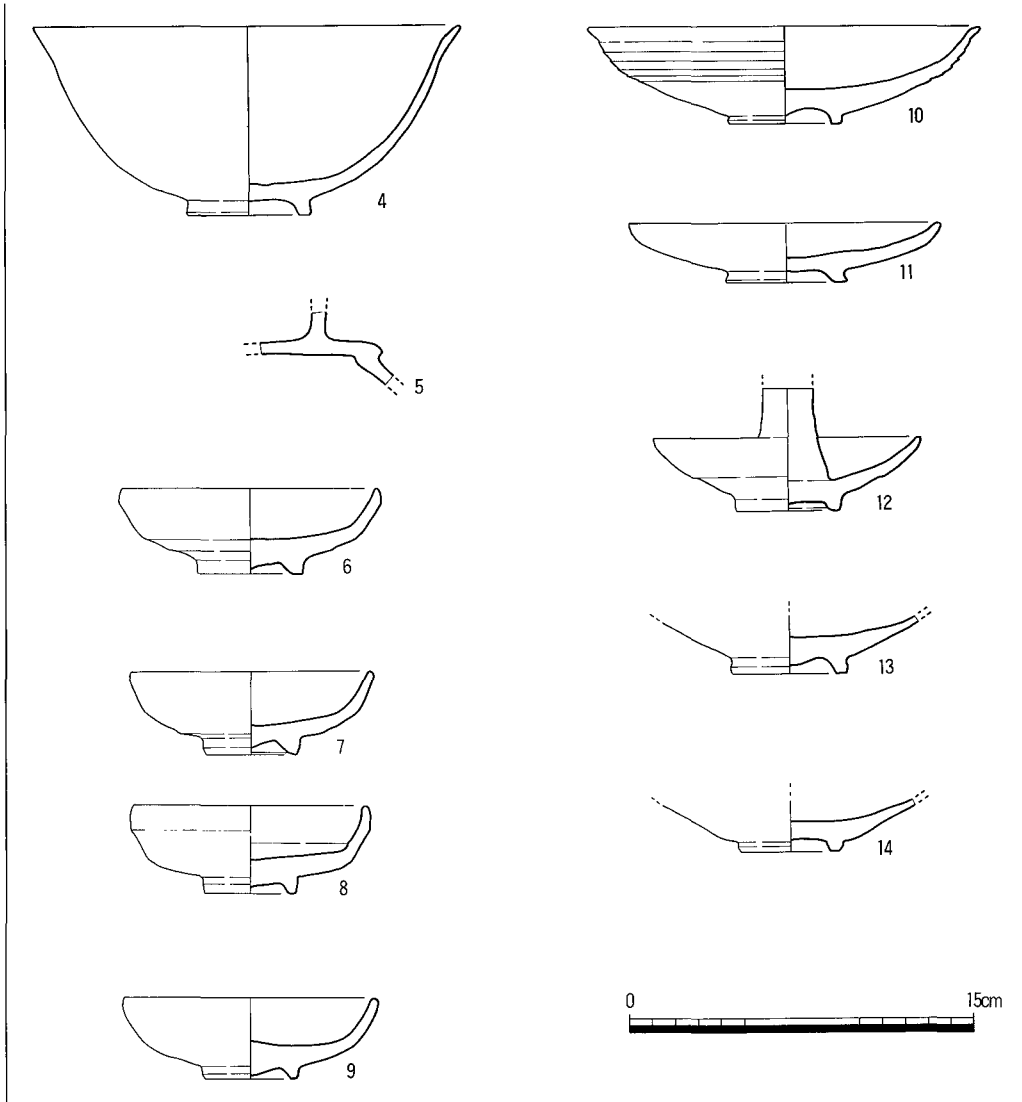


10

11

사진 39. 백암면 고안리 1호 요지





도면 39. 백암면 고안리 1호 요지

## 9. 南四面

### 1) 元岩里 1호 요지

- (1) 성격 : 朝鮮 19世紀 白磁 · 甕器窯址
- (2) 위치 : 사기막에서 아리실로 넘어가는 7번 시도로가 있는데, 이 시도로를 따라 동쪽으로 가면 원암리 사기막골 끝자락에 2층집이(원암 3리 5번지) 있다.

여기서 남동쪽으로 약 300여 미터 계곡으로 들어오며 소로와 접한 임야의 가장자리에 유적은 위치한다.(사진40-1, 지도1·31)

(3) 현 상 : 유적이 임야의 가장자리에 위치하며 주변이 관목으로 둘러쌓여 있어 보존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적의 범위는 폭이 30 미터에 상하의 길이가 약 40여 미터에 달하는 대규모인데, 웅기파편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백자편은 소량이 보이고 있다. 불을 먹은 돌들과 요벽편들도 보이고 있으나 소량에 불과하다. 좌측으로 약 40여 미터 떨어진 곳에는 17세기 백자요지가 있다.(사진40-2)

(4) 유 물 : 다수의 白磁파편과 甕器파편이 수습되었다.

가. 白磁 : 대접과 접시, 잔류가 주류를 이루며, 대체적으로 양질의 백토로 제작되었다. 유색은 대부분 회백색을 보인다.

● 大 椀 : 형태와 크기에 따라 두 개의 종류로 나뉜다.

①(사진40-3-①, 도면40-5) : 구연은 알 수 없으나, 몸체의 기벽이 사선을 그리며 저부에서 점차 폭이 좁아지다가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넓고 편평하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에는 잡티가 소량 섞여 있으나 양질이다. 굽은 직립하며 비교적 높고, 접지면의 폭이 좁다. 안바닥을 오목하고 깔끔하게 깎아낸 후, 바닥에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회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빙렬은 없다.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남아 있다.

②(사진40-3-③, 도면40-7) : 구연과 몸체의 기벽이 완만한 곡면을 이루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매우 넓은 대접이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이다. 굽은 직경이 크고 높이가 높지만, 접지면의 폭이 비교적 좁다. 안바닥을 얇고 편평하게 깎아낸 후,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표면에는 회백색의 유를 씌웠으며,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 椀 匙 : 모두 동일한 형태의 파편만이 확인되었다.

①(사진40-3-⑤, 도면40-9) : 구연과 몸체의 기벽이 사선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매우 넓고 편평하다. 장식은 없으며, 태토에는 잡티가 소량 섞여 있으나 양질이다. 굽은 안굽으로 매우 깊게 깎아내었으며, 깎음새가 단정하다. 안바닥까지 시유하였으며, 접지면에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회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나

발색이 고르지 못하다.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남아 있다.

- 蓋 : 소수의 파편만이 수습되었다.

①(사진40-3-②, 도면40-6) : 구연은 알 수 없으며, 몸체의 기벽선이 사선 형으로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편평하다. 장식은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이다. 굽은 높이가 높고 접지면의 폭이 비교적 넓으며 깎음새가 단정하다. 안바닥을 알고 오목하게 깎아낸 후, 바닥에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회백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 종 지 : 단일한 종류만이 확인되었다.

①(사진40-3-④, 도면40-8) : 구연은 알 수 없으며, 몸체의 기벽이 완만한 곡면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도 곡면을 이루고 있다. 장식은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이다. 굽은 안굽으로 안바닥을 비교적 넓고 편평하게 깎아내었다. 안바닥까지 시유하였으며, 굽언저리까지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담회청색의 유를 씌웠으며, 빙렬은 없다.

나. 甕 器 : 다수의 옹기파편이 수습되었으며, 모두가 동일한 종류이지만, 표면의 장식이 다채롭다.

- 壺 : 다수의 파편이 확인되었으며, 구연부와 저부로 나눌수 있고 구연부는 형태에 따라 다시 세 종류로 나뉜다.

①(사진40-4-①, 도면40-1) : 구연부에는 몸체에서 밖으로 벌어진 폭이 좁은 전이 있으며, 몸체의 기벽은 사선에 가까운 곡면을 그리며 점차 넓어지지만, 몸체중양과 저부의 형태는 알 수 없다. 표면에는 몸체 중양에 횡선의 돌출대가 있다. 태토는 암갈색으로 작은 모래알갱이가 소량 섞여 있으며, 표면에는 짙은 밤색의 유약이 얇게 씌워져 있다.

②(사진40-4-②, 도면40-2) : 구연부에는 폭이 좁은 전이 있으며, 전은 중심이 오목하게 제작되어 있어 뚜껑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몸체의 기벽은 사선을 그리며 점차 넓어지지만, 몸체중양과 저부의 형태는 알 수 없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암갈색으로 잡물이 거의 없다. 표면에는 밤색의 유약이 얇게 씌워져 있으며, 안쪽면에는 타날자국이 있다.

③(사진40-4-③, 도면40-3) : 구연과 몸체의 기벽이 거의 직립하며, 구연

부의 내면에는 폭이 좁은 전을 만들어 뚜껑을 고정시키게 제작되었다. 몸체의 기벽은 사선에 가까운 곡면을 그리며 점차 넓어지지만, 저부의 형태는 알 수 없다. 표면에는 어깨에 두 줄의 돌대가 있으며, 태토는 적색으로 작은 모래알갱이가 소량 섞여 있다. 표면에는 밤색의 유약이 얇게 씌워져 있으며, 안쪽면에는 제작시 두들개로 두드린 흔적이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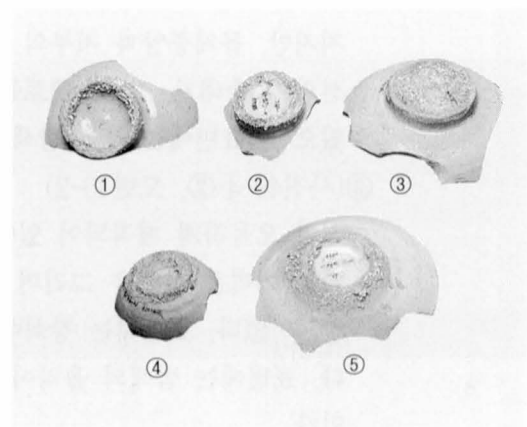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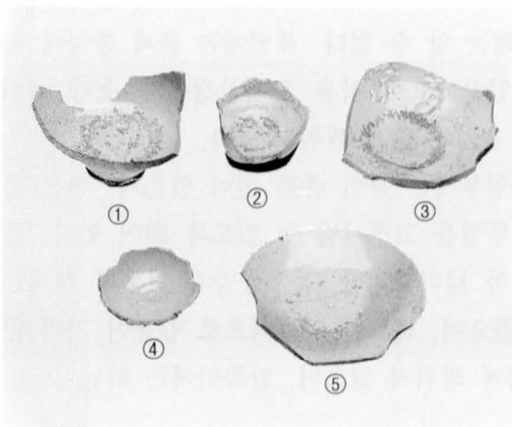
④(사진40-5·6, 도면40-4) : 이외에도 몸체의 형태를 알 수 없는 저부의 파편(사진40-5-①)과 장식이 있는 파편이 소수 수습되었다. 장식은 대부분 초화문과 돌대이며, 안쪽면에는 타날흔적이 남아 있는 예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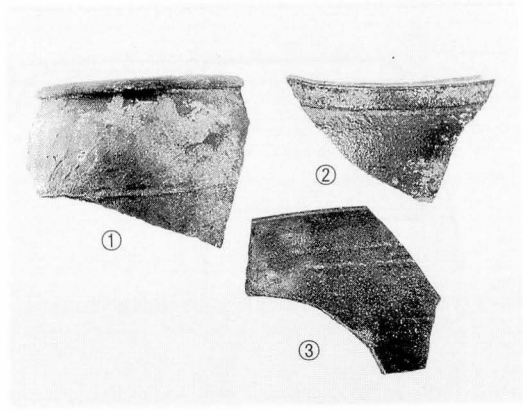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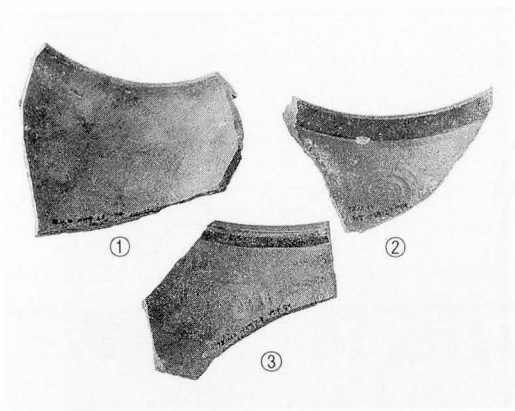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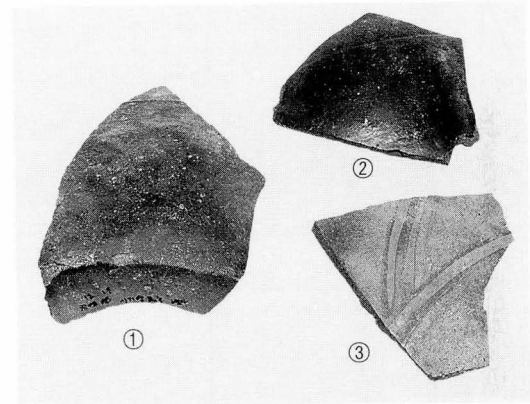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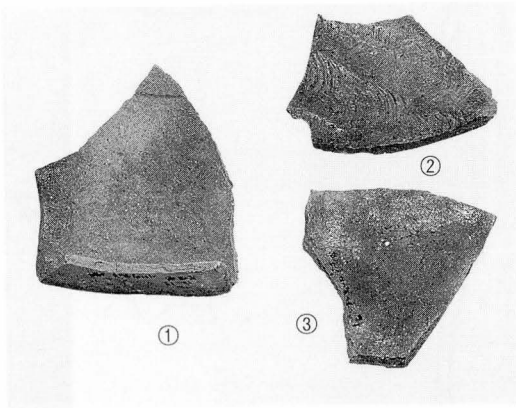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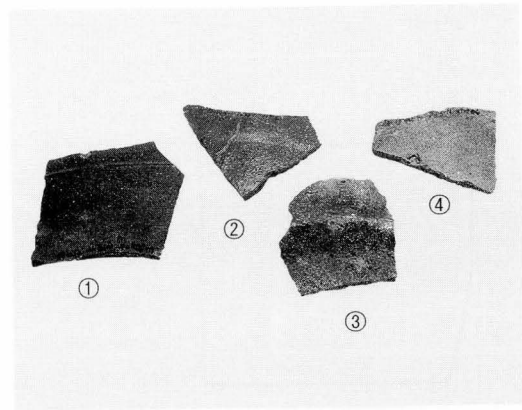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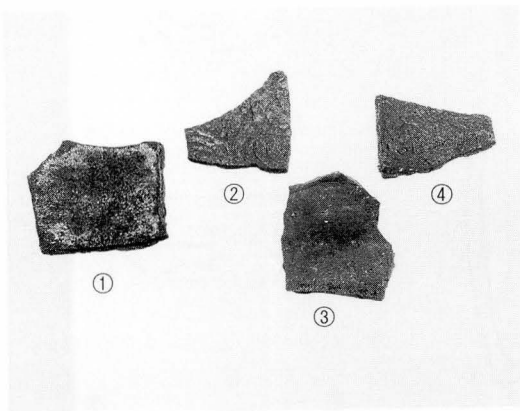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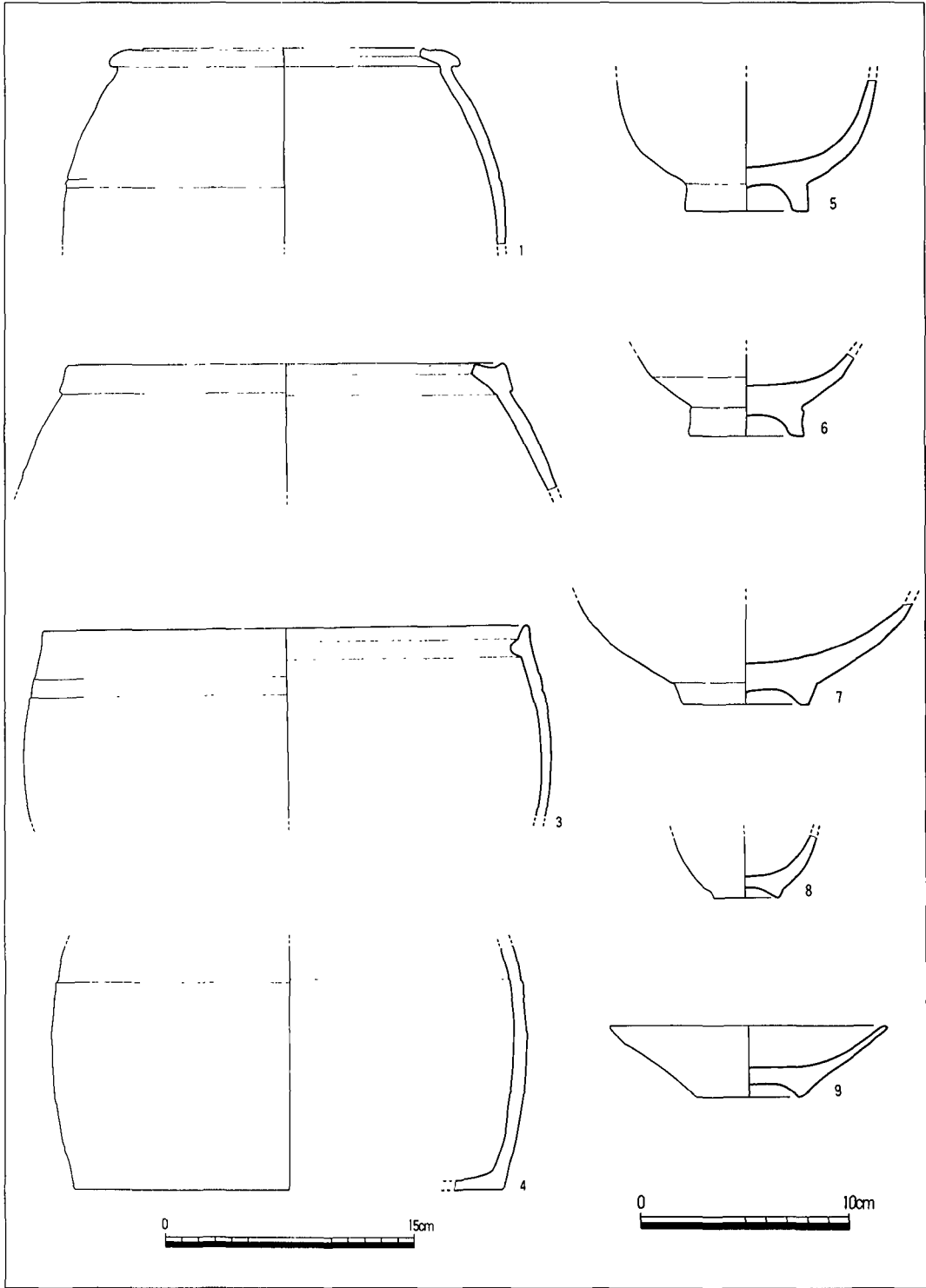


5



6

사진 40. 남사면 원암리 1호 요지



도면 40. 남사면 원암리 1호 요지

## 2) 元岩里 2호 요지

(1) 성 격 : 朝鮮 19世紀 白磁窯址

(2) 위 치 : 원암리 사기막골을 가로지르는 포장도로 끝부분에서 소로를 따라 약 300여 미터 계곡쪽으로 들어오면 이와 접한 임야의 가장자리에 위치한다. 옹기가마와는 약 40여 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사진41-1, 지도1·31)

(3) 현 상 : 유적은 옹기가마와 마찬가지로 임야의 가장자리에 위치하며 주변이 관목으로 둘러쌓여 있어 보존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적의 범위는 옹기 가마와 비슷한 폭이 30 미터에 상하의 길이가 약 40여 미터에 달하는 대규모인데, 백자파편이 대부분 흩어져 있다.(사진41-2)

(4) 유 물 : 다수의 白磁파편과 窯道具가 수습되었다.

가. 白磁 : 대접과 접시, 잔류가 주류를 이루며, 발과 호 등이 있다. 대체적으로 양질의 백토를 사용하였으며, 유약의 색깔은 담록색 혹은 회백색 등으로 다양하다.

● 大 楪 : 형태와 크기에 따라 크게 세 개의 유형으로 나뉜다.

①(사진41-3-②, 도면41-2) : 구연의 형태는 알 수 없으며, 몸체가 완만한 곡면을 이루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넓고 편평하다. 장식문양은 없으며, 안바닥 가장자리에 한 줄의 원각이 돌려져 있다.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이다. 굽은 비교적 높고 직립하며, 깎음새가 단정하다. 안바닥을 편평하게 깎아내었으며,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적은 갈백색의 유를 두껍게 시유하였으나 용융상태가 좋지 못하며, 병렬이 있다. 윗면 안바닥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②(사진41-3-①, 도면41-1) : ①번의 대접과 유사한 형태이지만, 몸체의 저부에 예리하게 각이 져 있고 전체적인 크기도 작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안바닥 가장자리에 한 줄의 원각이 돌려져 있다.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이다. 굽은 비교적 높고 직립하며, 안바닥을 얇고 오목하게 깎아내었다. 굽안바닥까지 시유하였으며, 바닥에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은 회청색의 유를 시유하였으며,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③(사진41-4-③, 도면40-4) : 구연이 외반하고 몸체의 기벽이 사선을 그리다가 저부에서 곡면을 이루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전체적인 크기에 비하여 안바닥이 깊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에는 잡티가 소량



섞여 있으나 양질이다. 굽은 직립하며 접지면의 폭이 고르다. 굽안바닥을 편평하게 깎아내고, 바닥에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담록색의 유를 두껍게 씌웠으며, 안바닥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남아 있다.

- 櫛 匙 : 형태와 크기에 따라 크게 두 개의 유형으로 나뉜다.

①(사진41-4-②, 도면41-6) : 구연은 알 수 없고 기벽이 완만한 곡면을 이루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매우 넓고 편평하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티가 소량 섞여 있으나 양질이다. 굽은 안굽으로, 안바닥을 매우 얇게 깎아내었다. 바닥의 유약을 닦지 않고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적고 투명한 갈백색의 유가 시유되었지만, 발색이 고르지 못하다. 윗면 안바닥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②(사진41-4-①, 도면41-5) : ①번의 접시와 유사한 형태이지만, 기벽이 사선형으로 곧게 뻗어, 안바닥이 더욱 낮고 넓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이다. 굽은 직경이 넓고 내경하며, 높이가 낮아 몸체와 경계가 불분명하다. 안바닥을 얇고 오목하게 깎아내었으며, 바닥에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는 회백색의 유를 얇게 시유하였다.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 盞 : 동일한 형태의 파편이 소수 수습되었다.

①(사진41-3-③, 도면41-3) : 구연과 몸체의 기벽선이 직립하다가 저부에서 곡면을 이루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크기에 비하여 안바닥이 깊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에는 잡티가 소량 섞여 있으나 양질이다. 굽은 안굽으로, 매우 얇고 오목하게 깎아내었다. 굽바닥의 유약을 닦지 않고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담갈록색의 유약을 씌웠으며 일부 빙렬이 있다.

②(사진41-5-②, 도면41-8) : 구연은 알 수 없으며, 몸체의 기벽선이 사선형으로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편평하다. 장식은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이다. 굽은 높이가 낮고 접지면의 폭이 좁으며, 깎음새가 비교적 단정하다. 굽바닥을 얇고 오목하게 깎아낸 후, 바닥에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담회록색의 유약을 씌웠다.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 鐘 止 : 형태와 크기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뉜다.

①(사진41-5-③, 도면41-9) : 구연은 알 수 없으며, 몸체의 기벽이 사선형으로 굽에 이어지며 안바닥이 편평한 형태이다. 장식은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이다. 굽은 안굽으로 안바닥을 얇고 오목하고 깎아내었다. 안바닥까지 시유하였으며, 굽언저리까지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회백색의 유를 두껍게 시유하였으며, 빙렬은 없다.

②(사진41-5-①, 도면41-7) : ①번의 잔과 유사한 형태이지만, 크기가 더욱 작다. 표면에 장식은 없으며, 태토에는 잡티가 소량 섞여 있다. 굽은 안굽으로 안바닥을 오목하게 깎아내었으며, 굽언저리까지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회백색의 유를 두껍게 시유하였으며, 빙렬은 없다

나. 窯道具 : 다수의 개떡이 수습되었다.

● 개 떡 : 크기가 조금씩 다를 뿐 모두 동일한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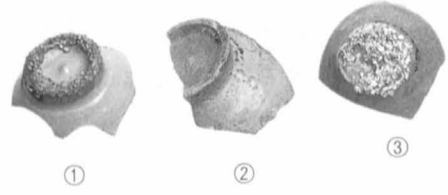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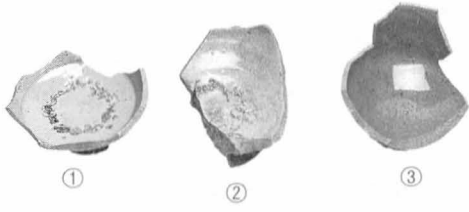
①(사진41-6) : 작은 원반형으로, 경사진 가마의 바닥에서 그릇을 수평으로 올려놓기 좋게 하기 위하여 한 쪽은 얇고 다른 한쪽은 두껍게 만들었으며, 마사토질의 내화재료로 제작되었다. 윗면에는 그릇을 놓았던 자국과 모래받침의 흔적이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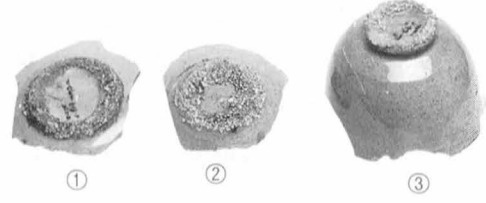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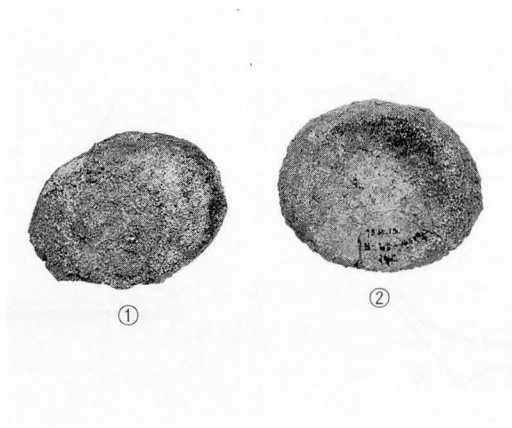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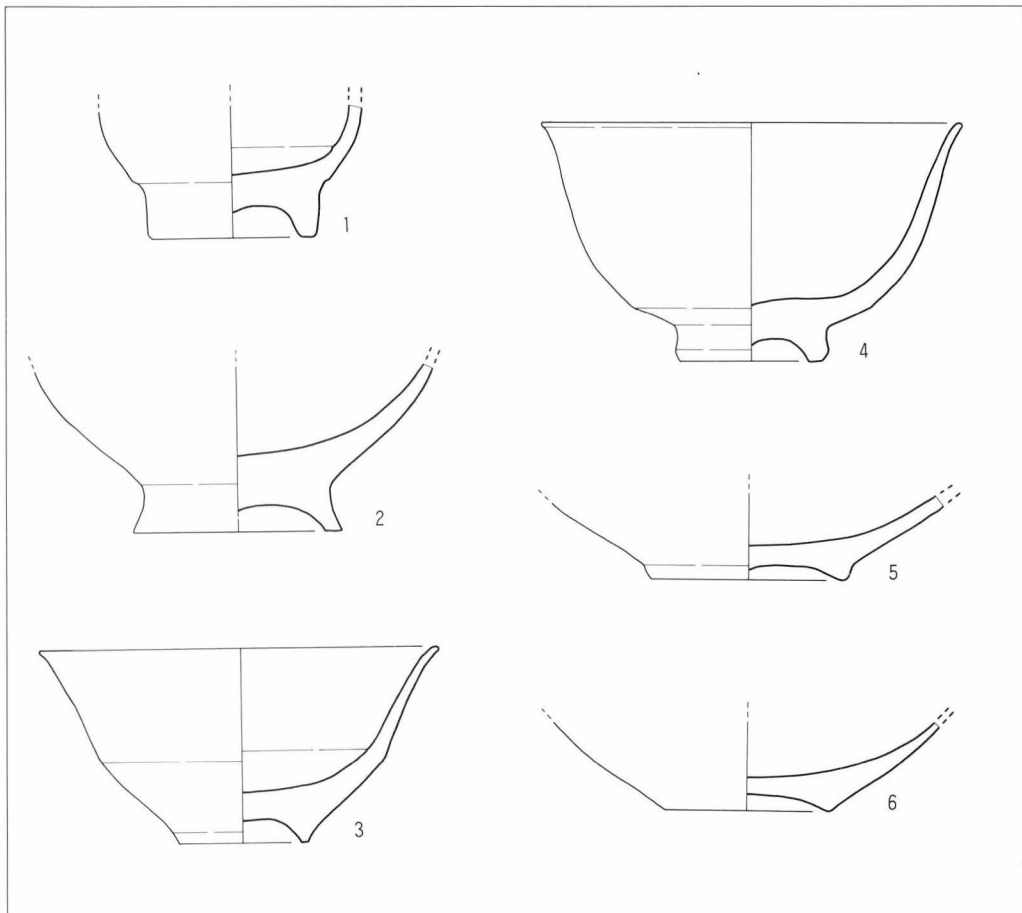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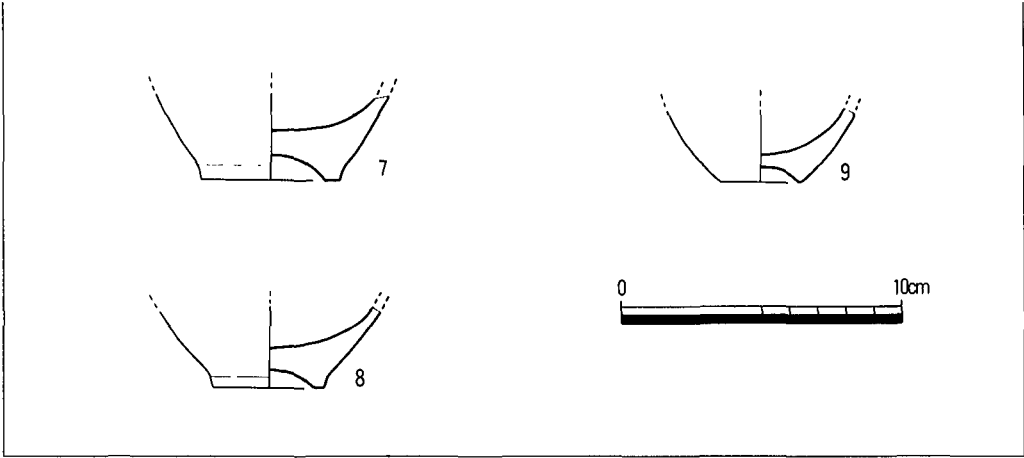
5



6

사진 41. 남사면 원암리 2호 요지





도면 41. 남시면 원암리 2호 요지

#### IV. 綜合考察

용인시 지역에서 도자기를 생산한 역사는 길지만, 특히 조선시대에 왕실용 자기를 굽기 위한 중앙 관요가 운영되었던 광주군의 인근에 위치한 관계로 용인시는 일찍부터 학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그동안 역사적 기록이나 요지조사를 통해 용인의 도자기 문화가 단편적으로 학계에 알려지기는 하였으나, 이 지역이 한국도자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사실이 널리 인식된 것은 1980년대에 호암미술관이 二東面 西里의 고려 백자 요지를 대대적으로 발굴하여 그 결과를 세상에 공표하고 나서부터라 할 수 있겠다. 그동안 학계나 개인들이 용인지역의 도요지 실태에 대해 간헐적으로 조사 연구한 바는 있었지만 그 전모를 밝히기에는 항상 미흡하였는데, 이번에 용인시의 주도하에 면밀한 계획을 세워 종합적인 지표조사를 한 결과, 실로 다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에 실시한 용인시 도요지 지표조사를 통해 총 44곳의 유적을 확인하였다. 이중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20세기 초까지 1000여년에 걸쳐 용인시의 각 지역에서 활동하였던 도요지 유적이 41개소이고, 조사 도중 李南珪교수가 확인한 冶鐵址 2개소는 용인시에서 처음 발견된 것으로 용인의 제철 역사를 밝혀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비록 현 행정구역상 용인시는 아니지만 인접한 안성시 양성면 산정리에서 조사된 17세기 백자요지는 용인시의 요업활동권 내로 볼 수 있어 본 보고서 내에 포함시켰다. 이번에 조사 확인된 도요지 유적은 그동안 학계에 정식보고되거나 연구자들에게 알려진 유적 외에, 半數 이상이 이번 조사과정에서 새로이 발견되고 조사되었으며, 기존에 알려진 유적들도 많은 관련 연구자들이 동원되어 체계적으로 조사활동을 벌여 질적인 면에서도 상당한 수준을 이루었다고 자부한다.

우선 고찰에 들어가기 전에, 짧은 조사기간 동안 용인시의 전역에 걸쳐 이렇게 많은 수의 유적을 확인하고 비교적 충실히 조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용인시의 요업활동의 역사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온갖 수소문을 하고 현지를 답사하고 자료를 모아온 용인시의 열성적인 향토사학자들의 덕분이다. 특히 마순관 예총회장과 이종구선생의 그동안의 노력과 조사과정에서의 도움이 없었다면, 방대한 지역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이 작업이, 용인시의 지역상황을 잘 모르는 우리들에게는 애초에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이며, 이번 조사의 성과는 전적으로 두 분의 공으로 돌리고 싶다. 도자사를 전공하는 필자의 입장에서 두 분의 도움에 더욱 감사를 드린다.

조사결과를 놓고 먼저 종합적으로 살펴 보면, 41곳의 도요지가 모현면을 제외한 용인시 전역에서 확인되었는데, 광주군과 인접한 모현면에 대한 탐방조사에서는 여러 곳에 백자요지로 추정되는 유적이 있었다고는 하나, 이번 조사에서는 지형의 변동으로 인해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없어 조사에 실패하였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 요지분포를 지역별로 보면 용인읍과 이동면·원삼면·양지면에서 요업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이동면에서는 고려초기부터 조선말까지 계속적으로 백자가 생산되어 용인 요업의 중심지로서 뿐만 아니라, 한국도자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특별히 언급해야 할 것은, 한국도자사 연구 역사중에 매우 중요한 성과로 꼽히는, 1930년대에 일본인 도자사학자인 淺川白教씨가 남겨 놓은 요지조사 자료의 확인이었다. 淺川씨가 전국의 도요지를 손수 답사하여 만든 요지일람표는 기존에 알려져 있지만, 현재 출토판편등 실물자료는 전하지 않고 있는데, 이 일람표 속에 용인지역의 자료가 들어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60여년전에 작성된 淺川씨 자료의 존재 확인과 정확성 여부가 주요한 관심사 중의 하나였다. 조사 결과, 그의 목록에 있는 요지를 전부 확인할 수 있었고, 시대 추정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조사내용도 상당히 정확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이로 보면, 용인시는 서울의 인근에 위치하여 그동안 각종의 국토개발과 특히 골프장 건설 등으로 원래 지형이 상당 부분 훼손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적어도 도요지 유적이 크게 인멸되지 않은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어 다행스러웠으며, 하루 빨리 이 유적들이 고스란히 보존되어야 한다는 절박한 생각도 함께 들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알 수 있었지만, 淺川씨가 조사한 도요지들은 대부분 규모가 상당히 큰 것들이고, 비교적 소규모의 것들은 포함되지 않아, 당시 행해진 조사의 수준도 짐작할 수 있었다.

아울러 60여년전의 도요지 상황이 현재까지 이런 정도라면, 이전에도 용인의 지형이 크게 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世宗實錄地理志》에 거명된 용인 지역의 자기소·도기소의 존재도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15세기 초반의 요업상황을 알려주는 《세종실록지리지》에 ‘옛 處仁의 窯山洞里에 下品の 磁器所와, 甘岩里에 下品の 陶器所가 있다’는 기록과 ‘陽智縣에는 남쪽의 합항(檻項)에 下品の 磁器所와, 동쪽의 新林里에 下品の 陶器所가 있다’는 기록이 나온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로 볼 때, 자기소에서도 분청사기가 생산되었을 가능성이 많은데, 용인의 요지 중에 분청사기 요지는 현재 이동면 서리에 1곳, 원삼면 학일리에 2곳, 백암면 석천리에 1곳, 백암면 고안리에 1곳이 있다. 이 중에 주목되는 것은 먼저 서리의 분청사기 요지로, 서리 고려백자요지에

서 산 하나를 넘으면 나오는 사기막골에 위치한다. 그런데 요산동리라는 지명은 산같이 큰 가마가 있는 곳을 뜻함이 분명하여, 지금도 엄청난 규모의 가마퇴적이 존재하는 서리 일대를 世宗時에 요산동이라 불렀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된다. 《세종실록지리지》에 나오는 자기소 139개소, 도기소 185개소, 총 324개소의 지명 가운데 가마 ‘窯’자가 들어간 것은 이곳이 유일하며, 서리는 옛날에 처인현에 속하였고, 이 일대에서 발견된 분청사기 요지는 이곳이 유일하며 그 규모도 상당히 큰 것이어서, 서리 사기막골의 분청사기 요지가 바로 《세종실록지리지》에 나오는 자기소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한편, 양지현 남쪽 지역에서는 3곳에서 분청사기 요지가 확인되었는데, 이중 원삼면 학일리 분청사기 요지가 주목된다. 두 곳에 나누어져 형성된 요지는 지표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확인 결과 지표하에 상당한 깊이의 퇴적층이 존재하는 비교적 큰 규모의 요지였으며, 나머지 두곳은 소규모였다. 양지현 남쪽의 함향에 있었다는 하품의 자기소가 위치나 규모로 보아 학일리 분청사기 요지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현재의 상황으로 보아, 일단은 이상의 두 곳이 《세종실록지리지》에 나오는 용인지역의 자기소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이들 요지에서 고려말~조선초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상감문들이 발견되지 않아 단정할 수는 없다. 앞으로 요지출토품의 분석과 보다 정밀한 조사가 요구된다.

이번 조사를 토대로 용인지역의 요업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선 고려시대 이전의 확실한 도요지는 확인되지 않아 용인의 요업은 고려시대부터 일단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전체 유적을 통틀어 가장 주목되는 것은 고려시대 도요지의 존재이다. 청자로 대표되는 고려시대의 요지는 전국적으로 알려진 수가 그리 많지 않는데, 기존에 알려진 서리의 중덕과 상반곡의 고려백자요지를 재차 조사한 외에도, 이번에 무려 3개소의 고려요지를 새로 발견하여 전혀 예기하지 않았던 중요한 수확을 거두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백자를 처음 생산하였던 요지로 이미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 있는 이동면 서리 중덕부락의 요지는 재차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도자사적으로 중요하지만, 인근의 상반곡에서도 대규모의 고려백자요지가 또 하나 있다. 기존에 알려진 곳이지만, 새삼 이번 조사를 통해 그 규모나 중요성이 서리 중덕요지와 비교해 손색이 없을 정도임을 확인할 수 있어, 적절한 보호조치와 더불어 정확한 학술조사가 요망된다.

구성면 보정리의 단국대학교 뒤편 야산에서 새로 발견한 고려시대 요지는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11세기 지방가마의 특징적인 청자와 백자편들이 수습되었다. 서리 고려백자요지의 바로 뒤를 잇는 시기의 요지로, 경기도 지역에서는 안양시 석수동요지에 이어 두 번째로 발견된 귀중한 유적으로, 고려시대 도자사 연구에 또 하나의 중요한 자료를



얻게 된 셈이다.

이 외에도 고려초기의 도기가마로 추정되는 것이 용인 호동과 수지읍 죽전리에서 새로 발견되었다. 호동의 경우, 작은 도기편들과 함께 窯壁片들이 수습되어 요지임에는 틀림없지만, 퇴적이 거의 없어 성격 규명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고려시대의 특징적인 廣口瓶 형태와 細格子文이 타날된 편들의 존재로 보아 고려시기의 도기가마임은 분명하다. 그리고 수지읍 죽전리에서도 비교적 큰 규모의 고려시대 도기가마를 발견하는 개가를 올렸다. 한신대학교 박물관이 별도로 실시한 이지역 지표조사 과정에서 발견하여 확인 조사한 유적으로, 고려도기의 특징적인 세격자문이 타날된 큼직한 파편들이 다량으로 수습되었으며, 가마유구가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에서 불탄 재와 가마벽편들이 널려 있었다. 고려시대의 도기가마는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알려진 것이 2~3 개소에 불과하여, 고려도기 연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이들 용인지역에서 발견된 도기요지 2개소의 존재는 고려도기의 연구에 귀중한 유적으로 평가된다.

용인 지역의 고려시대 요업과 관련하여 참고되는 기록이 있다. 《高麗史》 중의 '殖貨' 편에 “경기도의 州縣에서 동전, 자기, 종이, 떡 등의 貢役이 부과되어 장인들이 그 苦役을 견디기 어려워 도망하였다(京畿州縣 常貢外徭役頗重 百姓苦之 其貢役多少 酌定施行 銅錢瓷器紙墨雜所別貢 物色徵求過極 匠人艱苦而逃避).”는 기록이 나온다. 이는 睿宗 3년(1108)의 기록으로, 11세기말경에 경기도 일대에 자기가마가 분명히 존재하였음을 밝혀주는 중요한 자료인데, 용인지역의 고려시대 가마들도 이의 역사적 기록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구성면 보정리 가마가 이 시기에 해당되어 위의 자료를 뒷받침하는 증거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서리 백자가마로 대표되는 고려시대 용인의 요업은 한국 도자기, 특히 백자 역사의 개시과정에서 화려한 업적을 남겼지만, 고려후기가 되면 그 존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려시대 요지의 존재들은 조선시대에 가서 초반부터 요업이 크게 일어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제공하였다고 믿어진다.

조선시대가 되면, 용인의 요업은 인근 광주지방과 더불어 초기부터 활발한 양상을 보인다. 조사된 내용을 보면, 분청사기 요지가 5개소에, 15~16세기 백자요지가 9개소나 되어, 전국의 어느 곳보다 요업활동이 왕성하였음을 보여 준다. 먼저 분청사기 요지들은 상감과 인화 분청사기, 無文의 粗質靑磁를 주로 생산한 것으로 보아, 활동시기가 15세기 전반이나 중엽경으로 추정되며, 출토편 중에 官司銘이 전혀 보이지 않아, 지방용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가마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가운데, 전술한 바 처럼, 이동면 서리 사기막골 요지와 원삼면 학일리 요지는 비교적 규모가 큰 편이어서 《세종실록지리

지)에 거명된 요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이 추정이 만약 옳다면, 기록에 이들이 ‘자기소 하품’이라는 사실로 볼 때, 하품의 자기소란 것이 官納이 아닌 지방용의 분청사기를 생산한 요지를 지칭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문제는 앞으로 신중히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조선전기 용인지방의 요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백자가마의 활동이다. 현재 용인읍·이동면·양지면의 9개소에서 조선 전기의 백자가마가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조선전기 백자요업의 성행은 일찌기 고려백자를 생산했던 이 지역의 특성과 더불어 인근의 광주지방의 영향에 힘입은 바가 컸던 것으로 생각된다. 광주는 조선초기부터 백자생산으로 이름났으며, 1460년대에 왕실용 백자를 담당하던 司饗院의 分院이 이곳에 설치됨에 따라, 분청사기류는 급속히 소멸되고 백자 위주로 요업체계가 바뀌게 된다. 용인도 이러한 변모에 발맞추어, 분청사기 생산은 사라지고 백자가마를 주로 운영하게 된 것으로 믿어진다. 이들 백자가마들은 규모가 비교적 크며, 주로 일상용기인 대접과 접시를 생산하였는데, 광주지방의 從屬窯 백자제작의 메카니즘에 따라 백자의 질은 대체적으로 좋은 편이나, 竹節形굽에 소위 ‘공기돌받침’의 태토빛음을 받침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일부 요지에서는 소량이나마 上品白磁의 특징인 倒立三角形굽에 가는 모래받침을 사용해 변조한 것도 보여 주목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사실은, 15, 16세기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용인지방의 백자요지들은 일단 《세종실록지리지》 시대의 이후에 등장한 것이 분명하며, 상당수는 16세기까지 활동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용인지방에서 세종시기 이후에 백자제작이 왕성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현재 도자사 학계에서는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전반의 우리나라 요업상황을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에 근거하여, 세종시기에 비해 각 지방의 요업이 훨씬 침체하였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는데, 용인의 경우에는 오히려 백자요지가 훨씬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연구결과와 정반대 현상을 보인다. 물론 《신증동국여지승람》 속에는 용인의 백자요지에 관한 기록이 전혀 없다. 따라서 용인지방의 조사결과를 놓고 보면,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이 기록에 근거하여 조선 전기의 우리나라 전체의 요업상황을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결론이 나온다. 지역별 요지조사의 중요성을 절감케 하는 부분으로, 조선전기 도자사 연구의 새로운 시각이 요구된다.

이번 조사에서 또하나의 성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17세기 조선중기의 백자요지의 발견과 확인이었다. 주지하다시피 17세기는 임진왜란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요업이 크게 타격을 받아 그 회복에 몸부림치던 시기였었는데, 용인에서는 비교적 우수한 질의 17세

기 백자가마가 이동면·양지면·남사면과 용인과 인접한 안성시 양성면 등지에서 6개소가 이번에 조사되었다. 특히 이중에는 17세기의 특징적인 철화백자를 생산하였던 곳이 3개소나 포함되어 있어 주목된다. 중기 지방 백자가마의 전형적인 간략한 草花文 계통의 추상적인 철화문들이 보이며, 전반적인 제작기술은 역시 광주관요의 그것을 따르고 있다. 그런데, 이중 서리 사기막골에 있는 17세기 철화백자요지는 가건물이 한 동 들어 서면서 퇴적층이 크게 훼손된 상태여서 시급한 보호조치가 요망된다.

용인의 도자기 생산은 조선시대 후기에도 계속적으로 성행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 용인·이동면·원삼면·백암면·남사면·기흥읍·수지읍 등 용인시의 거의 전 지역에서 19세기에 활동한 백자가마들과 옹기가마들이 확인되었다. 이중에는 소위 ‘石間硃’라 하여 조선후기에 서민용으로 생산된 鐵砂釉를 바른 종류도 생산되어 흥미로웠다. 19세기 백자가마 가운데, 특히 원삼면 문촌리·원삼면 학일리·백암면 용천리등의 요지는, 엄청난 양의 퇴적층이 남아 있어 그 규모가 놀라울 정도이며, 더구나 문촌리와 학일리 요지에는 가마유구가 무너진 채로 고스란히 남아 있어 조선말기 요업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더없이 귀중한 유적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용인의 백자요업이 19세기에 이렇게 대규모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 것은, 다른 지역의 경우 이 시기의 가마들이 보통 지방 수요용으로 소규모로 운영된 것이 일반적인 현상임에 비해, 용인지역에서는 완전히 산업화되어 크게 번창하였음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어 대단히 흥미롭다. 이러한 19세기에 용인의 요업이 크게 성행한 이유를 간접적으로 밝혀 주는 史料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北學派의 계보를 잇는 조선 후기의 대학자인 徐有渠(1764-1845)가 19세기 전반의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대해 쓴 《林園經濟志》의 〈倪圭志〉편 속에, 八域物産과 場市에 관한 기록이 있다. 이중 卷4 貨殖(八域場市)에 도자기 시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사기·옹기·토기의 시장을 열거한 가운데에, 전국의 주요한 사기시장으로 용인을 비롯한 광주·여주·안성등 45곳이 거명되고 있고, 옹기시장으로 역시 용인을 포함한 이천 등 49곳을 들고 있다. 이 기록을 보면, 19세기에 용인은 전국적으로 주요한 사기와 옹기시장으로 활동하였음이 분명하여, 바로 이러한 시장을 겨냥한 수요 때문에 용인지역에 대규모의 백자가마가 운영된 것으로 믿어진다. 따라서 용인지역의 가마에서 생산된 백자나 옹기들은 비단 용인지역에서만 사용되지 않고, 시장을 통해 서울을 포함한 다른 지방으로도 널리 공급되었음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용인 도요지 현황표>

번호	地 域	窯 址	時 代	世 紀	性 格	指定與否	現 狀
1	용 인	호 동 1호	고려	초기	도기	미지정	양호
2		호 동 2호	조선	15-16	백자	미지정	일부훼손
3		호 동 3호	조선	15-16	백자	미지정	일부훼손
4		운학동 1호	조선	19	백자	미지정	일부훼손
5		운학동 2호	조선	15-16	백자	미지정	일부훼손
6		해곡동 1호	조선	15-16	백자	미지정	양호
7	기흥읍	지곡리 1호	조선	19	흑자	미지정	일부훼손
8		지곡리 2호	조선	19	흑자	미지정	일부훼손
9		지곡리 3호	조선	17	백자	미지정	양호
10	수지읍	죽전리 1호	고려	초기	도기	미지정	양호
11		신봉리 1호	조선	19	백자	미지정	양호
12	구성면	보정리 1호	고려	11	청자·백자	미지정	양호
13	양지면	남곡리 1호	조선	15-16	백자	미지정	일부파괴
14		대대리 1호	조선	15-16	백자	미지정	일부훼손
15		대대리 2호	조선	17	백자	미지정	일부훼손
16		대대리 3호	조선	17	철화백자	미지정	일부훼손
17	이동면	서 리 1호	고려	9-11	청자·백자	사 적	보호
18		서 리 2호	고려	?-11	백자	미지정	양호
19		서 리 3호	조선	19	백자	미지정	일부훼손
20		서 리 4호	조선	15	분청	미지정	양호
21		서 리 5호	조선	19	백자·흑자	미지정	일부훼손
22		서 리 6호	조선	17	철화백자	미지정	일부파괴
23		천 리 1호	조선	15-16	백자	미지정	일부훼손
24		천 리 2호	조선	15-16	백자	미지정	일부훼손
25		묵 리 1호	조선	15-16	백자	미지정	일부훼손
26		묵 리 2호	조선	19-근대	백자·흑자	미지정	일부훼손
27		화산리 1호	조선	17	백자	미지정	양호
28		화산리 2호	조선	17	백자	미지정	양호
29	원삼면	문촌리 1호	조선	19	백자	미지정	양호

번호	地 域	寮 址	時 代	世 紀	城 格	指 定 與 否	現 狀
30	원삼면	문촌리 2호	근대	20	옹기	미지정	파괴
31		학일리 1호	조선	19	백자	미지정	일부훼손
32		학일리 2호	조선	19	백자	미지정	양호
33		학일리 3호	조선	15	분청사기	미지정	양호
34		학일리 4호	조선	15	분청사기	미지정	양호
35	백암면	용천리 1호	조선	19	옹기	미지정	일부훼손
36		용천리 2호	조선	19	백자	미지정	양호
37		용천리 3호	조선	19	백자	미지정	양호
38		석천리 1호	조선	15	분청사기	미지정	양호
39		고안리 1호	조선	15	분청사기	시지정	양호
40	남사면	원암리 1호	조선	19	백자·옹기	미지정	양호
41		원암리 2호	조선	19	백자	미지정	양호

<용인의 아철지>

번호	地 域	位 置	時 代	世 紀	性 格	指 定 與 否	現 狀
1	용 인	호 등	조선	·	아철지	미지정	일부훼손
2	원삼면	학일리	조선	·	아철지	미지정	양호

<안성시의 도요지>

번호	地 域	寮 址	時 代	世 紀	性 格	指 定 與 否	現 狀
1	양성면	산정리	조선	17	철화백자	미지정	일부훼손

## V. 結 言

지금까지 용인시 전역에 걸쳐 우리 옛 도자기를 생산하였던 가마터에 대한 조사결과를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그 의의와 중요성 등에 관해 고찰하여 보았다. 이번 조사결과를 놓고 볼 때, 세계에서 '도자기의 나라'로 불릴만큼 우수한 도자문화를 이룩하였던 우리나라의 도자기 역사 속에서, 용인지역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지역임을 새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용인지방 도자기 문화의 역사적 중요성을 정리한다면, 무엇보다 용인은 우리나라 백자생산의 시발지로 더없이 중요하다.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곳 용인 서리에서 이미 1000여년전에 훌륭한 백자를 생산하였는데, 일본이나 유럽지역에서 17세기 이후에야 갖은 노력 끝에 비로소 백자를 만들 수 있게 된 것과 비교하면, 그 역사적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이다. 그리고 서리요지 이후에도 고려시대의 용인에서 계속적으로 요업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한 것은 이번 조사의 중요한 성과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인근 광주의 분원 설치에 힘입어, 비록 지방가마로 활동하였지만, 백자생산이 전기간에 걸쳐 꾸준히 계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전기백자요지와 더불어 중기의 철화백자를 생산한 가마의 존재가 중요하게 여겨지며, 후기에는 석간주, 옹기와 더불어 대규모의 백자가마가 운영되면서 우리나라의 주요한 사기, 옹기시장의 하나로 활동한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도 중요한 성과의 하나로 꼽을 수 있겠다.

이와 같이 한국도자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용인지역의 요지들은, 현재 급속도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용인의 현실정을 감안한다면, 하루속히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모든 요지들은 일단 용인시에서 현상의 보존에 일차적으로 노력하고, 이후 보다 정밀한 조사를 거쳐, 道나 國家에서 심의 지정하여 보존해야 함이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학술적인 발굴조사는 차치하더라도 시급한 보호조치가 요망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끝으로 이번 조사는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용인의 전통문화를 지키려 예산과 인원을 지원해 준 용인시의 앞서가는 문화행정 덕분에 이루어진 것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훌륭한 본보기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리고 이번 조사는 용인시와 도자사학자, 고고학자, 향토사학자들이 서로 합심하여, 짧은 기간 동안 양적, 질적으

로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자부하는데, 특히 이렇게 행정기관과 향토사학자들이 적극 참여하여 한 지방의 특정분야를 집중 조사연구한 것은 극히 드문 일이어서, 더 한층 이번 조사에 보람을 느낀다. 하지만 아직도 이번 조사팀의 발길이 미처 닿지 않은 곳에 더 많은 유적들이 있을 것으로 믿어져, 조사자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관심을 다같이 늦추지 않을 생각임을 밝혀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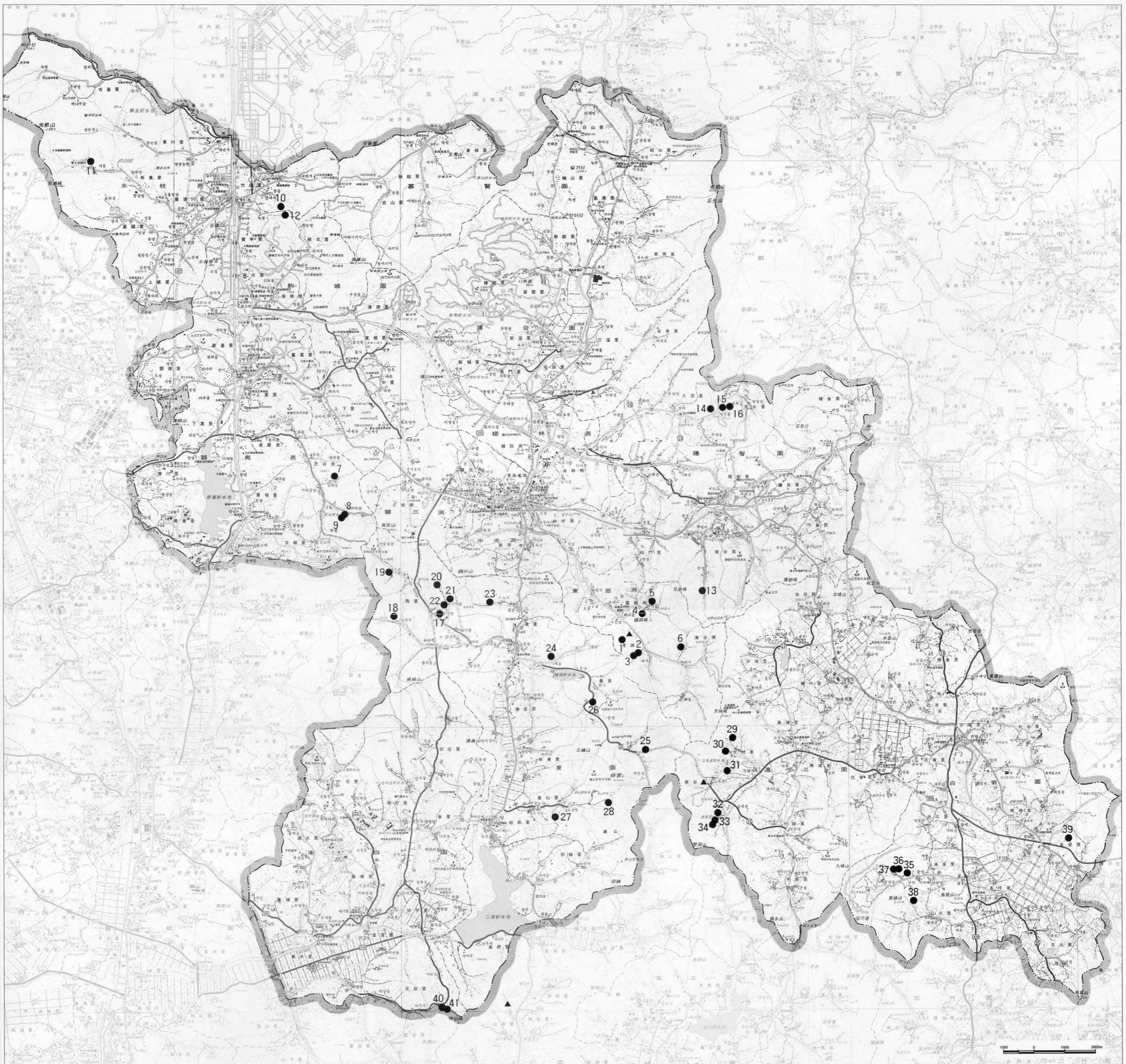


지 도



양면, 기

지도1을 제외한 나머지 지도의 축척은 1/5,000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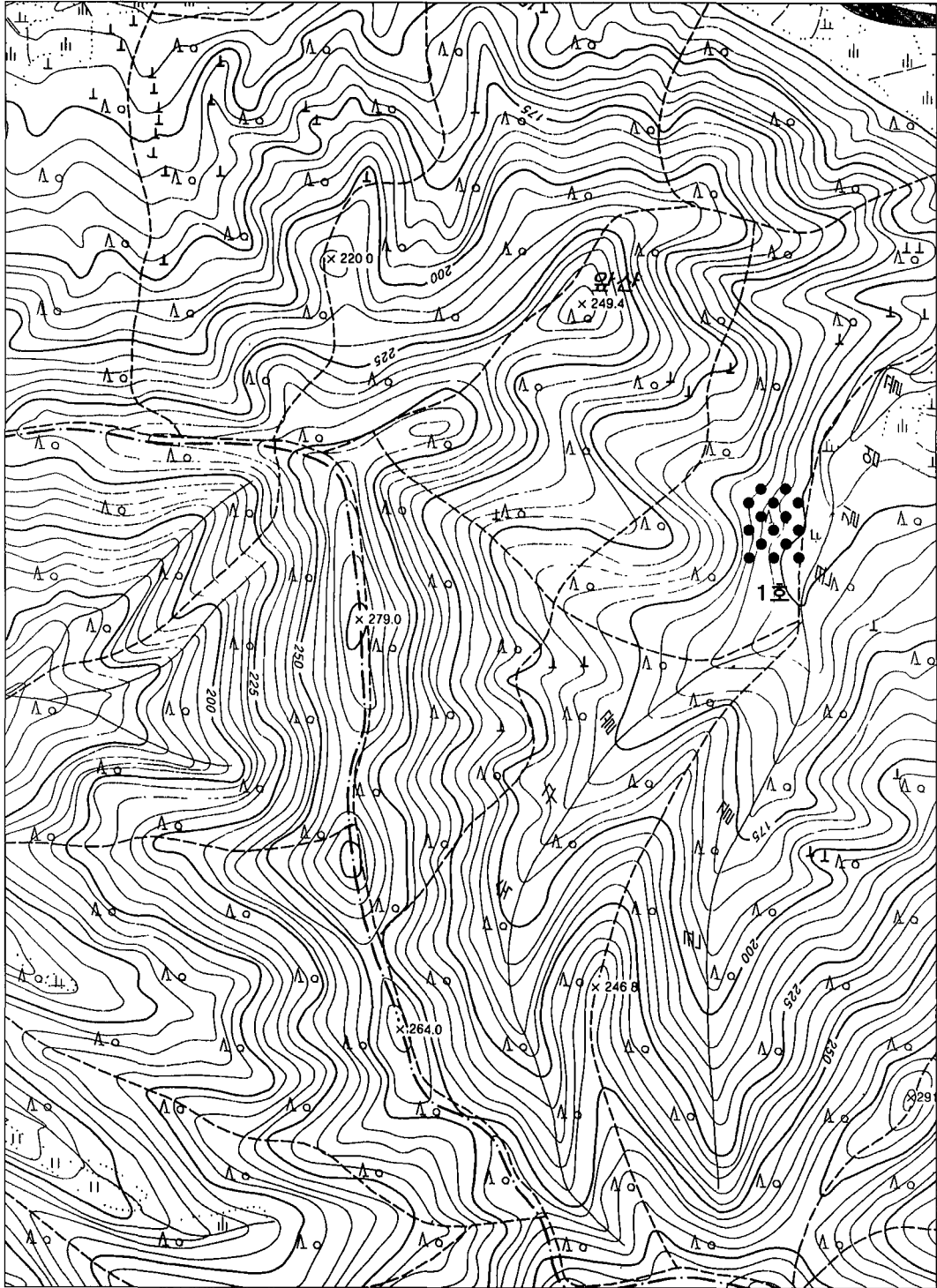
지도 1. 용인시 도요지 위치도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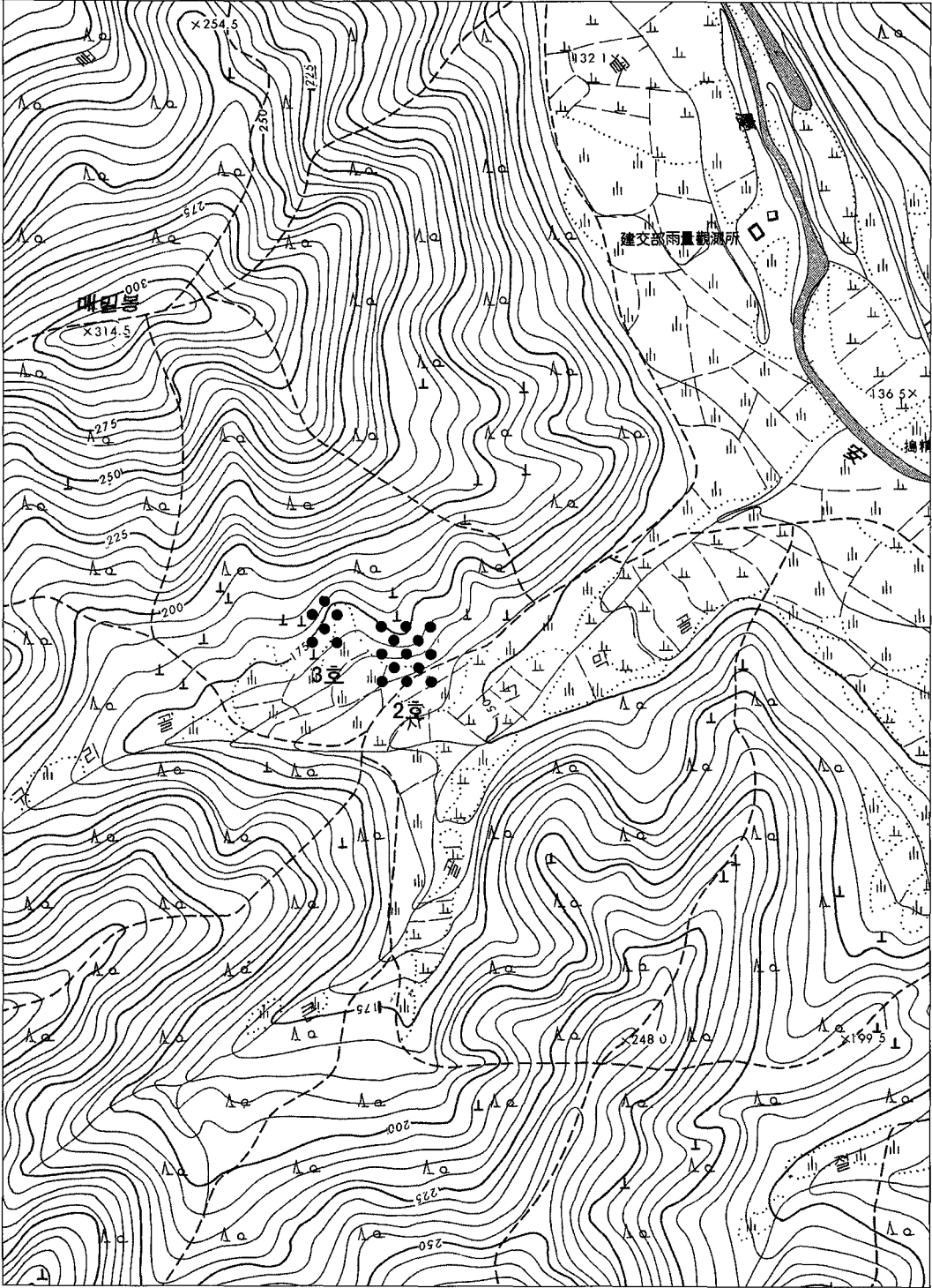
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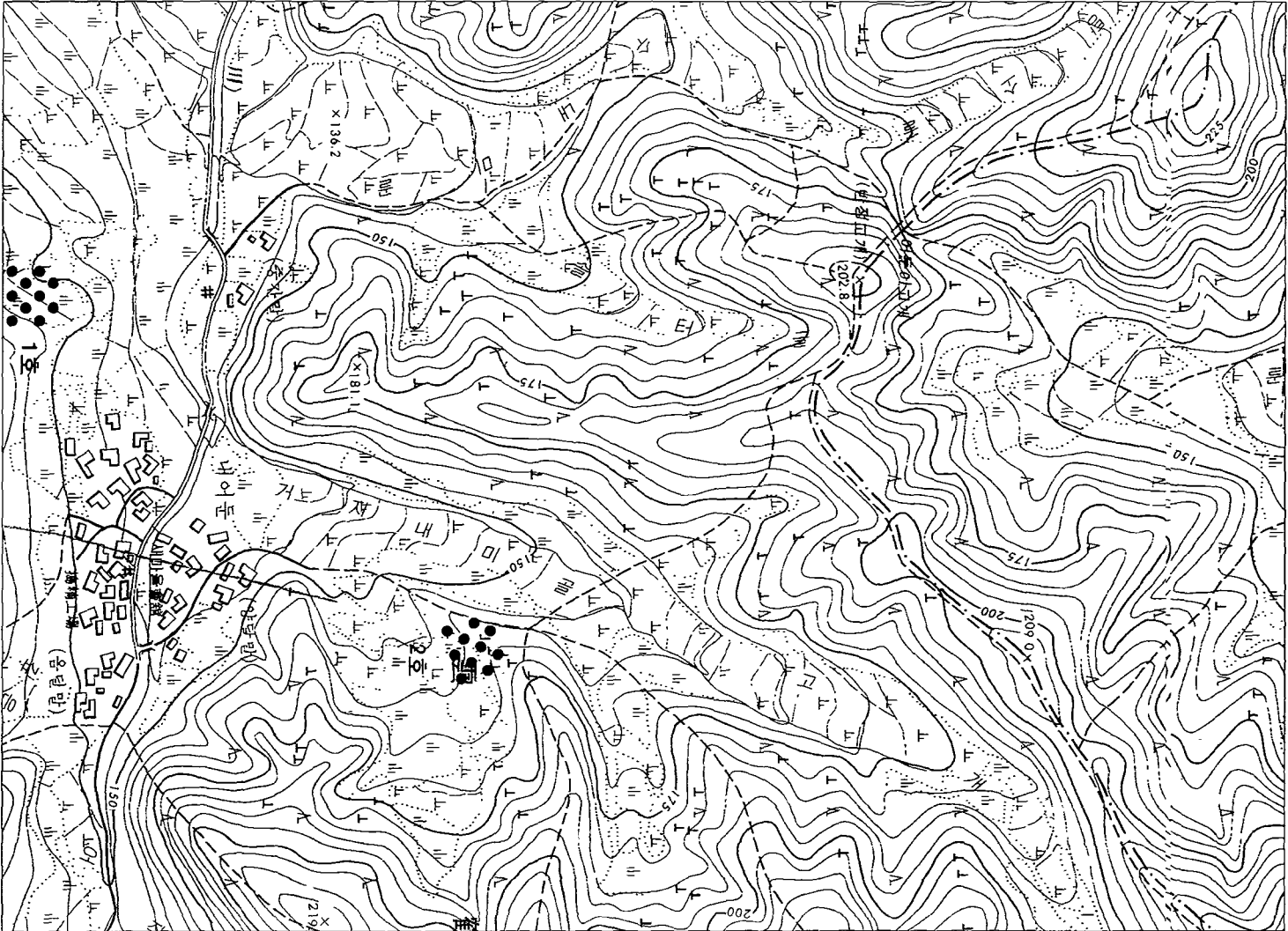
지도 2. 용인시古지도(大東輿地圖 1861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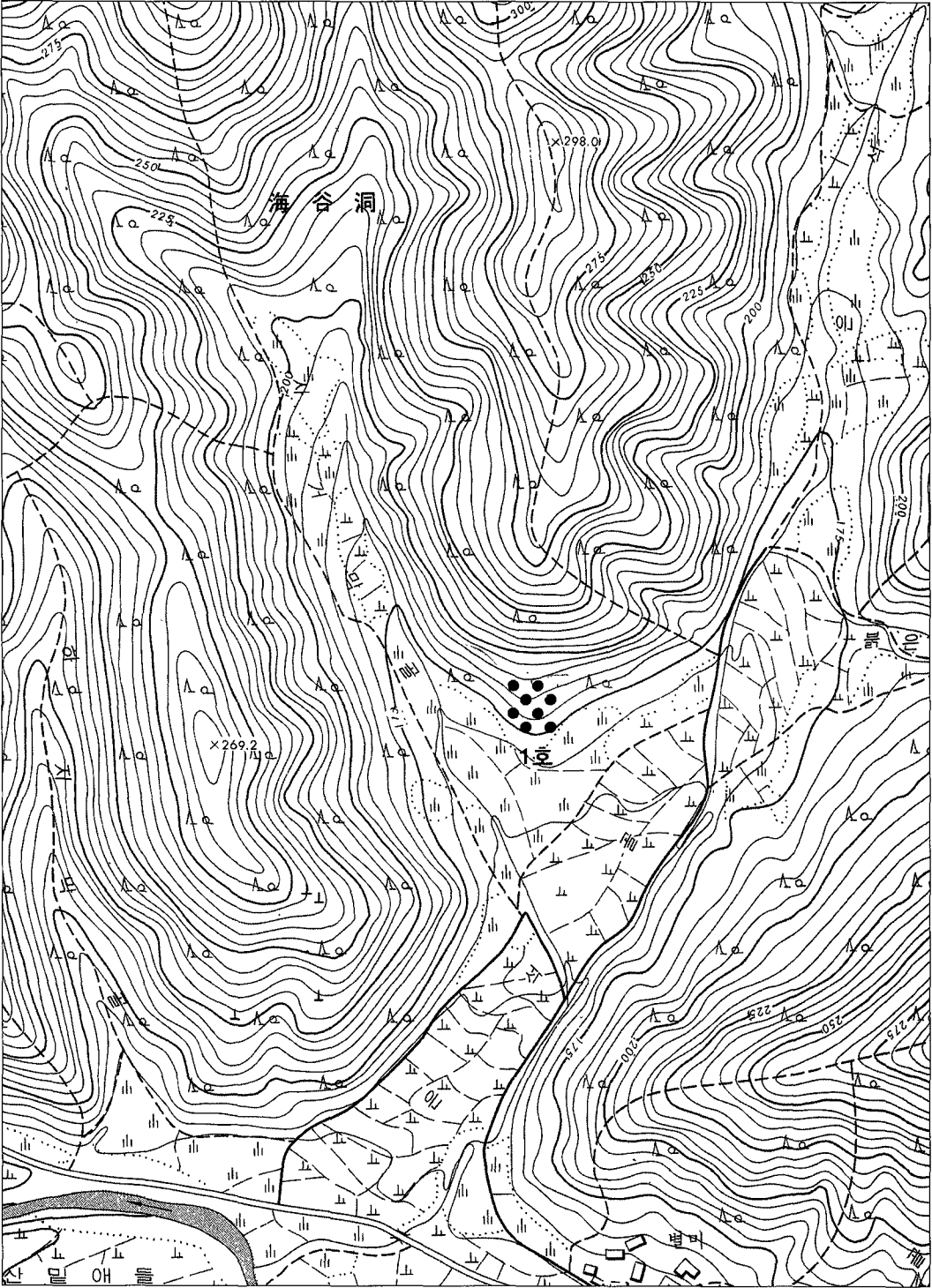
지도 3. 호동 1호 요지



지도 4. 호동 2·3호 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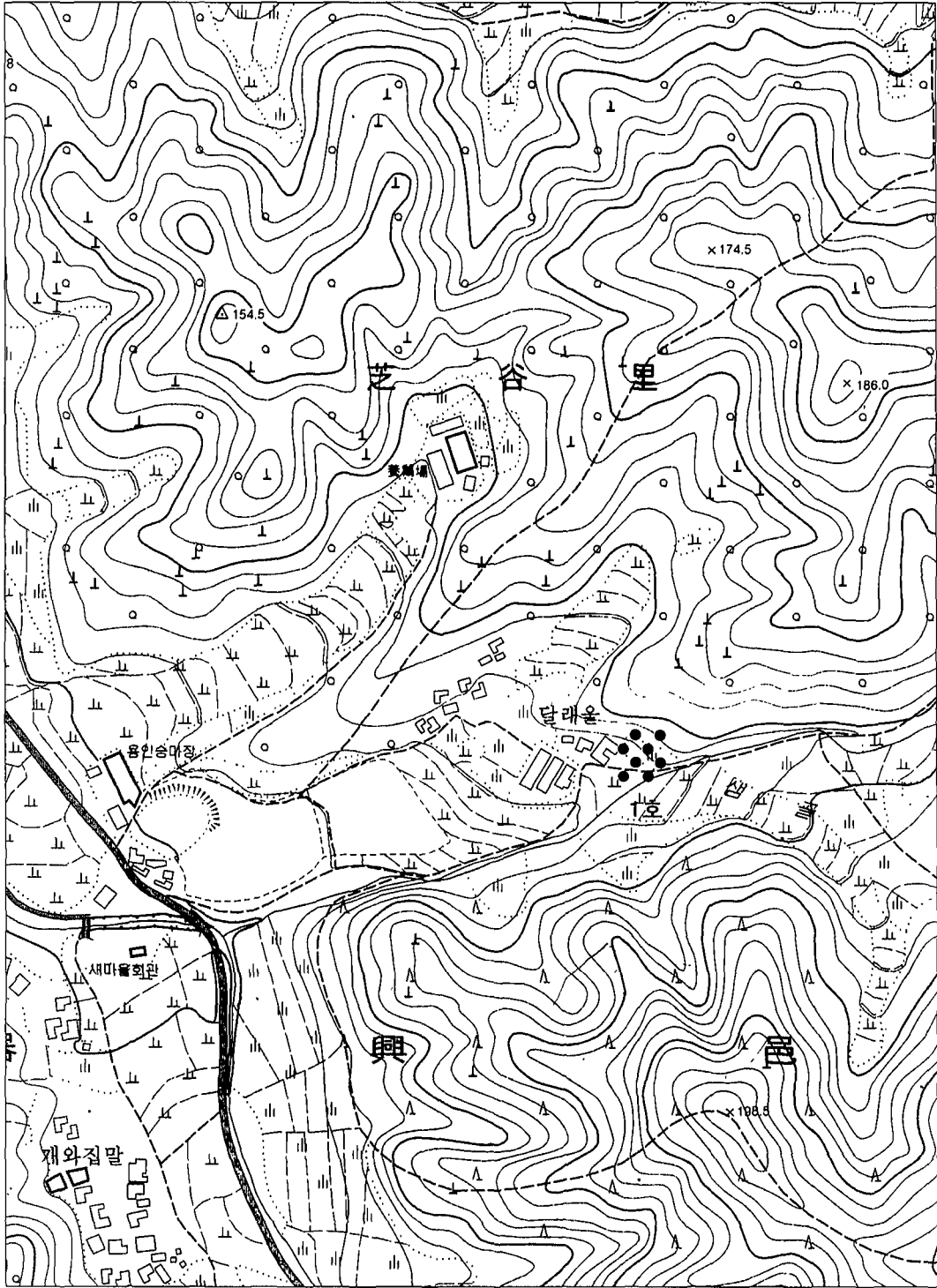


지도 5. 운학동 1·2호 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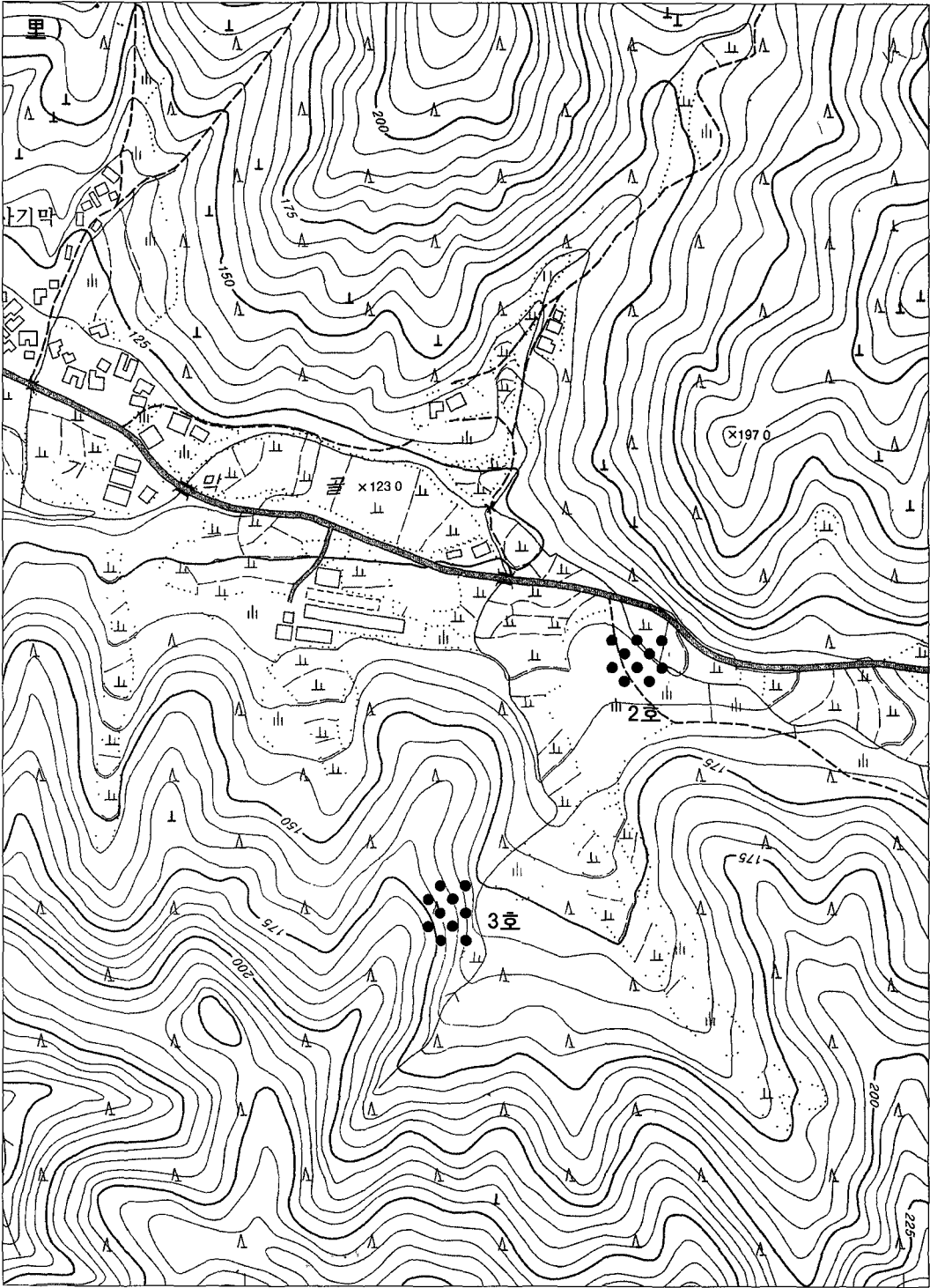


지도 6. 해곡동 1호 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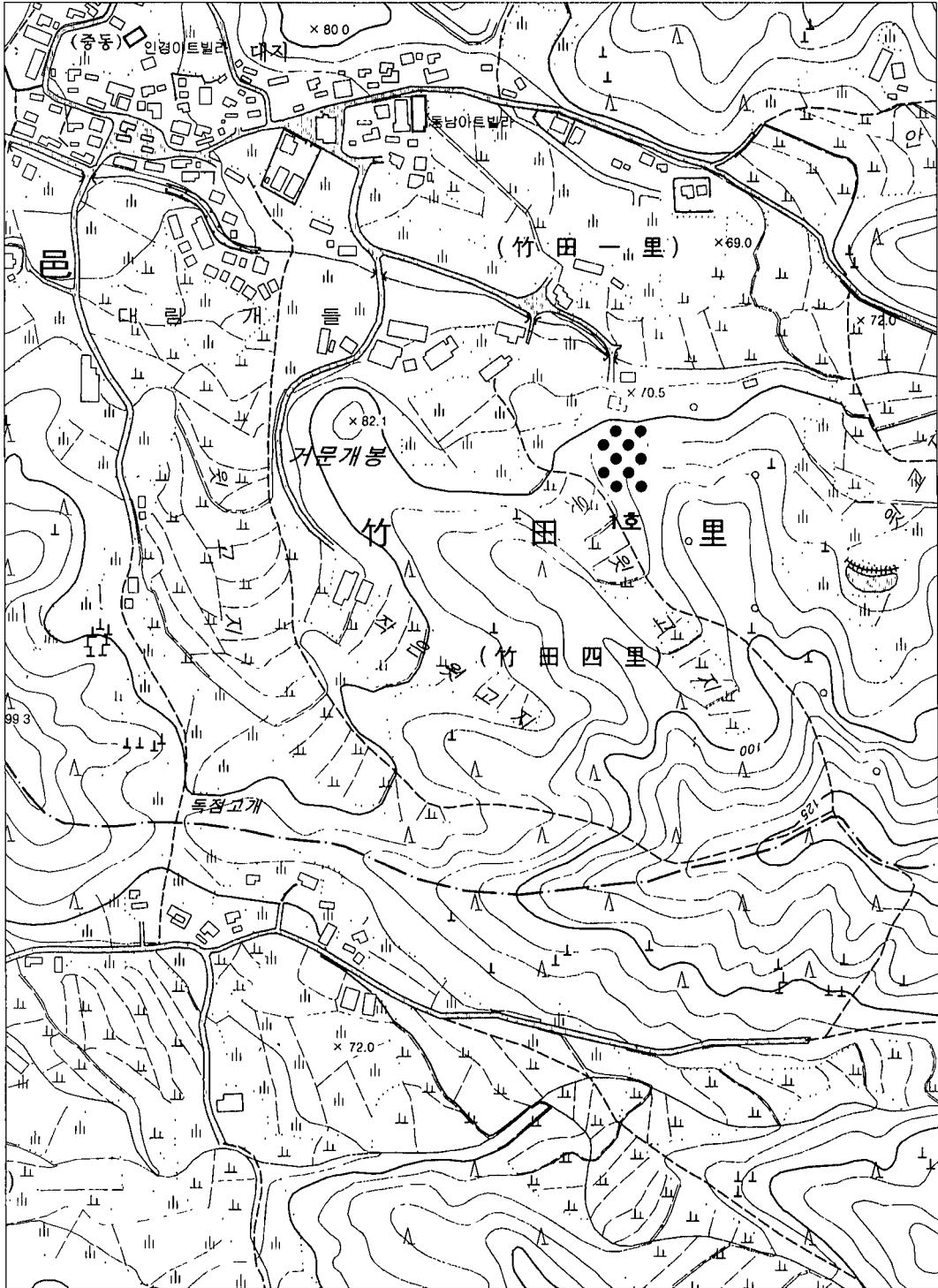




지도 7. 기흥읍 지곡리 1호 요지



지도 8. 기흥읍 지곡리 2·3호 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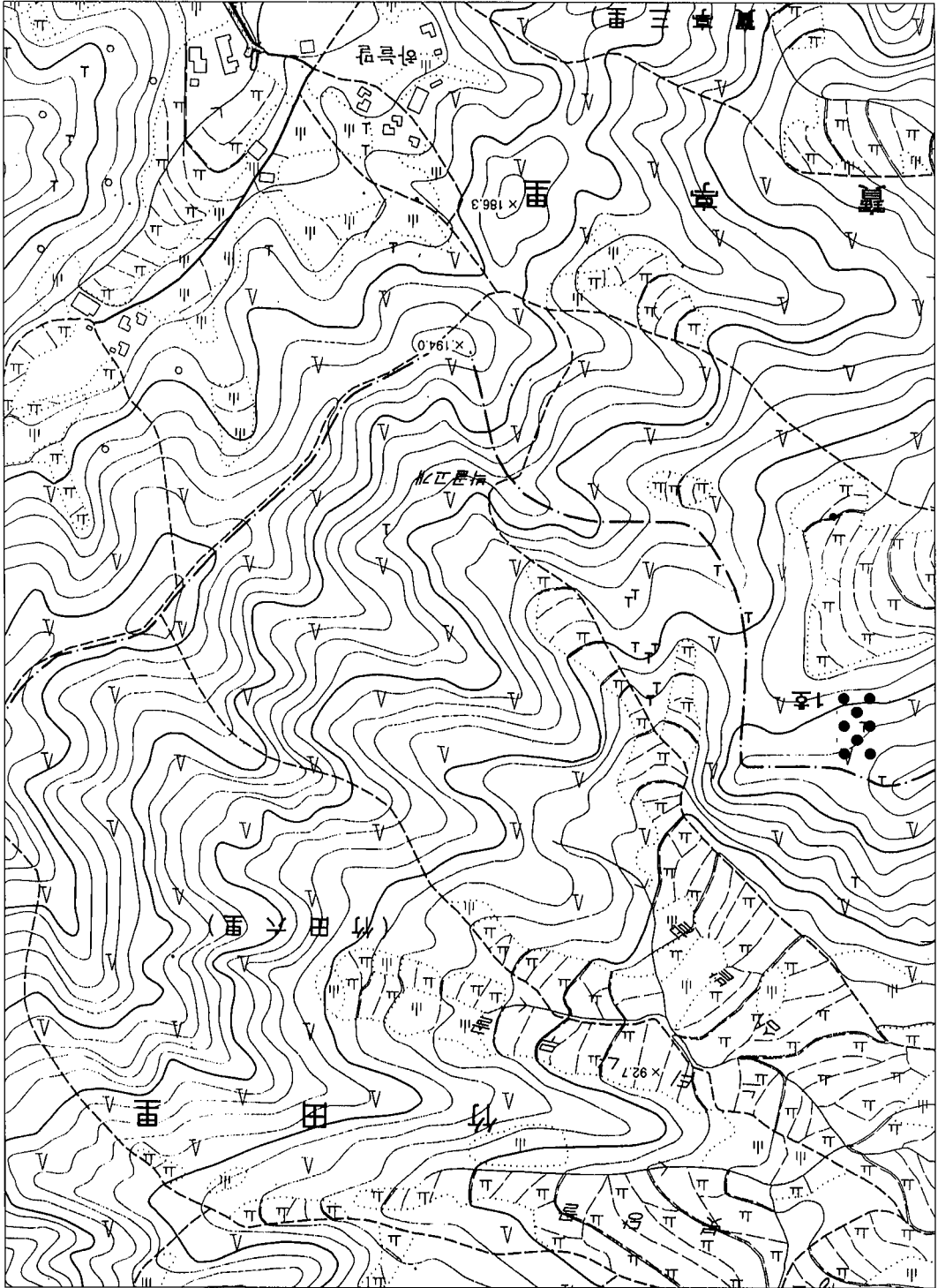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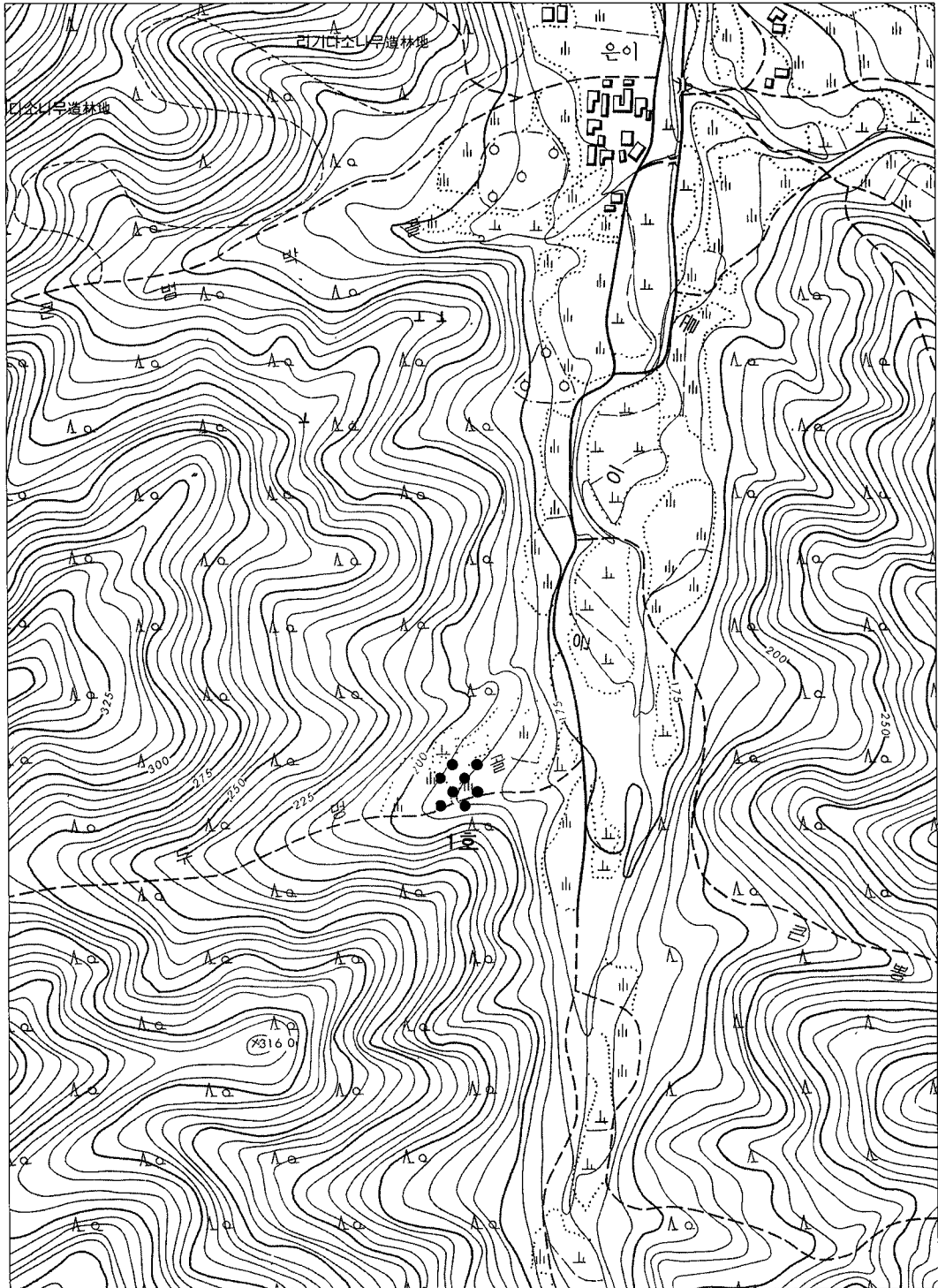
지도 9. 수지읍 죽전리 1호 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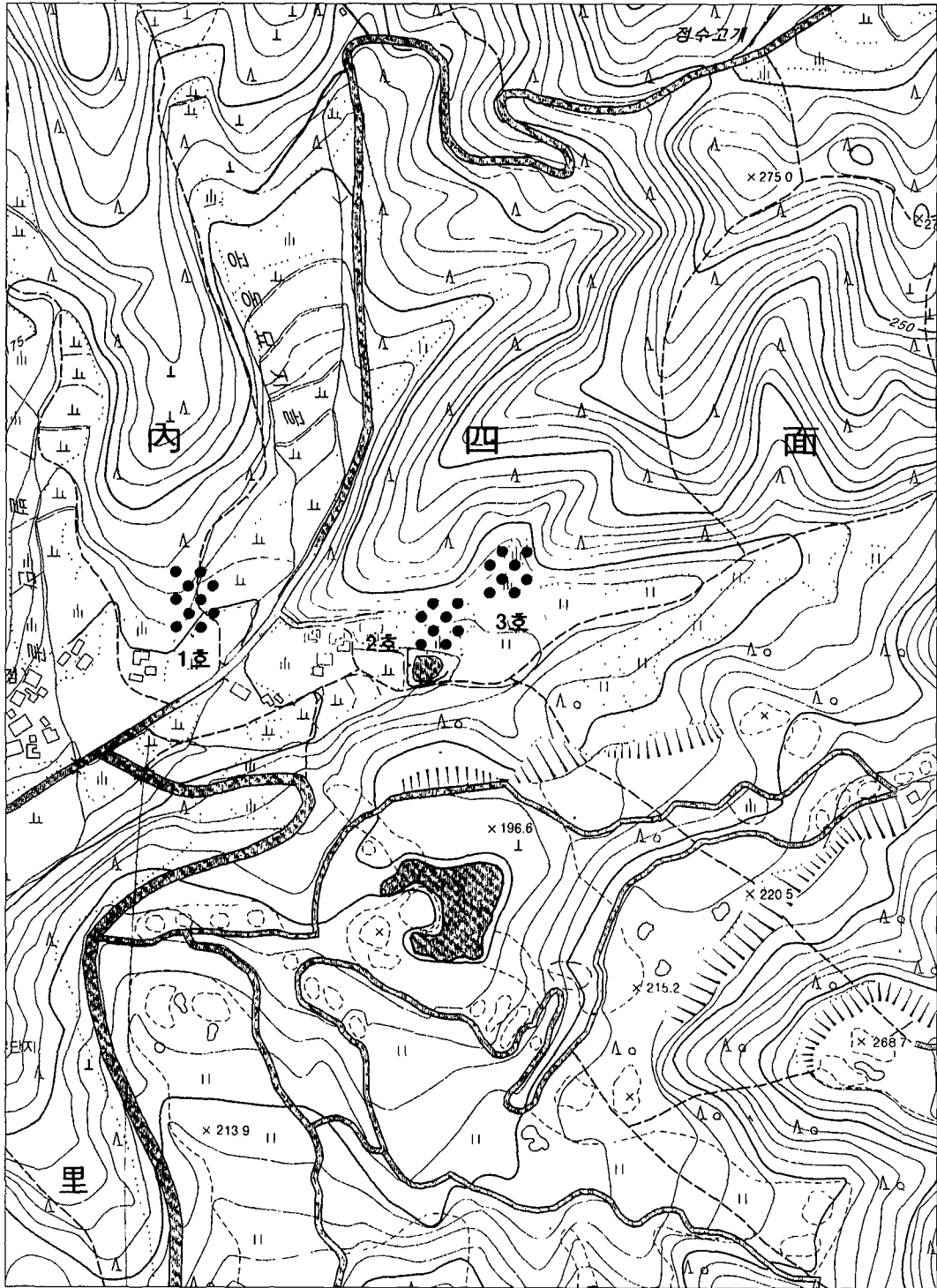
지도 10. 수지읍 신봉리 1호 요지

지도 11. 구룡면 보성리 일대 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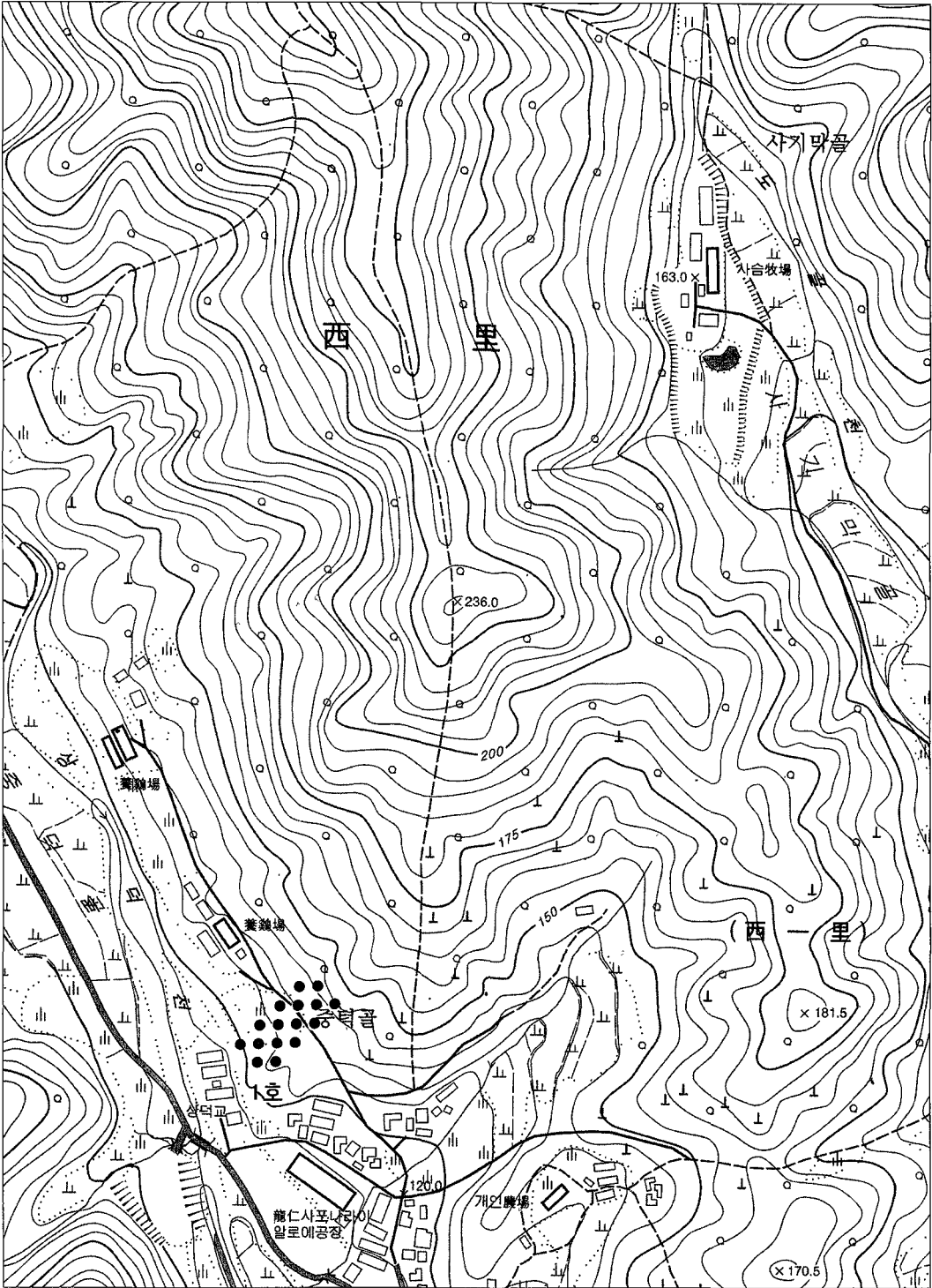




지도 12. 양지면 남곡리 1호 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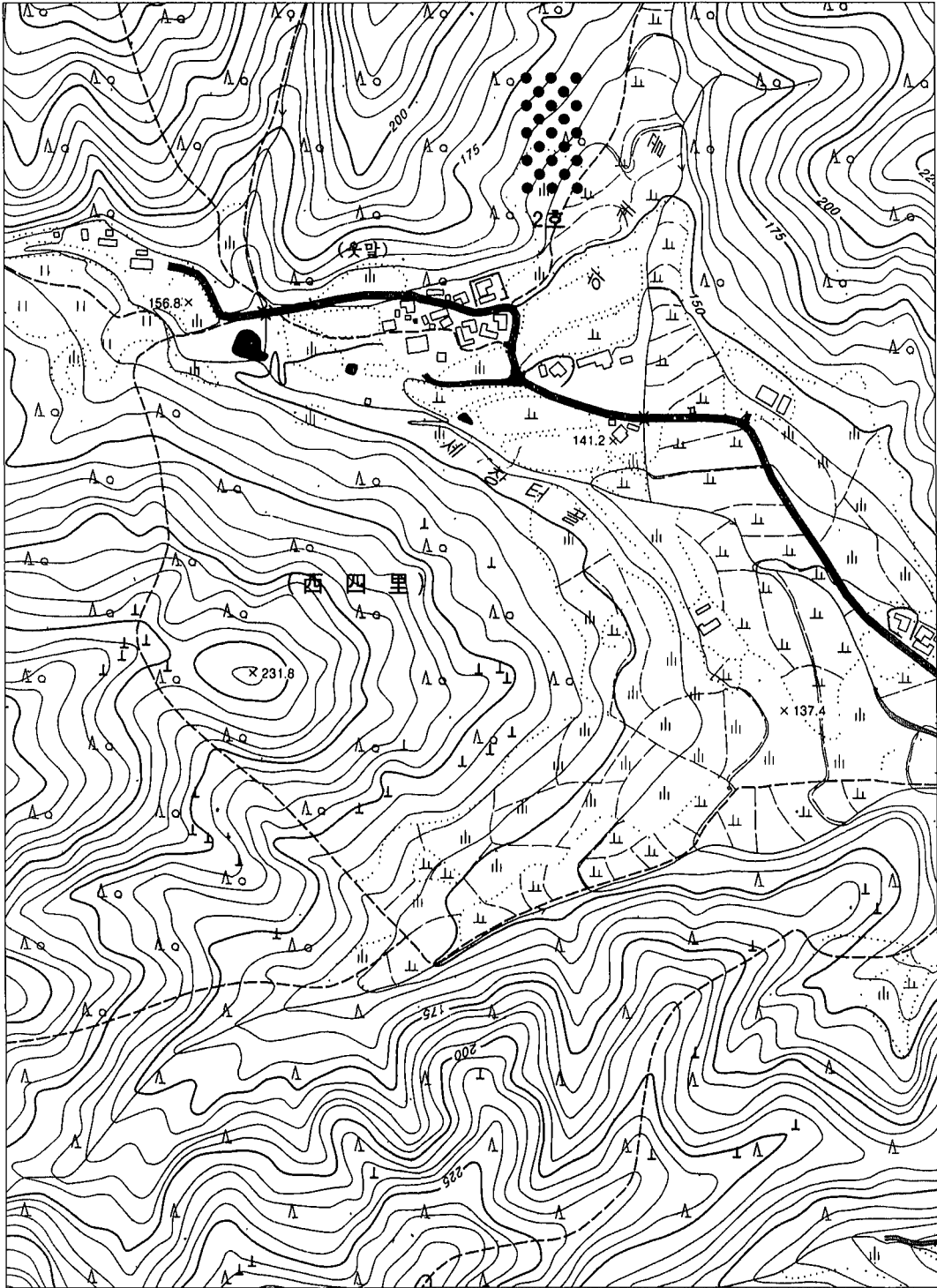


지도 13. 양지면 대대리 1·2·3호 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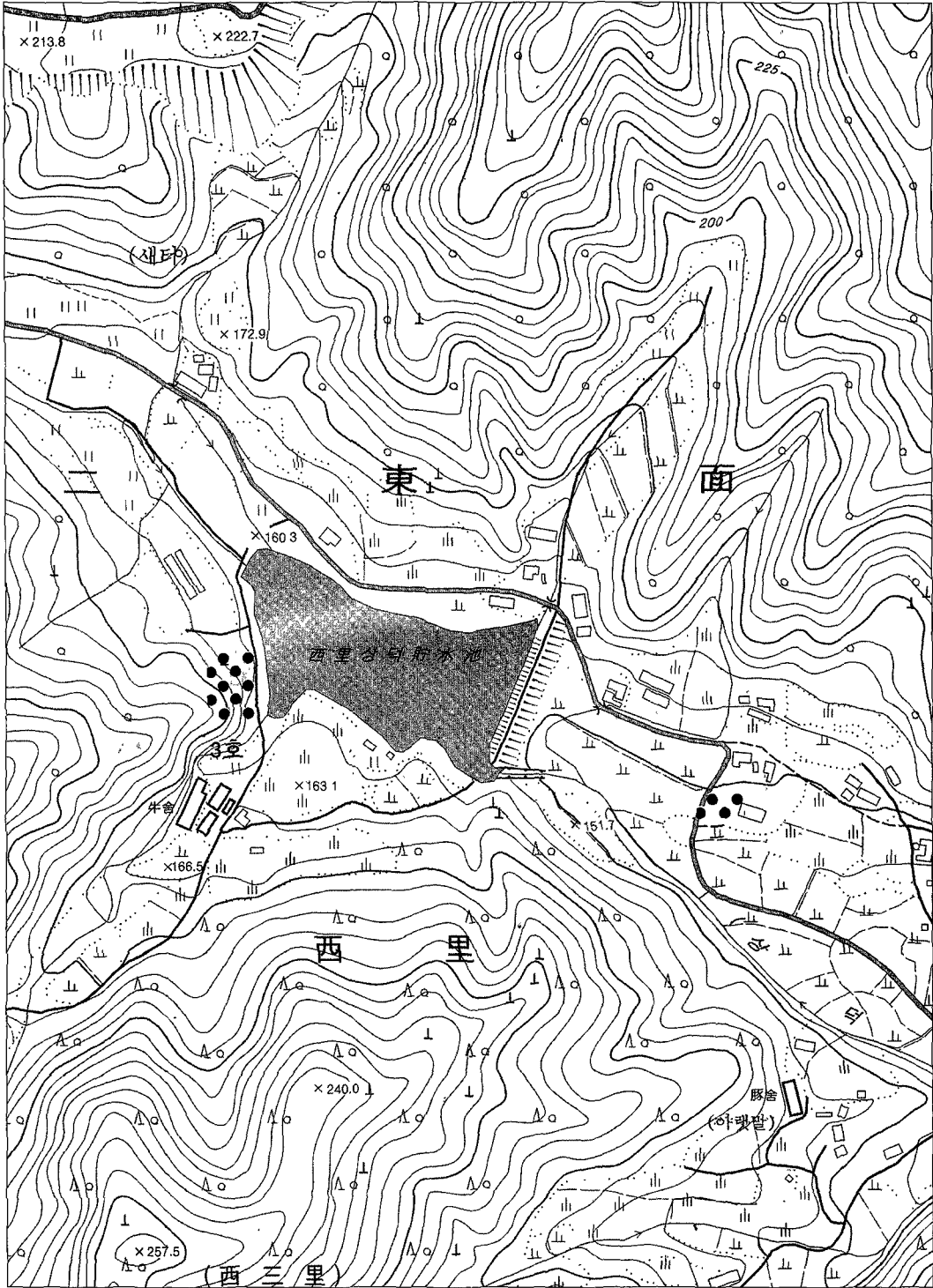


지도 14. 이동면 서리 1호 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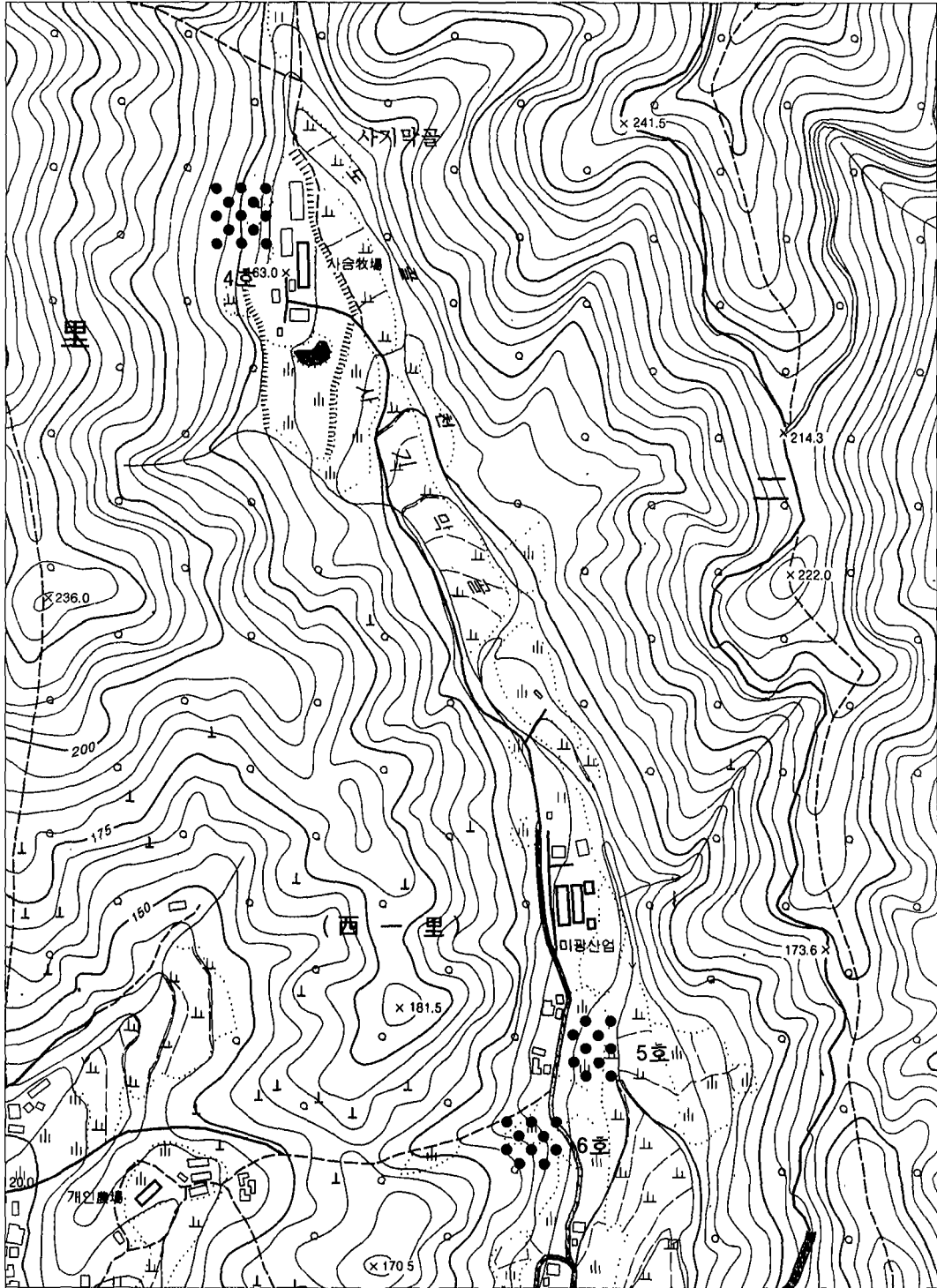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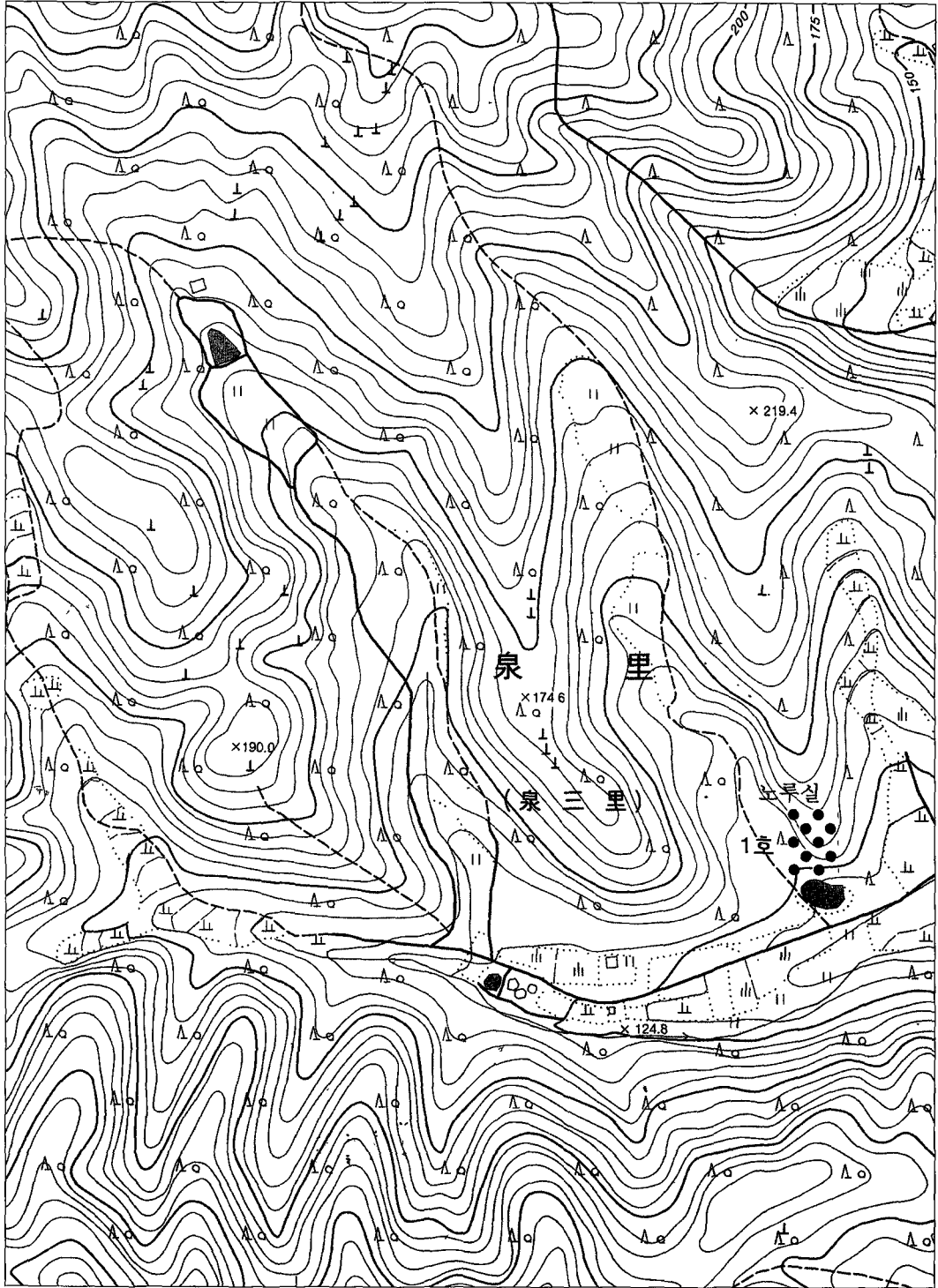
지도 15. 이동면 서리 2호 요지



지도 16. 이동면 서리 3호 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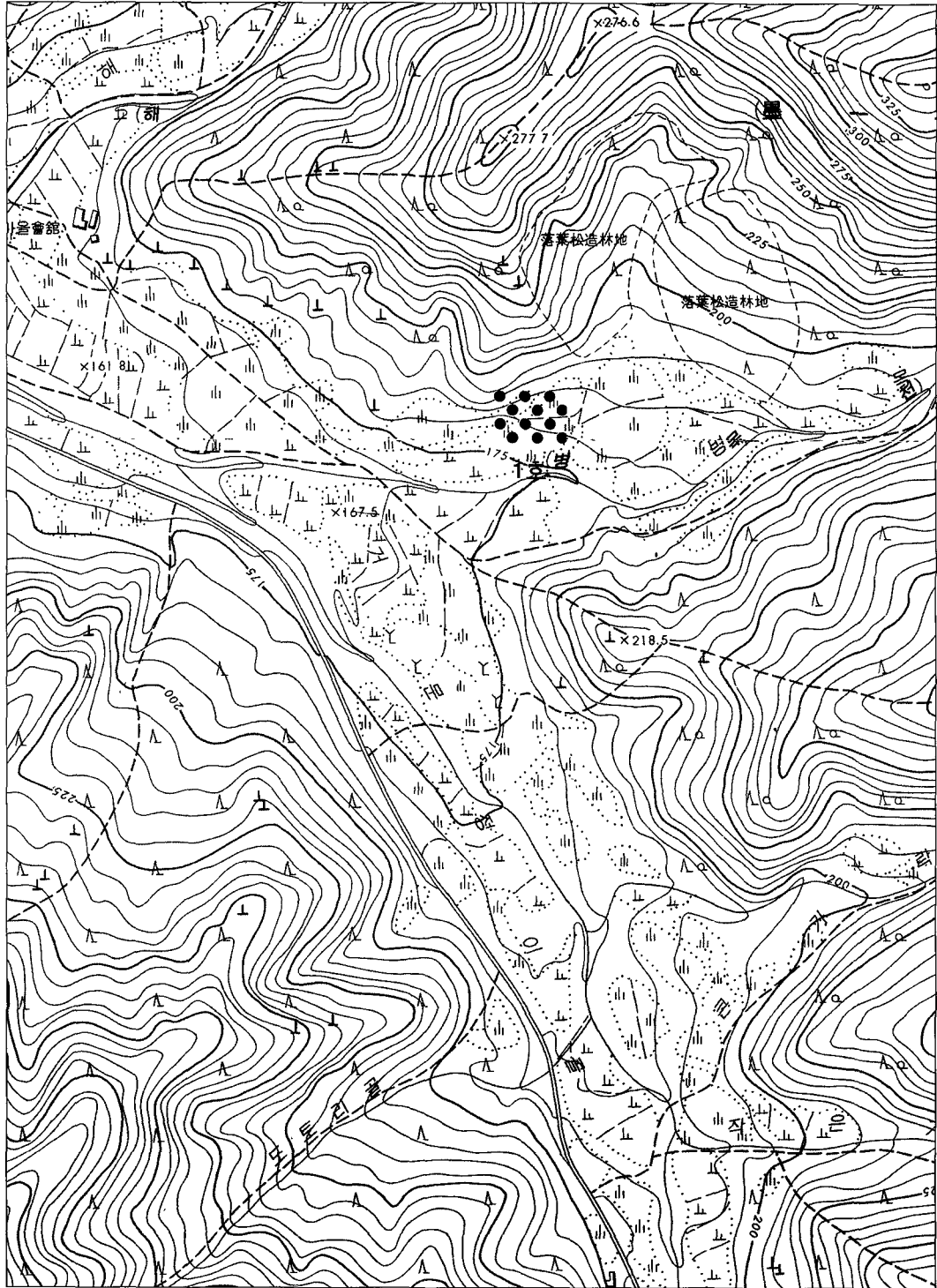
지도 17. 이동면 서리 4·5·6호 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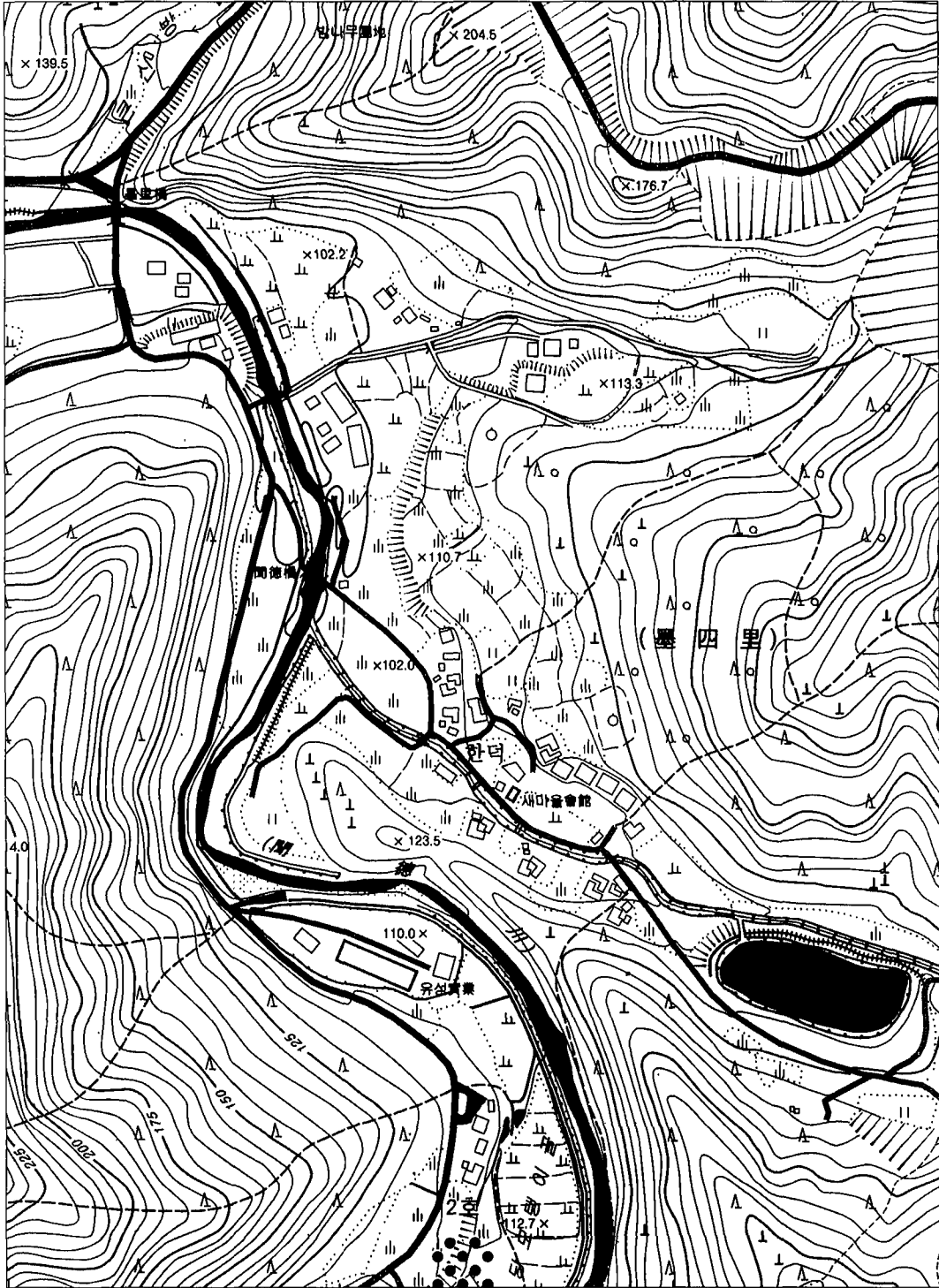
지도 18. 이동면 천리 1호 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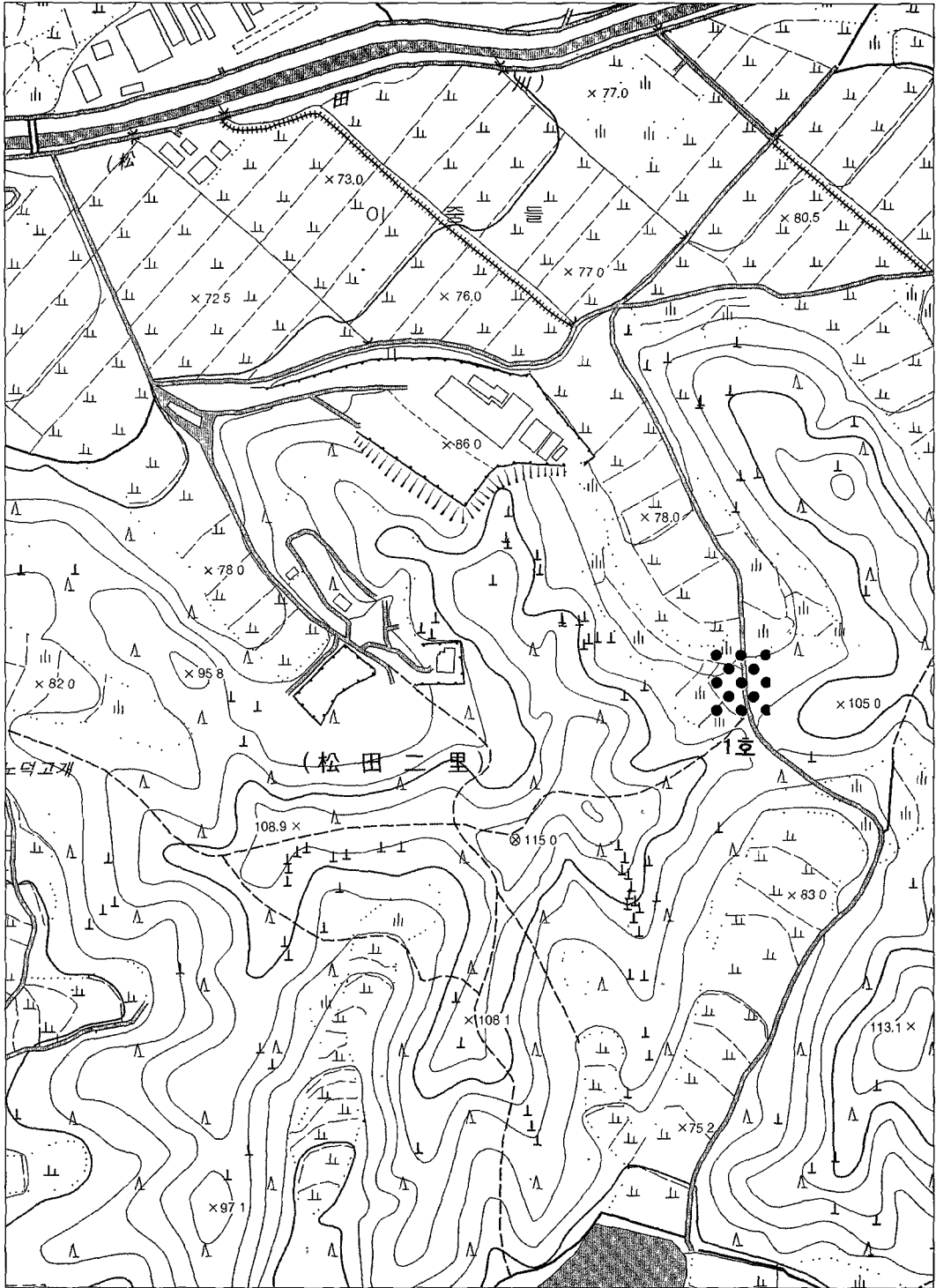
지도 19. 이동면 천리 2호 요지



지도 20. 이동면 묵리 1호 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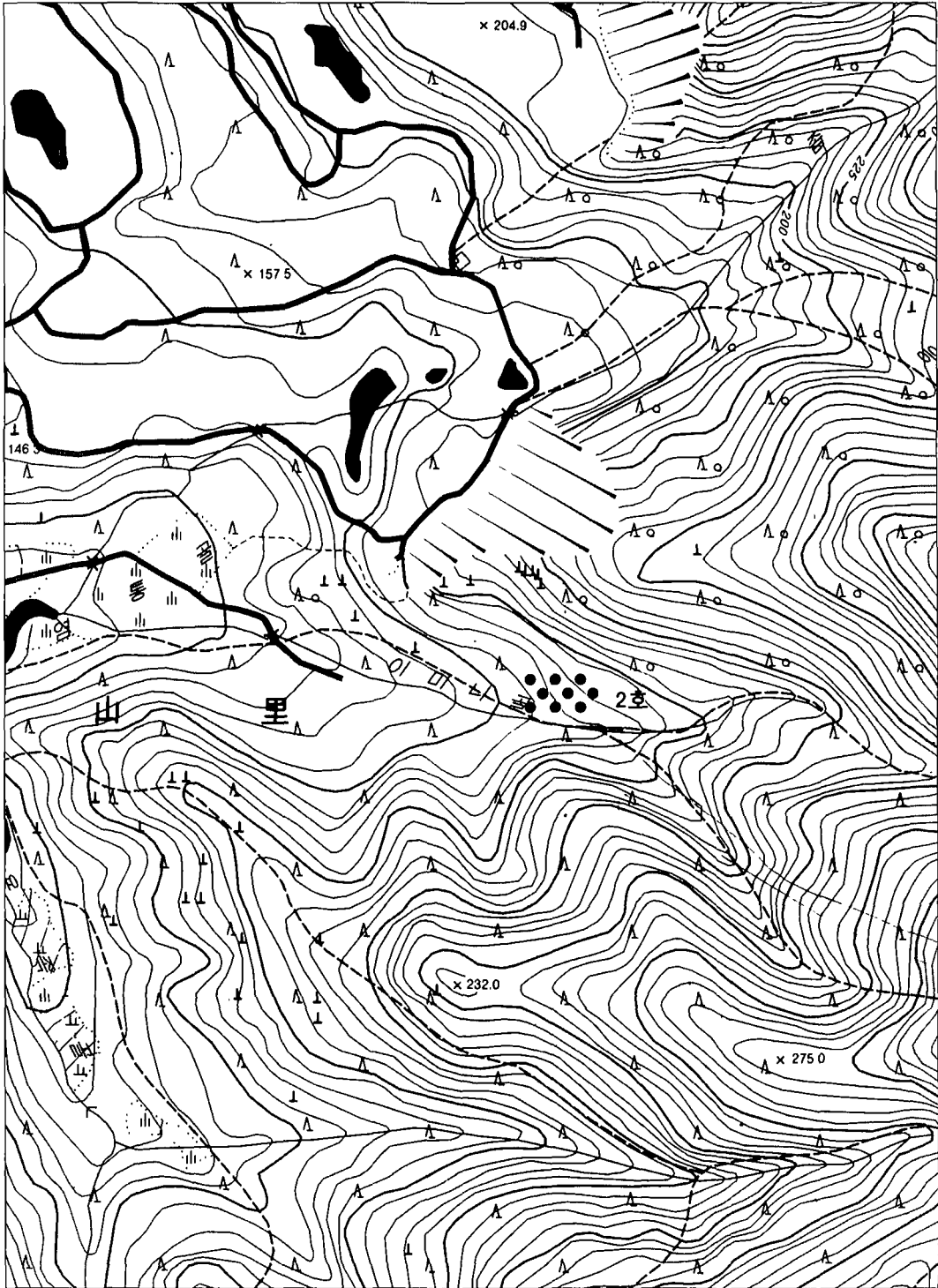


지도 21. 이동면 묵리 2호 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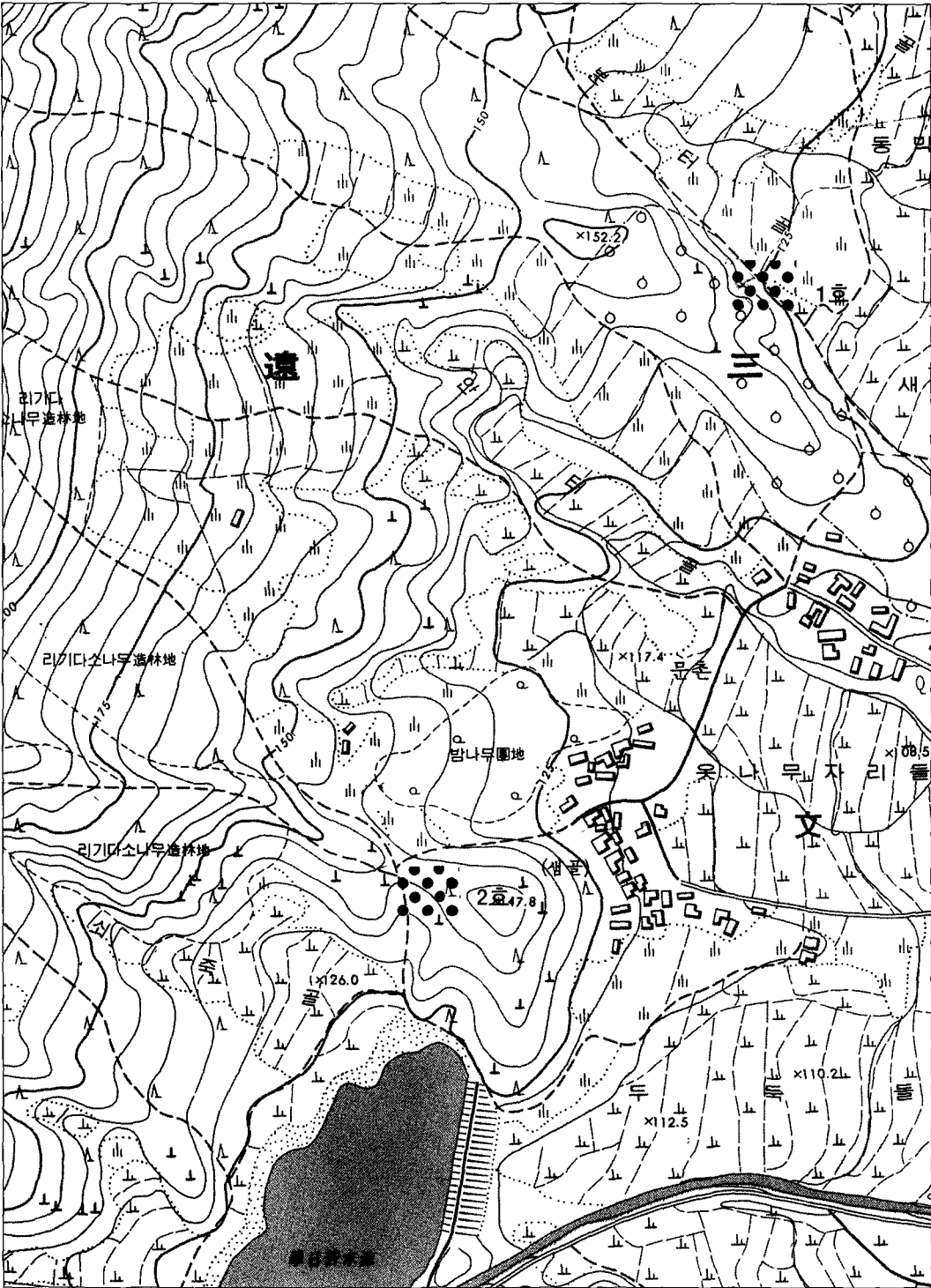


지도 22. 이동면 화산리 1호 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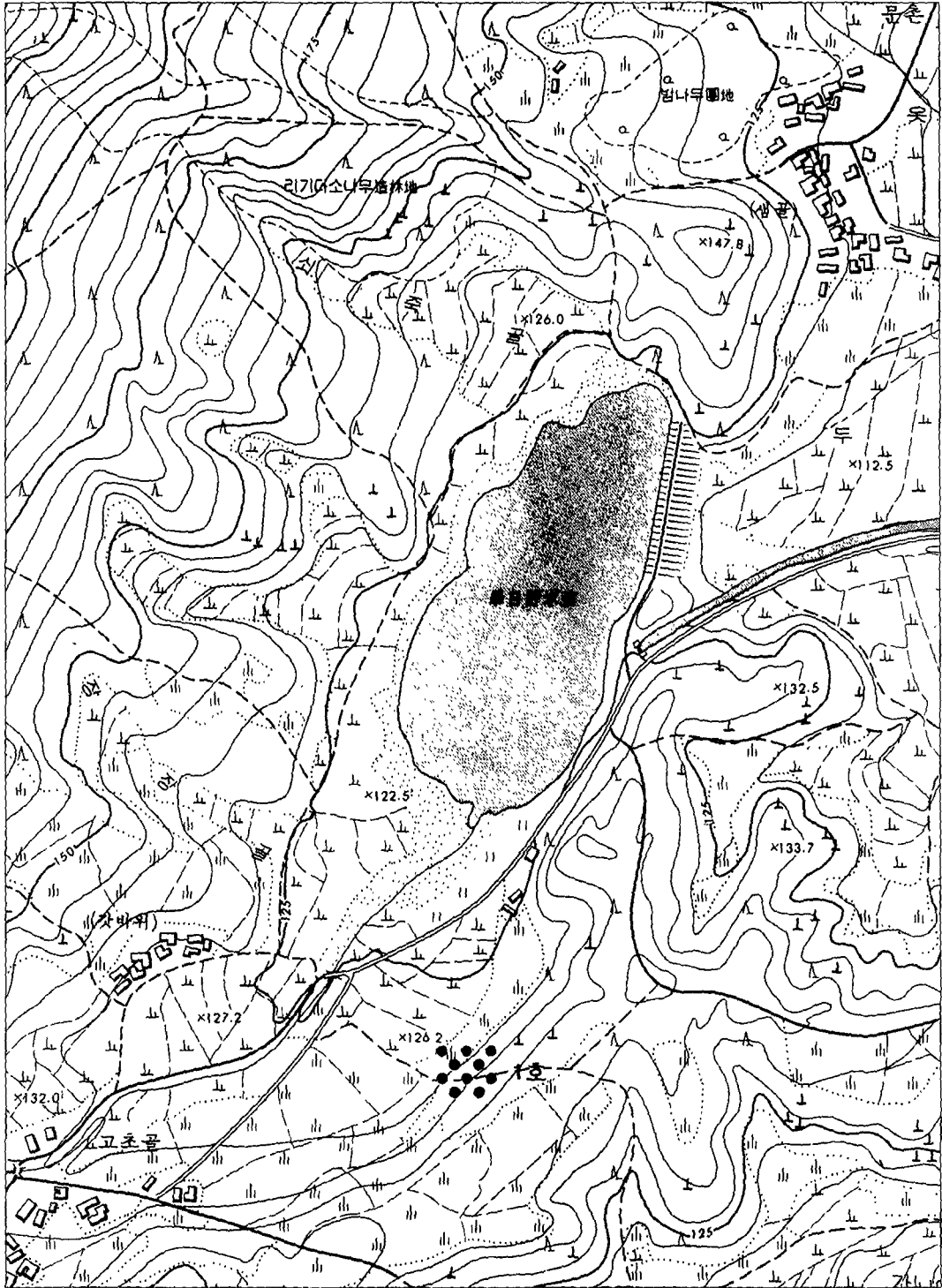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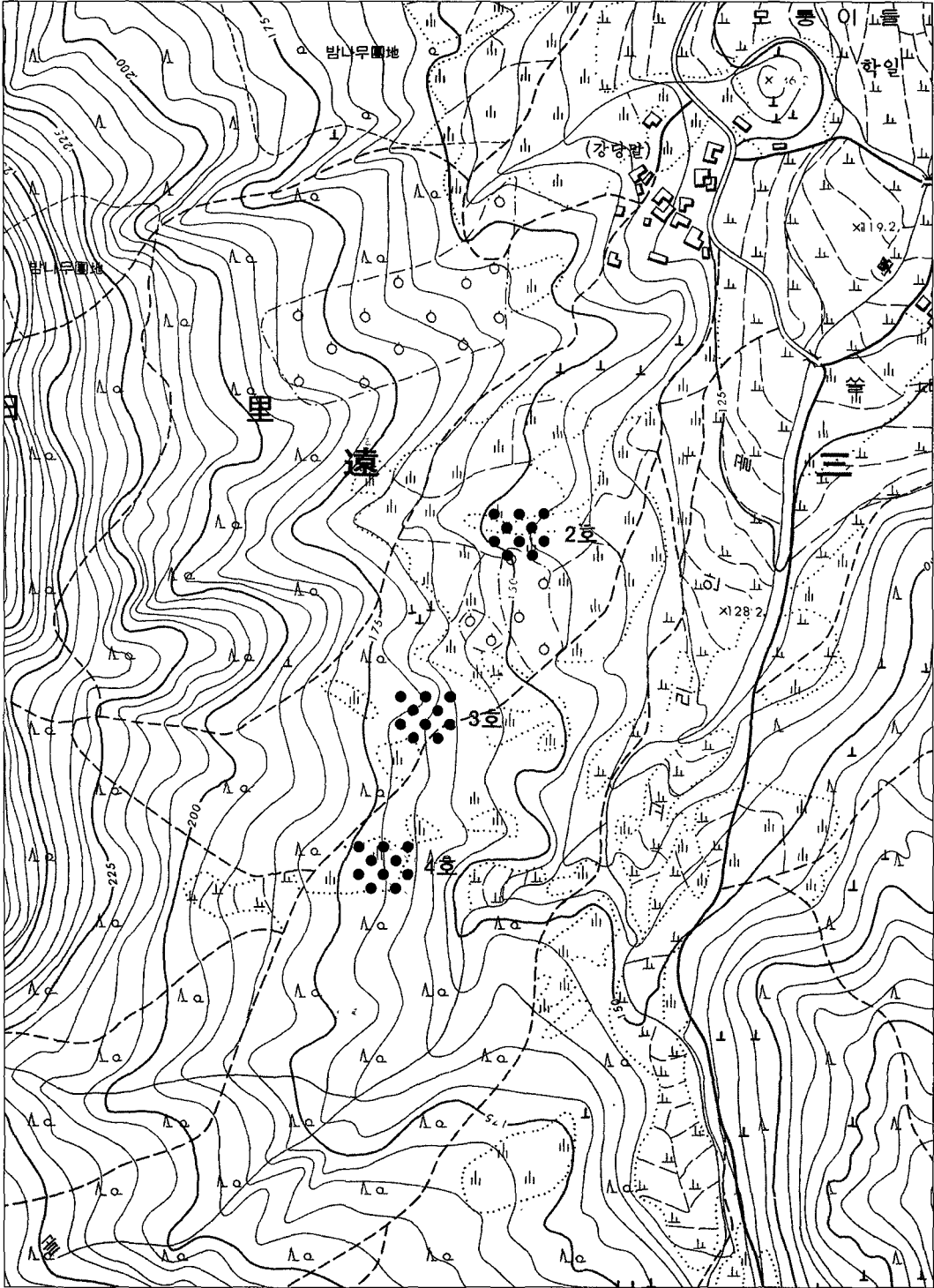
지도 23. 이동면 화산리 2호 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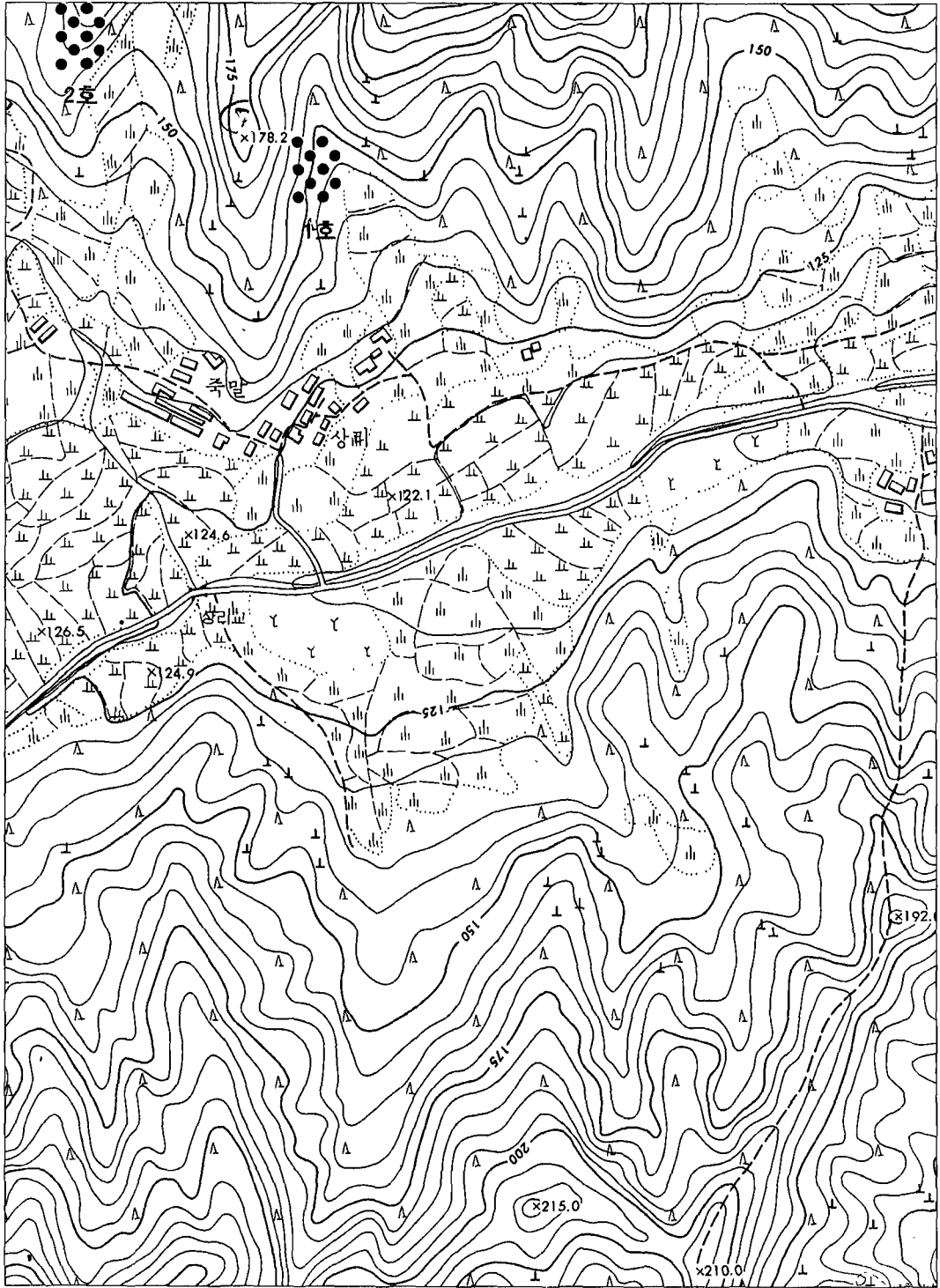
지도 24. 원삼면 문촌리 1·2호 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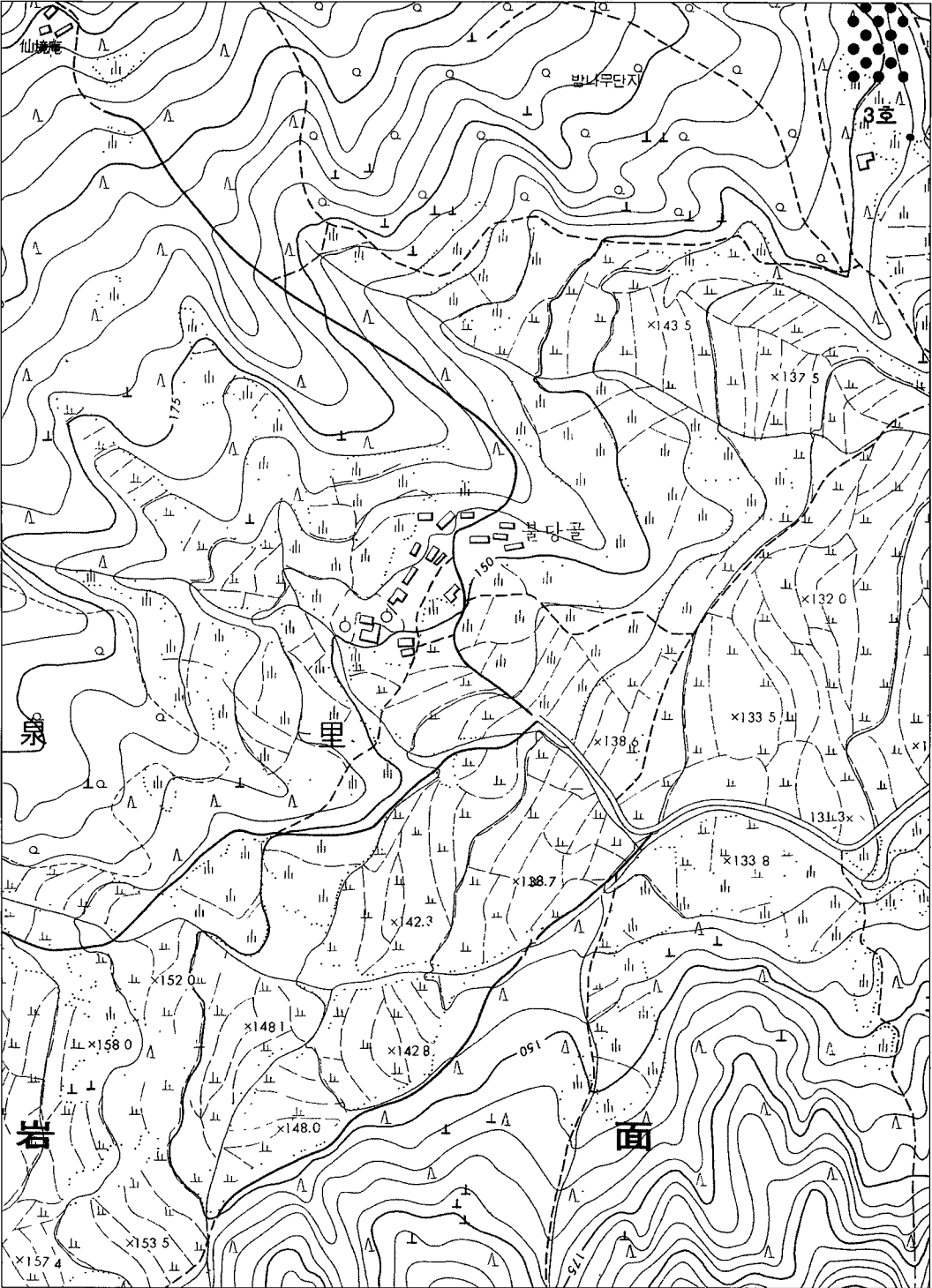
지도 25. 원심면 학일리 1호 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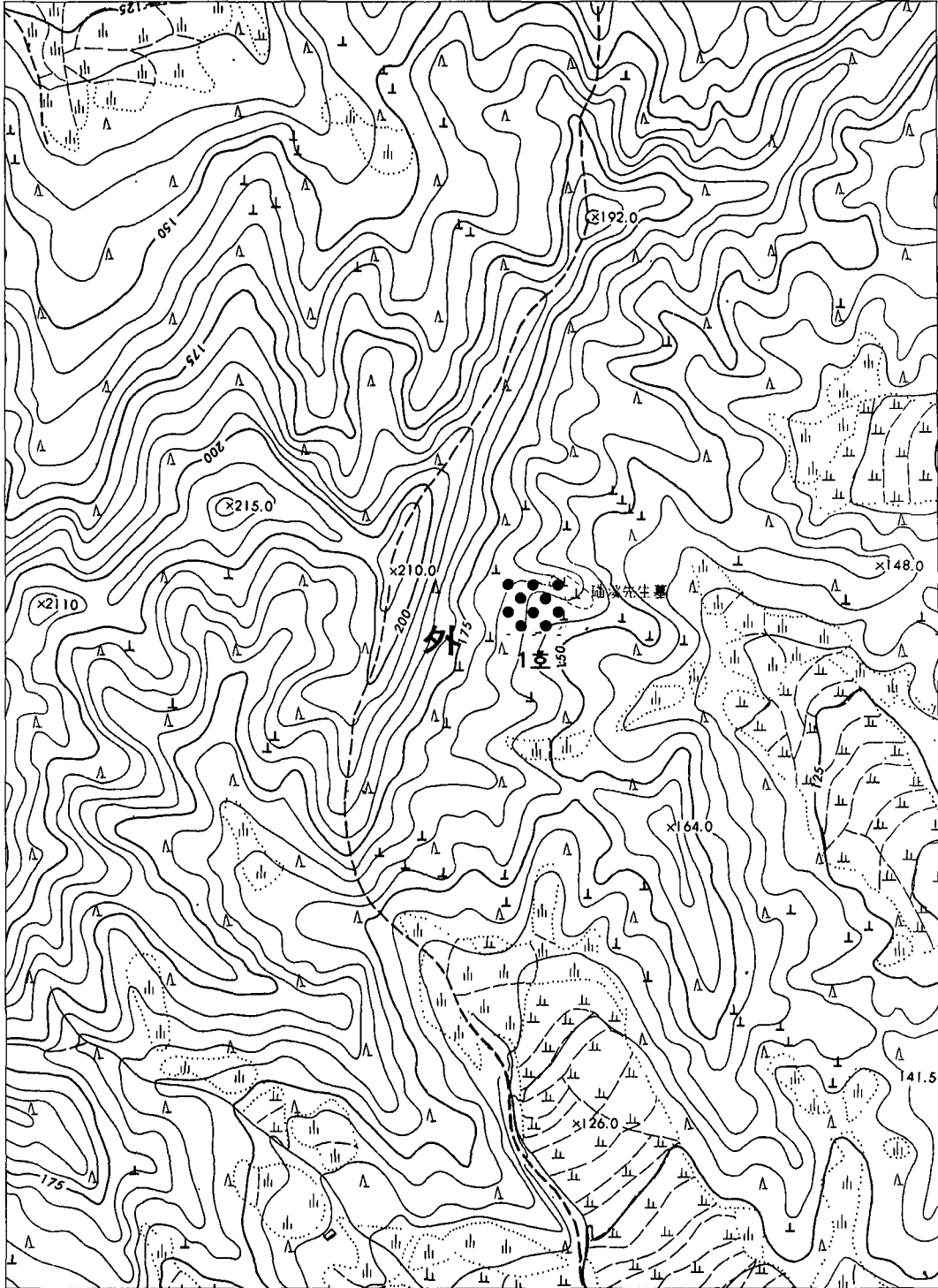
지도 26. 원삼면 학일리 2·3·4호 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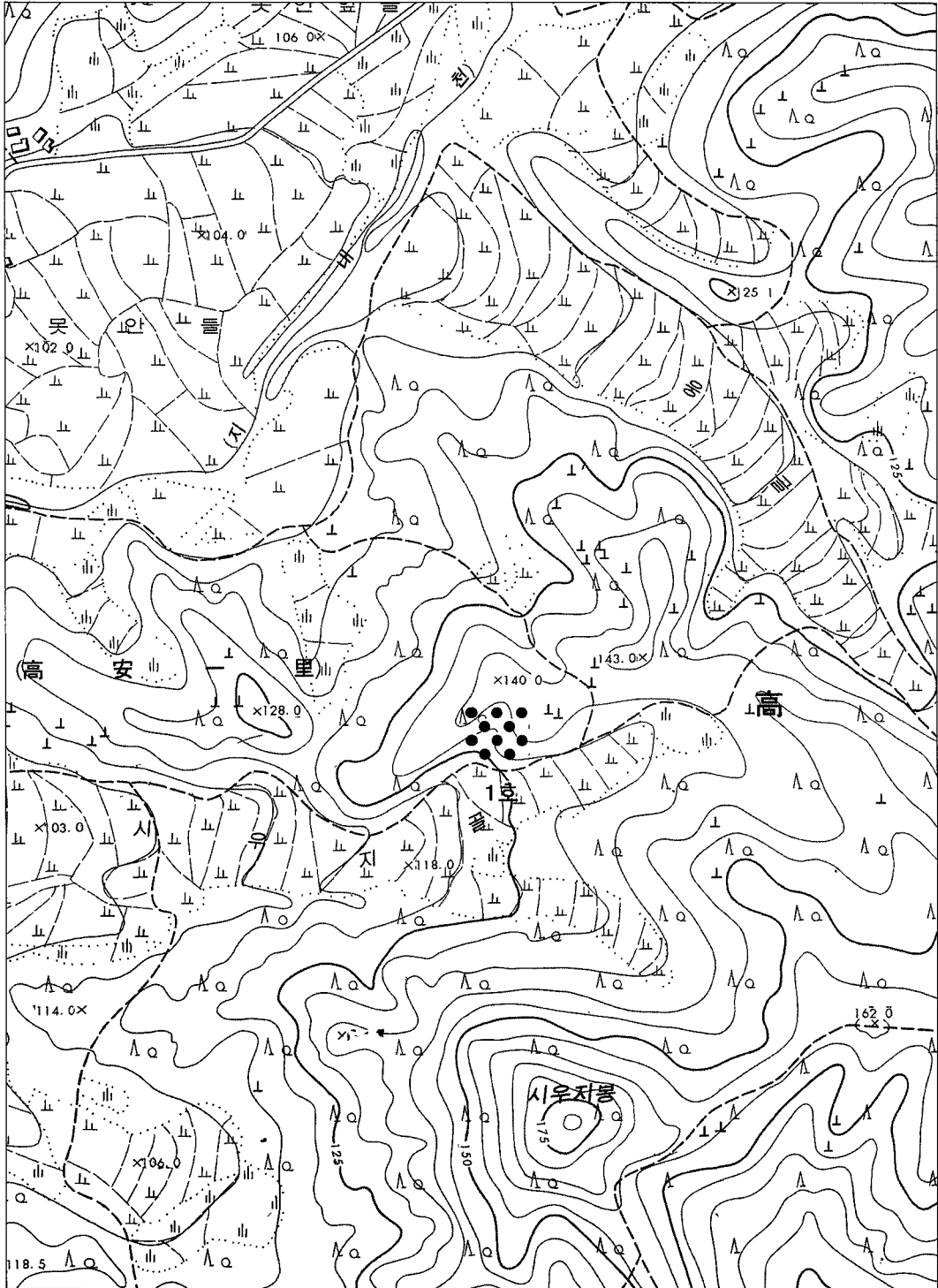
지도 27. 백암면 용천리 1·2호 요지



지도 28. 백암면 용천리 3호 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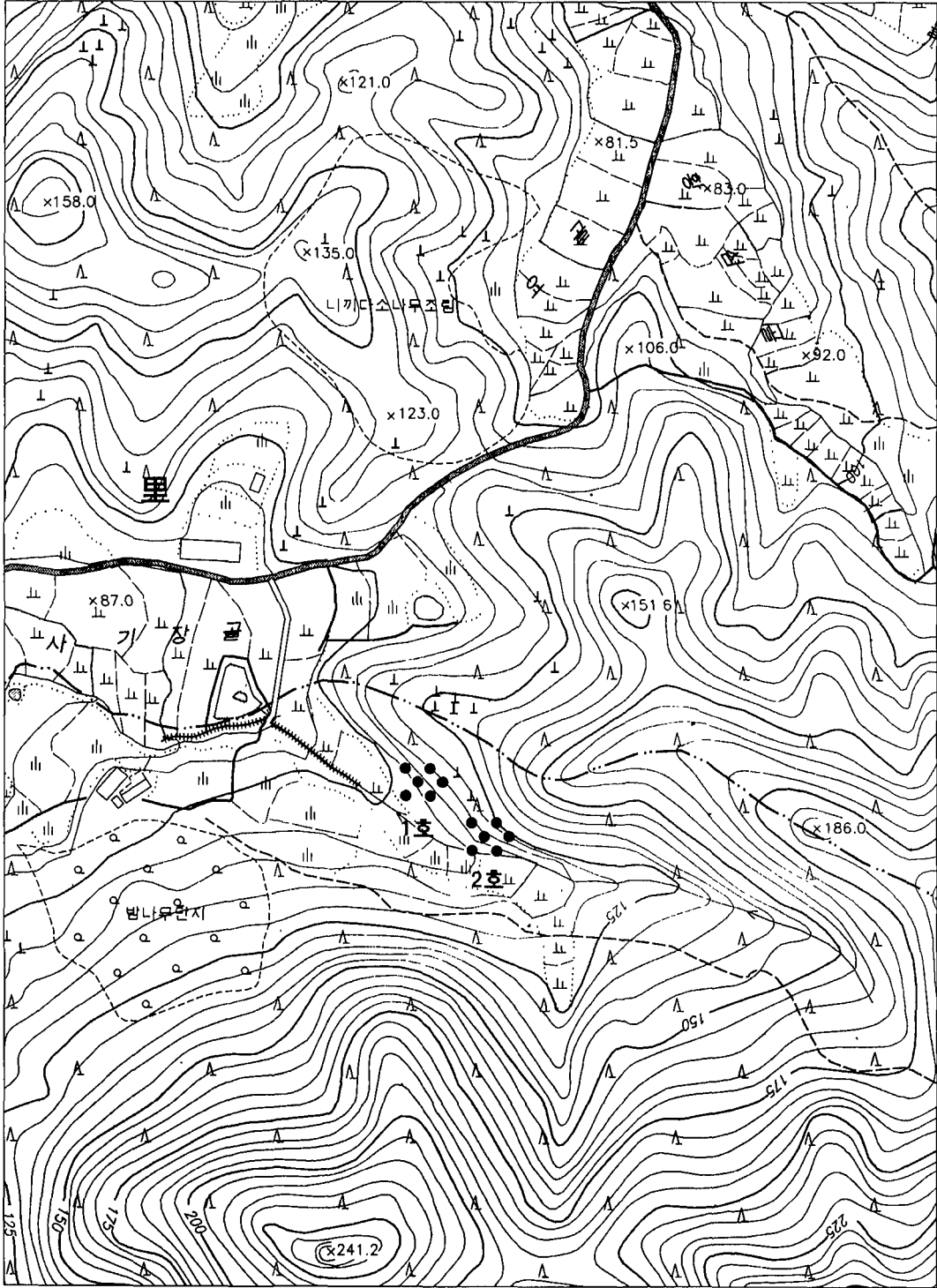


지도 29. 백암면 석천리 1호 요지



지도 30. 백암면 고안리 1호 요지





지도 31. 남사면 원암리 1·2호 요지



## 부 록

### I. 冶鐵址

1. 虎洞 冶鐵址
2. 遠三面 學日里 冶鐵址

### II. 陶窯址

1. 安城市 陽城面 山井里 窯址

이

박

# I. 冶鐵址

## 1. 虎洞 冶鐵址

- 1) 성 격 : 조선시대 야철지
- 2) 위 치 : 57번 지방도로 우측편 호동 길업마을 남동쪽에 큰길업골이라 불리는 계곡 위치한 연안 김씨묘지의 주변에 위치하며, 지번으로는 산 95-1번지에 해당한다.(사진1-1, 지도1)
- 3) 현 상 : 유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곳의 원래 지형은 산 계곡부에 돌출된 구릉의 사면부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는 연안 김씨 묘소가 들어서면서 주변의 지형을 크게 변형시켜 놓아 製鐵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다.  
현재 묘지의 아래쪽 완사면에 상당량의 鐵滓, 爐壁片, 소량의 백자편, 도기편들이 산란되어 있으며, 수 십 미터 떨어진 개울가쪽까지 그러한 잔편들이 흘러내려와 있다.(사진1-2)

### 4) 유 물

#### ① 철재(사진1-3)

流出滓와 爐內滓가 모두 보이는데 前者는 다소 작게 부수어져 있는데 비해 후자는 상당히 큰 덩어리로 채집되었다.

#### ② 노벽편(사진1-3)

채집된 세 점 모두 내부는 흑색으로 유리질화되었으며, 외부는 붉거나 흑회색으로 타버린 점토부분으로 되어 있다. 태토의 내부에는 상당히 많은 석립이 섞여 있으며 큰 것은 두께 6cm 정도로 남아 있다.

#### ③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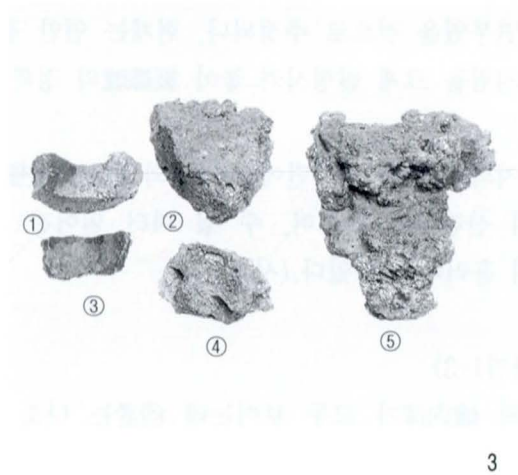
조선 후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백자편 2점과 도기편 4점도 함께 채집되었다.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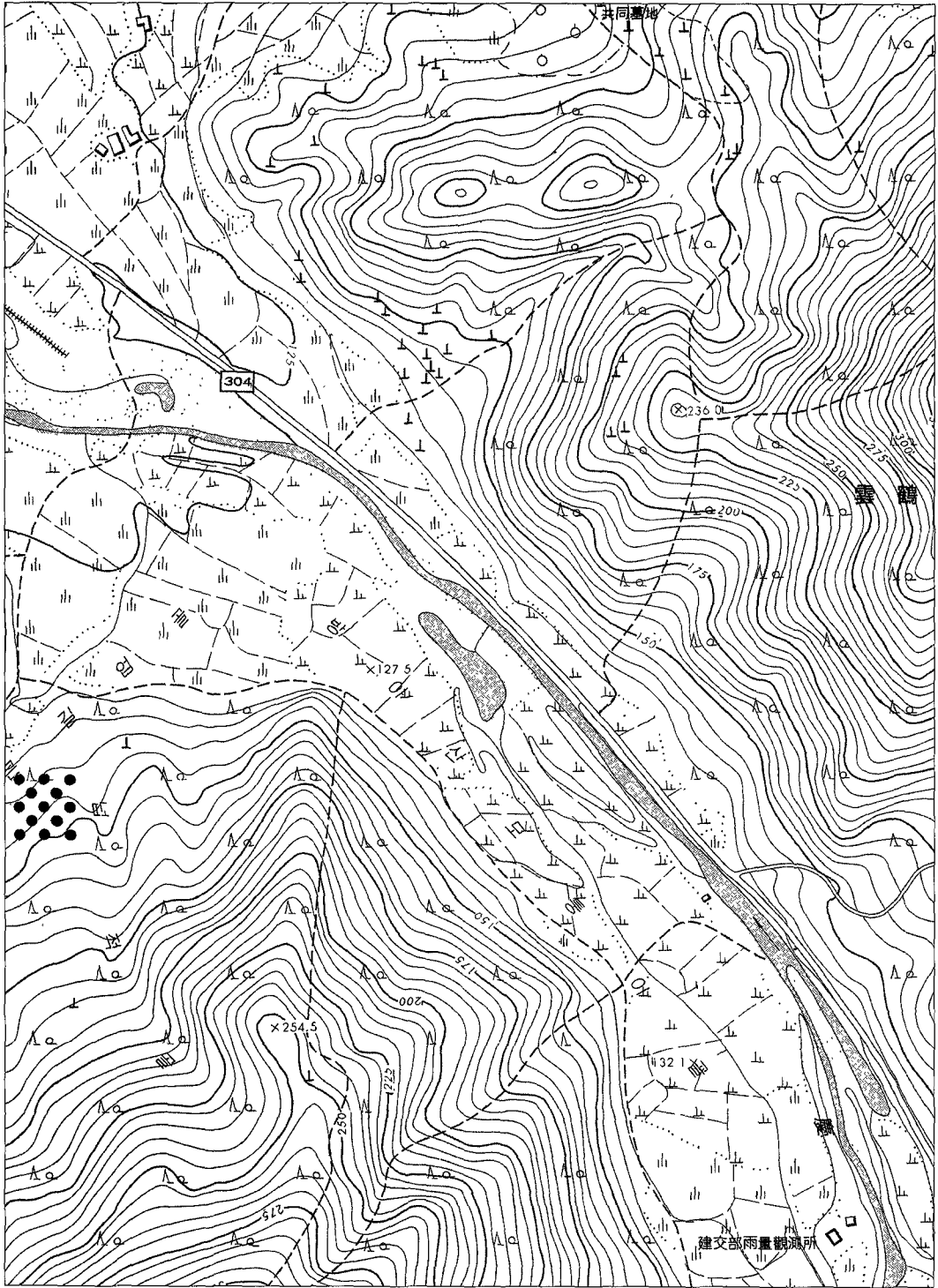


3

사진 1. 호동 야철지

## 2. 遠三面 學日里 冶鐵址

- 1) 성 격 : 조선시대 야철지
- 2) 위 치 : 고초골저수지에서 남서쪽으로 계곡을 따라 약 1,100 미터 들어간 산사면 아래의 작은 개울과 그 오른쪽의 완사면에 걸쳐 위치한다. 지번은 산 121-11임일대에 해당한다.(사진2-1, 지도2)
- 3) 현 상 : 작은 개울을 따라 철재가 흩어져 있으며, 개울의 오른쪽 단애면 두 지점에 철재, 노벽편 등이 상당히 두껍게 퇴적되어 있다. 그리고 약간 높은 위치에 있는 개울 좌측편의 발 일부에도 작게 부수어진 철재가 흩어져



지도 1. 호동 야철지

있다. 이러한 유물들의 산포상태를 볼 때 개울 우측의 완사면이 제철작업장이고 왼쪽의 받지역은 생활공간이 아니었나 일단 추정된다.(사진 2-2)

#### 4) 유 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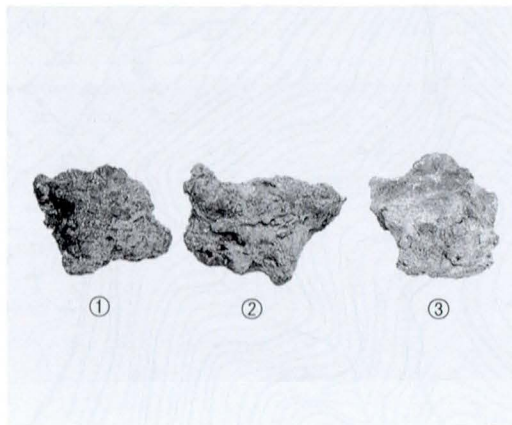
- ① 철재(사진2-3) : 유출재와 노내재가 모두 보인다.
- ② 노벽편(사진2-3) : 내부는 유리질화되어 있으며, 외부는 적갈색 혹은 흑회색으로 소성된 점토부분으로 되어 있다. 태토의 내부에는 상당히 많은 석립이 포함되어 있으며, 바깥쪽이 상당히 탈락되어 현재의 두께가 2cm 정도에 불과하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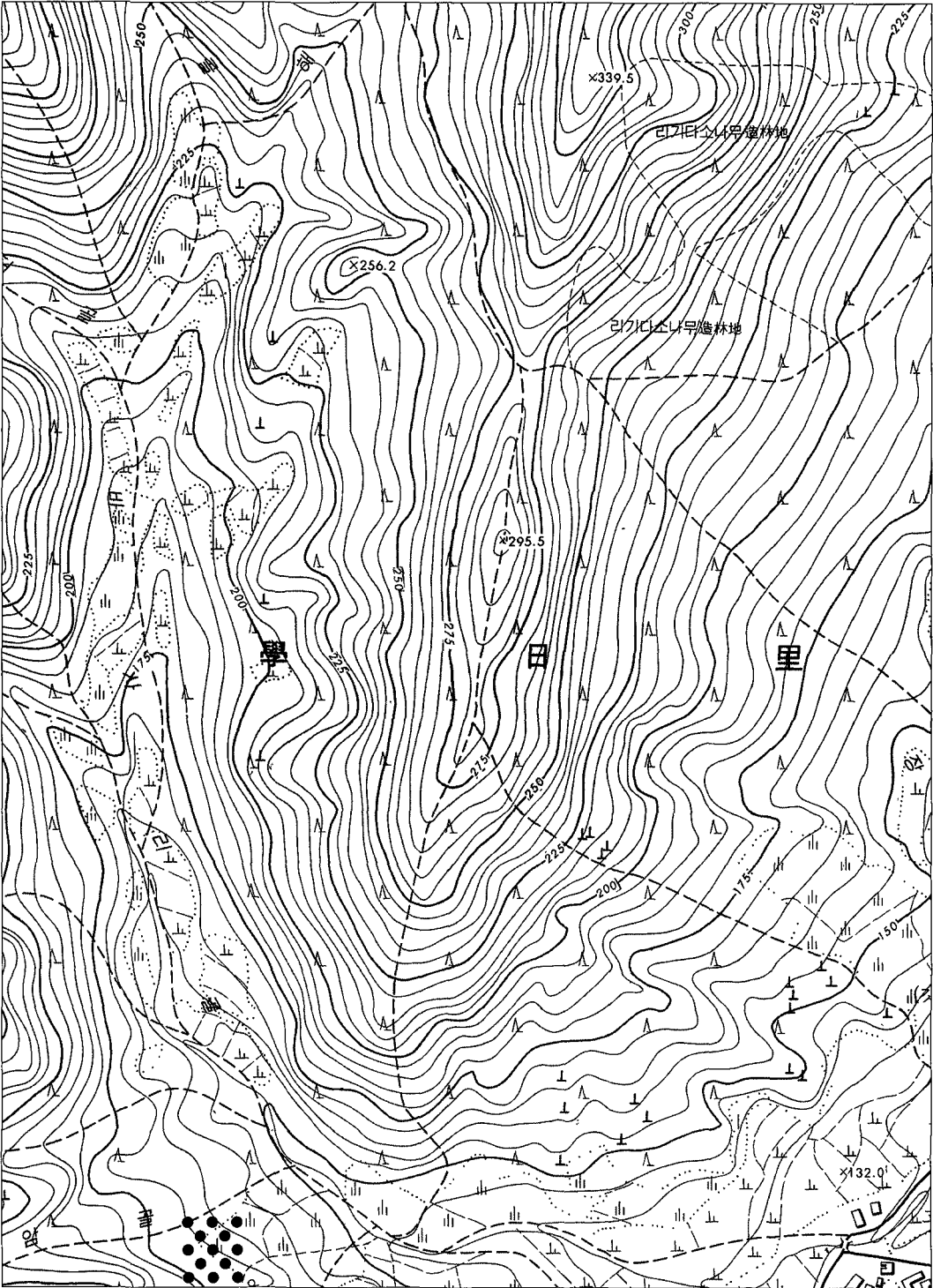


2



3

사진 2. 학일리 아철지



지도 2. 원삼면 학일리 야철지



이상의 두 야철지는 유출재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1차적인 제철을 행하던 유적임이 분명한데, 문제는 어떠한 종류의 원료를 사용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이 일대에서 철광석이 산출되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 아마도 소하천에서 채집한 사철을 원료로 하여 철소재를 생산하였던 곳이 아닌가 추정된다.

이러한 야철지는 용인시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것인 만큼, 그 의미는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차후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유적의 보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조속한 시일내에 시굴조사나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그 성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 II. 陶 窯 址

### 1. 安城市 陽城面 山井里 요지

- 1) 성 격 : 朝鮮 17世紀 (鐵畫)白磁窯址
- 2) 위 치 : 안성저수지의 우측 위쪽으로 약 250여 미터지점에서 소로와 임야가 접하는 부분에 위치한다.(사진3-1, 지도3)
- 3) 현 상 : 임야에 위치하고 있지만, 최근 도로공사로 인하여 파편의 퇴적이 훼손되어 다량의 백자편이 단애면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주차장 시설로 만들어 놓은 곳에 백자파편들이 흩어져서 확인되고 있다. 유적의 범위는 폭이 15 미터이며 상하의 길이가 10여 미터로 많이 훼손되어 있다.(사진 3-2)
- 4) 유 물 : 다수의 (鐵畫)白磁파편과 窯道具가 수습되었다.
  - (1) 白 磁 : 다양한 형태의 대접과 접시, 잔이 주류를 이루며, 철화백자도 소수 수습되었다. 양질의 백토로 제작되었다. 유색은 대부분 회백색을 띤다.
    - 大 椀 : 형태와 크기에 따라 네 개의 종류로 나뉜다.
      - ①(사진3-3-①, 도면1-1) : 구연이 외반하고 몸체의 기벽이 수직하다가 저부에서 곡면을 그리며 굽으로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에는 작은 원각이 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이다. 굽은 높이가 낮고 직경이 넓으며,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얇게 깎았으며 굽안쪽에서 언저리까지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갈회색의 유가 씌워졌으며,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 ②(사진3-3-②, 도면1-2) : 구연이 외반하고 몸체의 기벽이 사선을 그리다가 저부에서 부드럽게 꺾여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에는 원각이 있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이다. 굽은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고르고,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안바닥을 편평하게 깎았으며, 바닥에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는 투명한 회백색의 유가 씌워졌으며,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 ③(사진3-3-③, 도면1-3) : ②번의 대접과 유사한 형태이지만, 전체의 크기가 크고 안바닥에 원각이 없다. 굽은 높이가 낮고 직경이 넓으며, 깎음

새가 다소 거칠고 둔중하다. 굽안바닥을 얇게 깎았으며, 바닥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는 투명한 백유가 씌워졌으며,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 ④(사진3-3-④, 도면1-4) : 구연과 몸체의 기벽이 직립하다가 저부에서 예리한 각을 이루며 꺾여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기벽의 높이가 매우 낮다. 안바닥은 접시와 같이 넓고 편평하며, 표면에는 장식이 없다.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을 사용하였다. 굽은 높이가 높고 직경이 크며, 깎음새가 단정하다. 안바닥을 오목하게 깎아내고 바닥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은 백유를 시유하였으며, 윗면에는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 ⑤(사진3-4, 도면1-5) : 구연이 외반하는 대접이지만, 몸체와 굽의 형태는 확인할 수 없다. 표면에는 암적색의 철사안료로 표면에 草花와 같은 간단한 鐵畫裝飾을 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담청백색이나 회백색의 유약이 씌워졌으며, 빙렬은 없다.
- 栞匙 : 외반형 접시와 사선형 접시, 전접시 등이 수습되었으며, 형태와 크기에 따라 크게 세 종류로 나뉜다.
- ①(사진3-5-①·③~④, 도면1-9·11~12) : 구연과 몸체의 기벽이 사선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크기에 따라 大中小로 나눌 수 있다. 모두 표면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고,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을 사용하였다. 굽은 높이가 매우 낮고 접지면의 폭이 좁아, 몸체와 경계가 불분명하다. 안바닥까지 시유하였으며, 바닥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표면에는 회백색 계통의 유약이 시유되었으며, 윗면에는 모두 포개구이의 흔적이 있다.
- ②(사진3-5-②, 도면1-10) : 구연이 살짝 외반하고 몸체가 완만한 곡면을 이루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이다. 표면에는 장식이 없고,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이다. 굽은 높이가 매우 낮고 접지면의 폭이 좁으며 깎음새가 단정하다. 안바닥을 얇고 오목하게 깎아내었으며, 바닥에 굵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표면에는 회백색의 유약이 씌워졌지만, 발색이 고르지 못하다.
- ③(사진3-6-③, 도면1-8) : 구연에는 금속기와 같이 몸체에서 직각으로 외반된 폭이 좁은 전이 있으며, 기벽은 완만한 사선을 그리며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매우 넓고 높이가 낮은 전접시이다. 표면에는 장식

이 없고, 태토는 잡물이 없는 치밀질이다. 굽은 직립하며, 지름이 작고 접지면의 폭이 좁다. 굽안바닥을 오목하게 깎아내었으며, 바닥에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있고 투명한 회백색의 유를 얇게 씌웠으며, 윗면에는 번조시 생긴 잡물이 붙어 있다.

● 蓋 : 형태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뉜다.

①(사진3-6-②, 도면1-7) : 구연이 외반하고 몸체의 저부에서 부드럽게 꺾여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은 완만한 곡면을 이룬다. 장식은 없으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양질이다. 굽은 내경하며 높이가 비교적 높고, 접지면의 폭이 좁다. 안바닥을 오목하게 깎아내고, 바닥에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담갈색의 유를 씌웠으며, 빙렬이 있다.

②(사진3-6-①, 도면1-6) : ①번의 잔에 비해 구연의 외반이 적고 몸체 저부의 꺾임이 더욱 예리한 형태로, 편평한 안바닥의 가장자리에는 원각이 있다. 문양장식은 없으며, 태토에는 잡티가 소량 섞여 있지만 양질이다. 굽은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좁다. 안바닥을 오목하게 깎아내고, 바닥에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광택이 좋은 백유를 씌웠으며, 빙렬은 없다.

(2) 窯道具 : 다수의 개떡이 수습되었다.

● 개 떡 : 크기가 조금씩 다를 뿐 모두 동일한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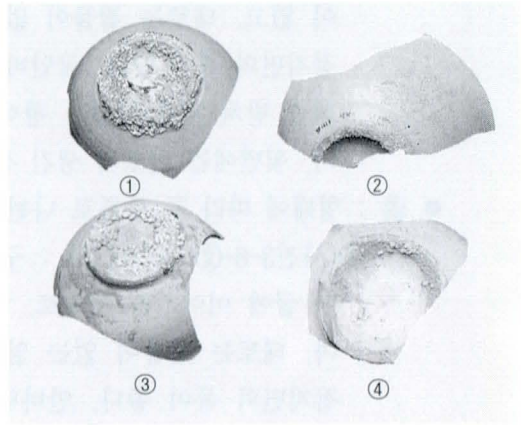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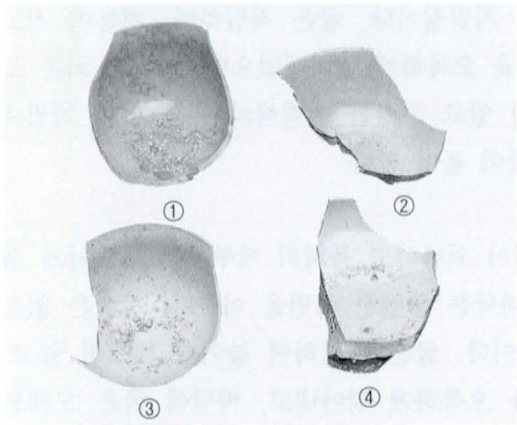
①(사진3-7) : 원반형으로, 경사진 가마의 바닥에 그릇을 수평으로 올려놓기 좋게 하기 위하여 한 쪽은 얇고 다른 한쪽은 두껍게 만들었다. 마사토질의 내화재료로 제작되었으며, 윗면에는 그릇을 놓았던 자국과 모래받침의 흔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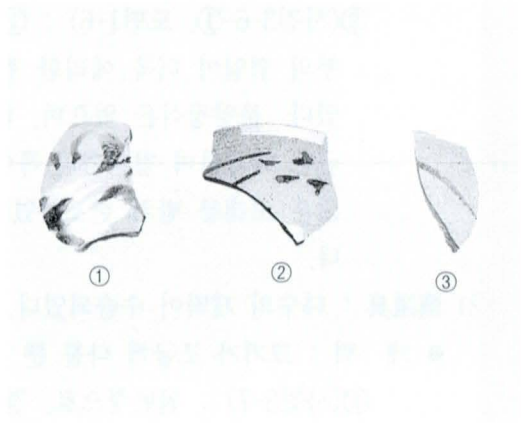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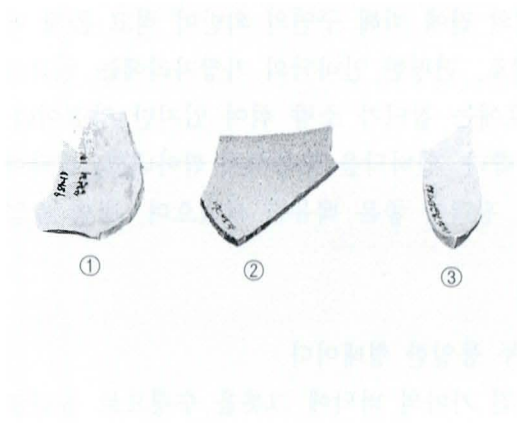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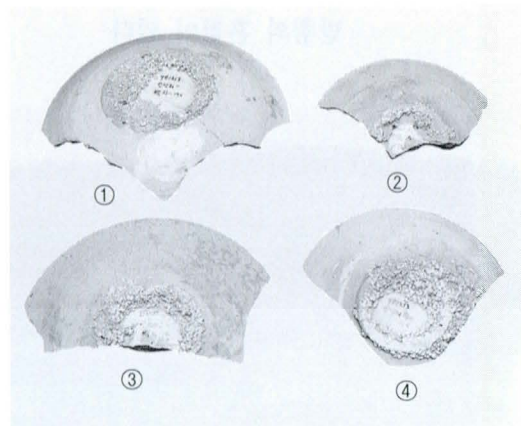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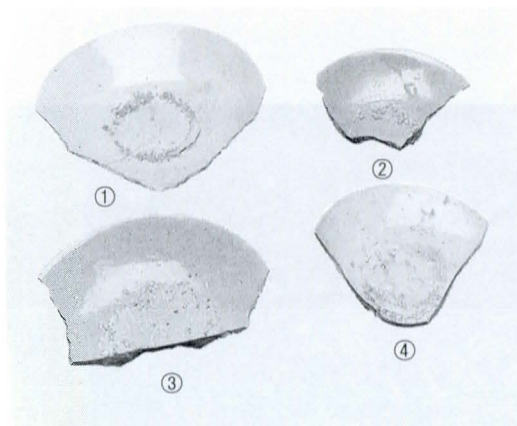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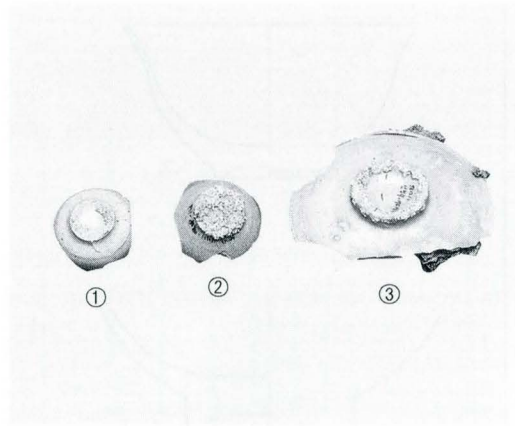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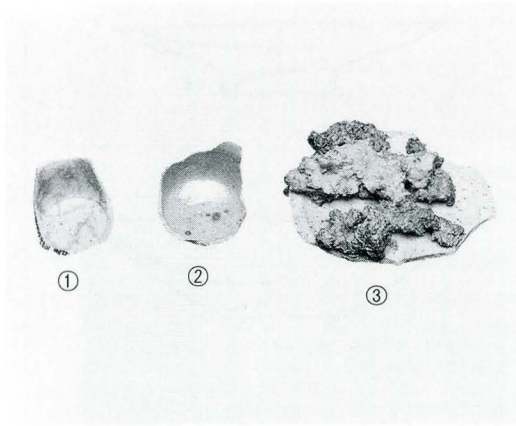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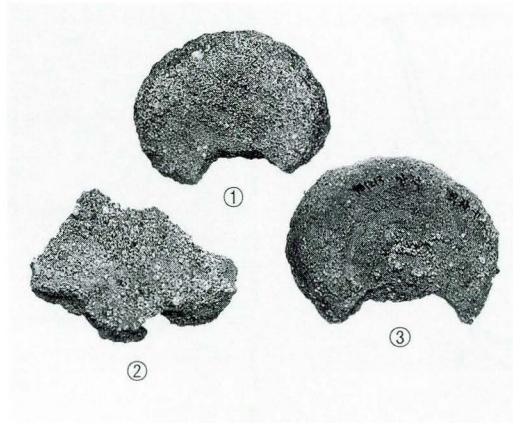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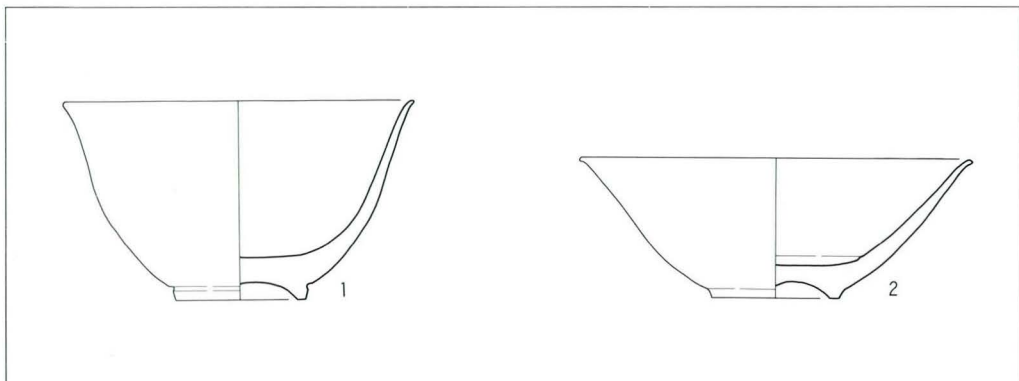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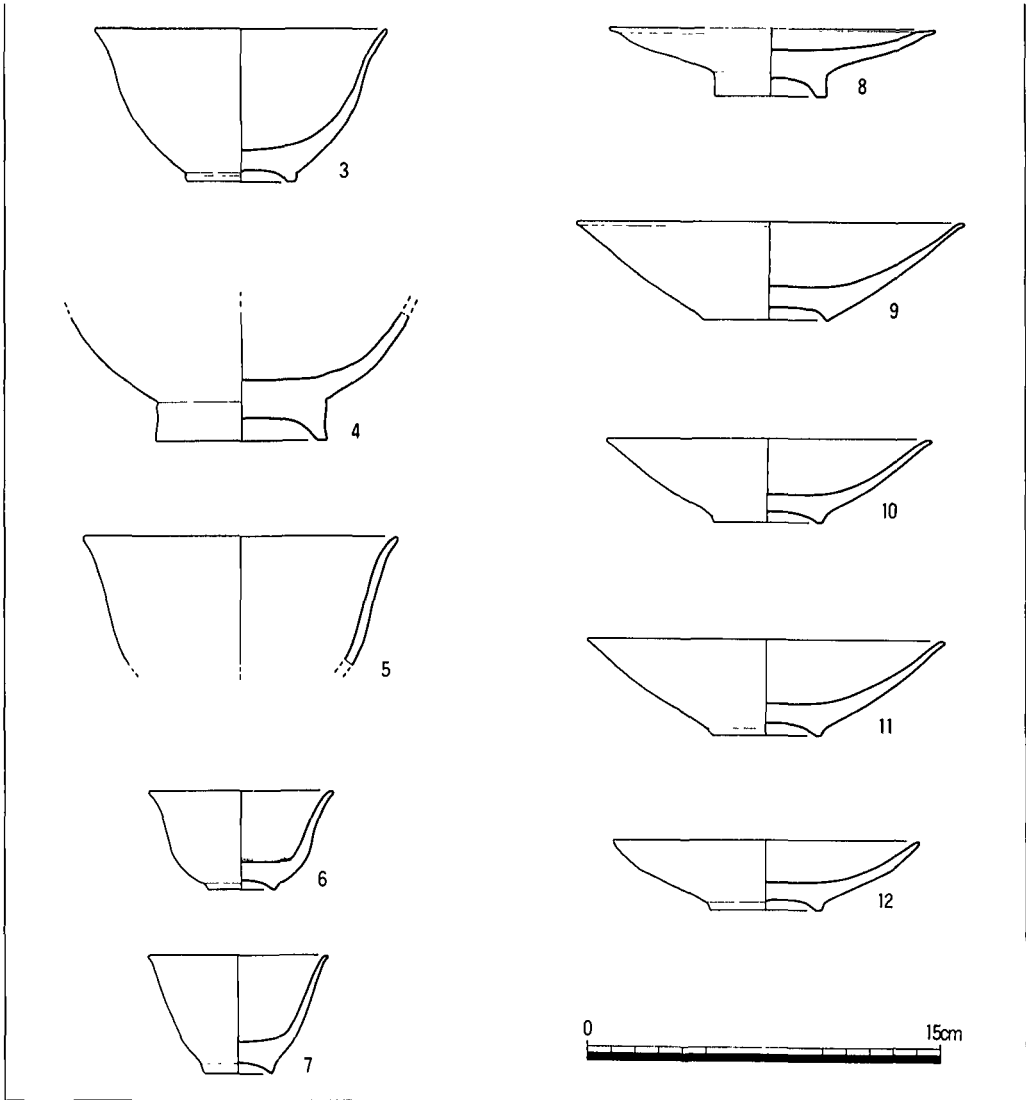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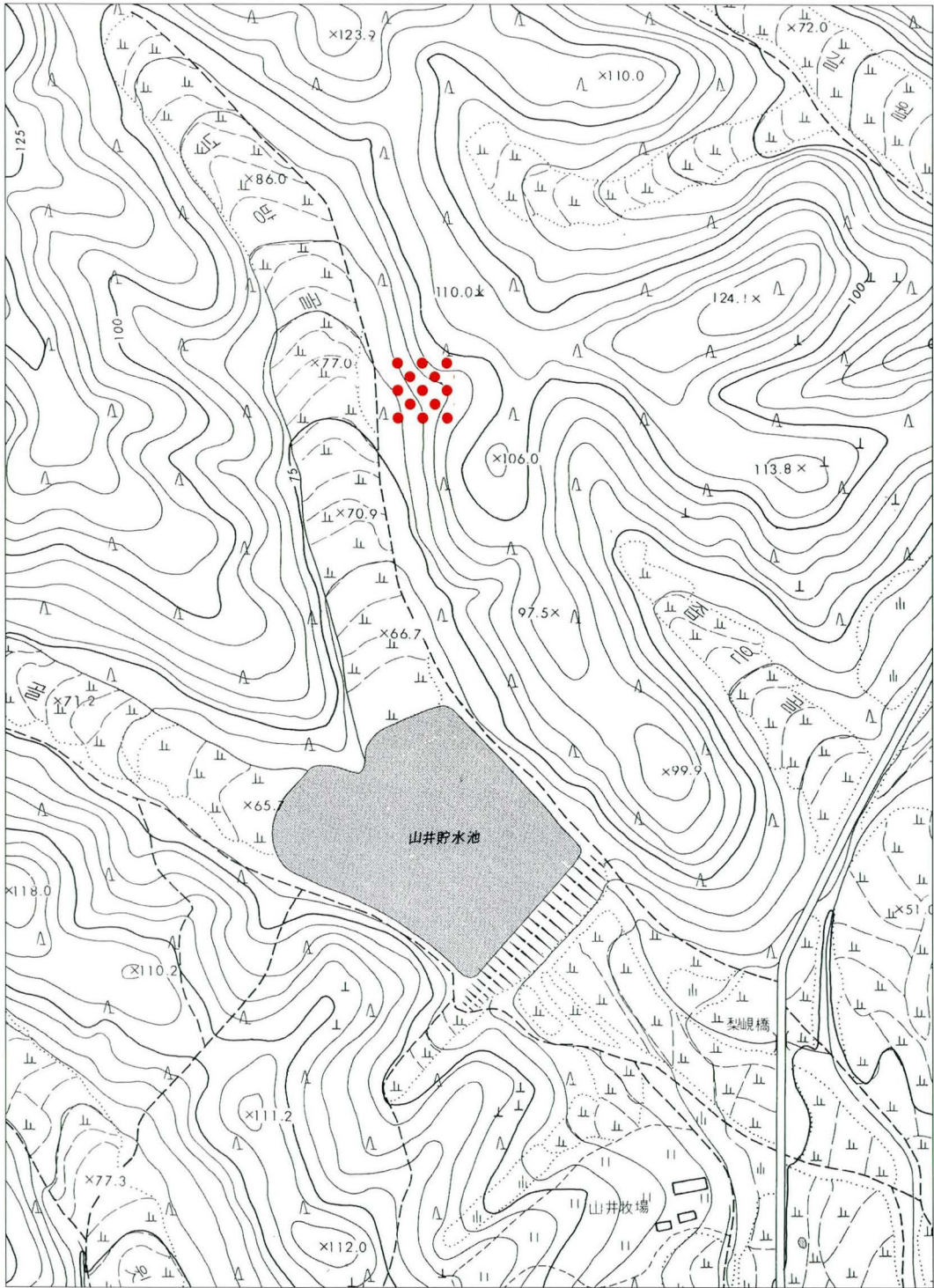
7

사진 3. 안성시 양성면 산정리 요지





도면 1. 안성시 양성면 산정리 요지



지도 3. 안성시 양성면 신정리 요지



이

백

용인시사총서 3  
한신대학교博物館調查報告書 第 10冊  
용인의 도요지 지표조사 보고서

---

1999년 4월 25일 印刷

1999년 4월 30일 發行

편 집 용인시·용인문화원

: 용인시사편찬위원회

발 행 한신대학교 박물관

447 - 791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411

TEL 0339) 3706 - 594 FAX 0339) 372 - 1882

인 쇄 : 도서출판 학연문화사

☎ 02) 865-5072 FAX 02) 853-3679

---

(非賣品)

이

박



# 용인의 도요지

지표조사 보고서